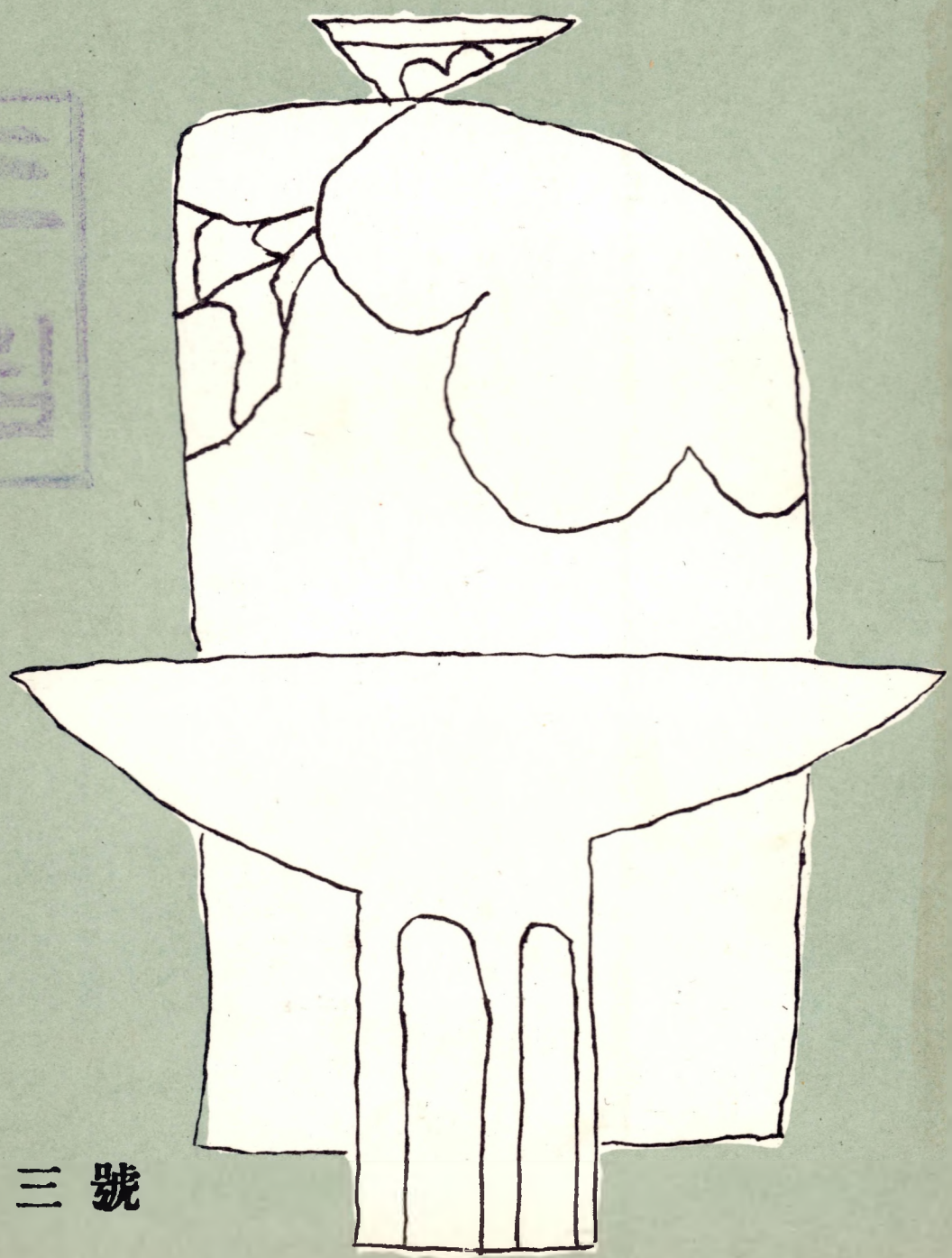
藝術院報



第三號

빈 면

藝術院報 第三號 目次

題字……孫在馨
裝幀……金煥基
扉畫……裴濂
目次書……都相鳳
藝術院賞授與式記念書報……(一)
民族文學樹立十年小史……朴鍾和(三)
(詩) 항아리……吳相淳(一三)
文化批評의 여러 主題들(論文)……趙演鉉(二三)
閑雲黃葉(東洋畫)……高羲東(五一)
新劇史槪觀……柳致眞(五三)
書藝(隸書·草書)……孫在馨(六七)
(詩) 冬至의 詩……徐廷柱(六九)
엘 그레고作 聖 프란시스고 諸圖像에 關한 小攷……張勃(七一)
國樂의 過去와 將來……成慶麟(八一)
(詩) 詩作十篇……金東里(九三)
七十年의 靑春 베카소……金鄕岸(一〇五)
李箱의 人間과 文學(評論)……鄭泰鎔(一一五)
藝術院의 沿革과 業績槪況……(一三五)
예술원 사무국 직제……(一四六)
藝術院賞 授賞 書報……(一四七)
孫會員 祝賀 紀念書報……(一四八)
會議錄……(一四九)
編輯後記……(二〇一)

(詩) 남의집살이……廉想涉(一五六)
(詩) 老松賦……朴琦遠(一五四)
創作 어머니……金末峰(一六六)
IV Finale (Fugue)—Suite(作曲)……金聖泰(二〇〇)
for string orchestra

빈 면

빈 면

第 5 回　藝 術 院 賞 授 賞 式

藝術院賞＜學術院賞＞授賞者　記念撮影一日時　4292, 7, 17一場所　圓覺寺

빈 면

民族文學樹立·十年小史

朴 鍾 和

一、民族主義文學과 共産主義文學의 對決過程

잊혀지지 않는 十五年前 八月十五日、불같이 뜨거운 老炎인데도 불구하고 日帝裕仁의 降服하는 목소리를 라디오로 듣는 韓國사람들의 歡喜는 누구나 絶頂에 올랐던 것이다。

서울 안에는『建準』이 構成되고、安在鴻은 라디오를 通하여 人民들의 秩序維持에 努力했던 것이다。

이 때 서울에는 日本關東軍이 물러가지 않고、平壤에는 蘇聯軍이 闖入한 채로 美軍은 九月下旬에야 비로소 南韓에 上陸하기 始作하였으니 一個月餘는 眞空과 같은 거의 亂麻의 狀態였다。

날마다 南大門驛으로 蘇聯軍隊를 歡迎하러 나간다는 群衆들은 左翼에 使嗾되어 數千數百名이 붉은 기빨과 붉은 푸라카드를 높이 들고 蘇聯의 革命歌를 크게 부르며 街頭에 넘쳐흘렀고、八月十七日 頃에는 左翼行動文化陣을 展開하려는 林和、金南天、李源朝、李泰俊、安懷南、朴泰遠等이 當時 建國準備委員會中의 勤民黨과 呼吸을 같이 하였다가 나중에는 南勞黨의 指令을 받들어 文化建設協議會의 看板을 내걸고『文學』『美術』『音樂』『演劇』『言論』等 各 同盟의 傘下團體를 急造했고、또다시 舊『카프』派의 殘滓인 尹基鼎、朴世永、李箕永、韓雪野等은 茶洞에 푸로藝術同盟을 形成하여 누가 蘇聯의 嫡子이고 庶子인 싸움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南勞黨의 指令을 받들어 文學家同盟을 組織하고 그들의 機關紙인『文學』을 隔月로 刊行하는 한편 中央協議會를 文化團體總聯盟으로 代替하여 完全히 南韓地域의 赤色文化團體의 領導權을 잡았던 것이다。

이 때 나에게는 左翼文化團體에서 誘惑의 魔手를 뻗쳤던 것이니、作家 李泰俊은 나를 찾아와서 先輩의 資格으로 中央協議會에 出

席해 주기를 再三 要請했던 것이다。

나는 卽席에서 이것을 拒否했다。所謂 中央協議會의 所在處는 日帝時代의 文人報國會를 接受하여 韓青『빌딩』에 두었었는데 四層建物앞에 드리운 『懸垂幕』에는 純全한 赤色主義文學을 讚揚하는 스로간이 붙어 있었다。

여태까지의 李泰俊의 文學은 絕對로 共產文學의 路線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一九三五年 以後에 『文章』을 主宰해 왔고、그의 作品의 모든 主人公들은 淡淡한 純粹文學의 東洋畵的 色彩를 가진 文學의 思惟者였던 것이다。나는 正色하고 李泰俊을 나무랬다。李泰俊은 唐慌하여 그 卽席에서 『懸垂幕』은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걸렸던 것이요、萬一 林和나 金南天이가 共產文學的 體臭를 發散한다면 自己는 단연코 詩人 鄭芝溶과 함께 民族陣營으로 돌아올테니 先輩인 月灘先生은 自己를 믿고 會議에 出席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中央協議會의 確固한 態度가 드러나지 않는 限 出席하지 않을 것을 披瀝하였다。

또 한가지 나에게는 나의 心境을 더듬어보는 일을 當했던 것이다。

當時 『쏘베트』의 領事館은 貞洞에서 벌써 活躍을 開始하였었다。

이름은 잊었으나 總領事와 副領事 두사람은 通譯 한사람을 데리고 내 집을 찾아와서 日帝治下에서 二十餘年 동안 民族文學을 守護하였다고 위로하면서 作品의 發表된 數와 文學的性格을 물어보는 것이었다。

나는 日本治下에서 窒息된 民族魂을 小說로써 隱然中 蘇生시키기 위하여 『待春賦』『多情佛心』等을 썼다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그者들은 至再至三 앞으로 解放된 民族文學의 素材를 어떻게 取扱할 것인가 물어보았다。

나는 終始一貫하게 日帝밑에 生長못했던 民族文學을 建設할 뿐이라 對答했다。

그者들은 그래도 못알아 듣는듯이 새로운 民族文學은 어떻게 새로이 써 나가겠는가 하고 여러차례 물었다。

나는 『民族文學이란 낡고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다』하고 一蹴해 버렸다。이때 이것을 가만히 坐視만 할 수 없는 것이 民主主義 및 民族主義 文人들인 極히 少數人의 態度였던 것이다。나와 李殷相、方仁根、梁柱東、吳宗植、金永鎭等은 太古寺 안에서 大韓文藝協會를 組織한 일이 있었고、金珖燮、李軒求、異河潤、金晋燮等은 中央文化協會를 組織하였고、『藝術部落社』의 趙演鉉、『女性文化社』의 郭夏信、『生活文化社』의 郭鍾元、『文化創造社』의 金容浩、『白脈社』의 金潤成들은 中堅 徐廷柱、金東里、趙芝薰、崔泰應、金達鎭、兪東濬等

으로 한 「클럽」을 이루어, 林和, 李泰俊 一派와 合流하기를 拒否했으니, 實로 右翼文化陣營은 사람의 수효로는 微弱했던 것이다。

解放後 混亂된 潮流속에서 政治上의 分裂로 因한 文化部面의 分裂은 結局 兩大 이데오로기의 對蹠됨을 따라서 左右翼에 相反하는 文化運動이 展開되어 왔던 것은 이미 世上이 다 아는 노릇이었다。

우리가 가장 골치를 앓은 일은 우리 民族文化陣營의 文化活動은 財政關係로 荊路를 밟으면서 크나큰 活氣를 띠지 못한채, 精神的으로만 昂然한데 對하여 左翼文人들은 左翼政黨및 社會團體의 積極的인 援助를 받아서 破竹之勢로 活潑히 내달았던 것이었다。

달리도 무려 數三個의 豪華스런 月刊物을 機關紙格으로 刊行하는 한편 音樂、演劇、映畵等으로 盛大한 盛典을 베풀어 發表의 地域을 擴張하여 一般의 關心을 사고 있는 反面 우리 民族陣營 文化團體에서는 恒常 微微한 形態로 다만 情熱 하나만으로 共產系列의 精神的 攪亂과 侵略에 對抗 防禦하기에 燥急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表面的으로 나타난 效果를 본다면 一般社會人은 勿論 一部文化에 對한 期待가 民族文化陣營에보다 左翼文化陣營에 더 컸던 것이다。

이리하는 途中에 五·十選擧에 依하여 國會가 成立되고 大統領이 選出되며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자, 民族文化陣營의 活動은 多少 活氣를 띠고 活潑한 氣勢를 漸次로 높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民戰』의 完全한 一 補助機關格으로 그 指令밑에 行動하는 左翼文化陣營 및 그 系列(文聯)에서는 多少 活氣를 回復한 民族文化陣營의 活動을 全幅的으로 妨害하고자, 갖은 謀略을 다해왔을 뿐더러 直接的으로 갖은 妨害工作을 다하였다。그러자 韓國政府는 UN총회를 통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라 우리 民族文化 진영에서는 보다더 확고한 理念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全國文化人 總蹶起大會가 성대히 거행되었고 결하여 행동을 活潑히 갖게 되고 계속하여 機關紙 發刊等의 새로운 氣勢를 보여주는 데 이르렀다。

이처럼 民族文化陣營의 事業에 정진을 보게 되고 그 氣勢가 날로 旺盛하여짐을 엿본 左翼文化陣營에서는 現實의 情勢가 自己진영에 不利함을 깨닫고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越北을 敢行하거나 또는 地下로 파고 들어가게되어 表面上으로는 民族陣營이 승리를 하고 左翼陣營이 敗北하여 비로소 思想의 混亂을 免케 되었던 것이다。

雨後竹筍같이 나온 雜誌와 新聞들—解放된 八月十五日以後 自由의 脚光속에 旺盛하게 氾濫한 태세로 새로운 新聞이 刊行되

었으니 倭帝의 진흙발길에 다시 짓밟혔던 『東亞日報』『朝鮮日報』는 民族精神을 衛護했던 百戰老將이라 다시 旗幟를 들어 民族을 옹호하는 데 鮮明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每日新報』는 日帝총독부의 기관지로 그 기능을 喪失한 뒤에 『서울신문』이 그 機構를 接受하여 初代社長으로 葦滄 吳世昌翁、會長으로 權東鎭翁이 就任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기 시작하였고 民世 安在鴻은 『漢城日報』、張道斌은 『民衆新聞』을、鄭寅翼이 『自由新聞』을、李相昊가 『中央新聞』을、嚴恒燮이 『民主日報』를、洪燦이 『平和新聞』을、『케토릭』機關紙 『京鄕新聞』이 社會로 진출하였고、英字報로 『서울·타임스』、『코리아·타임스』、그리고 次期 조금 뒤늦게 나온 新聞으로 梁又正의 『聯合新聞』、盧俊熙의 『國都新聞』、宋志英의 『太陽新聞』『世界日報』等이 있고、新聞이외에 雜誌와 週報로는 『烽火』、金松이 主宰한 『白民』『先驅』『藝術』『人民』、趙演鉉이 主宰한 『藝術部落』『大潮』、中央文化協會의 『中央旬報』『開闢』『新建設』『民衆朝鮮』『民心』『人民』、高麗文化社의 『民聲』、서울신문社의 『新天地』『新文化』、郭鍾元의 『生活文化』『海東公論』、金潤成等의 同人誌 『白脈』『革命』『革新』、郭夏信의 『女性文化』『朝鮮評論』『青年』『時代公論』『캐토릭青年』『太陽』、乙酉文化社의 『學風』『兒童春秋』『革進』、金容浩의 『文化創造』『自由評論』『學兵』『輿論』、左翼의 『朝鮮文化新聞』『研政』『朝鮮經濟』『音樂』『綠十字』『農民』『創造』『國際報道』『中央論評』、左翼文學家同盟의 機關紙 『文學』、閔庚植의 『新文學』、『戲曲文學』等 이루다 枚擧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고、地方에서도 『嶺南文學』과 같은 優秀한 文學雜誌가 發刊되었다。

이것은 解放直後 서울을 中心으로 하여 南韓에서만 發行된 것이다。

解放을 뒷받쳐 北韓共產黨들이 平壤에 勢力을 펴기 以前에 平壤에서 發刊된 雜誌와 新聞의 數는 서울만은 못했으나 그 數가 적지 않았다。

二、浮薄한 越北文人群

오늘날 우리가 順調로이 解放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叙上의 모든 문화機關이 계속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또 長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相當한 높은 수준의 文學的 昂揚을 가져왔을 것이 확실했다。

이 때 一九四五年 十二月에 印刷하여 一九四六年 一月一日字로 創刊된 『大潮』에서 우리는 그 때 文學에 對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 『大潮』란 雜誌는 編輯 兼 發行人이 李弘基란 사람으로 얼마 안되어서 原稿를 蒐集하여 印刷한 것이며, 아직 좌익공산주의문학자들의 문학가동맹을 결성하기 直前의 李泰俊이나 金南天이나 李源朝나, 지금은 北韓괴뢰의 허수아비가 된 洪某의 태도를 어느정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제목은 『碧初를 둘러싼 文學談義』이다。

이 때 座談會의 出席者는 碧初와 李泰俊、李源朝、金南天、네사람이었던 것이다。

잡깐 그 때、그들의 분위기를 옮겨보기로 한다。

『源』 大體 지금 文學史的 見地로 보면 最近朝鮮文學을 三期로 나눌 수 있고、初創期로부터 今日까지 活躍하신 분、다시말하면 우리 문학을 創造하신 분이 세분 계신데 그분中에서 今日까지 文學을 지켜오신 분으로는 碧初先生 한분이 남아 계실 뿐입니다。그리고 碧初先生에서부터 三十代의 저희들에게 이르기까지의 中間期間은 비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읍니다。

勿論 金東仁氏나 朴鍾和氏같은 분이 現在까지 꾸준히 作品活動을 해오시지만 그 몇분만을 빼놓으면 空虛한 感이 없지 않읍니다。지금 우리들 三、四十代의 사람들이 가령 앞으로 朝鮮文學史를 쓴다면 李光洙같은 이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碧』 朝鮮文學史에서 崔南善、李光洙 두사람을 無視할 수는 없을 테지。

『南』 歷史的인 史實이니까——

『泰』 文學 業蹟으로야 無視할 수 없겠지요、그러나 그들의 作品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碧』 作家와 作品과의 거리문제는 앞으로 많이 討議되어야 할 문제일 줄 아오。

이렇게해서 그들은 民族主義的 立場에서 사람과 文學精神을 論議하려 했고 또한 사람의 志操와 文學의 行爲를 分析하려 하였다。

그다음에 그들은 『小說的 歷史와 歷史小說』이란 提議밑에 이런 말을 했다。

『碧』 나는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있소。歷史小說을 短篇으로 써보면 어떨가。

즉 歷史的 사실에서 『테마』를 잡아서 단편을 쓰되、時代順序로 써모으면 歷史小說이라느니보다 小說형식의 歷史가 되려니 一面으로는 民衆的 歷史도 되려니 생각했소。

近世五百年 歷史에서 例를 들어 말하면、「善竹橋」「咸興差使」「難而難」「六臣」等 재료는 얼마든지 있을 테지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記錄해 가면 그것은 宮廷記錄으로만 그칠게 아니라, 나아가서는 民衆의 歷史가 될 테지。그래서 그런 것을 取材해서 단편을 써볼 생각이 있었소。

이 사람은 지금은 이북 좌익진영으로 無定見하게 쫓아가서 落魄을 하여 憂愁의 歲月을 보내는 者中에 하나이지만, 단편역사소설을 써보겠다고 自己의 熱意를 披瀝한 말속에, 忠臣은 不事二君이라 하여 開城 善竹橋에서 李太宗의 部下 趙英珪의 鐵堆에 맞아 殉節한 鄭圃隱先生의 그 氣魄을 높이 추앙해서 小說을 쓰려고 했고, 河緯地, 柳誠源, 成三問, 朴彭年, 李塏, 兪應孚, 死六臣의 民族的 正氣를 취재하여 단편을 써보겠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사람들이 當時 解放直後의 初期부터 공산주의적인 惡辣한 思想을 가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웠다。그들은 다시 『作品과 作者와의 거리문제』라는 對談에 있어서 이런 말을 주고 받았던 것이다。

『南』‖作家의 誠實이라는 것도 문제되어야 할 줄 아는데。

『源』‖重要한 문제지。이제부터 앞으로는 誠實한 文學者만이 成功할 것이요, 文學者는 항상 자기를 반성해 가면서 자기의 世界觀을 갖는 동시에 文學者들로서의 「모랄」이 있어야 할 거야。「모랄」없는 작가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줄 압니다。

『碧』‖그것은 文學部門뿐 아니라 生活全般의 문제지。

『源』‖特히 學問에 있어서는 彼此에 경계해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그들은 道德과 倫理인 「모랄」을 文學에 가져야 하겠다고 强調하였다。特히 文學上의 「모랄」이란 客觀的으로 成立된 도덕이나 習俗化된 倫理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作家는 自己의 主觀을 作品 속에 전개하여 비로소 個性을 가진 獨特한 人間을 創造하는 것이다。이럼으로써 「모랄」은 作家의 個性을 要求하는 것이요, 作家의 「모랄」은 作家마다 獨創的인 自由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레-닌』의 宣傳主義를 信奉하는 共產主義 文學人으로서는 이러한 個性의 文學的 「모랄」을 찾는 放言을 到底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 경박한 名譽와 虛榮에 날뛰는 分子들은 아무런 共產主義에 대한 批判과 知識도 없이 마치 불나비가 영문도 모르고 불을 향하여 뛰어들어가서 마침내는 불에 타서 죽듯이, 공연한 虛名에 휩싸이고 몰려서 醇正한 民族文學에 反旗를 들고 월북을 했다가 末路에 가서는 死刑과 追放이 아니면 落魄의 苦杯를 마시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 林和와 金南天은 朴憲永과 함께 肅淸이 되어 死刑에 處했다는 것과, 李源朝는 감옥에 流刑되고, 李泰俊은 落魄의 몸이 되었다

는 것은 歸順한 傀儡空軍大尉들의 證言에 依하여 이미 新聞紙上에 報道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볼때 우리는 文士들의 文學하는 一貫된 主義와 主張을 弊履아니면 草芥와 같이 氣分的으로 輕薄하게 轉換變節해서는 안 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三、十年間의 重要한 作品과 新人들의 登場

共產主義文學人들과 思想的으로 치열한 투쟁을 계속하면서 六·二五 事變、一·四後退、때 大邱 釜山等地에서의 悲慘한 避難生活은 十年間 文學作品·創作의 空白的인 時間的 拋棄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상태에 處해 있었으면서도、四二八二年(一九四九)六月 以後의 金晋燮이 主宰하던 서울신문社 出版局의 刊行雜誌 「新天地」와、四二八一年(一九四八) 八月에 創刊號를 낸 毛允淑、金東里、趙演鉉等이 主宰하던 雜誌 「文藝」는 民族陣營의 새로운 문학鬪士들을 六·二五사변 전까지 꾸준히 세상에 내보냈다。

八·一五 以後에 새로이 한국문단에 登壇된 사람은 小說에 十五、六名 以上 詩에 二十餘名 合해서 三十餘名의 新人들을 이 酸鼻의 極인 人類史에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動亂中에서 輩出하였다는 것은 앞날의 韓國文壇을 위하여 진실로 마음든든한 기쁜 일이라 생각한다。

十年間 空白을 메운 좋은 작품을 일일이 枚擧할 수 없으나、詩集으로는 徐廷柱의 『歸蜀途』、朴木月、朴斗鎭、趙芝薰의 『靑鹿集』、解放後에 作故한 詩人 尹崑崗의 『피리』、柳致環의 『生命의書』、不幸히 九·二八 收復前日에 破片에 맞아 돌아간 金允植의 『永郎詩選』、宋稷의 『誘惑』、金相沃의 『衣裳』、朴斗鎭의 『午禱』、趙芝薰의 『풀잎斷草』、李相魯의 『歸路』、金珖燮의 『마음』、李雪舟의 『順伊의 家族』、金春洙의 『旗』、金宗文의 『不安한 土曜日』、金永三의 『푸른섬』、毛允淑의 『옥비녀』、盧天命의 『窓邊』、具常의 『具常』、申瞳集의 「抒情의 流刑」、趙炳華의 『貝殼의 寢室』、朴琦遠、崇載亨의 『寒火集』、金東鳴의 『眞珠灣』、金南祚의 『나이르의 香油』、丁薰의 『머들嶺』、薛昌洙、李敬純、趙眞大의 『三人集』을 들 수 있고、小說로는 長篇에 黃順元의 『카인의 後裔』、廉尙燮의 『驟雨』、朴榮濬의 『愛情의 溪谷』、金光洲의 『太陽은 누구를 위하여』、崔貞熙의 『綠色의 門』、金末峰의 『太陽의 眷屬』、金來成의 『愛人』、朴啓周의 『불』、短篇으로는 金東里의 『歸還壯丁』、安壽吉의 『第三人間型』、吳永壽의 『머루』、崔仁旭의 『底流』、金松의 『男寺黨』、金聲翰의 『暗夜行』、方基煥의 『童妾』、朴容九의 『안개는 아직도』、柳周鉉의 『姉妹系譜』、郭夏信의 『新作路』、孫素熙의 『梨羅記』를 들 수 있고、또다시 마음든든한 것은

一九五五年부터 『現代文學』과 『文學藝術』(뒤에 廢刊) 等이 다달이 活潑하게 刊行되어서 新人의 精銳인 金利錫、孫昌涉、張龍鶴、郭鶴松、金聲翰、鄭漢淑等의 實力있는 분들이 다달이 活躍精進한 것은 우리의 文運을 위하여 기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四、評論과 戲曲 隨筆

三·一運動을 前後로 하여 일어난 文藝復興 初期와 新傾向派 以後에서부터 民族陣營文學과 『카프』文學 兩方의 眞摯한 論評은 評論界에 있어서 相當한 盛觀을 이루었던 것이요、解放以後에 있어서도 右翼民族陣營과 左翼共產陣營과의 對決的 論爭이 二·三年 동안 旺盛했으나 左翼진영의 越北以後의 評壇은 寂寞하기 짝이 없었다。

評論現役으로 白鐵、李軒求、洪曉民、尹崑鍾、林肯載、趙演鉉、郭鍾元、兪東濬等이 있으나、李軒求는 公務로 多忙하여 이 期間에 沈默을 지켰고、白鐵은 避難地가 水原、大田이었던 까닭에、一·四후퇴 이후 大邱、釜山의 文化 集中處에 있지 않았으므로 論評이 활발하지 않았고、尹崑鍾은 解放以後 沈默을 지키고、남은 사람은 趙演鉉、郭鍾元、兪東濬、洪曉民뿐인데 近者엔 沈默을 지키기 始作해서 評壇은 寂寞하기 짝이 없다。最近에 孫宇聲의 月評이 가끔 新聞과 雜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적막한 國文學評壇을 위하여 기쁜 일이다。

戲曲은 이 나라에 不毛之地。文藝復興 初期에 있어서도 活潑하지 못하던 戲曲作家는 解放以後 十年間에 있어서는 더욱 零星한 感이 있다。戲曲作家로 柳致眞의 獨舞臺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隨筆文學도 評論、戲曲에 못지 않게 寂寞하다。더우기 金晋燮이 六·二五事變에 傀儡軍에게 拉致된 뒤에 專門的인 수필가는 찾을 길이 없다。女流수필가 田淑嬉가 『蕩子의 辯』을 출판하여 聽川 金晋燮의 『生活人의 哲學』『敎養의 文學』의 뒤를 받친 듯한 感이 있으나 아직 더좀 人生解剖에 深刻하지 못하다。

이 밖에 李殷相의 『爐邊筆談』、馬海松의 『戰塵과 人生』、金基鎭의 『心頭雜草』、柳致環의 『隨擔錄』이 나와서 隨筆界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할 수 있다。

五、一·四 後退와 地方文化의 發展

六二·五사변에서 九·二八收復까지 三個月 동안은 暗黑의 궁지였지마는、九·二八의 再生의 歡喜와 國軍및 聯合軍의 楚山、碧潼、

慶興、穩城、定州、宣川까지의 破竹의 勢를 띤 進擊도 十一月頃 中共軍介入의 侵略行動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의 興南撤收의 悲劇과 함께 言論機關과 모든 文化人들은 一條生命의 活路를 찾아서 大邱와 釜山으로 後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一九五一年 一月以後부터 一九五三年 또는 一九五四年 初春까지의 만三年간 釜山과 大邱는 避難의 首都와 軍本部의 都市가 되고 보니 모든 文學人의 大部分은 이 곳으로 集中하였고、또한 그들의 生命과 生活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新聞社가 아니면 雜誌社요 軍의 글을 쓰는 囑託이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出版社가 大邱와 釜山으로 피난을 했고 출판사의 권위와 生命을 유지하는 곳은 또한 書籍을 旺盛하게 刊行하는 일이며、피난처에서 차츰차츰 약간의 安定性이 보이고、前線에서는 休戰까지 되게 되니、釜山、大邱지방에서는 活潑하게 新聞이 刊行되고 잡지가 나오니、신문과 잡지는 文藝를 아니 실을 수 없고、이리하여 文人들은 茶房 한구석에서 원고를 쓰고 판갓집 다락에서 作品을 구상했다。뿐만 아니라 大學 中學이 모두다 임시 도시 부산으로 모였으니、一躍 釜山의 文化는 三年안에 大서울을 연상케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지방지인 『民主日報』 『釜山日報』 『國際新報』는 그 紙面이 서울서 피난내려간 모든 신문을 훨씬 능가했고 잡지로도 『希望』 『學園』 『新太陽』 『思想界』 『自由評論』等의 大雜誌가 부산에서 탄생한 것이요、이 밖에도 『新潮』 『新生公論』 『新思潮』 『다이제스트』가 발간되었고、속간된 것으로는 『新天地』 『文藝』 『新少年』 『새벗』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한 가지 附言할 것은 大邱 文星堂에서 國家와 國體에서도 刊行못하는 『年刊詩集』으로 영리를 떠나서 해마다 刊行하여 一九五四年 版을 세상에 내보내주었다는 것은 우리 詩文學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文學史料를 위하여 감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六、今後의 文學界의 展望

우리들은 또다시 國難이 온다면 快하게 붓을 던져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還都 以後에 우리는 점차로 문학창작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우리들은 빨리 지나간 空白의 時代를 메워야 할 것이다。말하자면、우리 民主主義의 民主文學徒는 한시바삐 우리 문학과 예술의 本道로 돌아가서 불행했던 공백의 시대를 倍加의 힘으로 塡充해야 할 것이다。

이 眞摯한 創造와 硏究의 努力만이 大韓民國의 文化財의 價値를 높이는 同時에, 모든 自由진영 人類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共産主義의 강압적이요 命令的으로 造成되는 宣傳文學에 對決해서 韓國의 예술문학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빛난다는 것을 世界에 聞揚시키는 좋은 機會가 될 것이다。

(爲先解放後로부터 十年까지를 써본 것이다。앞으로 다시 後十年의 小史를 쓸 機會가 있으리라 생각한다。——筆者——)

항아리

항아리와 더불어 삶의 꿈을 어루만지는 朝鮮女人의 마음

空超 吳相淳

朝鮮의하늘빛과 젖빛구름과
그윽한高靈土와 朝鮮의꿈과

蒼空에물결치며 달리는山脈
大地에구비치며 흐르는長江

春夏秋冬四時의 눈부신調和
燦爛한日月星辰 우렁찬旋律

이自然이造化의 脈搏과呼吸
길이스며흐른다 朝鮮항아리

하늘빛모수치마 허리에감고

이슬맺는달밤에 호올로서서
너를어루만지는 나의속마음
살뜰히씻는내맘 너는아리라

이내마음허전해 어루만지고
답답고서글퍼도 어루만지고
우울하고설어도 어루만지고
외롭고쓸쓸해도 어루만지고

심심코무료해도 어루만지고
내靈魂적막해도 어루만지고
이내마음꽉차도 어루만지고
이내마음텡벼도 어루만지고

懷疑에잠기어도 어루만지고
感情이격동해도 어루만지고
感覺이까란져도 어루만지고
神經이날카워도 어루만지고

둥그런수박같은 빛난흙그릇
길게흐른流線形 藝術은길어

항아리는百하나 莊嚴도할사
황금寶玉일없네 그건죽은것
항아리는내分身 呼吸이通해

찼다볐다自由다 내마음따라
있다없다自在다 나의뜻대로
채면차고비면벼 내멋의創造
꽃과달을배우는 敬虔한道場

後園의장독壇은 내꿈의祭壇
좋와서설은生命 呼吸의法庭
짧고긴내살림의 意慾의秘庫
크고작고나란히 내맘의秩序

길고둥근흙그릇 丹粧한그멋
高麗磁器靑磁器 縹渺한神韻
李朝磁器白磁器 沈潛한雅淡
梅蘭竹菊四君子 香氣도높고
사슴거북十長生 氣品도좋아
人生과自然歸一 調和의極地

흙으로빚인네몸　약간다쳐도
生動하는숨결이　멎어지려니
文明歷史자랑는　人間의몸도
흙으로빚어내진　傳說슬프다

내키커도다섯자　진정서그퍼
네키커도다섯자　너도그러리
無限을限定한양　너와내身勢
永遠을주름잡은　나와너立體
사람손에빚어낸　너의存在나
너에게손은없되　줄자리있어
내손에쥐어지고　어루만져져
가만히서고앉아　내사랑받네

禪定에든네모양　나는애달퍼
瞑想에깊이든잠　깨워보련다

발돋음하여볼까　누가더큰가
나의발은自由나　너는선뱅이
나는屈伸自在나　너는어이해

自然生命네속에 스며흐르고
天才靈魂네속에 아득히動해
뚜렷한너의性格 손에잡히고
안뵈는네발돋움 心眼에비쳐
수집은네속삭임 귀속에아련
소리없는네微笑 恍惚도하다

春風秋雨四時節 씻고또씻고
日光月光雲影속 채우고비고
이슬서리비눈에 多彩한表情
裕豊한네살림의 旺盛한意慾
달밤에꾸는네꿈 설은에로쓰.

一片丹心내사랑 알뜰한사랑
병들어여윈때도 너를못잊어
玉泉샘淨安水로 채우고비고
聖體같은네몸에 不淨이탈까
어루만져씻고사 이맘놓이네

여기고초장단지 저기간장독

장아찌꿀항아리　게장굴단지
김치깍두기단지　菊花술단지
옹기종기늘어서　百花로繚爛
철철이때따라서　味覺을피어
家族生理靈理의　生長을돕고
生日잔치돐잔치　神明께빌고
明節慶節祝賀로　장만한餘裕
一家親戚이웃에　나누어먹고
淨誠을다한祭酒　고이빚어서
祖上의奉祭祀날　손꼽아고대

항아리속이비면　내마음비고
항아리속이차면　내마음차네
항아리속이차면　내마음비고
항아리속이비면　내마음차네

빈마음찬것비어　빈맘채우고
찬마음빈것채워　찬맘비우니
항아리와나와는　循環因果律
쪼갤수없는運數　豫定의調和

빈속에無가숨어　有를꼬이고
찬속에有못견뎌　無를부르네
有無의숨박꼭질　끝도없거니
有無의끝나는곳　涅槃寂滅宮

寂滅宮에가는길　하도멀기에
時空을주름잡은　曲線항아리
가슴속銀河水에　烏鵲橋놓아
牽牛織女만나듯　靈魂을꾀어
寂滅宮우리님을　저彼岸인양
此岸方寸에뵈는　필로소피아.

항아리의아득한　설은에로쓰.
久違의길동무냥　손을이끌고
모르고아는길　뵈는항아리
어루만져씻는맘　너는아리라
채우고비는마음　너는아리라

항아리어루만져　世事를잊고
항아리거문고타　내꿈달래네

달래도또달래도　깊어만가는
끝없는이내꿈은　단지에어려
달래도또달래도　깊어만가는
끝없는이내꿈은　단지에어려
보고보고또봐도　또보고지고
자셋치항아리의　끝없는曲線
아지못할사이에　넋을꼬이어

어깨춤절로나고　노래제절로
아득한아리랑재　넘겨주는뜻
거문고가야금줄　타지않건만
龍宮月宮樂師들　伴奏하누나
그윽고神秘할사　흙그릇造化
眞善美聖의饗宴　天來의消息

네꿈이내꿈인가　내꿈네꿈가
내꿈이항아릴가　네가내꿈가
내꿈이스며들어　네꿈빼앗고
네꿈이밀려들어　내꿈뺏으니
꿈과꿈交流融合　分間없고녀

꿈과꿈의審判者　두꿈밖의꿈
꿈밖의꿈꿈속꿈　깨임없는꿈
깸없으니無의꿈　이꿈참꿈가
두어라꿈打鈴은　끝도없거니
永遠히애태우는　속모를이꿈

(舊稿)

文化批評의 여러 主題들

趙 演 鉉

1、「하소연」과 文學

「하소연」이란 말이 있다。「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우리말 사전」에 說明되어 있듯이 「呼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人間이 言語나 文字를 發明하게 된 根本的인 動機는 모든 人間은 서로서로가 「하소」할 것을 가진 때문이며、人間은 누구나 「하소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動物이었던 까닭에서인지도 모른다。

人間의 모든 生活樣式은 그 全部가 「하소연」의 한 形態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藝術活動은 가장 直接的인 「하소연」의 形式이며、言語活動은 그와 같은 「하소연」의 가장 代表的인 形式이다。

文章活動을 「하소연」의 한 形式으로 볼 때 「日記」와 「書翰」은 「하소」의 두개의 基本的인 한 形式이 된다。即 前者가 自己에게 向한 「하소연」이라면、後者는 自己以外의 사람에게 向한 「하소」이다。「하소연」은 自己에게 하거나 남에게 하거나 그 두가지 方向밖에는 없다。대개의 사람들은 「하소연」이란 남에게 向해서 행하는 것으로만 알기 쉽지만、남을 위해서 타이르는 말이 事實은 自己를 달래기 위한 말이며、自己 혼자 지껄이는 獨白이 事實은 남에게 向해서 행해지는 말인 境遇가 있는 것은 「하소연」이란 心理學上으로는 그것이 남에게 向했을 때든 自身에게 向해졌을 때든 自己와 남을 共通으로 그 對象을 삼고 있는 것임을 意味한다。

日記가 自己自身에게 向한 「하소연」이라면 書翰은 남에게 向한 「하소연」이다。모든 文章活動이 「하소연」의 한 形式이라면 모든 文章活動은 「日記의 精神」에 基礎되어 있거나、「書翰의 精神」에 基礎되어 있거나、「書翰의 精神」에 基礎될 수밖에는 없다。

「日記의 精神」이 「스스로 慰安을 얻고 싶은 精神이라면、「書翰의 精神」은 「남에게서 慰安을 받고 싶어하는 精神」이다。 이 두개는 그것이 다같이 「慰安을 얻고자 하는 精神」인 點에 있어 그 形式은 다르나 다같이 「하소연」이란 點에 있어 日記와 書翰이 같은 것과 같이 서로 同一한 것이다。

흔히 우리는 自身(作者)을 위한 文學이냐、남(讀者)을 위한 文學이냐 하는 말들을 듣게 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文學은 「日記의 精神」에서 씌어질 것인가、「書翰의 精神」에서 씌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것이 「日記의 精神」에서이든 「書翰의 精神」에서이든 文學이라는 것이 根本的으로는 「하소연」이라면 自己(作者)를 위한 文學은 무엇이며 남(讀者)을 위한 文學은 무엇인가。 一級의 文人에겐 이것은 언제나 같은 하나의 問題가 아니었던가。 三流以下의 文人에게만 이것이 恒常 問題였던 것이다。

2、「임」의 文學的 意味

우리나라의 옛날 詩歌를 보면 「임」이 많이 노래 불리어지고 있음을 본다。 特히 詩調에는 「임」이 가장 普遍的인 題材가 되어 있고、그 主題도 大部分이 「임」으로 因한 人生의 喜悲哀樂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文學的 現象은 一九二〇年代의 우리 詩歌에서도 볼 수 있는 일로서 韓龍雲의 「님의 沈默」은 그런 것의 代表的인 것이고、金素月의 大部分의 詩도 「임」을 노래하고 있다。

×

「임」이란 무엇인가。 國語辭典을 찾아보면 「그리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說明되어 있듯이 愛人이나 戀人의 代名詞인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詩歌에 나타나 있는 「임」은 반드시 愛人이나 戀人의 代名詞만이 아니라、어떤 境遇에는 祖國이나 民族을 象徵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 鄭夢周의 저 有名한 「임향한 一片丹心이야……」하는 詩調는 바로 「임금」을 가리킨 것이요、韓龍雲의 「님의 沈默」속에 나타나 있는 「임」은 祖國이나 民族인 境遇도 있고 愛人이나 친구를 말한 境遇도 있다。

×

「임」이 愛人이나 親舊를 가리키고 있든、民族이나 國家를 象徵하고 있든、또는 그 밖의 그 무엇을 表象하는 用語로 使用되고 있든간에 그러한 것과는 아무 相關없이 「임」이란 그 詩人에게 있어 感情의 가장 集中的인 表象인 것만은 틀림없다。 한詩人의 生命

의 焦點이 熱幕의 對象이 感情의 가장 高熱的인 絕頂이 「임」으로써 表象되었던 것이다。그러므로 이 境遇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그 「임」이 愛人이냐 戀人이냐 또는 民族이냐 國家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한 詩人이 그의 生命과 情熱의 全部를 바칠 對象을 가지고 있었다는 點에 있다。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의 詩人이나 前記한 韓龍雲이나 金素月의 詩는 훌륭했는지 모른다。

×

現代의 詩人들은 어떤 「임」을 가지고 있는가。그 「임」은 반드시 愛人이나 民族이 아니라도 좋다。自己의 靈魂의 全部를 바쳐 自己의 生命의 全體를 바쳐 그것을 위하여 살고、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임」이 있는가?現代詩人의 特徵은 오히려 그러한 「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은 아닌가。現代詩人들이 「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現代詩人들은 自己의 感情이나、情熱을、또는 自己의 生命이나 靈魂을 그것에 集中시킬 對象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意味가 된다。

이것은 幸福한 일일가。現代詩人들은 自己의 生命이나 靈魂을 송두리째 그것을 爲하여 맡길 아무런 對象이 없다고 할는지 모른다。그리고 愛人이나 임금에 그의 全部를 바쳤던 옛날의 詩人이나 前記한 韓龍雲、金素月等을 素朴한 純情人이라고 冷笑할지 모른다。그러나 그러한 高級한 冷笑가 스스로의 「임」을 가졌던 사람들에 比해서 무엇이 偉大하다는 것일가。偉大한 것은 스스로의 「임」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닐가。

×

옛날 詩人들이 그의 愛人이나 임금을 또는 自己의 祖國을 「임」으로써 그의 全部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옛날 사람들의 愛人이 現代人의 愛人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왔거나 더욱 훌륭했던 때문이 아니며、옛날의 임금이나 祖國이 現代의 그것보다 仁慈하거나 偉大했던 때문도 아니었다。다만 옛날 사람들의 情意가 그만큼 아름답고 훌륭했던 까닭에 지나지 않는다。아름다운 것과 偉大한 것은 반드시 客觀的인 事實의 問題가 아니라 어떠한 對象 또는 事實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또는 偉大하게 解釋할 줄 아는 主觀的인 精神의 能力의 問題이다。神이 實際로 存在하든 存在하지 않든 神의 觀念을 創造한 것이 바로 人間의 偉大한 能力인 것처럼 現代詩人들이 스스로의 「임」을 갖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精神의 能力을 喪失한 까닭에서가 아닐가。

×

文學은 그 무엇보다도 精神의 能力이 그 基礎가 된다。精神의 能力이 貧弱하면 아무리 좋은 條件속에서도 훌륭한 文學은 創造될 수 없고、精神의 能力이 豊足하면 아무리 어려운 條件속에서도 훌륭한 文學은 創造될 수 있다。저 가장 暴惡했던 帝政露西亞의 壓政下에서 偉大한 「도스도에프스키」가 있었던 것처럼……。그러므로 現代의 詩人들에게 가장 基本的으로 要求되는 것은 저 엣날의 詩人들처럼 스스로의 「임」을 가질 줄 아는 精神의 能力을 갖추는 일이다。

이 精神의 能力이야말로 創造的 力量이며、이 創造的 力量이란 바로 文學精神이 아닌가。現代人의 「임」은 愛人이나 祖國이 아니어도 좋다。엣날 사람들이 「임」으로서 그들의 最上의 삶의 길을 가졌던 것처럼 現代의 最上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임」이면은 된다。

잃어버린 「임」을 찾아 이것이 現代人들의 「테에제」가 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면 이것도 冷笑받을 素朴한 純情이 될가。

3、調和에 對하여

美의 原理나 槪念에 對해서는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그것은 結局은 調和의 아름다움을 意味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가。萬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면 美란 完全한 것의 別途의 意匠이라고도 볼 수 있다。그것은 調和란 不完全한 것을 補充한 또는 서로 相剋된 것을 調節한 完全한 것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

文藝思潮史를 心理學的으로 分析해 보면、文學은 恒常 調和를 追求해 간 것이 된다。그것은 古典主義의 嚴格한 形式的 規律에 反旗를 든 浪漫主義는 古典主義의 形式偏重의 缺陷을、浪漫主義의 感情的 幻想的 方向에 反旗를 든 自然主義의 主觀、偏重의 缺重의 缺陷을、自然主義의 非主體的 非精神的 方向에 不滿을 품은 象徵主義는 自然主義의 機械的인 客觀 偏重의 缺陷을 各各 補充 및 調節하려는 意慾이 그 無意識的인 心理的 動機였다고 解析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心理的 動機는 不完全한것을 좀더 完全한 것으로 만들어 보려는 慾望이 努力이 아닐 수 없다。

×

흔히 우리는 特히 詩에 있어서 主情的인 것을 拒否하고、主知的인 것을 좀더 價値있게 생각하려는 傾向을 본다。感性偏重의

缺陷을 知性으로써 補充하려는 努力인 點에 있어 이것은 發展的인 意慾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重要한 것은 主情的인것이 그 感性偏重으로 因하여 不具의 精神이라고 한다면 主知的인 것은 그 知性偏重으로 因하여 이것 역시 不具의 精神이라는 點이다。完全한 精神이 感性이나 知性의 그 어느 한편으로만 偏重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 ×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흔히 西歐的인 것이니、東洋的인 것이니 하여、東·西의 一方的 價値에 치우치는 境遇가 많다。世界的인 것만이 가장 完全한 普遍性이라면、그것이 西歐的인 것이든 東洋的인 것이든 不具의 價値가 아닐 수 없다。그것이 精神이든 思想이든 完全한 것은 모두가 調和된 것을 意味한다。

× ×

調和의 精神은 비단 藝術이나 精神이나 思想에만 限定된 것일가。人間의 모든 生活이나 政治나 經濟가 모두 完全하기를 바라는 이상 그러한 모든 것은 모두 調和의 論理위에 서야 할 것은 아닐가。孔子는 일찍기 中庸의 德을 말했다。中庸이란 調和의 다른 名稱에 지나지 않는다。人間의 모든 生活의 理念이 調和에 있기 때문에 生活의 美를 創造하는 藝術의 原理가 調和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調和의 喪失은 不具이다。우리는 이와 같은 不具를 免해야 할 것이 아닐가。

4、映畵의 藝術的 限界

얼마前 「카라마죠브의 兄弟」란 映畵를 보았다。「罪와 罰」이나 「안나·카레니나」나 「戰爭과 平和」나 「보봐리夫人」을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의 失望을 느꼈다。

「톨스토이」의 「안나·카레니나」나 「푸로벨」의 「보봐리夫人」은 勿論 結果的인 行動에 있어서는 姦婦의 性質을 띠우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는 過程에는 여러 가지 肯定的인 人間的 苦惱이 있었던 것인데、映畵의 「보봐리」나 「안나」에는 그러한 것이 全혀 나타나 있지 않고 「戰爭과 平和」에 있어서도 「톨스토이」의 「피엘」은 至極히 知的이며 內省的인 人間인데 比하여 映畵의 「피엘」은 그러한 要素가 被動的인 無力의 形式으로서만 表現되어져 있었다。

「罪와 罰」에 있어서는 「라스콜니코프」의 殺人의 動機가 가장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인데、映畵의 「라스콜니코프」는 돈 때문

에 殺人한 것처럼 되어 있고、原作者인 「또스또엡스키」가 「라스콜니코프」를 通해서 말하려고 한 超人의 思想이 斷片的으로 暗示되기는 했으나、原作의 精神이나 粉圍氣와는 全혀 딴것 이 映畵에는 나타나 있다。

이번의 「카라마죠브의 兄弟들」에 있어서도 原作은 「아료샤」에게 極히 重大한 意味를 賦與해 있고、또한 「이반」의 思想에 特異한 興味가 集中되어 있는데、映畵에서는 「또미뜨리」가 中心이 되어 있다。勿論 映畵는 事件 中心으로 處理되어야 하기 때문에 映畵化하는 데 있어서는 「또미뜨리」를 前面으로 내세울 수밖에는 없을는지 모르나、이 때문에 「이반」이나 「아료샤」가 原作의 思想이나 性格과는 딴 것이 되어 버리면 原作과 映畵는 全혀 別個의 作品이 되어 버린다。

以上은 所謂 말하는 文藝映畵의 代表的인 一例들인데、그 代表的인 一例들인 以上의 文藝映畵들을 그 原作과 比較해볼때 모두가 完全히 失敗한 一例들이다。

이와 같은 文藝映畵의 失敗의 原因은 무엇일가。여기에는 두가지의 理由가 있는 것 같다。그 하나는 映畵의 藝術的 歷史가 아직 짧기 때문에 映畵가 文學性을 아직은 完全히 表現해 낼만한 力量을 못가진 까닭이며、그 또하나는 映畵는 運命的으로 文學이 表現해 주는 藝術的 思想的 創造的 機能을 못가진 것이라고 解析되는 것이 그것이다。

文藝映畵의 失敗의 原因이 萬一 前者라면 우리는 映畵의 將來에 아직도 많은 期待를 걸어볼 수 있고、萬一 그 理由가 後者에 있다면 映畵는 結局은 하나의 娛樂的 生產品에 그칠 것이 아닐가。映畵의 藝術的 限界에 對해서 關心을 모아볼 時期가 이제는 온 것이 아닐가。

5、悲劇에 對하여

「悲劇」이란 元來 「喜劇」과 相對되는 演劇上의 用語로서 「人間이 그 運命과 싸워서 勝利한 明朗과 幸福의 詩」가 「喜劇」인데 比하여 「人間이 그 運命과 싸워서 敗北한 不幸과 悲慘의 詩」가 「悲劇」이다。이 때문에 흔히 「悲劇」이란 말은 「不幸」이나 「悲慘」의 뜻으로 또는 그 修飾語로서 많이 使用되고 있음을 본다。그러나 「悲劇」이란 말은 이 兩者와 決코 混用될 수 없는 다른 槪念이다。그것은 「不幸」이나 「悲慘」은 運命의 結果 또는 그 結果의 樣相에 對해서 使用되는 말인 데 比해서、「悲劇」이란 그보다는 運命의 性質에 對해서 使用되어야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가령 善과 惡의 對立과 衝突이 있을 때 이 兩者의 對立

이나 衝突은 決코 悲劇的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當然한 對立이요、衝突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와는 달리 善과 善이 서로 衝突되고 對立되었다면 이것은 悲劇的인 것이다。그것은 이 兩者의 對立이나 衝突은 決코 當然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

이 世上에는 온갖 不幸과 悲慘이 많다。天災와 같은 自然的인 것으로부터 人間 스스로가 빚어내는 人爲的인 各種의 社會的인 것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러한 不幸과 悲慘에 맞부딪치는 것인지도 모르다。

그러나 정말 괴로운 것은 不幸이나 悲慘이 아니라 悲劇이다。善意와 善意가 惡意나 怨讐처럼 서로 生死를 決해야 되는 各種의 人生的 樣相은 바로 그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社會上의 모든 不幸과 悲慘의 樣相을 善惡의 對立이나 衝突로서만 생각한다。人生의 모든 不幸과 悲慘이 單純히 善惡의 對立이나 衝突에서 빚어지는 것이라면、그 不幸과 悲慘이 아무리 苛酷해도 人生에게는 苦惱이 없을 수 있다。人生이 정말 苦惱속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 善이며 惡인지 輕率히 判斷할 수 없는 데 있는 것이며、보다더 重要한 것은 善과 善이 서로 對立되고 衝突하는 것이며 그것이 반드시 不幸과 悲慘의 結果를 가져오는 데 있다。

×　　×

대개의 境遇 父子間의、夫婦間의、또는 民族對 民族、國家對 國家間의 모든 軋轢과 葛藤은 그것이 惡意와 惡意의 對立이기보다는 善意와 善意의 衝突인 境遇가 더 많다。그리고 人生의 모든 悲劇의 大部分은 그와같은 衝突과 對立에서 빚어진다。이렇게 보면 산다는 것은 그 自體가 무슨 演劇의 臺詞처럼 悲劇인지도 모른다。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生活의 具體的 樣相인 것인가。悲劇이란 바로 이렇게 矛盾의 運命을 말하는 것이다。

6、宇宙時代와 倫理問題

原子彈이 實地로 投下되었고 달나라에 「로켓트」가 發射되고 人工衛星이 地球를 旋回하고 있는 時代는 分明히 宇宙時代다。宇宙時代라는 槪念은 人類가 地球에만 依存하는 生活에서 그 生活舞臺가 地球 以外의 全體의 全部에까지 擴大되는 것을 意味한다。이와같은 宇宙時代는 勿論 現在 당장에 모든 人類에게 生活化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아직도 試驗的인 極히 限定된 範圍에

그치고 있으나, 現代科學의 急激한 發展은 그와 같은 宇宙時代를 未久에 實現시킬 段階에 가있는 것이 事實이다.

×

人類의 生活이 地球에서 天體 全般에까지 擴大되므로서 우리의 地球的 生活樣式에 하나의 커다란 變動이 생길 것은 거의 疑心할 수없는 豫測이지만, 人工授精으로 因한 人間의 生殖活動도 人類生活이 宇宙時代化해 가는 具體的 變化의 一例로 볼 수 있다. 人工授精으로 因한 胎兒分娩은 이미 試驗的 領域을 벗어나 相當히 廣範圍로 行해지고 있는 現代的 生殖生活의 一例이지만, 이와 같은 方式이 그 種類나 性質을 달리하여 우리의 生活의 모든 部門에서 行해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道德的 感情이나 倫理的 意識에도 一大變化가 招來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人工授精으로 誕生된 人間에 있어서는 父子의 感情이나 倫理가 傳統的인 그것과는 그 性質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 그와 같은 一例가 된다.

×

이와 같이 展望해 볼 때 宇宙時代의 道德이나 倫理가 어떻게 變遷될 것인가는 興味있는 問題가 아닐 수 없으며 이미 宇宙時代에 接近해 가고있는 現代人에게 있어서는 그 問題가 가장 重要한 課題로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아무리 生活樣式이 變化되고 科學의 急進的인 發展이 있어도 人間이 社會生活을 하지 않을수 없는 以上 새로운 生活이나 새로운 科學에 適應되는 새로운 道德的 倫理的 基盤이 없을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宇宙時代의 處한 現代文學人의 가장 基本的인 課題가 놓여 있다고 볼것이다. 그것은 文學 이란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새로운 道德이나 倫理의 發見이며 追求이기 때문이다. 宇宙時代의 生活의 基準이 될 道德的 倫理的 感情이나 秩序는 어떤 것일가. 모든 現代文學人은 이것이 가장 큰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닐가.

7、文明과 幸福

文明의 發展에 對하여 關心을 가지는 사람은 많으나 幸福의 增進에 對해서 關心을 가지는 사람은 적다. 大部分의 사람들은 文明의 發展이 그대로 幸福의 增進이라고 生覺하고 있다. 정말 그런 것일가.

驛馬가 飛行機로 轉換되고 萬里의 異域과도 通話가 된다. 距離는 놀랄 만큼 短縮되고 勞力과 時間은 엄청나게 節約되었다. 이

와 같은 文明의 飛躍的 發展과 함께 人類의 幸福도 增進된 것일가。飛行機를 타고 다니는 現代사람은 驛馬로 旅行하던 사람들에 比해서 얼마나 더 幸福해진 것일가。萬里의 異域과도 앉아서 通話를 하는 現代사람에게 不幸은 이미 없어진 것일가。文明의 飛躍的인 發展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飛行機를 타는 現代人은 驛馬로 旅行했던 사람들과 꼭같이 不幸하다면 不幸하고 幸福하다면 幸福한 것이 아닌가。文明의 發展은 分明하고 確實했지만 幸福과 不幸의 性質은 한결 같이 같은 것은 아닌가。이것은 醫學의 境遇 더욱 그것을 確實히 알 수 있다。

×

現代 醫學의 發展은 分明히 놀랄만하다。難治의 많은 病들이 退治되었다。그러나 새로운 病名과 病菌은 거의 每日같이 새로이 發見되어가고 있지 않은가。새로운 病名의 患者는 現代醫學의 놀랄만한 發展으로 因하여 退治되는 患者의 數만큼은 增大해가고 있는 것이 事實이 아닌가。病菌을 退治하는 새로운 醫學的 方法이 생겨나는 것과 比例해서 病菌도 새로이 發展하는 것일가。文明의 驚異的인 發展과 飛躍에도 不拘하고 人間의 幸福의 問題는 恒常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가。새로운 病菌이 생겨나는 것처럼 새로운 不幸이 생겨나는 때문일가。病菌이 發展하는 것처럼 不幸도 發展하는 것일가。그렇다면 文明의 發展과 幸福의 問題와는 別個의 것이 되어야 한다。

×

흔히 사람들은 文明의 發展이 그대로 幸福의 增大라고 生覺하는 錯覺에 빠지기 쉽다。進步의 槪念은 決코 幸福의 槪念은 아닌것이다。現代人은 進步의 形式에 사로잡혀 幸福의 精神을 喪失한 것은 아닐가。幸福의 問題보다 進步의 問題에 더많은 關心을 가진 現代人은 確實히 그만큼 不幸한 人間이 아닐가。

8、藝術活動의 本質

얼마전 어느 시골 靑年이 自己의 處女詩集發刊이 挫折되자 그것을 悲觀하여 自殺했다는 記事가 있었다。이런 일은 文學靑年들에게 흔히 있는 일로서 自己表現이 人間에게 있어 얼마나 切實한 慾望인가를 보여주는 一例이다。自殺한 그 靑年이 自己의 詩集發刊을 그와 같이 渴望한 裏面에는 靑年다운 文學的 虛榮心이나 社會的 功名心도 勿論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重要한 것은

그 靑年이 自己의 詩集을 發表해 보고 싶었던 根本的인 動機나 原因은 自己를 表現해 보고 싶었던 慾望이었다는데 있다。自己表現이란 그것이 不可能하면 차라리 죽는것이 낫다고까지 생각할 만큼 人間에게 있어 그것은 切實하고도 重大한 本能이다。

人間의 모든 生活은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그 全部가 自己表現의 한 手段이거나 方法이 아니면 自己表現의 한 樣相이라고 볼 수도 없을가。自己의 家族에 對한 各種의 愛情이나 여러 形態의 社會的 理念이나 포부가 모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가。이와 같은 自己表現의 가장 代表的인 形式이 藝術이다。「아리스토테레스」의 「藝術起源論」에 「自己表現本能說」이 있는 것은 決코 偶然이 아닌 것이다。이렇게 보면 藝術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切實한 自己表現의 欲求에서 行하여지는 것이라고 믿어도 조금도 그릇된 것이 아닐 것이다。

옛날에도 全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特히 現代에 와서 모든 藝術活動은 그 大部分이 切實한 自己表現의 欲求에서보다도 더많이 社會的 要求에 應해서 行해지는 감이 없지 않다。藝術이 作者의 個人的 滿足이나 趣味에서가 아니라 넓은 社會的 欲求에 應해서 行해지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그것은 그것이 藝術이든 藝術이 아닌 그 무엇이든 人間의 모든 文化的 現象은 社會的 意義에 依하여 그 價値가 規定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重要한 것은 自己의 切實한 欲求에서 行하여지지 않은 藝術活動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切實한 欲求에 應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다。

歷史上의 偉大한 藝術的 獨創者들은 그 大部分이 百萬人의 滿足이나 拍手보다는 먼저 自己自身이 滿足할 수 있는 데 있었다。그러나 神通한 것은 이와 같은 藝術家들의 藝術만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래도록 그리고 가장 깊게 共感되고 共鳴되어져 온 事實이다。自己自身의 切實한 欲求에서 보다도 恒常 讀者나 聽衆이 무엇을 要求하는가 그것만을 살피기에 餘念이 없는 大多數의 오늘의 藝術家들은 이 平凡한 事實에 새로운 覺醒을 가져볼 必要는 없을가。

9、斷想集

A、學問과 藝術과 文學

事實을 取扱하는 것이 學問이라면 事實의 意味를 取扱하는 것이 藝術이다。事實이 眞實을 構成해 준다면 事實의 意味는 人

間의 靈魂을 構成해 준다。事實보다는 事實의 意味가 더 重要하고、眞理보다는 人間의 靈魂이 더 重要한 것처럼 藝術은 學問보다도 훨씬 더 重要하다。賢明한 學者는 이것을 알고 있다。이러한 藝術이 갖는 事實이 意味와 靈魂의 構成을 가장 廣範圍하게 人生에 適用시킬 수 있는 機能에 있어서는 어떠한 藝術도 文學을 따르지 못한다。賢明한 藝術家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B、商品性과 社會性

文學에 있어서 商品的 價値와 文學的 價値는 반드시 並行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商品的 價値가 많을수록 文學的 價値가 貧困한 경우가 많다。大衆小說의 商品價値는 그러한 경우에 代表的인 것이다。그렇다고 商品的 價値가 없을수록 文學的 價値가 높다고 生覺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商品性이란 어떤 意味에서는 社會性을 가졌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詩보다는 小說이 商品的 價値가 높은 것은 小說이 詩보다 社會性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文學에 있어 그 商品的 價値를 너무 排擊하면 文學은 너무 孤獨한 것이 되고 만다。

C、詩人의 孤獨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 韓國에서도 詩의 讀者는 至極히 制限되어 있다。少數의 文學人과 二十代의 젊은 靑少年들만이 그 大部分의 讀者를 構成하고 있다。小說은 社會의 各層에 侵透되어가고 있지만、詩는 侵透되어 가지 못하고 있다。詩人의 見地에서 보면 大衆이 無知해서 그렇다 할 것이고、讀者의 見地에서 보면 詩의 影響力이 弱해서 그렇다고 볼 것이다。어느 쪽도 다 一理가 있지만 問題는 어느 쪽의 一理가 아니라 詩人의 孤獨이다。이러한 詩人의 孤獨은 두가지 方向으로 나아갈 수 있다。그 하나는 孤獨의 精神이 깊이와 높이 속에 있는 方向이요、그 또하나는 孤獨이 敗者의 獨善속에 있는 方向이다。이 두 方向은 하늘과 땅처럼 그 次元이 다르지만 現實的으로는 비슷한 現象을 나타낸다。詩人 自身이나 讀者들이 恒常 속기 쉬운 것은 詩人의 孤獨이 나아가는 이러한 두 方向에 對해서다。

D、文學家의 地位와 矜持

다른 나라에서는 그 性質이 좀 다르지만, 우리 韓國에서는 아직도 文學家의 社會的 地位는 창피할 程度다。長官이나 敎授나 國會議員이라 하면 좀 알아 주어도 文學이라 하면 洞會書記보다는 좀 나은 걸로 알아 줄 뿐이다。이러한 억울한 社會的 待遇에도 불구하고 모든 文學人들은 例外없이 自己가 特殊한 人物이라는 矜持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文學한다는 그것만으로 정말 矜持를 가질 수 있을가。

文學이 尊敬과 價値의 對象이 된 것은 그것이 文學이기 때문이 아니라 價値있는 文學이었던 때문이다。無價値한 것이 그것이 文學이기 때문에 尊敬의 對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文學의 價値를 파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自己가 얼마만큼 價値있는 文學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에 對한 깊은 懷疑와 信念도 없이 그저 文學하는 사람이라는 한가지 條件으로서 矜持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純眞한가。이와 같은 純眞한 사람이 많은 韓國의 文壇은 그만큼 幸福하다면 幸福하다고 볼 것이다。

E、文學과 現代文明

映畵와 테레비죤의 急激한 發達로 文學의 危機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앞으로는 아무도 따분하게 冊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文學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映畵가 테레비죤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 말은 映畵나 테레비죤이 文學의 職能이나 機能을 完全히 代行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잠고대 같은 이야기다。「파스칼」의 「빵세」나 「몽떼뉴」의 「瞑想錄」같은 것을 映畵나 테레비죤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일가。어림도 없는 이야기다。文學은 小說의 줄거리 같은 것이라고만 生覺하는 것은 文學에 對한 가장 淺薄한 無識이다。前記한 「빵세」나 「瞑想錄」같은 것이 文學의 代表的 形式이다。그러한 것은 아무리 世上이 變해도 文章에만 依存되는 形式이다。文學이 文章에 依存되지 않을 수 없는 以上 그리고 映畵나 테레비죤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文章을 代身할 수 없는 以上 文學은 언제나 建在할 것이다。

F、民主主義와 散文精神

現代는 民主主義時代다。現在가 民主主義時代라고 하는 것은 現代가 討論의 時代라는 意味가 된다。現代가 討論의 時代라고 하는 것은 現代가 散文의 時代라는 말도 된다。그것은 散文精神이란 討議精神을 말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現代의 散文의 優勢

는 現代의 民主主義와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는것은 아닐가。

G、民主主義와 貴族主義

民主主義가 좋은 意味에서 平等主義라면 나쁜 意味에서는 愚衆主義가 된다。天才와 바보가 同一한 一票의 權利를 가졌다는 것은 民主主義가 愚衆主義인 一例이다。貴族主義가 나쁜 意味에서 特權專制主義라면 좋은 意味에서는 少數의 選民主義가 된다。愚盲한 多數보다는 賢明한 一人의 知慧가 價値있게 發揮될 수 없는 것은 貴族主義인 一例이다。藝術에 있어서 貴重한 것은 恒常 精神이 貴族主義이다。이 貴族主義的 精神이 缺乏되면 詩精神이 缺乏된다。

10、民主主義와 文學

民主主義는 現代人이 生覺하는 最高의 理念이요 制度다。이것이 現代의 普遍的인 通念이라면 「民主主義와 文學」이란 問題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한 題目이다。民主主義란 그것이 어떻게 解釋되든 多數의 利益을 多數의 意思에 依해서 處理하는 思想이며 方法이다。여기에서 前者의 「多數의 利益」은 이를테면 民主主義의 本質이요、後者의 「多數의 意思」는 民主主義의 形式이다。이와 같은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의 文學은 民主主義의 그와같은 本質과 形式에 適合된 것이 되어야 할 것은 勿論이다。

×　　×

多數의 利益을 多數의 意思로서 決定하는 民主主義의 本質과 形式을 代表하는 것은 輿論이며 輿論을 日常的으로 代表하는 것은 「저너리즘」이다。그렇다면 民主主義社會의 文學은 「저너리즘」으로서 代表되는 文學이어야 할 것인가。「民主主義 文學」이라쎌 題目으로서 내가 最初로 부르짖는 懷疑는 여기에 있다。

×　　×

「저너리즘」으로 代表되는 文學이란 어떤 種類의 것인가。新聞의 連載小說은 그 代表的인 것이다。해마다 쏟아지는 「베스트 쎌라」도 勿論 이런 性質에 包含될 수 있다。그렇다면 新聞의 連載小說과 「베스트 쎌라」는 民主主義 社會에 있어서의 가장 民主的인 文學이라고 解釋될 수 있는가。적어도 그 形式的 條件에 있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그것은 가장 多數의 共感을 받은

것이니까 그러나 이 境遇 多數의 共感은 그것이 반드시 그 文學의 價値가 同一한 것은 아니다。

×

우리는 新聞의 連載小說이 가장 많은 讀者들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그러나 新聞의 連載小說은 그 文學的 價値에서 보다도 그 娛樂的 興味로 因하여 많은 讀者들 가지고 있을 뿐이다。新聞連載小說의 大部分의 讀者들까지도 自身의 그러한 事實을 알고 있다。每年 쏟아지는 「베스트 셀라」가 二、三年後면 곧 잊혀지지 않는 作品으로 되버린 例는 우리가 每年 經驗하는 일이다。

이것은 文學의 價値가 時事的 또는 一時的 共感에 依해서 定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恒久的인 價値에 依해서 確立되는 것임을 意味한다。우리에게 偉大한 古典으로서 傳承되어진 모든 作品들이 한결같이 小數의 讀者밖에는 갖지 못했으나 그것이 恒久的 永續的인 共感을 주었기 때문에 時間과 空間을 超越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다。

「多數의 利益」이라는 民主主義의 本質은 文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恒久的 永久的 價値를 意味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이렇게 보면 民主主義社會의 文學을 代表하는 「저너리즘」文學은 民主的 形式에 있어서만 民主的일 뿐 民主的 本質에 있어서는 오히려 懷疑的인 對象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

우리는 民主主義本質인 「多數의 利益」을 民主主義의 形式인 「多數의 意思」가 잘못 解釋및 判斷해 온 事例를 많이 보아 왔다。形式이 本質을 逆行한 實例는 民主主義社會에 日常的으로 나타나는 일이다。그러나 그것이 비록 잘못된 解釋이나 決定이라 할지라도 多數의 追從하고 多數의 正當性을 承認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原則이다。그러나 이러한 原則은 적어도 藝術의 價値問題에 있어서는 그대로 適用될수 없다。적어도 藝術의 問題에 있어서는 百萬人의 見解보다도 단 한사람의 見解가 더 正當할 수도 있다。이것은 藝術이 天才의 産物이라면 그것을 評價하는 데에도 天才的 靈感이 要求되는 때문이다。

×

民主主義는 多數가 基礎가 되는 思想이며 方法이다。이와같은 民主主義社會가 아니라도 文學은 언제나 多數에 基礎되기를 원해왔다。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 文學이 더욱 多數에 基礎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그러나 文學이 多數에 基礎되어지는

性質은 時事的 多數가 아니고、恒久的인 多數인 點에서 政治나 그 밖의 다른 民主的 樣相과는 判異한 다른 孤獨性을 가지고 있다。이 孤獨은 「저너리즘」의 民主主義 性格보다도 훨씬 더 貴重한 性格이다。民主主義의 本質이 民主主義와 形式보다 더 貴重한 그 以上으로——。

11、「코」의 思想

「콧대가 세다」는 말이 있다。驕慢하다든지 고집이나 自尊心이 强하다든지 하는 境遇에 使用되는 象徵的 用語다。이 말이 이와 같이 使用되는 것은 「코」가 人間의 人格的 品性이나 性格的 特性과 關聯된다고 생각된 데에서 緣由되었을 것이다。「코」가 어찌하여 人間의 人格的 品性이나 性格的 特性과 關聯되어진 것인가는 알수없는 일이지만 「코」의 美學的 觀相學的 意義는 누구나 생각해 볼수 있다。

× ×

「코」는 얼굴의 中心에 位置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중에서 가장 솟아있는 凸部이다。그러기 때문에 「코」의 美學的 價値如何는 곧 얼굴 全體의 美學的 價値에 重大한 影響을 준다。아무리 잘 생긴 얼굴이라 할지라도 코가 비뚜러졌다든지 너무 낮다든지 하면 그 때문에 얼굴 全體의 調和가 깨어지고 마는 것은 이 때문이다。그렇다고 「코」하나만 잘 생겼다고 해서 얼굴의 美學的 價値가 決定되는 것은 아니다。얼굴 全體가 비뚜러지고 醜惡하게 생겼는데 「코」하나만 아무리 잘 생겨도 그 얼굴의 美學的 價値는 成立되지 않는다。以上의 말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하면 「코」는 얼굴의 美學的 價値를 綜合的으로 代表해 주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觀相學에 依하면 「코」는 財運과 判斷力、表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厚潤한 「코」는 좋은 財運과 圓滿한 判斷力을 表象한다。「코」가 너무 날카롭다든지 멋없이 너무 크다든지 하는 것은 判斷力의 偏向(前者)과 財運의 多富內貧(後者)를 말한다。「코」의 觀相學的 價値와 美學的 價値는 반드시 一致되는 것은 아니지만、「코」가 너무 날카롭게 솟았다든지 너무 낮게 꺼져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 美學的 價値가 減少되는 것과 아울러 觀相學的으로도 좋은 運數를 말해 주는 것은 못될 것이다。이 말은 「코」는 그 美學的 意味에 있어서든 觀相學的 意味에 있어서든 얼굴의 全體와 調和를 얻어야 함을 意味한다。

「콧대가 세다」든지 「콧대가 높다」든지 하는 말들은 自尊心이나 고집과 같은 것이 適切하게 表示된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것이 度를 지나친 人格的 脫線이나 性格的 缺陷을 意味한다。이러한 脫線이나 缺陷은「코」가 얼굴의 全體的 調和를 깨뜨리고 제멋대로 서있는 사람의 美學的 觀相學的缺陷과 같은 것이 아닐가。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높은 自尊心과 强한 固執을 갖기를 원한다。自尊心도 固執도 없는 人間이란 廢鐵과 같은 無價値한 存在에 그치기 일수이기 때문이다。그러나 人間의「코」가 얼굴의 全體的 調和를 얻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自尊心이나 固執도 自己의 能力과 位置에 調和되므로 참다운 價値를 發揮하는 것이 아닐가。

12、「로오마」時代의 群衆心理와 現代의 輿論

「로오마」의 英雄「쥬리어스·씨이져」가 暗殺當한 直後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든「로오마」의 市民들 앞에서 行한「부루터스」의 演說과「안토니오」의 演說은 演說의 古典的인 두개의 類型으로서 有名하다。「씨이져」를 暗殺한 勢力의 主動者의 한사람인「부루터스」는「씨이져」를 暗殺한 것의 正當性을 力說했고、「안토니오」는 英雄의 暗殺이 反逆行爲임을 主張했다。이 兩者의 相反된 見解의 演說內容은「푸르다아크」의 英雄傳속에 記載되어 있고 그것이 거의 그대로「쉑스피어」의 戱曲「쥬리어스·씨이져」속에 轉載되어져 있다。

나는 이 두사람의 演說을 다같이 퍽 感銘깊게 읽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두演說에서 感銘을 받게 된 것은 前記 兩者의 主張이나 見解보다도 그 두사람의 演說속에 表現된 그들의 眞實과 自身의 眞實을 表現하는 그들의 修辭的 力量의 卓越性있은 것 같다。「부루터스」는 獨裁者인「씨이져」를 죽이는 것이 眞正으로「로오마」를 救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요、「안토니오」는「씨이져」를 暗殺한 것은「로오마」를 죽인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다。나는 그들의 그와 같은 主張의 그 어느 것이 정말 客觀的으로 正當한 것인가에 對해서는 어떠한 判斷도 내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그 두사람이 가진 그들의 그와 같은 信念의 眞實性에는 素朴한 感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그 表現의 卓越한 修辭的 能力에 驚嘆치 않을 수 없었던 사람이다。「부루터스」는 民衆의 理性的利害를 覺醒시키는 方式을、「안토니오」는 民衆의 義理的인 感情을 換起시키는 方式을 各各 取했지만、그 修辭的 方法은 그들의

主張이나 見解처럼 서로 正反對의 것이었음에도 不拘하고 그 두演說은 다같이 卓越한 名演說이었다。 當時의 「로오마」市民들이 이 두演說에 다같이 影響을 받은 것은 當然한 것이었다。「부루터스」의 演說이 끝났을 때 聽衆들은 「부루터스」萬歲를 부르며 「씨이져」를 暗殺한 것은 훌륭한 愛國的 行動이라고 讚揚했다。 그러나 그다음 瞬間에 登場한 「안토니오」의 演說이 끝나자 조금 전까지 「부루터스」萬歲를 외치던 바로 그 聽衆들이 「안토니오」萬歲를 부르며 暗殺者打倒를 외쳤던 것이다。 萬一 「안토니오」의 演說이 없거나 失敗했다면 「로오마」의 歷史는 달리 變更되었을 것이다。

이 곳에서 나는 그 當時의 「로오마」市民들의 理性的 無定見과 그 感情的 浮動性을 發見하는 者이지만 現代의 輿論은 「로오마」時代의 群衆心理와 얼마나 다른 것일가。

13、科學時代와 想像文學

原子彈 出現 以後 二十世紀는 科學時代에 들어왔다。現代를 宇宙時代라고 혼히 말하고 있는 것은 現代가 科學時代라는 別途의 表現에 지나지 않는다。이러한 時代에 있어서 想像文學의 位置를 다시 한번 生覺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意味에 있어 重要한 일의 하나가 된다。그것은 事實에 基礎하는 科學精神과 創造에 基礎하는 想像的 精神과는 그것이 여러 가지 相反된 問題를 發生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科學精神과 가장 가까운 文學精神은 散文精神이다。散文精神이란 討議精神으로서 假空보다는 事實에、主觀보다는 客觀에、感性보다는 知性에 더 많이 基礎된 合理主義的인 證明精神이다。그러기 때문에、現代가 科學時代인 만큼 現代의 文學精神은 散文精神으로서 代表되어져 왔다。文學에 있어 現代를 散文精神의 時代 또는 「散文의 時代」라고 해 온 것은 모두가 여기에서 原因되어진 것이다。

現代의 文學精神이 散文精神으로서 代表되어진 몇개의 具體的인 事例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傾向 또는 事實속에서 發見해 볼 수 있다。

一、은 主情的 聽覺的이던 從來의 詩의 傾向이 主知的 視覺的 方向으로 轉向된 것。

二、은 小說이 「피손」에서부터 出發되기보다는 直接的인 現實問題에서 出發되는 傾向、「게을그」의 「二十五時」같은 것은 二

代表的 一例이다。

三、은 小說의 假想的 世界를 表現하는 境遇에 있어서도 그것이 幻想的 非現實的인 方向에로가 아니라 直接的인 現實世界의 象徵으로 나아가는 傾向 「조지오웰」의 「一九八四」같은 것은 그 代表的인 一例이다。

四、는 「괴손」보다도 事實의 記錄이나 報告가 重要한 文學的 對象으로 나타난 事實 「처칠」의 「第二次 世界大戰 回顧錄」이 노벨 文學賞을 授賞받은 것과 같은 것은 그 代表的인 一例이다。이러한 몇개의 事例는 現代學에 있어 散文精神의 優勢를 말해 주는 具體的 證言이 된다。

×　　×

現代는 科學時代요、科學時代의 文學精神을 代表하는 것은 散文精神이라고 볼때 現代에 있어서의 想像的 文學의 位置는 아주 弱化된 것으로 解釋되기 쉽다。그것은 想像文學이란 그것이 散文精神에 가까운 것이기보다는 詩精神의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詩精神이란 創造的 精神을 말하는 것으로 事實보다는 架空에 客觀보다는 主觀에 知性보다는 感性에 더 많이 基礎된 超合理主義的인 形象精神이다。이것의 具體的 樣式의 하나인 想像的 文學은 아무래도 科學時代의 事實的 證明的 合理的 討議的 諸樣式과는 適合되기 어려운 것으로 解釋되기 쉽기 때문이다。

×　　×

文學이 時代의 產物이라면 現代라는 科學時代의 適合한 文學樣式이 散文精神인 것만은 事實이다。그러나 文學의 根本要素는 散文精神이기보다는 詩精神이다。詩精神이란 가끔 抒情精神과 錯覺되고 있지만、그 元來의 意味는 創造精神을 意味한다。詩 또는 詩人으로 飜譯되는 POET 또는 POETRY란 源意가 創作 또는 創造人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이를 說明해 주고 있다。文學의 職能이나 機能이 그 무엇으로 解釋되든 그것이 文章을 通한 創造的 行爲를 意味하는 것이라면 文學의 根本 要素 또는 그 特性이 詩精神에 있는 것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것이 된다。그리고 이것이 否認될 수 없는 以上 如何한 時代에 있어서도 想像的 文學은 그 位置가 弱化되거나 그 本性이 無視되어질 수는 없다。오히려 時代는 科學時代이기 때문에 想像的 文學을 더욱 要請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正當한 文學的 態度가 될 것이다。

×　　×

우리는 文學에 있어 散文精神의 役割에 對해서 하나의 反省이 있어야 한다。이것은 科學時代인 現代에 對한 反省이 되어질 수도 있는 問題이다。科學이 人生에 있어 目的이 아니고 方法인 것처럼 散文精神도 文學에 있어 目的이 아니고 方法이다。散文精神은 그 自體가 아무리 優勢해도 그 自身만으로서는 創造的 機能을 發揮할 수 없다。詩精神의 參加에 依해서만 그것을 達成할 수 있다。

「게을그」의 「二十五時」가 感動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事實에 對한 科學的 批判에 그친 것이 아니라 危機에 對한 創造的 解釋이 加해진 때문이며, 「쳐칠」의 「第二次大戰 回顧錄」이 「노벨」文學賞을 받게 될만큼 그 文學的 價値를 認定받게 된 것은 그것이 單純한 事實의 記錄이 아니라, 事實이 意味에 더많은 關心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現代가 아무리 散文의 時代라 해도 詩精神의 參與없이는 結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現代와 같은 科學時代에 있어 더욱 要請되어야 할 것은 詩精神이며 詩精神이 要請되는 以上 想像文學의 位置는 그 어느時代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重要한 것이다。

14、黨派에 對하여

한 個人이 黨派의 世界속에 들어서게 되는 데에는 대개 두가지의 心理的 經路가 있다。하나는 眞理나 利益을 自己 혼자의 힘으로서는 擁護하기 어렵다고 生覺하는 데에서 出發되는 것이 그 하나이요, 그 또하나는 그것을 아무리 自己 혼자서 守護하려고 해도 혼자 사는 世上이 아닌 그의 社會的 活動이 自然的으로 어느 黨派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前者를 積極的 黨派意識이라고 한다면, 後者는 消極的 黨派意識이라고나 할가。그러나 重要한 것은 적어도 社會的인 모든 活動은 그대로 작든 크든 消極的이든 積極的이든 黨派的 行動일 수 있다는 점이다。그것은 完全히 혼자서 生活하거나 活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

黨派에는 대개 두가지 性質의 것이 있다。하나는 理念的인 것이고 하나는 人間的인 것이다。前者는 學派나 政黨과 같은 公的인 것이고 後者는 個人的인 利害와 感情에 基礎되는 私的인 것이다。黨派라고 하면 어떤 形式의 黨派이든 이 두가지 性質이 共有된다。그것은 黨派란 처음부터 二人以上의 集團的 行動을 말하기 때문이다。個人的인 利害나 情實에 얽힌 鄕黨이나 朋黨과

×

같은 것이 黨派의 하나가 된다면 民族이나 國家와 같은 超個人的인 것도 一種의 黨派가 된다。이 兩者는 다같이 集團的 形式으로 그 感情이나 利害나 理念이 連結되어져 있기 때문이다。이 말은 黨派란 그것이 어떠한 黨派이든 그것이 社會的인 것이기 때문에 共同運命의 基礎 위에서 形成된 것임을 意味한다。

×

大部分의 사람들은 黨派를 非難한다。共同運命속에 있는 一方的 一部的 集團의 感情이나 利益만을 追求하게 되는 黨派的 行動은 그 黨派의 共同運命의 圈外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非難되어야 할 獨善이다。그러나 大部分의 사람들은 黨派的 行動을 非難하는 데에는 熱心이지만, 그 黨派의 共同運命에 對해서는 全혀 無關心하거나 沒理解하다。이 때문에 黨派에의 非難은 黨派的인 것을 解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黨派的 團結을 助長해 주게 되는 境遇도 있다。

×

우리가 黨派에 對해서 가져야할 重要한 關心은 그 形式上의 集團的 行爲에 對해서가 아니라 그 背後의 多數의 運命에 關한 것이어야 할 것은 아닐가。그러나 모든 個人과 個人의 利害가 서로 相衝되는 것과 같이 모든 黨派의 理念이나 感情도 서로 衝突된다。이것이 人間의 社會的 運命이라면 우리는 모든 黨派的인 것을 非難할 것이 아니라 運命으로서 甘受해야 할 것은 아닐가。

14、神話와 傳說과 文學

山川草木의 그 무엇에서나 靈魂과 生活을 發見해 온 옛날 사람들의 精神의 豐足은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神話나 傳說로서 充分히 알 수 있다。神話나 傳說은 그들에게는 이미 알 수 없는 지나간 먼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 自身의 生活의 表現이기도 했다。그들의 神話속에서 生活의 方向을 發見하기도 하고, 그들의 傳說로서 自身들의 生活을 한層 더 아름답게 豐富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이와 같은 옛날 사람들의 神話나 傳說은 그런것을 믿지않는 요새 사람들에게도 貴重한 精神의 遺産으로서 相續되어져 있다。그러나 그와같은 財産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現代人의 高級한 知性은 얼마나 無力한가。

×

그것이 神話든 傳說이든 그것은 다 같이 事實의 問題가 아니라 架空的인 虛構的 事實인 點에서 이 兩者는 同一한 性質의

것이다。그리고 이 兩者는 그것이 다같이 그와 같은 虛構的 事實을 架空한 사람의 精神이나 思想이나 感情이나 理念의 表現인 點에 있어서도 同一한 性質의 것이다。그러나 傳說이라고 할 때보다는 神話라고 할 때가 좀더 權威있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가。神話는 神에 關한 이야기요 傳說은 人間에 關한 이야기인 때문에서일가。

×

「神話」와 「傳說」이라는 分明히 다른 두개의 用語는 一般的으로는 같은 意味로 使用되고 있으나, 그 辭典的 用例를 보면 前者는 神에 關한 것이 그 中心이요 後者는 人間에 關한 것이 그 中心이다。英語의 MYTH(神話)는 「神에 關한 想想的 架空的이야기」로 解釋되어 있고 TRADITION(傳說)은 「人間의 習慣、國碑、傳統、經典에 없는 宗教律」 같은 것으로 說明되어 있다。이와 같은 辭典的 用例를 文學的 修辭로 表現한다면 神話는 「神의 關한 傳說이요」 傳說은 「人間에 關한 神話」라고는 할 수 없을가。그러나 重要한 것은 神話는 언제나 그것이 擬人化되어 나타났다는 事實이다。神話와 傳說이라는 分明히 다른 이 두개의 用語가 同一한 하나의 意味로서 使用되어 온 것은 決코 까닭없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

옛날이나 지금이나 人間은 언제나 神과의 關係속에서만 살아왔다。어느 便이냐 하면 古代나 中世는 神이 있다는 關係속에서 살아온 것이다。神이 있다고 믿는 것이나 그 믿음 自體가 神에 關係된 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人間은 神과의 關係속에 있었던 것을 意味한다。神의 有無에 關心이나 信念을 두었다는 그 自體가 바로 神과의 關係를 證明하는 것이 아닌가。人間의 生活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神과의 關係속에에서만 維持되어온 것이라면 人間의 이야기는 그대로 神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神의 이야기는 人間의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닌가。分明히 다른 語義에서 出發된 神話와 傳說을 同一하게 使用하는 大衆의 놀라운 知慧를 이런 곳에서도 볼 수 있을가。

×

神話와 傳說이라는 두 用語가 그 辭典的 用例에도 不拘하고 同一한 槪念 同一한 意味를 가진 것이라면 傳說이라고 하는 경우보다 神話라고 하는 경우가 더 權威있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가。이것은 人間에 對한 神의 優越에서 由來되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神의 優位를 創造한 것은 바로 人間 自身이 아닌가。神이 事實로 存在하든 存在하지 않든 神을 意識한 것은

人間의 精神이 아닌가。아무리 神이 存在한다 할지라도 그 存在를 意識못한다면 人間에 있어 神은 存在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그러므로 神의 存在 與否와는 相關없이 神은 人間이 創造한 하나의 理念이라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神의 優越은 바로 人間 自身의 優越이 아닌가。神으로 假托 또는 象徵된 人間 自身의 이와 같은 優越의 表現이 神話는 아닌가。이와 같은 優越의 表現인 神話가 그 優越로 因하여 傳說보다는 權威있는 것이 되었을가。

×

神의 이야기가 바로 人間의 이야기요 人間의 이야기가 바로 神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神話와 傳說은 그 性格에 있어 若干의 差異가 있다。即 神話가 좀더 想像的인 架空的인 것이라면 傳說은 그보다도 좀더 事實的 實際的인 것이 가깝다。神話「MYTH」는 처음부터 神에 關한 想像的 架空的 이야기인데 對하여 傳說「TRADITION」은 人間의 傳統이나 習慣같은 것을 意味하기도 한다는 辭典的 說明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勿論 傳說도 想像的 架空的 要素가 事實보다도 더 많고 神話도 事實的 實際的 要素가 全혀 無視되어진 것은 아니다。事實이 아니라는 性質에 있어서 이 兩者는 다 꼭같다。그러나 어느 편이냐 하면 神話의 想像的 架空的 要素는 現實에서 出發된 것이기보다는 觀念이나 精神에서 出發되어진 것이며、傳說의 그것은 어느 便이냐 하면 事實에서 出發되어진 것이다。여기에 神話의 또 다른 權威의 一面이 있는 것이 아닐가。神話가 가진 그 想像的 架空的 要素가 傳說의 事實的 實際的 要素보다는 보다더 詩에 가깝다는 것이 그것이다。

×

詩란 그 槪念이 무엇으로 說明되든 POETRY「詩」의 語源이 創作이란 뜻인 것과 같이 創造를 意味한다。詩의 이와 같은 創造的 意味는 그대로 神話의 想像的 樣式과 一致된다。古代의 모든 敍事詩가 거의 다 그러했던 것과 같이 人類의 最初의 敍事詩인 「호-머」의 「일리아-드」나 「오듯세이」가 그대로 神話였던 것도 決코 偶然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그러므로 神話란 神에 關한 想像的 架空的 形式을 通한 人間의 詩였던 것이다。傳說도 그것이 神話와 같은 槪念인 點에 있어 이것도 人間의 詩다。神話가 좀더 直接的으로 神을 題材로 한 詩라면 傳說은 좀더 直接的으로 人間을 題材로 한 詩라고나 할가。

×

神話나 傳說이 다같이 詩의 하나라고 볼 때 前者의 詩는 대개 集團의 運命이 그 中心이 되고、後者는 대개 個人의 運命이

그 中心이 된다。대개의 神話가 民族의 生成에 關係되고 대개의 傳說이 個人의 生涯에 關係된 것은 이 때문이다。이 때문에 神話는 곧 歷史의 表現이 되고、傳說은 곧 民衆生活의 表現이 된다。여기에 神話가 傳說보다 權威를 가지는 또 다른 一面이 있다。그것은 個人보다는 全體가、部分的 意味보다는 綜合的 意味가 더 優位에 屬한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重要한 것은 모든 傳統은 神話에 源流되고 傳說은 그 歷史的 年輪이 싸이면 그것은 神話로 化한다는 것이다。어떠한 傳說을 莫論하고 모든 傳說은 神話를 超越하지 못한다。그러나 神話는 傳說의 歷史的 年輪위에서만 생겨난다。「오듯세이」나 「일리아-드」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檀君神話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傳說로서 口傳되었을 것이다。그러나 긴 歷史的 年輪은 그러한 傳說을 神話化시킨 것이다。이 말은 누구나 바로 神話의 詩를 創造하기는 어려우나 神話가 될수있는 傳說의 詩는 먼저 創作할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

文學은 그것이 무엇으로 說明되고 解釋되든 傳說을 創作하는 行爲다。傳說이 民衆生活의 表現인 文學은 市民의 傳說을 表現하는 것이다。現代文學은 現代人의 傳說을 表現하고 있는가。現代文學의 重要한 한 特性은 오히려 傳說보다도 事實에 表現에 있었다。二十世紀를 「事實의 時代」라고 한 것은 現代人이 즐겨 使用해온 口號가 아니었던가。이 事實의 追求는 文學에 있어서의 想像的 架空的 要素를 追放한 것이 되었다。即 現代人은 傳說을 모르는 人間、傳說이 없는 生活이 된 것이다。이것은 좋은 일이었을가。

×

現代가 事實에 置重되어 事實에 對한 理解를 그릇되게 하는 온갖 想像的 架空的인 要素를 排除한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그러나 重要한 것은 事實 그 自體는 事實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意味도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데 있다。都大體 事實이란 무엇인가。現代가 事實의 時代라는 것은 石炭에서 石油가 나올 수 있다든가、원숭이가 進化하여 人間이 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이러한 것은 事實의 意味를 안 것이 아니라 事實의 機能을 안 것에 지나지 않는다。人間에게 있어 根本的으로 重要한 것은 事實의 機能이기보다는 事實의 意味라면 事實의 意味는 事實 그 自體에보다도 그 事實에 對한 解釋에 있는 것은 아닐가。그리고 事實에 對한 解釋은 現代가 拒否하는 傳說的 想像的 架空的 要素속에 더 많은 領土를 가진

것은 아닐가。

×

傳說은 事實에 對한 歪曲이나 過去에 對한 記憶의 잘못이나 또는 傳達의 錯誤等으로 形成될 수도 있다。그러나 傳說은 그것이 어떤 動機와 經路를 밟아서 形成되었던 그 속에는 事實만 가지고서는 形成될 수 없는 人間의 心理的 精神的 眞實이 構成되어 있다。그것이 아무리 想像的 架空的 形式위에 構成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形成되어 있는 人間의 心理的 精神的 眞實은 누구도 否定하지 못한다。모든 傳說이 크고 작고간에 하나의 人生的 感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이와 같은 傳說은 그대로가 人生의 意味가 된다。即 事實의 意味가 된다。그러므로 傳說의 喪失은 人生의 意味의 喪失이 된다。現代文學은 이와 같은 寂寞한 文學으로 흘러가는 危險性은 없는가。

×

現代는 市民의 時代요 現代文學은 市民의 文學이다。現代文學은 모든 市民의 傳說을 創造해야 한다。現代가 한 個人의 人格과 權利와 存在를 基本的으로 重視하는 時代라면 現代文學은 그러한 모든 個個人의 傳說을 記錄해야 한다。事實的 傳記를 傳說로 代身하는 現代的 病幣는 決코 文學에서 重視되어서는 안 된다。近代人의 常識이었던 個性至上主義보다도 훨씬 더 徹底히 個別者로서의 人間의 存在를 肯定하고 擁護하는 現代의 實存主義는 무엇보다도 現代人의 傳說을 創造하는 데 알맞은 哲學이 아니었던가。

×

現代文學은 現代人의 傳說을 創造해야 한다。現代文學이 이루어 놓은 現代人의 傳說은 이것이 歷史的 年輪을 거치므로서 언젠가는 神話로 남을 것이다。偉大한 民族에게는 하나의 刺戟的인 슬픔이 되어야 할 것은 아닐가。神話는 決코 지나간 옛날의 神의 이야기가 아니라 神話를 꾸며내는 사람들의 또는 그 神話의 感動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때 그때의 精神의 이야기다。이와 같은 이야기는 언제나 새로운 感動을 주는 永遠한 鄕愁의 源泉이 된다。現代人이 現代人의 傳說을 創造하므로서 그와 같은 永遠한 鄕愁의 源泉을 한層 더 豊富히 하는 것은 바로 그대로가 現代의 將來를 한層더 豊足히 하는 것이 아닐가。文學이 人間의 精神의 創造라면 이보다 더 重要한 文學의 任務는 무엇일가。

15、流行에 對하여

「괴에테」의 「젊은 베텔의 슬픔」이라는 小說이 발표되었을 때 「와이말」의 청년들 사이에는 그 小說속에 表現된 「베텔」과 같은 옷차림이 流行했고、「베텔」처럼 自殺한 청년들도 상당이 많았다는 記錄이 남아 있다。나는 流行을 생각 할때마다 항상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

「와이말」의 청년들이 「베텔」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베텔」처럼 自殺까지 했다는 것은 「와이말」의 청년들이 「베텔」을 模倣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베텔」에 대한 이와 같은 模倣이 있었기 때문에 「베텔」의 流行에 形成된 것이다。만일 模倣이 없으면 流行은 생겨나지 않는다。그것은 流行이란 여러 사람의 追從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模倣은 流行을 形成하는 중요한 要素의 하나가 된다。

×

×

대개의 경우 模倣은 追從的인 行爲로서 경멸의 대상이 된다。특히 높은 和性은 模倣의 非主體的 非獨創的인 性格을 경멸한다。模倣의 그와 같은 亞流的인 精神은 경멸받을 만 하다。流行이 敎養있는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模倣은 반드시 그와 같은 경멸의 대상에만 그치는 성질의 것일까。

×

×

藝術의 起源論에 「模倣本能說」이라는 學說이 있다。模倣하는 人間의 本能이 藝術을 만들어 냈다는 學說이다。이 學說에 依하면 模倣은 非主體的 非獨創的일는지는 모르나 創造의 最初의 過程이 된다。비단 「模倣本能說」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완전히 模倣과 떠난 어떠한 創造的 行爲도 사실상 存在하지 않는다。어떠한 獨創的인 것에도 模倣的 要素는 반드시 있는 법이다。그렇다면 模倣이 경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좀 억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

흔히 模倣은 그것이 自己를 떠난 남에의 追從으로 해석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결코 模倣의 진정한 動機는 아니다。模倣은 自己를 떠난 남에의追從이기 보다는 오히려 自己를 發見하려는 行爲다。「와이말」의 청년들이 「벨텔」을 模倣한 것은 그것이 「벨텔」이 되기 위한 行動이기보다는 오히려 좀더 확실한 自己가 되고 싶었던 것과 같다。「와이말」의 청년들이 「벨텔」에게서 발견한 것은 「벨텔」이 아니라 바로 自己自身의 모습이었던 것이다。「벨텔」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어떤 것이며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이다。그리고 그렇게 發見된 새로운 自己의 모습을 갖고자 한 것이 「벨텔」에의 模倣은 적어도 自己를 떠난 남에의 追從이 아니라、보다 더 확실한 自己自身이 되려는 行爲였다。모든 模倣의 心理的 動機는 모두 이런 것이다。잠재적으로는 적어도 그렇다。이렇게 보면 模倣은 하나의 自覺的 行爲가 된다。

×

模倣이 하나의 自覺的 行爲며、그러한 模倣으로부터 流行이 형성된다는 流行도 하나의 自覺的인 行動이 된다。流行은 좇는 모든 사람들을 無自覺한 行動의 사람으로 보는 것은 결코 옳은 判斷이 아니다。독립된 그리고 제각금 個性的인 여러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流行을 좇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人間에 대한 理解의 不足일 뿐이다。流行을 좇는 모든 사람들은 깊고 얕은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나、그 全部가 다 一定한 自覺이 있었기 때문에 流行을 좇는 것이다。아무런 自覺力도 없는 사람은 流行을 좇지도 못한다。

×

대개의 사람들이 自覺的인 行爲인 流行을 無自覺한 行動으로 解析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가。그것은 自覺은 個人的인 것이지만 流行은 여럿이라는 集團的 形式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集團的 形式은 類型的 非個性的인 形式으로서 그것은 적어도 獨自的 自覺的인 形式은 아니다。그 動機의 心理的 原因에서 보면 流行은 自覺的인 行爲이지만、나타난 結果에서 보면 그 類型的 集團的 形式으로 因하여 非自覺的인 行動이 된다。그 心理的 動機는 보이지 않고 그 나타난 결과만이 보이기 때문에 流行에 對한 그와 같은 觀念이 생겨난 것이다。

×

流行은 個人的인 自覺에서부터 出發하여 集團的인 無自覺 狀態에 도달한다。이 말은 또한 流行은 그 出發에 있어서는 獨自

的 個性的인 것이지만, 그 結果에 있어서는 普遍的 類型的인 것이 된다는 意味도 된다。여기에 流行의 온갖 秘密이 다 숨어 있다。

流行은 그것이 形成될 때까지는 感動的인 精神의 支配를 받지만, 그것이 형성되고 나면 곧 권태와 싫증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러한 권태와 싫증이 다시 새로운 流行을 좇게 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그러므로 流行의 心理란 새로운 핸드·백이 무엇인가를 찾는 女性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며, 流行이란 女性들의 손에 매달린 항상 변경된 새 모양의 핸드·백과 같은 것이다。

×

流行은 항상 그것이 새로운 스타일로서 나타나는 데 그 特性이 있다。한가지 流行이 오래 지속된 例는 없다。오래 지속되면 그것은 벌써 流行이 아니다。流行은 그것이 늘 새로운 모양으로 變해 가는 데 있다。

새로운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이 流行의 特性이라면 새로운 것은 流行의 가장 重要한 特性이 된다。 그런 意味에서 流行의 精神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精神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

새로운 것을 要求하는 精神은 묵은 것에 염증을 느끼고 아직 所有해 보지 못한 未知의 것을 憧憬하는 精神이다。왜 이러한 精神이 人間에 나타난 것일가。그것은 묵은 것이 限定과 旣成을 意味한다면 새로운 것은 그것이 未知의 可能性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묵은 것으로서 이미 限定된 自己보다는 未知의 새로운 可能性속에서 自己를 찾아보려는 心理는 모든 人間의 共通的인 精神이다。이러한 精神은 이를테면 새로운 것을 通하여 묵은 自己自身을 항상 更新해 보려는 精神이기도 하다。그리고 또한 이러한 自己自身의 更新은 항상 새로운 自己自身을 創造해 가려는 精神이기도 하다。

×

流行의 精神이 부단히 새것을 좇는 精神이라면 流行은 먼저 傳統에 對한 反逆이 될·수 있다。保守的인 사람들이 流行을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傳統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美風良俗이 流行으로 因하여 파괴되었던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傳統을 파괴해 간다고 보여지는 流行이

事實은 항상 傳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事實이다。항상 새것을 좇아가는 流行이 있었기 때문에 傳統은 만들어졌던 것이다。이것은 流行이 파괴한 것은 傳統이 아니라、단지 묵은 것이었다는 證明이 된다。

×　　×

流行이 항상 묵은 것을 파괴해 가면서도 그것이 傳統을 만들어 오게 된 것은 傳統은 묵은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生活 속에 있으며 流行은 어떤 意味에서는 生活을 代表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生活이란 生命의 表現으로서 그것은 一定하게 固定된 狀態이기보다는 不斷히 變해가는 狀態였으며、이러한 부단히 變해 가는 生活의 狀態를 代表해 준 것이 流行이기도 했던 것이다。그러므로 流行이 파괴한 것은 傳統이 아니라 習觀이나 觀例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變化 속에서 生命을 가질 수 없는 지난날의 形式的인 것뿐이었다。傳統이 人間의 매일매일의 生活의 根源이요 表準이라면 流行은 묵은 것을 좇는 形式을 通하여 이것을 만들어 가는 前衛部隊가 된다。

×　　×

流行이 傳統을 부시는 것같이 보이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만들어 가는 前衛部隊라 했지만、이것은 流行의 機能의 일부를 말한 것일뿐 流行 그 自體가 그대로 傳統이 된다는 意味는 결코 아니다。傳統이란 그것이 永久的 表準的인 價値를 가진 것이지만 流行은 一時的 異例的인 價値를 가졌을 뿐이다。이와 같은 一時的 異例的인 價値가 그대로 永久的 表準的인 傳統과 一致될 수는 없다。그러면서도 流行이 傳統을 만든다는 것은 流行의 그와 같은 一時的 異例的인 價値가 永久的 表準的인 價値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流行은 傳統을 계승시키는 價値도 될 수 있고 傳統과는 아무 상관없는 한때의 無價値한 抱抹도 될 수 있다는 意味가 된다。

×

나는 이 곳에서 다시 「젊은 베텔의 슬픔」을 읽고 「베텔」을 模倣했던 「와이말」의 청년들을 생각하게 된다。그들이 「베텔」에게서 自己自身을 發見하고 좀더 확실한 自己自身이 되기 위해서 「베텔」을 模倣했다는 것은 流行의 肯定的인 모든 精神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이러한 精神은 그것이 비록 一時的 異例的인 것일지라도 永久的 表準的인 價値를 形成해 가는 方向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그러한 청년들 중에서 「베텔」처럼 自殺한 청년이 있었다는 것은 그와 같은 一時的 異例的인 것이 영구적 표

준적인 價値를 形成시킬 줄 수 없는 方向을 보여 주는 것이 된다。自殺은 特別한 경우 이외에는 결코 영구적 표준적인 生活의 態度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벨텔」의 生涯가 그렇게 끝나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永久的 表準的인 價値와는 相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流行에 對한 우리들의 反省의 出發點은 여기서부터 비롯될 것은 아닐가。

×　　×

流行은 그것이 自身의 自覺과 새로운 自己를 創造하려는 心理的 動機에서 出發된 것인 만큼 누구나 이 流行에의 精神이 豊富한 것은 좋다。그것은 다른 意味에서는 새로운 生活、새로운 時代를 만들어 가는 데 對한 적극적인 投身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그 反面에 그것은 傳統이 될 수 없는 순간적 抱抹的 精神에 그치는 無價値한 行動으로 끝날 수도 있다。人間의 깊은 고뇌와 幸福을 얕은 感傷과 천박한 樂天으로 뒤바꾸어 가는 저 流行歌와 같은 精神이 결코 流行精神의 本質이거나 그 全部는 아니다。

流行의 精神은 오히려 그러한 流行歌를 通하여 人間의 고뇌와 幸福을 表現한 音樂으로 接近케 하는 데 있다。여기에 있어서만 流行은 傳統이 된다。流行을 좇는 모든 사람들의 方向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은 아닐가。

閑雲黃葉　高

빈 면

新劇史槪觀

柳致眞

話術劇의 輸入

우리가 新劇이라고 일컬은 것은 話術劇을 가리키는 것이다。이 話術劇은 從來 우리 나라에서 發生된게 아니고、西歐에서 直接 혹은 間接으로 輸入한 劇術이다。

이 話術劇을 우리가 輸入한지는 고작 半世紀밖에 안 된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小說家 李人稙이 自作의 作品 「雪中梅」와 「銀世界」等을 우리나라 最初의 劇場인 「圓覺社」에서 上場한 一九〇九年이 우리나라 話術劇의 첫試驗이었다고 볼수있기 때문이다。

이 五十年은 우리에게는 民族的으로 가장 어수선하고 가장 不幸한 時期였다。被壓迫民族으로서의 모든 客觀的 惡條件은 이 새劇術을 育成할 溫床이 되기에는 너무나 그 距離가 멀었단 말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先輩들은 꾸준히 이 事業을 繼承 推進시켜 오늘 우리나라의 劇術의 하나로써 그 基礎를 確定시킨 것이다。

再昨年(一九五七年) 내가 世界演劇을 視察次 「버어마」에 들렸을 적에、그 나라 文人에게 내가 가지고 간 韓國에서 上演된 舞臺面寫眞集을 보였더니、그中에서 셱스피어의 諸作이 上演된 것을 보고、그는 깜짝 놀라 이 셱스피어의 作品들이 韓國에서 英語로 上演된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韓國語로 번역되어 韓國語로써 上演된 것임을 밝혀 주었더니, 그 文人은 한탄하며——

「우리가 쉑스피어劇을 우리 母國語로 上演하려면 적어도 五十年의 時日이 있어야 할것이오」

——라고 말했다。

나는 韓國에서도 오늘의 話術劇이 있기 위해서 五十年의 歲月이 걸렸음을 말해 주면서, 世上에서 新派쟁이들이라고 뒷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話術劇을 위하여 獻身해 온 先輩들에게 感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傳統的 演劇

話術劇을 導入해 오기 前에 우리 民族에게는 어떠한 劇術이 있던가?

「山臺놀이」「五廣大」「鳳山탈춤」等으로 불리우는 假面劇을 우리가 가졌으며 그들이 우리 民族의 傳來의 演劇의 唯一한 別形態였음은 누구나 잘 아는 바다。

이 假面劇에도 臺詞가 없는 바 아니지만 假面으로써 性格을 表現하고 춤으로써 劇의 「액숀」을 엮기 때문에 그와 分別하기 위하여 臺詞로써 얘기를 엮은 劇을 話術劇이라고 나는 부르는 것이다。

本是 假面劇은 그發生起源을 우리의 民族의 原始宗教인 「샤마니즘」에서 찾는 것이 妥當할 것이며, 우리의 歷史的 記錄에도 벌써 千數百年前 新羅때에 假面舞가 있었음이 밝혀져 있다。그만큼 오랜 歷史를 가진 것이나。

그러나 現在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한 劇의 形態의 假面劇은 五百餘年前 高麗末期에서부터 形成化되기 시작한 것으로 믿어지며 李朝時代에 이르러서는 中國 使節의 來朝時 그觀覽에 供하기 위하여 官의 主管下에 그劇이 大規模로 演出되었다는 것이다。

그後 仁祖十二年(西紀一六三四)에는 王命에 依하여 公儀로서 假面劇 上演이 廢止되었고, 그後부터는 官의 保護로부터 쫓겨나 廣大들 自身의 發意에 의하여 民間 觀覽者를 相對로 公演케 된 것이다。그러나 이假面劇은 不幸히도 그동안 조금도 發展되지 못했으며 지금 남아있는 것은 原型 그것도 오히려 維持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假面劇이 생겨 그것이 存在하던 時期(李朝 五百年동안)은 世界的으로 보아 各國이 다투어 自己들의 民族劇을 創造하던 때다。英國의 劇文化를 오늘 있게한 「쉑스피어」도 佛蘭西의 劇을 世界的으로 앙양시킨 「모리에르」도, 西班牙의 「베가(Lope Vega)

도 日本의 歌舞伎도 모두 이 期間에 이룩되었기 때문이다。

이 時期에있어 우리의國民思想을 支配하던 儒敎는 不幸히도 우리의 藝術 發展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演劇도 育成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韓人은 決코 藝術을 輕視하는 民族은 아니다。新羅時代에 詩歌와 춤으로써 國民精神을 陶冶한 花郎制度는 當時 民族的 最高指導者를 모두 이 制度 밑에서 育成하였고、그들이 이룩한 新羅統一史야말로 半萬年의 우리 靑史에서 가장 찬란한것이 아니였던가?

時代가 바뀌어 花郎制度가 沒落한 後 近者에 이르기까지 廣大를 경멸하여 「화랑이」라고 부름은 廣大에게는 오히려 하나의 榮光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花郎道를 創設한 우리民族이 얼마나 藝術愛護家였던가를 立證하는 것이다。

高麗나 李朝時代가 佛敎나 儒敎等 外來思想이 아니고 우리 民族自體의 創案인 花郎道의 影響밑에 있었다면 우리의 民族이 오늘의 이 모양이 아니고 中國의 唱劇이나 日本의 歌舞妓에 뒤지지 않는 劇術을 完成하였으리라고 믿어마지 안는다。

新派劇의 發芽

우리民族이 鎖國의 잠에 취하여 있을 때에 우리民族을 채찍질하여 世界를 呼吸케하려는 運動이 胎動하였으니、一八八四年에 일어난 甲申政變이나 一八九四年에 폭발한 甲午革新等이 그것이며、오늘의 韓國의 新文化運動은 實은 이때에 擡頭된 것이고、우리 演劇의 再興도 이 運動에서 例外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一九〇六年、日本에 亡命갔던 李人稙(西紀一八五四年——一九一五年)이 歸國하자、新小說을 當時의 新聞에 쓰기 시작하였다。이는 이 나라 新文藝運動의 첫발드딤이었거니와 三年後인 一九〇九년에는 自作의 脚本들을 「圓覺社」에 上場하였다。그 脚本이란 두말할것 없이 앞에 말한 「銀世界」와 「雪中梅」等이며、이것이 이 나라 새로운 演劇形態인 話術劇의 發芽이었음도 앞에 指摘한 바와 같다。

圓覺社는 韓國이 開闢以來 처음으로 가진바 劇場建物로써 애초에는 軍人會館으로 지은 것을 韓國軍의 解散과 더불어 一般市民의 娛樂場으로 公開한 것이었다。

이 建物은 西歐의 劇場을 본따서 지은 것으로 二千의 座席을 가진 大劇場이었고、政府의 경영하는 最初의 國立劇場이기도 했다。

그러나 不幸히도 그後 火災로 말미아마 자취가 없어지고 지금은 그자리에 「새문안禮拜堂」(西大門二街)이 서 있다。

乙支路 一街에 公報室 主管으로써 昨年에 開館한 圓覺社劇場은 韓國 最初의 國營劇場을 記念키 위하여 그 이름을 襲用한 것이다。

李人植이 여기에서 試驗한 새 演劇術에 關해서는 그 公演記錄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히 알길은 없으나、當時 우리에게 專門的인 俳優가 없었고、劇場技術者가 없었음에 비추어 新文化를 동경하는 靑年들에 依해서 演出된 素人劇이었음은 充分히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藝術的水準이야 어떻든 이 첫試驗이 하나의 새로운 刺戟劑가되어 그後 뒤이어、몇個의 유사한 劇團이 서울 周邊에 創始되었다。그中에서 가장 指導者인 役割을 한 분들이 劇作家며 演劇家로서는 尹白南、李基世였었고 俳優로서는 林聖九、金陶山、金小浪等인바、그들은 同時에 自己네들이 領導하는 劇團의 經營者이기도 했다。지금도 梨園에서 活動하고 있는 俳優 卞基鍾、映畵監督 安鍾和等은 이時代 出身들이다。

그때 우리는 이들이 하는 演劇을 『新派劇』이라고 불렀다。

『新派劇』이란 말은 日本人들이 自國의 傳統的인 演劇 「가부키」(Kanbuki)에 滿足할수 없어 西歐에서 輸入한 새演劇形式인 寫實的인 話術劇에 對하여 日人들이 부친 이름이였다。當時에 上述한 우리先輩들이 이 새演劇形式을 日本에서 輸入했기때문에 日人들이 쓴 『新派劇』이란 말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옮겨다 使用한 것이였다。그러나 『新派劇』이란 말은 韓國의 演劇實情과도 꽉들어맞는 말이였다。왜냐하면 日人들이 自己네들의 傳統的演劇에 對해서와같이、韓國의 傳統的인演劇 假面劇에 對해서도 이西歐的演劇形式은 새로운 스타일 即 新流이기 때문이였다。

一九一〇年 日本이 韓國을 强制占領한 以後에는 日本人地方巡業劇團들이 자주 來韓했다。우리 先輩들이 新派劇을 모방할 機會는 더욱 갖았던 것이다。

이時代의 우리新派劇團들이 上演한 脚本들을 보면 「不孝天罰」「法之法」「눈물」「嗚呼天命」「六穴砲强盜」「長恨夢」「義兄殺害」等이

였다。

이中에는 韓國人이 쓴 脚本도 있었지만、그 大部分은 日人들이 成功한 作品들을 우리말로 飜案한 것이였다。우리 先輩들이 얼마나 日人의 新派劇을 모방했는가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內容은 유치한 人情劇이 아니면 「스틸러」였고、大槪가 單幕劇이였다。그러기에 하로저녁 上演하는 「푸로그람」은 大槪 單幕劇 三篇(人情悲劇、活劇및喜劇)으로 構成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劇術은 우리의 觀衆을 魅惑시켰다。從來의 우리 假面劇이 實生活과 그다지 親近치 아니한 얘기를 假面과 춤等의 非現實的인 表現手段에 依據해 왔으며、그나마 그 上演을 자주 볼 수 없는 것이었으나、新派劇은 날마다 우리의 家庭에서나 거리에서 일어나는 日常的인 일을 理解하기 쉬운 對話로써 具體的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舞臺에서 보여 주는 喜怒哀樂이 直接的으로 自己自身의것으로 느껴졌던것이다。

아무리 妓生일지라도 當時의 韓國의 女性은 매우 消極的인 것이였다。그럼에도 不拘하고 演劇이 끝나면 劇場 뒷문에는 人力車가 늘어섰었다。意中의 男俳優들을 招待하기 위해서 妓生들이 보낸 人力車들인 것이였다。新派劇團에는 女役을 男子들이 扮裝했기때문에 女俳優가 없었기에 망정이지、萬一 그時代에 女俳優가 있었더면 짓궂은 男子팬들은 女俳優를 가만두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만큼 이 새로운 劇術은 우리 大衆에게 大歡迎을 받았던 것이였다。

新劇의 擡頭

一九一九年 二月一日을 期하여 韓國의 坊坊谷谷에서는 獨立萬歲의 데모가 터졌다。第一次世界大戰의 媾和條約이 巴里에서 締結될 때에 윌손 美國 大統領이 부르짖은 弱少民族의 解放이란 슬로간이 억눌려 있던 韓民族의 가슴에도 불을 붙어놓은 것이었다。이 獨立運動에 數많은 韓人이 殺害當하여 그結果는 慘膽하였다。그러나 이 運動은 우리民族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을 부어 주었다。

即 韓民族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는 精神的覺醒을 일으키게 하여 모든 面에서 民族的力量을 培養할 覺悟를 가지게 했던 것이다。文學에서도 그랬고 科學에서도 그랬다。演劇도 그 例에서 빠지지 않았다。

앞에서 말한 「新派劇」은 西歐의 演劇術을 日本에서 輸入했던 것이다。그러나 우리 인테리의 排日的 覺悟는 日本을 거치지 않고

西歐의 것을 直接 西歐에서 直輸入하려 했다。即 高度的인 西歐의 劇術의 原型을 조금도 꾸기지 않고 그대로 輸入하여、그것을 基礎로 우리의 새民族劇을 樹立하자는 것이었다。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新劇運動이라 했다。

西歐劇術을 直輸入하게된 動機는 반드시 三·一運動을 契機로 高調된 排日的 感情 때문만이 아니였다。事實 日本의 新派劇은 西歐의 話術劇의 가장 유치한 面만을 따들였기 때문에、大端히 유치하였고、그것을 再輸入한 韓國의 新派역시 유치하였다。그러기에 韓國의 知識人들은 再輸入한 新派에 滿足하기는새레 輕蔑하기 始作했다。至今도 우리는 가장 유치한 演劇을 「新派劇」이라고 말한다。即 「新派」란 藝術性이 稀薄한 너무나 常識的인 「메로·드라마」를 가리키는 말인 同時 似而非藝術에對한 侮辱的 言辭로 쓰는 것이다。이 한點만으로도 「新派劇」을 열마나 우리가 경멸했던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新劇運動의 첫出發은 一九二二年에 創立된 「土月會」라는 劇團으로써 始作되었다고 봄이 妥當할 것이다。

土月會는 東京 留學生인 李瑞求、金基鎭、洪露雀、金乙漢等이 中心되어 演出家였던 朴勝喜氏의 經濟的 뒷받침으로써 組織運營되었다。그 첫公演日을 朝鮮劇場에서、그리고 그後에 光武臺를 빌려 一年동안 演劇을 常設하였다。劇團으로써 演劇專門劇場을 가진 것이 이것이 처음이었다。그러나 경영의 未熟等으로서 賣票收入으로써 收支를 맞출 수없었다 朴勝喜氏의 私資가 탕진되는 날로 土月會는 解體狀態에 빠졌다。그러나 그舞臺的成果는 當時의 演劇 팬들을 滿足시켰다。決코 業績은 過少評價되어서는 안된다。

上演한 劇本을 一覽하면 안톤·체홉호作 「곰」、뵤른슨作 「飢渴」、톨스토이作 「復活」과 「산송장」、其他 「아르트·하이데르베르히」 「카르멘」 等 主로 西歐에서 成功한 戲曲들이었고、그外에 「吉植이」、「十五分間」、「장가들기싫어」、「春風感別曲」等 우리作家의 作品들도 上演되었다。演技陣에는 李白水、李素然、李日華、安夕影、卜惠淑、徐月影等、舞臺美術에는 李承萬、元雨田 諸氏가 活動하여 組織的 公演을 가졌었다。

土月會의 活動은 經濟難으로써 不幸히도 길게、계속되지 못하고、創立된지 前後 三年 남짓한 時日로써 解體의 悲運에 빠졌다 그러나 土月會가 開拓한 새로운 劇의 魅力은 널리 社會에 傳播되어 제법 大衆의 口味에 맞는 劇團들이 叢出하였고、興行上으로도 採算을 맞추려고 努力했다。

그러나 劇團의職業化(Professional)는 時期尙早였다。劇團들이 採算을 맞추기 爲해 興行面만을 노리기 시작하니까 藝術的으로 볼 때 演劇은 邪道를 걸으러 하였다。

더구나、土月會는 그 努力에도 不拘하고 그래도 아직 新派劇的인 殘滓를 그 脚本에서나 劇術에서 充分히 淸算 못한채 解體된 때 인지라、演劇의 職業化는 演劇으로하여금 천박한 新派劇時代는 뒷거름질 치게 하였다。

劇藝術研究會의 活動

여기에서 新劇運動의 그本然의 意義를 再確認하자는 集團이 擡頭하였으니、이것이 一九三一年에 創立된 劇藝術研究會(略稱劇研)이었다。

本人도 이 研究會의 創立同人으로 參加함으로써 劇界에 데뷰한 사람의 하나지만、創立同人들은 洪海星、尹白南氏를 除外하고는 모두 當時 海外文學派라고 文壇에서 指目을 받던 外國文學의 研究家(異河潤、鄭寅燮、崔珽宇、徐恒錫、李軒求、咸大勳等)이었다。

그들은 위선 붓을 들었다。劇界 淨化와 新劇運動의 意義와 性格을 闡明하기 위한 指導論文、劇評等을 日刊紙와 月刊紙에 發表하여 演劇의將來를 劇界에만이 아니고、一般文化界에도 호소하였다。

그와 同時에 學生層에 刺戟을 주어 學生劇運動을 일으킴으로써 學問으로서의 演劇研究에 拍車를 加하게 하여、演劇의 質的向上과 後續演劇人部隊育成에 힘 썼으며、演劇講習會(Seminas) 研究生養成等도 아울러 開催하였다。

一九三二年에는 第一次로 養成한 研究生으로써 創立公演을 火災로 말미암아 至今은 타 없어진 朝鮮劇場(仁寺洞)에서 치뤘다。그演目은 「고고리」作 「檢察官」五幕 (咸大勳譯 洪海星演出)이었다。

그後에 上演된 레파트리를 들면、一幕劇으로써 「그레고리夫人」作 「獄門」、「어어빙」作 「寬大한 愛人」、「게꾀」作 「海戰」、「피란델로」作 「天痴」、「柳致眞」作 「土幕」、안톤 체홉作 「記念祭」、「카이자」作 「友情」 「柳致眞」作 「버드나무 선 洞里의 風景」、「루나르」作 「빨간 머리」、「쉑스피어」作 「베니스의 商人」 法廷場面等을 上演하였고、多幕物로서는 「안톤 체홉」作 「벚꽃 동산」、「B・W・쇼」作 「武器와 人間」、「입센」作 「人形의집」等을 上演하여 오던中、一九三五年에 이르러 日官憲은 劇藝術研究會를 解散시키려 했다。

그네들은 앞으로 抹殺시켜 버리려고 하고 있는 韓語로써 演劇公演을 하고 있다는 事實부터가 自己네들에 對한 反抗運動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다른 興行劇團은 韓語로써 演劇公演을 하고 있는 터에 왜·하필 劇藝術研究會에 對해서만 이 무슨 壓力이냐고 抗辯하였

다。

日官憲은、萬一 너희들의 연극公演이 다른 興行劇團과 같이 文化運動이 아니고、먹고 살기 爲한 하나의 方便으로써 行하여 진다면 容恕하겠지만、그렇지 않다면 解散시키겠다는 것이다。그들의 見解에 依하면 弱少民族의 文化運動이란 하나의 民族運動이란 것이었다。할수없이 劇藝術研究會란 看板을 버리고 「劇研座」란 興行劇團的인 이름으로 고쳤다。

그러나、비록 看板은 고쳐졌지만、그 理想이 달라질 수 없었다。劇研座로 改名한 後에 上演한 作品들이 이를 證明한다 即——「맥스웰 안더어슨」作 「目擊者」、「헤이워드 夫妻」作 「포오기」、柳致眞作 「春香傳」、「소」、「姉妹(1)」、「田漢」作「湖上의 悲劇」、金鎭壽作「길」、「시드니·킹스레」作 「白衣의 天使」、모르나르作 「商船테나시티」、「李光來」作 「村先生」 等等이 그것이다。

以上의 作品들은 모두 市民舘(現國會議事堂) 舞臺에서 公演되었으며、演出에는 柳致眞 裴置에는 姜聖範이 主로 담당하였고、演技陣에는 李雄、金一英、金福鎭、孟晩植、朴商翊、宋在魯、金瑛玉等이 있었다。當時 府民舘은 그때로서는 그 類를 보지 못할만큼 近代的으로 깨끗하게 新築된 建物이었던 만큼、거기에 依據하여 常時 活動한 劇研座의 公演水準은 括目할 程度였다。

劇研座는 그 前身인 劇藝術研究會의 創立으로부터 九年間의 生命을 持續하다가 一九三九年에 日帝 當局의 命으로 强制解體되었다。

當時 日帝는 滿洲를 制壓하고 그 侵略의 魔手를 支那大陸에까지 뻗치고 있던 때다。韓語로 發刊된 東亞、朝鮮、兩日刊紙는 勿論 韓人이 가진 모든 社會文化團體를 解散시킨 때는 이때였고、우리에게 日本式 이름으로 創始改名을 强要한 것도 바로 그即時이었다。그 橫暴의 程度는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劇藝術研究會가 解體는 되었지만 前後 九年間에 이 團體가 開拓한 劇藝術의 水準은 자못 높았으며、앞으로 樹立하려는 民族劇에 對한 어느 程度의 基礎를 닦아 놓게된 것도 事實이었다。

演劇의 職業化

그 동안에 韓國演劇도 職業化될만큼 育成되었었다。

劇藝術研究會가 창립된지 五年째 되던 해인 一九三五年 末頃에 演劇常設劇場으로써 東洋劇場이 新築되었다。이 劇場은 애초부터 演

劇만을 爲하여 設計된 것이었다。이런 劇場이 建築이 可能할 만큼 우리 劇界는 前進한 셈이다。

이 劇場은 洪淳彦氏의 出資에 依한 것이었지만、그 經營은 小說家 崔獨鵑氏의 責任 밑에 있었다。當時는 一般的으로 觀劇熱이 왕성한 가운데 崔獨鵑氏의 敏腕으로 東洋劇場의 운영은 매우 활발하였으며、따라서 全劇界는 東洋劇場에 총집중된 感이있었다。文藝部에는 崔獨鵑 外에 李瑞求、李雲芳、金鍵、演出部에는 洪海星、朴珍、裝置에는 金雲善、元雨田、鄭泰善等이 있었으며、演技者로서는 卞基鍾、朴孤松、徐一星、梁日明、車紅女、南宮仙、韓銀珍、劉桂仙、朴玉草、趙美齡、金勝鎬等 錚錚한 陣容이 두 直屬劇團인 「靑春座」와 「豪華船」에 各各 配屬되어 있었다。

兩劇團에서 上演된 作品中에서 重要한 것을 들어보면 李雲芳作 「國境의밤」을 비롯하여、崔獨鵑作 「僧房悲曲」 「女人哀史」、李雲芳作 「秋風感別曲」、「슲으다 어머니」、「망석중」、「檢事와 死刑囚」、李光洙原作을 脚色한 「端宗哀史」、「無情」、「사랑」、李瑞求作 「어머니의힘」 等이었다。

그러나、以上의諸作을 制壓하여 斷然人氣를 獨占한 作品이 있으니、그것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가정비극이었다。그러나 不幸히 이 作品 亦是 다른 作品들과 같이 藝術的으로 低調한 新派劇에 不過하였다。大體로 東洋劇場 演劇의 盲點은 作品의 貧困性에 있었다。

本是 우리나라에 實力있는 劇作家가 많지 못한데다가 東洋劇場에서는 한 作品을 四、五日間의 短期 公開로써 갈아치우기 때문에 爲先 그 無數히 要求되는 脚本을 댈만한 劇作家의 머리數부터 不足하였다。

그때문에 東洋劇場에 上演되는 脚本이 質的으로 低下함을 免치 못했고、藝術的인 見地에서 볼때에 識者의 批難의 對象이 아니 될 수 없었다。

그렇다고 演劇界에 있어서의 東洋劇場의 功績은 過小評價할수 없을 것이다。爲先 東洋劇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演劇이 職業化의 可能性을 立證해 주었고、그 舞臺를 通해서 才操있는 新人들이 많이 輩出되었기 때문이다。

東洋劇場은 一九四〇年頃부터 經營者가 갈렸고、그때 日帝가 敢行한 全體主義的 演劇統制와 더불어 低調해지더니、八一五 祖國解放과 더불어 映畵舘으로 轉向해 버렸다。그後로 우리는 演劇常設劇場을 가지지 못했다。

劇團 新協의 活動

八一五 解放은 全民族과 더불어 韓國演劇人에게 얼마나 벅저린 感激을 주었던 것일가? 民族演劇을 樹立할 수 있는 정말 機會가 到來한 것이다。그러나 不幸히 이 꿈의 實現은 共產主義의 侵略이 韓半島에 밀려 들어옴으로써 鈍化되고 말았다。

韓半島에 밀려든 蘇聯勢力은 모든 社會生活에 共產主義의 統制를 加하였던 것이며、「스타린」式의 그 統制는 日帝가 敢行한 「히틀러」式의 統制와 다름없을 만큼 强壓的이며 약탈的이었다。

그 行悖 앞에는 民族이고 文化고 藝術이 있을 수 없고、오로지 黨에對한 屈服——그것뿐이었다。日帝의 彈壓으로 말미암아 뻗치지 못한 우리의 民族演劇은 共產主義로 말미암아 또다시 再起不能의 不具者로 뒤집혀질 危機에 빠졌었다。

解放初는 美軍政時요 美國의 政治理想이 左右合作을 내세우던 때라、共產主義가 南韓에서 容納됨을 奇貨로 그들은 南韓다저 占領하려고 猛熱한 組織的 攻勢를 取하고 있었고、民主主義는 어디까지나 共產主義의 行悖에 受動的이었다。

이런 때에 反共의 旗幟을 내걸고 맨 첫번 일어선 劇團이 李海浪 金東園 尹芳一等이 組織한 劇藝術協會(新協의 前身)였다。그 첫出發의 試演은 一九四七年三月一日에 市公館舞臺에 올린 「祖國」이였으며、그 創立公演은 同年四月에 國都劇場에서 올린 「自鳴鼓」였다。

當時 共產主義新聞은 公演때마다 筆鋒을 갖추어 劇藝術協會의 活動을 阻止하려 덤벼고、民主主義的 文化人들은 共產主義者들의 報復이 두려워 傍觀만하고 있었다。이런 現實 속에서도 劇藝術協會는 꾸준히 버티고 나갔다。

劇藝術協會는 一九五〇年初에 中央國立劇場이 創立되면서 「新協」으로 改稱하여 잠간 동안 그 專屬으로 包攝된 바 있은 일이 있었다。그後 계속하여 오늘날까지 十餘年 동안의 歲月을 두고 賣票收入으로써 自主經營하면서 五十餘回의 新作公演記錄을 가짐으로써 現新劇界에 代表的인 集團으로 存在하고 있다。그동안 上演된 作品은 다음과 같다。

柳致眞作	祖國	
柳致眞作	自鳴鼓	
柳致眞作	麻衣太子	

막스웰·안더어슨 作 目擊者

金熙昌 作 桃蘭記

柳致眞 作 銀河水

柳致眞 作 별

柳致眞 作 春香傳

헤이워어드 夫妻 作 포오기

吳泳鎭 作 살아있는 李重生閣下

킹스레이 作 愛國者

秦雨村 作 王昭君

톨스토이 作 어둠의 힘

尹芳一 作 山有花

柳致眞 作 元述郎

조우 作 雷雨

쉐익스피어 作 하므렡

쉐익스피어 作 오셀로

샤르뜨르 作 붉은 장갑

柳致眞 作 順童이

鄭飛石 作 女性戰線

韓路檀 脚色 鄕愁

파니올 作 守錢奴

모리엘 作 맥크베스

쉐익스피어 作

吳 泳 鎭 作　孟進士宅 慶事

柳 致 眞 作　불 꽃

柳 致 眞 作　處容의 노래

SCEILLER 作　윌리암·텔

尹 芳 一 作　銀 裝 刀

柳 致 眞 作　나도 人間이 되련다

쉐익스피어 作　쥬리아스·씨이자

鄭飛石作 韓路檀脚色　自 由 夫 人

柳 致 眞 作　伽倻琴의 由來

尹 芳 一 作　이 슬

朴鍾和作 韓路檀脚色　錦 彬의 피

柳 致 眞 作　姉 妹

吳 若 作　人 獸 之 間

유진·오닐 作　느름나무밑 그늘밑

李 泰 煥 作　桂 月 香

임 선 作　民 衆 의 敵

吳 華 燮 譯　다이야M을 돌려라

任 熙 宰 作　꽃잎을 먹고 사는 機關車

아더·밀러作 吳華燮譯　박 쥐

柳 致 眞 作　漢江은 흐른다

柳 致 眞 作　소

中央國立劇場은 避難中 大邱 키네마를 接受하여 大邱에서 四五年동안 活動하였으나, 그 成果가 如意치 못하여 그 劇場을 버리고 上京하였다。서울서는 市公館을 빌려 公演하고 있으나, 이 亦是 좋은 成績을 올리지 못하더니, 最近에는 劇團 「新協」과 또 하나의 劇團 「民劇」을 專屬으로 포섭하여 再起를 꾀하고 있다。

◇學生劇(Eational gheatre)

韓國의 學生劇은 新劇運動과 더불어 일어났고 新劇運動과 더불어 發展해 가고 있다。

新劇運動의 理想이 歐美 先進國家의 劇術을 攝取하여 우리 民族劇을 樹立함에 있다면, 外國의 劇術을 研究 攝取하는데 가장 適宜한 立場에 있는 者가 바로 學生들이기 때문이다。그러나, 日帝時에는 日人들이 學生들에게 韓語使用을 禁止했기 때문에 學生劇이 發達될수 없었다。그러나 全國 各 男女大學에는 解放 前에도 大概 演劇部를 가지고 있기는 했다。解放과 더불어 母國語使用이 自由롭게되자 學生劇 發達에 無限한 素地가 열렸다。現在 高大、延大、서울大學校、梨大、淑大、東大、中大、成大、新興大學、釜山大學、靑丘大學等 各大學에는 演劇部가 있으며、그들은 每年 對外發表公演을 가지거니와、요즘에 와서는 各 男女高等學校에도 大概演劇部가 設置되어 大學과 같이 對內 혹은 對外 公演을 繼續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에 學生들이 試演한 作品은 創作劇도 많거니와 外國의 飜譯劇도 많이 上演되고 있다。

一九四九年에는 韓國 演劇學會 主催로 처음으로 全國男女大學 演劇競演大會가 열리어 從來 獨自的으로 活動하던 大學演劇運動을 集成시키려고 努力하였다。

그後 이 大會가 年中行事로써 繼續됨에 따라 學生劇의 熱은 높아졌다。中高等學校를 中心하여 亦是 韓國演劇學會 主催로써 一九五五年 男女中高等學校 演劇大會도 열렸었다。

從來의 韓國의 國語敎育은 古典을 위시한 文章本位였었던 것을 今年으로써 中高等學校 國語敎科書의 改編이 完了되어, 實用的인 日常的 言語를 重視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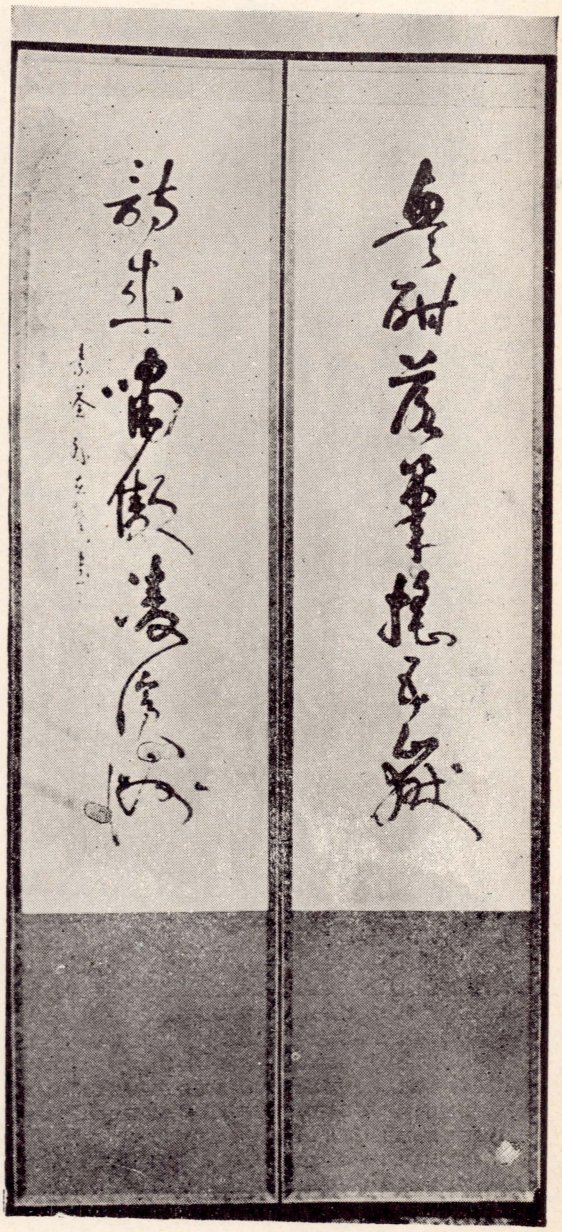
이는 「말하기」와는 不可分의 關係를 가진 演劇이 國語敎育에 利用될 絕好의 機會인 줄 나는 생각한다。이로써 韓國의 學校劇의

將來에 對해서 希望的 期待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希望的 期待를 가진다는 것은 美國의 演劇이 美國 學校敎育에서 「말하기」 工夫에 힘 쓰게된 德分에 오늘의 大成을 본 하나의 原動力이 된 事實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今年에는 中央大學에서 演劇映畵科를 設置했다。數年前부터 우리는 서라벌藝術大學에 演劇映畵科를 가진바 있다。이 學校들이 時日이 감으로써 充實해 주면 우리 學生劇의 將來에는 더욱 많은 期待를 부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우리가 믿음직하게 느끼는 것은 硏究劇團들의 活動이 擡頭된 事實이다。우리 記憶에 떠오르는 것만해도 制作劇會、新人小劇場、圓方角、現代劇會等이 있다。

이는 우리 劇界、特히 映畵、라디오等 姉妹藝術의 發展으로써 技術者를 빼앗기고 있는 오늘의 現實을 위하여 매우 慶賀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이런 硏究劇團이 생기는 것도 學生劇들이 活潑해진 德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書藝「隸書・草書」　孫　在　馨

빈 면

冬至의 詩

徐 廷 柱

시베리야의
카츄샤 마슬로바의
二萬名分의
남긴
呼吸 같은 날。

길뜬지 달포가된 내 石榴가지의 루비들은
얼마전 無欲 色界의 그 親庭에 들러
골방의 錦枕우에 비스듬이 누워 있고、

간 봄내 草原長堤의 쑥대밭의 翡翠들은
몇달을 가서 쉬고
無雲天에서 다시 내려올 채비들을 하느라고
수런그려쌓는다。

아아 내 키만큼한 翡翠의 空闥。
아아 내 안해의 키만큼한 翡翠의 空闥。
親庭간 내안해와 남은 내 키만큼한 翡翠의 空闥。

아아 내 키만큼한 루비의 空闥、
아아 내 內緣의妻의 키만큼한 루비의 空闥。
親庭간 내 內緣의妻와 남은 내 키만큼한 루비의 空闥。

돋아날 민들레의 將來의 肉身을 재고 있는 대신
千里의 多至旅行을 나도 다니어 오리。

註、이 글 中의 內緣의 妻云云은、물론、아직 未整理된 心內의 感覺上의 一現狀일뿐、
法에 닿는 言語行動世界가 아님을 말해 둔다。

엘 그레고作 聖프란시스고 諸圖像에 關한 小攷

張 勃

엘 그레고의 生涯와 그의 作品에 對해서 많은 評論家와 史家들은 意見을 달리하고 있어 때로는 相反되는 主張을 하고 있다。

筆者가 엘 그레고의 聖프란시스고圖像에 對해서 關心을 갖게 된 것은 大槪 다음과 같은 點에서이다。伊太利의 르네상스盛期도 그 한고비를 접어들무렵、엘 그레고에 있어 伊太利와 스페인時代 以前 크레트島 時代에 이미 Candia 와 各地에는 大規模의 프란시스간 修道院이 開設되었고、聖프란시스고에 對한 一般島民들의 敬慕가 敎篤하였다는 事實을 미루어 엘그레고作의 聖프란시스고圖像이 그類型의 多樣性이며 또 宗敎畵로서의 崇高한 品格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레고가 토레도에서 Covarrubias, Gongora, Paravincino, Tavera 와 같은 巨儒들과의 交遊와 著名한 神秘哲學者들의 깊은 影響을 입은 것 外에 靑少年時代 크레트島의 日常生活에서 感化를입고 成長한 宗敎的 雰圍氣와 心靈生活의 體驗이 많이 作用하고 있다는 點이다。

1 엘 그레고의 略傳

EL GRECO 의 本이름은 Domenikos Theotokopoulos 이다 世稱 엘 그레고는 『그레시아 사람』이라는 데서 온 것이다。

엘 그레고는 一五四一年 Crete島의 首都 Candia에서 出生하여 十九歲에 이르기까지 그의 靑少年期를 그 當時 크레트島에서 敎會의 傳統的 表現樣式이되어 있던 Byeztin 系의繪畵修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一五六〇年 Venice에 渡來한 엘 그레고는 巨匠 Titian의 門弟가 되어 繪畵의 硏鑽을 거듭하는 동안 Titian의 色彩의 影響은 勿論 Bassano와 Tintoretto의 畵風에서도 많은 感化를 받았던 것이다。

精密肖像畵家 Guilio Clovio의 斡旋으로 Roma에서 Farnese 樞機卿에게 歡待를 받은 것은 스페인과 베니스의 聯合艦隊가 土耳其艦隊를 레판토에서 擊破하기 一年前인 一五七〇年의 일이었다。

로마에 六年間滯留는 엘 그레고에게는 滿足할만한 收獲을 거두지 못하였다。디우기 미켈안젤로의 作品에 對한 엘 그레고의 憧

慢한 酷評事件은 엘 그레고 로 하여금 로마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로마에서 歡迎을 받지 못한 엘 그레고는 自己의 第二故國으로 스페인을 擇하였다。필립二世 治下의 스페인은 異教徒들에 對한 護教熱과 十字架의 聖요안과 아빌라의 聖女 데레사 等의 神秘主義者들의 輩出로 全 가톨릭의 教養과 情熱을 代表하는 地位에 있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首都 마드리드 보다도 Toledo는 모든 文化와 教養의 本據地이였음으로 篤實한 信仰家였던 엘 그레고가 一六一四年 死去에 이르기까지 三十三年間을 토레도에서 異邦人畵家로서 많은 傑作을 남기었다는 것은 쉽사리 肯定할 수 있다。토레도에서의 엘 그레고의 生活은 比較的 豪華스러웠으며 作品의 報酬에 關한 頻繁한 訴訟事件은 恒時 勝訴는 하였으나 매우 不幸한 일이었다。Dona Jeronima de La Cuevas와 結婚하였고 獨子 Jorge Manuel은 엘 그레고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伴侶였다。죠지 마누엘이 一六一四年 作成한 財產目錄을 San Roman의 硏究發表에 依하면 繪畵 二百四十一點、希臘語作品集 二十七、伊太利語 作品集 六十七、西班牙語 作品集 十七、等이 있는 것으로 보아 古典에도 相當한 造詣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Pacheco는『그는 大哲學者요 嚴格한 批判家이며 繪畵、建築、彫刻에 關하여 論說을 썼다』고 하였다。

異邦人 엘 그레고가 伊太利 레네상스 全盛期의 베네지안 技法을 토레도에 導入하여 그 누구보다 가장 스페인的인 名作을 多數製作하여 스페인 繪畵史上의 至寶가 되었음은 하나의 驚異가 아닐수 없다。

2 엘 그레고와 聖프란시스고 圖像

中世 歐羅巴 精神界의 慧星과도 같이 出現한 Assisi의 "Poverello"『貧者』는 俗名을 Giovanni Francesco Bernardone라고 한다。一二二八年 教皇 그레고리九世에 依하여 列聖이된 以後 聖프란시스고라 呼稱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克己와 贖罪의 要諦로 聖貧을 通할 것을 提唱하여 이를 自身이 實踐窮行하여 垂範을 한 것은 너무나 有名한 事實이며 末年에 이르러는 그리스도의 Stigmata 傷痕을 印받음으로 더욱 全世界를 驚嘆케 하였다。

이러한 새思潮는 全그리스도教 世界에 流布되여 佛王 聖루이九世를 비롯하여 全歐洲의 神經은 聖프란시스고에 集中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聖프란시스고가 그리스도教 社會에 준 影響은 中世와 文藝復興期 美術品의 作例를 보면 무엇보다도 明白할 것이다。무릇 그리스도教 美術에 있어 特히 繪畵나 彫刻을 中心으로 할 때 그리스도와 마리아 或 聖母子像 Madonna를 除外하고 聖프란시스

고와 같이 單一 人間이 主題가 되어 敎會의 要請에 依한 製作이거나 私邸를 爲한 作品中에 聖프란시스고의 圖像과 같이 名作이 많은 것은 없을 것이다。이로 미루어 聖프란시스고에 對한 사랑과 憧憬이 어떻게 廣範圍하게 그리스도敎 世界에 盛行하였던가를 窺知할 수 있다。

엘 그레고의 作品을 主題別로 大分하면、肖像畵、風景畵、神話、風俗畵、宗敎畵等으로 區分 할 수 있으나 全作品의 大部分이 宗敎畵이며 宗敎畵中에서 聖프란시스고의 圖像이 一百二十點에 達하고 있는 事實을 볼 때에 엘 그레고에게 聖프란시스고圖像의 作家가운데의 最高 最適의 禮讚을 올리는 것이 單純히 作品의 數的 優位에서보다도 그가 가슴 속 깊히 간직한 敎虔한 信仰의 불꽃을 名腕에 촘추는 畵筆을 通하여 畵幅 위에 불살은 데 있는 것이다。

聖프란시스고는 가장 卑賤한 人間 "Poverello"로 自處하여 온人類의 同情과 敬慕를 차지한 事實은 一般의 要求와 請托에 依하여 制作된 多數한 名作으로 解明이되었으나、"Candiot" 엘 그레고와 聖프란시스고와의 關係는 엘 그레고 少年期 當時의 크레트島의 情勢를 一瞥함으로 因緣이 깊은 由來가 確認될 것이다。

Creta 島는 Venice 共和國의 支配下에 있어 同島原住民의 傳統的信仰인 希臘正敎 Greek Orthodox와 Latin Cathojic이 併存하여 各其 큰 反目이 없는가운데 好戰的이요 情熱的인 島民의 信仰生活이 營爲되었다。

Crete 島中에서 가장 著名하고 重要한修道院은 Candia의 聖프란시스고 修道院이었다。聖프란시스고 祝日에는 希臘正敎徒와 카도릭信者가 各其 다른 禮節을 同修道院聖堂에서 執行하는 것을 敎皇은 特令으로 許容하였다。그리고 一四〇九年에 Cretan Pietro Filargo는 Alexander 五世로 敎皇座에 陞進하였으니 그는 바로 同修道院 出身이였던 것이다。

全 Crete島民의 宗敎的熱意는 童貞마리아와 聖프란시스고 恭敬에 集中되였던 것이다。各處의修道院이나 聖堂에는 비잔틴樣式의 聖畵가 華麗하게 裝飾되었었다。十六世紀初에 Crete 島의 Theophanes와 그의 長子 Simon이 Mount Athos 修道院에 壁畵를 制作한 것은 有名한 事實이다。

少年期에 엘 그레고는 Candia 修道院에서 Icon 畵家들이 魂瞻을 기우려 制作한 聖프란시스고의 一生에 關한 壁畵와 그의 英雄的 行蹟에對하여 一般島民들과 同一한 敬慕의情을 가슴깊이 지니고 智慧와 더부러 成長하여 갔을 것이다。

엘 그레고의 聖프란시스고 圖像制作의 動機는 單純히 敎會의依賴나 敬虔한 信者들의 請託에 依하여서 뿐만 아니라 作家自身이 聖

者를 愛慕하는 熱誠도 큰 原因이되었 던 것은 贅言을 要하지 않는다。

엘 그레고作의 聖프란시스고像은 그數 大幅畵와 小品을 合하여 一百二十點에 達하고 있다。

圖像을 型別로 나누면 十七型으로 된다。制約된紙面의 關係로 其中의 重要한 五幅의作品을 紹介하고 三面의細部圖를 이에 加添하기로 한다。

圖版第一 祈禱의 聖프란시스고는 다른 엘 그레고作品에 比하여 正確한 寫實風의 作이다。自身의 微弱을 느끼여 셀레는 가슴에 손을대여 架上의 聖主를 凝視하는 힘찬 눈은 시름없이 내어든 손길과 頸骨의 좋은 對照가 된다。거센 구김살의 苦服은 克己와 苦行의 象徵과도 같은 謹嚴한 感을 주는 作이다。

圖版 第二는 祈禱의 聖프란시스고의 頭部 隱遁禁慾의 生活이 가져온 초최한 모습 잦은 斷食은 얼굴에서 피와 살을 거두었다。肉을 죽임으로 靈의 큰힘과 生命을 얻었다。쏘아보는 그의 눈은 燦爛한 光彩안에 全人類의羔羊이되여 犧牲으로 苦悶하는 그리스도를 본다。빛나는 눈에 흐르는 感涙는 超越的 天界의 深遠한 默想과 痛悔의 體驗을 通하여서만 可能한 表現이다。頭部를감고 頸部를 조린 후드는 外界의誹謗을 듣지않으려는듯 귀를싸고덮어 隱遁者의 참된 表象을 보여 준다。

圖版 第三 十字像을 敬慕하는 聖프란시스고 畵面右側上部의 하늘은 深山의 溪谷을 暗示해 주고 있으며、언제나 聖者의 周邊에 反復되는 것은 十字像과 頭骨이다。스페인 神秘主義 作家들은 죽엄의 表象으로 頭骨을 描寫하였다。이 作品에는 Poverello의 所有物의 全部가 陳列되어 있다。프란시스고의 全資產이란 單벌의 苦服과 十字像과 頭骨外에 또하나는 한권의 聖書이다。長跪하고 있는 聖者는 上體를 앞으로 굽혀 두손을 가슴에 交替하여 누름으로 謙虛한 몸매를짓고있다。右便下端에 自色紙片에는 作家의 署名이 쓰여 있다。

圖版 第四、默想의 聖프란시스고 兩手에 頭骨을 들고 死末을 默想하는 全身長跪圖이다。左側下部의 靑年修道者의 敬虔한 姿態는 前面上部에서 내려비치는 光線이 더한層 效果를 도왔으며 右側下端에 놓인 署名이 있는 白紙는 左側의 人物이 支配하고있는 空間을 制壓하는 重大한 作用을 하고 있다。

圖版 第五 默想의 聖프란시스고、圖版第四의細部、

圖版 第六 默想의 聖프란시스고 圖版第四의細部、

圖版 第七 五傷 聖痕을 받는 聖프란시스고、

圖版第二에서와 같은 깊은感銘을 주는 顔面의 表情이다。聖프란시스고는 그리스도의 救贖功勞와 그의苦難을 悔恨함이 至極하여 聖主의 格別한 特惠를 입어 兩手와胸部、兩足五個處에 예수의 傷痕과같은 傷痕을 받았고、그 傷痕에서는 恒時 鮮血이 어려 있었다 한다。이 奇蹟을 描寫한 作品은 實로 많은 것으로 그 數的豐富와 表現에 外樣性에 있어 特히 伊太利레네상스期의 多數한 名作은 歐羅巴繪畵史上의

一大奇觀이라 하겠다。이 作品에서의 두 손의 動作과 表情은 南歐人들이 意志傳達의 方法의 하나로 通常하는 것이나 엘 그레고는 이 그림에 내려밀어 뻗은 左手와 下膊을 들어 올린 右手가 驚異와 恍惚境에 떨고 있는 聖者의 構成的効果를 强調하는 한便 매우 自然스런 姿態가 되어 있다。엘그레고는 그의 最大名作 Orgaz 伯爵의 葬儀圖에도 多數한 손과 손의 旋律的 動作을 構圖에 適用하여 對照의 美를 거두었다。

圖版 第八 修士루피노와 五傷聖痕을받는 聖프란시스고

이作品은 엘 그레고作 聖프란시스고像 中의 最大名作이다。神秘스러운 閃光 번드기는 深夜의 天空 畏懼와 感激의 交替하는 奇蹟發顯의 奇那過程을 소리없는 가운데의 動搖로 엘 그레고는 캔바스 우에 또하나의 놀랍고도 慇密한 奇蹟을 行하였다 하겠다。

빈 면

祈禱의 聖프란시스고

Canvas 1,00 m. × 0,88m

Leo Sren, Florensce

圖版 第一

聖프란시스고의 頭部

Canvas. 0,46m. × 0,39m.

Hispanic Society of Amcerca, New York.

圖版 第二

十字像을 敬慕하는 聖프란시스고
Private Collection, Madrid
圖版 第三

默想의 聖프란시스고
Private Collection, London.
圖版 第四

默想의 聖프란시스고　　圖版第四의細部

圖版　第五

默想의 聖프란시스고　　圖版第四의細部

圖版　第六

五傷聖痕을 받는 聖프란시스고

1584 — 1594

Canvas 1, 07m. × 0, 87m. Escorial, Madrid.

圖版　第七

修士 루피노와 五傷聖痕을 받는 聖프란시스고

Hospital de Mujeres, Cadix.

Canvas 2, 03m. × 1, 25m.

圖版　第八

國樂의 過去와 將來

成 慶 麟

國樂이란 오늘날 우리의 在來하는 一切의 音樂을 우리가 일컫는 이름이다。正確히는 韓國音樂이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오늘날 이 成語는 西洋音樂인 洋樂에 對하여 부르고 있다。

그러나、歷史上 韓國音樂은 이를 俗樂이니 鄕樂이라고 일러 왔고 國樂이란 이름을 使用한 것은 八·一五 解放以後가 될 것이다。

韓末 高宗때 樂院의 職名으로 國樂師長、國樂師란 名稱이 있었으나、韓國音樂을 標榜하는 뚜렷한 用語는 아직 못되었던 것이다。國樂이 우리가 우리의 音樂을 일컬으는 이름인 것은 아는 바이지만 무엇을 가리켜 國樂이라고 規定하는가를 考究하여야 한다。國樂이란 韓國 사람의 思想과 感情을 獨特한 音組織에 依하여 創造한 藝術이라고 一應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그것은 國樂은 韓國人에 依하여 지어진 것도 있지만 더러는 中國에서 傳來한 音樂도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 두는 것이다。

그러나、비록 外來한 音樂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韓國音樂으로 同化되어 버린 것이므로 別로 相關이 없다。그러므로 國樂이란 지난날 이 겨레에 依하여 지어지고 또 中國에서 傳來한 音樂까지도 일컫는 이름인 同時에 오늘과 오늘以後에 이 겨레에 依하여 새로이 지어지는 豊盛한 우리 音樂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오늘날 國樂이라고 하면 이와같은 새로운 音樂은 考慮되지 아니하고 過去의 音樂만을 生覺케 되는것은 매우 遺憾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國樂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옛音樂만을 聯想하는 것은 또 까닭이 없지 않으니 새로운 國樂이 活潑히 制作되지 아니하는 것에

지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痛嘆할 事實이나 數百年 동안 空白인 創作없는 國樂을 금시에 메꿀 道理는 정말 어려운 노릇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분수로 보아서는 解放以後 新國樂이 近十篇이나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을 왜 하는고 하니 國樂은 過去의 音樂만이 아닌 것을 說明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國樂속에는 韓國의 音樂과 또 中國에서 傳來한 音樂으로 우리에 同化된 것도 얼마가 있는데 眞正한 意味의 國樂이라고 하면 勿論 전날 俗樂이나 혹은 鄕樂으로 일러온 우리의 固有의 가락을 말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國文學에 있어 한글文學과 漢文文學에 比較될 것으로 純粹하고 嚴正한 意味의 國樂은 우리 先人에 依하여 創造된 音樂이 될것이오 그 밖의 것은 넓은 意味의 國樂이어야 한다。

이것을 거꾸로 國樂의 大部分이 中國에서 傳來하였다고 보는 축이 있고 또는 國樂을 혹은 正樂만을 혹은 俗樂만을 편벽되게 生覺하는 축도 없지 않아서 답답하다。

國樂은 오늘날 우리가 保有하고 있는 一切의 音律을 汎稱하는 말이다。

그러기에 淵源이 어디고를 묻지 않고 우리가 演奏하고 傳承하여 오는 것은 모두 國樂이라 부르기를 꺼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正樂을 높이는 축에서는 國樂이라고 하면 응당 正大한 正樂만을 指稱하여야 한다 하고 俗樂을 두둔하는 축도、國樂이라고 하면 民俗에서 發生한 그 俗樂만이 國樂의 이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兩說이 모두 偏見임을 免하지 못하는 잘못인 것이다。

正樂만이 國樂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俗樂만이 國樂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큰 바다가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 것처럼 國樂이란 이름 속에는 正樂도 俗樂도 다 內包될 것이기 때문이다。

俗樂이 國樂 될수 없다는 尊大나 俗樂만이 國樂이라는 固執은 모두 당치 않다。國樂이란 실로 이 모든 것으로서 이루었기에 자랑스럽고 貴한지 모르겠다。

正大한 音樂만 있어서는 庶民이 가엾고、通俗的인 音樂만 있어서는 淺薄하다는 비방을 면치 못할 것이다。

國樂은 이렇게 전날 宮中에서 演奏되고 保存하여온 이른바 正大의 가락、雅樂 또 民間에서 自然發生的으로 發生하여 傳承한 世稱 俗樂 두가지로 보는 것이 지극 간편한 것이다。

이것들은 또 그 안에 각각 聲樂과 器樂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宮廷音樂은 歷代 이를 掌樂院에서 管掌하였다。

李朝 太祖元年 七月 太祖의 卽位와 함께 雅樂署와 典樂署의 두 樂工職을 두었는데 雅樂署에서는 雅樂을 맡고 典樂署에서는 俗樂과 法舞를 맡게 하였다。

내려와 世宗七年 먼저의 雅樂署와 典樂署를 統合해서 하나로 雅樂署라 불렀는데 世祖四年에는 이를 掌樂署라고 고치고 이 안에 左坊과 右坊을 두었다。

즉 左坊은 雅樂을 맡고 右坊에서는 俗樂과 法舞를 맡았는데 職種으로는 提調正 僉正 등이 音樂行政을 맡고 樂師 以下의 音樂家가 奏樂에 關한 事務를 當하였다。

이 左坊과 右坊의 區別은 近年 雅樂部時代까지 남아 있어서 아주 뿌리가 깊은 것이었는데 左坊과 右坊은 여기 매인 樂人의 職名까지 같지가 않았다。

左坊에 매인 者는 樂生이라 불렀으며 右坊에 매인 者는 이를 樂工이라 불러 이것은 요즘까지 樂人이 賤한 이름으로 되었던 것이다。

右坊에는 樂工 外에 다시 女樂인 妓生과 管絃盲人이란 것이 附屬되어 있었다。

管絃盲人이란 盲人들의 樂士로서 많이 內宴에나 쓰였고 女樂은 歷代로 是非가 끊이지 않았지만 正殿 會禮에서만 禁閉되었을 뿐 盛히 演奏되어 近者까지 그 妓生의 傳統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高宗三十二年 掌樂院을 宮內府에 附屬케 하고 同三十四年 즉 光武元年에는 掌樂院을 敎坊司라고 改名하였다。

隆熙元年에는 敎坊司를 掌樂課라고 고치고 國樂師長以下 三百餘名의 樂人을 두었으나、庚戌 國恥以後 주욱 雅樂部로 행세하다가 大韓民國 樹立後 國立國樂院으로 發展하였다。

樂院의 樂人은 거의 世襲이요 또 階級이 嚴格하여、樂師는 樂師의 子侄이었고、樂工은 累代 樂人이요 따라서 典樂以上의 家門은 대개가 玄琴 伽倻琴등 絃樂을 傳授하였고、樂工들은 醫藥 大笞 奚琴을 子子孫孫 繼承하는 것이었다。

樂人이 男子를 出產하면 벌써 그달부터 祿을 받고 十餘歲로 長成하면 비로소 樂院에 出仕하는 바 成業에 따라 層階가 自在하였다。

즉 처음 樂院에 들면 兒童房이니 여기서 二三年 基礎的인 修業을 받는 것이다。

兒童房에서의 訓練이 끝나면 將來房에 進學되어 高度의 樂科를 修習하는데 여기서 제법 一家를 이루면 다시 成才房에 들게 된다。

그뒤 오랜동안 精進하므로 可謂 範師格에 이르면 드디어 叅上房에 列하는데 여간 才質로는 어려운 것이다。

雅樂部時代에는 雅樂師長 雅樂師 雅樂手長 雅樂手등의 職階이었고 이밖에 雅樂生을 따로 養成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民間音樂으로는 歌曲 歌詞 時調가 中流以上 士人들에게 愛唱되었으며、판소리와 雜歌 선소리따위는 각각 이를 專業으로 하는 特殊한 階級이 世襲으로 傳承하였다。

그들을 판소리에서는 廣大라 하였고 雜歌와 선소리에서는 각각 某甲이라는 牌長의 이름을 씌우거나 또는 저들의 살고 있는 地域을 가지고 아무 소리패라고 그렇게 불렀었다。

樂工이나 廣大가 모두 賤人에 속하였으나、廣大는 樂工보다 아래였고 그 才人보다는 또 위에 자리하였다。

樂工이 兩班의 舍廊에라도 불리우면 저들은 下庭拜로서 足한 대신에 廣大는 반드시 升堂問安이었고 廳上에 主賓과 함께 있던 妓生들도 樂工의 인사에는 일어서는 法이었고 廣大의 절에는 일어서지 아니하였다。

樂人의 待遇가 이렇듯 부끄러웠던 것이다。

八・一五以前의 國樂은 舊皇室 直轄인 雅樂部가 雅樂을 保存하여 왔고 朝鮮音樂協會 朝鮮音樂部가 民間音樂人을 糾合하여 國樂을 維持하고 있었다。

雅樂部도 전날의 거창하던 儀式奏樂은 이미 喪失하였으나、그래도 宗廟大祭와 文廟의 釋奠등이 있었고 仁政殿의 宴禮도 더러

있어 보람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게다가 雅樂의 後繼를 위하여 官費 雅樂生을 養成하고 있어 그만으로도 雅樂部의 存在價値는 充分하였다。

當時 雅樂部는 三十餘名의 樂師와 二十五名의 樂生을 擁하여 雅樂守護에 盡力하였으며 樂協의 朝鮮音樂部도 民謠의 사설、樂器의 紋章에도 倭警의 지나친 干涉을 받아가며 主로 地方을 巡業하고 있었다。

八·一五 解放과 함께 雅樂部는 舊王宮雅樂部라 看板을 고쳤고 民間에서는 前雅樂師長 咸和鎭氏를 中心으로 大韓國樂院이 結成되었다。

雅樂部는 大韓國樂院의 不當한 壓力에도 屈하지 않고 雅樂部 國營案을 國會에 建議하여 成功하였으니 이는 雅樂部代表 李珠煥氏의 功勞가 絕大하였던 것을 잊을수 없을것이다。

이 무렵 서울中央放送局은 專屬 國樂團을 設置하므로 雅樂部의 困境을 救護하고 國樂放送의 質的向上을 企圖하였다。이 放送專屬國樂團은 國寶的인 雅樂師의 崩壞를 防止하는데 있었으니、舊王宮의 運營이 雅樂部를 維持할수 없는 當時의 實情으로 放送局의 이 擧措는 크게 賞讚되어야할 것이다。

檀紀四二八一年 八月 雅樂部를 國家經營으로 할 것을 國會에 建議한바 國會 第一一五次 本會議에서 雅樂部 國營에 關한 請願決議를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드디어 檀紀四二八三年 一月 十九日字 大統領令 第二七一號로 國立國樂院 職制가 公布되었던 것이다。

文敎部長官 監督下에 國立國樂院을 두는데 國立國樂院은 民族音樂의 保存과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한다고 明文하고 學藝官 事務官 國樂士등의 公務員으로 組織될 것이 밝혀졌다。

國立國樂院 職制는 國樂士養成所 附置에 관한 明文이 없기 때문에 檀紀四二八七年 十月 七日 大統領令 第九四六號로서 改正을 보았다。

즉 改正된 職制 第九條의二 國立國樂院에 國樂士養成所를 附置한다。國樂士養成所에 所長및 副所長을 두되 所長은 國樂院長으로써 補하고 副所長은 國樂院樂士長으로써 補한다 하여 國立國樂院에 國樂士養成所를 附置할수 있는 根據가 闡明된 것이다。

이에 依하여 檀紀四二八七年 十月 一日 文敎部令 第三八號로서 國立國樂院 國樂士養成所規程이 公布되었는데、同規程도 檀紀四

二九一年 二月 二十一日 文敎部令 第七三號로서 一部 改正公布를 보았는데, 그것은 修業年限을 從來의 三年에서 六年으로 延長한 때문이었다。

國立國樂院은 南下避難中 檀紀四二八三年 十二月 二十五日字 樂士長 庶務課長 掌樂課長이 각각 任命되었다。

職制의 公布以後 처음으로 院長을 除外한 首腦人事가 發令된 것이요 翌年 八四年 四月 九日字 院長(李珠煥)의 發令翌日 十日字 院長의 權限으로 十三名의 國樂士를 優先 任命하여 名實相付한 國立國樂院은 비로소 開設되었던 것이다。

이때 南下한 中央放送局과 提携하여 情든 國樂放送으로 거칠은 民心收拾과 士氣昂揚에 盡力한 功은 크고 더욱 避難中 諸般 不利한 惡條件을 克服하며 新國樂이 萌動하였다는 事實은 驚嘆되어야 한다。

國樂이 在來하는 樂曲을 잘 保存하는 것도 所重하지만 藝術이 時代的 産物인만큼 새時代의 思想과 感情을 表現한 新國樂의 創造를 渴望한 것은 벌써 오래前의 일이다。

이것에 呼應하여 國立國樂院의 젊은 世代에서 新作國樂이 出現한 것은 크게 嘉賞되어야 할 것이다。

第一作으로 八四年 여름 「顧鄕詔」를 얻었으며 이어 八五年에는 己未年 殉國先烈의 忠魂을 慰藉하는 「精百魂」과 八·一五 解放의 感激을 謳歌한 「頌光復」이 制作됨으로 新國樂의 前途는 洋洋한 것이 約束되었다。

특히 「頌光復」은 曲題 그대로 祖國光復을 頌詠한 迫力 넘치는 管絃樂으로 前記 二作과 더부러 金琪洙 作曲으로 되어 있었다。

이해는 新國樂 豐作의 해로 開天節 慶祝歌樂 「開天賦」를 얻음으로 量質 아울러 上昇線을 그렸는데 翌年 서울에 還都하여서의 作曲 「다시온 서울」과 합하여 檀紀四二八六年度 서울特別市文化賞(音樂)에 新國樂 作曲의 功으로 表彰된 것이 決코 偶然한 일이 아니다。

國樂人으로서 서울市 文化賞을 受賞한 것은 八六年度의 金琪洙氏가 있고 九十年度에는 國立國樂院長 李珠煥氏가 時調 樂譜 採譜의 功績이 認定되어 亦是 音樂賞에 受賞되었다。

國樂士養成所가 開所된 것은 檀紀四二八八年 四月이다。

國立國樂院이 비록 民族音樂의 保存과 發展을 目的으로 開設된 것이나 이를 可期하려면 正規 後繼者를 養成함으로 비로소

成果를 올릴 것이다。

國民學校를 卒業한 男子 兒童으로 특히 音樂的素質을 重視하여 每年 三十名씩 公募하는 바 中等部 三年 高等部 三年의 學制로 되어 있다。

現在는 中等部 一學年 二學年 三學年 高等部 一學年 二學年 모두 五學級이 있을뿐이다。

이들은 全部를 國費로서 敎育하는데 敎科書 學用品 被服以外에 月手當 三千圓의 奬學金까지도 給與받고 있다。

國樂士養成所는 特殊한 國樂藝術學校인데 一般 中·高等學校에서 課하는 學科와 國樂의 樂科를 아울러 敎授하는 것이 特色이다。

昨年부터 私費生의 制度도 採擇하여 現在의 學生總數는 一五二이다。

敎科는 中等部 高等部에 각각 一般學科와 樂科로 나뉘는데 專攻學科는 第二學年부터 授講하게 되었다。

專攻科目은 玄琴 伽倻琴 피리 大琴 奚琴의 五科로 전날 雅樂部員養成所의 경우도 같았다。

이들은 將來 有能한 國樂士가 되어 國樂發展에 寄與할 것이다。

한편 서울中央放送局에서는 檀紀四二九一年 二月부터 中學校 卒業程度의 女學生을 選拔하여 國樂敎育을 實施하였다。

現在 二十名의 精銳가 보다 高度의 樂科에 精進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活躍이 더욱 期待되고 있다。

그러나 九二年度 서울大學校 音樂大學에 國樂科의 新設을 보게된 것은 劃期的인 事實로 大書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에 正規 國樂科를 創設한 것은 德成女大가 嚆矢가 되겼지만 二年만에 廢科를 不得已한 것은 애석한 일이었다。

音樂科에 國樂을 敎授한 年輪으로 말하면 三十餘年前 梨花女大에서 成和鎭氏를 招聘하여 主로 絃樂을 가르친 歷史가 가장 오랠것이다。

이것은 解放以後도 繼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國樂만을 專攻하는 國樂科가 音樂大學에 新設되었다 함은 斯樂의 將來를 위하여 다시 없는 慶幸事라 하겠다。

國樂士養成所의 敎育도 音樂大學의 國樂科가 생김으로 비로소 金石玉振이라 이를수 있을것이다。

國樂士養成所가 有能한 國樂士의 養成을 目的으로 한다면 國樂科는 優秀한 國樂指導者를 敎育하는데 그 目的이 있을 것이다。

國樂科目을 中·高等學校 正科에 課하라는 要望이 切實하고 國樂의 發展을 위하여는 반드시 있어야 할 過程이지만 率直히

말해서 그것이 實現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教師難을 어찌할 道理가 없을 것이다。

이點 音樂大學 國樂科의 負荷한 責務는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正規教育은 아니지만 淑明女大에서는 國樂班을 特設하여 學生의 教養을 위한 實技를 指導하고 있다。

한편 새로 國樂學園이 發足하였는데 여기서는 女子國樂學校를 目標로 不遠 本格的인 教育活動이 實施될 것이다。

多年 國樂界에 貢獻하여 聲望이 있는 朴憲鳳氏가 主宰하고 있고 琤琤한 女流國樂士들이 集結한 國樂學園의 明日도 一般의 期待는 큰바가 있다。

唱劇은 別로 하고 國樂은 演奏會다운 演奏會가 없어온 것이 實情이다。

이것은 國樂의 特殊性에도 基因하는 것으로 國樂이 從來 많은 聽衆을 對象으로 하는 舞臺藝術이 아닌 것을 理解하면 充分하다。

그렇다고 演奏를 媒介로 하지않은 音樂發展이란 白日夢인 것이다。

國樂이 萎縮不振하는 것도 正常한 演奏活動의 缺如에서 오는 것임은 明若觀火이다。

그런대로 國立國樂院은 每달 定例 國樂鑑賞會를 가져 國樂普及에 努力하고 있고 圓覺社의 舞臺를 통한 唱樂人의 獨唱會가 九二年 여름以後 顯著하여진 것은 고마웠다。

그러나 두 곳이 모두 收容能力이 넓지 못해 적지아니 애로가 되고 있다。

처음부터 收支를 不計하는 國立國樂院의 演奏會는 두고라도 演奏會로 利益은 姑捨하고 採算도 아니 된다는 것은 확실히 盲點이다。

圓覺社는 舞臺가 豪華한 小劇場으로 나무랄 곳이 없는 反面에 客席의 過少는 利用者의 말못할 苦痛이 또한 되고 있는 것이다。

演奏會를 活潑히 일으켜야할 運動이 時急한 것은 前述한바와 같다。

國立國樂院의 舞臺는 雅樂과 俗樂에 걸쳐 어지간히 고르고 聽衆도 제법 固定되어 가는 傾向에 있다。

한편 國樂學會가 主催하는 演奉會가 亦是 每달 繼續되고 있다。

國立國樂院의 演奏會가 國樂 全般을 通한 多彩로운 曲目인데 돌이켜 國樂學會의 그것은 한 種目에 局限하는 것이 첫째 다

르다。

이것은 演奏會의 性格에서 不可避한 것으로 前者가 되도록 많은 聽衆의 귀를 모으기를 爲主한다면 後者는 洋樂人 중에도 특히 作曲家에게 提供하여 國樂의 現代化에 資코 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것이다。

九二年 六月 十九日부터 三日間 圓覺社에서 가진 金素姬女史의 獨唱會는 國樂界에 類例없는 大收穫이라고 떠들었지만 한편 國樂人 洋樂人 또는 一般에게 적지않은 波紋을 던졌었다。

그것은 판소리의 伴奏에 피아노를 使用하였다는 것과 金東振氏가 平均率로서 부른 판소리에 대한 是非에 있었다。

音樂大學 國樂科의 젊은 講師 黃秉冀氏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情熱과 그 새로운 것을 國樂에서 찾아 보겠다는 民族的인 것에의 執着만은 살 수 있다。 그러나 嚴格한 意味에서 이번 試圖는 失敗하였다고 본다」(九二、六、二九 한국)

고 一笑에 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金東振氏는

「民族音樂의 樹立이라는 課題와 普及시키는 問題 그리고 現代的感覺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試圖로서 國樂을 素材로 하고 西洋音樂을 方法으로 한다는 것은 퍽 暗示的인 것이라고 생각한다」(上同)

고 應酬하였다。

國樂의 現代化란 참으로 至難한 課題로서 당장 不滿하더라도 大膽한 實驗을 無數히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國樂譜를 洋樂의 五線譜로 採譜하기 始作한 것은 檀紀四二六一年 四月 元洋樂隊長 白禹鏞氏를 雅樂部에서 雇聘하여 雅樂採譜를 委囑한 것에서 發端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白氏는 몇 曲 옮길 나위도 없이 二年後인 六三年 六月 그만 他界하고 말았다。

그뒤 日人 五十嵐悌三郎、石川義一、그리고 李鍾泰氏등이 關與하였고、다시 雅樂部 小壯들의 努力과 二十年의 長久한 歲月로서 雅樂曲 全曲과 歌曲、歌詞時調의 正歌까지를 完全히 飜譯하여 놓았다。

이것은 지금 國立國樂院에 保存되어 있다。

元來 雅樂採譜의 目的이 洋樂의 科學的인 譜法을 取入해서 韓國雅樂의 保存과 發達을 꾀하고 雅樂을 世界的으로 宣傳하고 이것의 普及을 위한 것이었으나 아직도 上梓를 보지 못하고 秘藏되어 있음은 遺憾之事가 아닐 수 없다。

此際에 文敎部에서는 國樂振興의 一助로 民俗樂 採譜를 企圖하고 九一年度 「민속악보」 第一輯을 公刊하였다。

內容은 판소리 「春香歌」 「伽倻琴散調」 「濟州島民謠」이오 採譜者는 「春香歌」에 金東振 羅運榮 金聖泰 「伽倻琴散調」에 金琪洙 「濟州島民謠」에 李炳佑등 諸氏가 擔當한 것이다。

雅樂譜의 경우도 그러했듯이 「민속악보」에 있어서도 西洋式 樂譜와 韓國固有의 소리의 構造가 本質的으로 다른데서 오는 音程을 어떻게 맞추어서 國樂의 맛을 洋樂譜에 옮기느냐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樂譜도 樂譜라고 이름 불리우는 限 完全無缺한 樂譜는 바랄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韓國의 獨特한 音程은 洋樂의 音程과는 스스로 다르지만 無譜音樂이던 판소리요 伽倻琴散調를 이 程度로라도 五線譜에 옮긴 것은 큰 進展이라고 생각한다。

「민속악보」는 叢書로서 앞으로 繼續해서 出刊될 것이어니와 이와 아울러 아직 햇빛은 보지 못하고 있는 雅樂譜도 하루 速히 世上에 나오기를 期待하고 있다。

「민속악보」 第二輯은 「靈山會相」이 選定되어 이미 金琪洙氏에 의하여 採譜가 끝나 있고 따로 「韓國樂器圖錄」도 編纂中에 있는 것이다。

檀紀四二八九年 가을 國樂再建對策委員會가 組織되어 斯界의 權威들로부터 展開된 振興對策이 있었다。

이보다 앞서 李大統領閣下로부터 날로 衰退一路에 있는 우리民族의 固有한 國樂을 再建하여 民族正氣를 昂揚하는 同時에 널리 中外에 宣傳普及하라시는 優渥한 叨咐를 받들어 前記 國樂再建對策委員會가 結成되었던 것이다。

一、國樂의 衰退한 原因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무엇보다 政府의 財政的援助가 時急하다。

二、文敎行政을 통한 學園에서의 敎材採擇및 國民·中·高校 등에 國樂科를 設置할 것이다。

三、國樂에 대한 一般의 認識을 높이기 위하여 國樂에 獻身한 元老를 表彰할 것이다。

四、國樂의 普及을 위하여 樂譜와 樂書를 編纂할 것이다。

五、賞制度를 써서라도 國樂 創作을 奬勵할 것이다。

國樂再建對策委員會는 비록 없어졌지만 이곳에서 要望된 緊切한 對策은 逐一 實行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國立國樂院이 健全히 運營되고 있는 外에 文敎部의 國樂振興委員會가 活潑히 움직이고 있고 民間의 國樂團體에도 政府의 補助金이 惠澤되고 있다。

各級 學校에 國樂을 敎育하는 段階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國樂의 有能한 指導者의 輩出을 기다려 可期될 問題이다。

男學校에서는 피리를 女學校에서는 가야금을 可及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文敎部 官邊의 談話는 저으기 含蓄있는 表現이었다。

課外活動으로라도 國樂을 指導하는 일은 歡迎되어야 하고 解放直後의 國樂熱을 學園이 回復하기를 衷心으로 바라고 싶다。

多年 國樂界에 從事하여 功勞가 顯著한 樂人을 表彰하는 事業은 國樂振興會에서 實施하고 있다。

國樂振興會 國樂賞은 檀紀四二八六年度부터 授賞되고 있는데 功勞賞과 實技賞 二部로 나누어 이미 四年에 미치는 唯一한 國樂賞이다。

八九年度는 功勞賞으로 李珠煥 成慶麟 九〇年度도 功勞賞으로 李炳星 九一年度는 實技賞으로 金星振 金俊鉉 九二年度는 實技賞으로 金素姬 金千興 諸氏가 각각 授賞되었다。

副賞이 賞의 構成에 조금 相副치 못한것을 別로 하고 國樂演奏에 特殊한 才能을 보이거나 國樂活動에 그 功績이 顯著하다고 認定되는 國樂人을 對象으로 하는 國樂賞의 意義는 深大한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 國樂에서 國樂의 元老에게 文化勳章을 授與하는 날이 와야하고 이것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어 疑心치 아니하는 바이다。

國樂普及을 위한 樂書 樂譜의 發刊은 官撰 民撰으로 活氣를 띄우고 있으니 國樂振興會의 「민속악보」 「韓國樂器圖錄」등의 官撰、民撰의 力著로는 李惠求敎授의 「韓國音樂硏究」가 있는바 豫算의 援助만 있으면 더욱 活潑할 것이다。

新國樂의 發端은 金琪洙氏에 의하여 열렸으나 아직도 滿足한 段階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新國樂이 풍성히 일어나느냐 못하느냐에 國樂의 興亡이 左右된다고 하여도 決코 지나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새로운 國樂은 國樂의 傳統을 바르게 繼承하는 것이면서 現代人의 生活感情에 適應하는 表現을 指向하는 點에 어려움이 큰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洋樂的인 技法의 借用보다는 서툴러도 國樂으로의 新局面을 待望하고 있다。

여기 國樂 在來의 音程을 仍用하는냐 西洋의 十二平均率을 導入하느냐의 問題가 介在하는바 國樂의 和聲化를 위하여는 平均率을 不得已하다는 論은 主로 洋樂人이 主張하는 바이오 國樂은 國樂在來의 音程을 固守하여야 한다는건 國樂人의 儼然한 主張인 것이다。

輓近 數年 國樂界는 正히 눈부신 活動을 하였고 國樂人은 또 不斷히 前進하고 있다。

論文集 學術雜誌 新聞등에 國樂에 關한 研究와 評論이 不絕하고 있고 國樂學會의 月例 演奏會와 研究講演會의 實績은 學會活動으로의 記錄的인 것에 속할 것이다。

國樂競演大會의 競合도 國樂의 發展相을 示唆하는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國樂放送도 이제 겨우 軌道에 오른 느낌이다。

그러나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困苦한 時期보다도 이때를 더욱 삼가고 國樂人이 奮發함으로써만 國樂은 飛躍的인 發展을 가져올 것이다。

詩作十篇

비틀걸음 〈詩一〉

金東里

새한뻘딩 까마득하게 높은 어깨 위에
먼지 낀 달이 뿌연 얼굴을 내밀고 있는
그 아래 넓은 행길 위로
나는 술이 취한 겐지 어쩌면 안취한 겐지한
그런대로 비틀거리며 걸어 간다。

넓은 행길 위에 종이 조각이나
무 꽁댕이 같은 것이 떨어져 있어도
어두운 시궁창 속에 물이 흘러 내려도
어쩌면 아니 흘러 내려도 그런대로
아 그런대로 나는 비틀거리며 간다。

꽃 피는 눈보라 치는 잦은 가락엔
차라리 견디기 쉽다。

술이 취한 겐지 안 취한 겐지한 행길 위에
종이 조각이나 무꽁댕이 같은것을 그대로 하며,
어두운 시궁창 속에 물이 흐르는 겐지
안 흐르는 겐지도 그대로 함은
내가 여기 있는 겐지 안 있는 겐지 한 그러한 것이다。

달도 설음도 다 잊은 사람처럼
그런대로 나는 비틀거리며 간다。

바 위 〈詩二〉

사막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목마른 길가
내 여기 이름 모를 바위 되어 누었나니
가고 싶은 고향은 푸른 하늘 위
아아、千萬년도 꿈결 속에
이몸은 이냥 가슴、날지 못할 거울이로다。
곁에는 보리수와 차고 맑은 샘
피리 불며 나그네도 쉬어 가건만
아아 어이 날으리、일어날 수 없도다

일어났으면 일어났으면
일어나 훨훨 날아 갔으면
날으다 차라리 숨이 다하면
눈 감고 바다 위로 떨어졌으면……。
가슴의 거울에사 별빛도 어리이고
차디찬 은하도 구비쳐 흐르지만
누가 알리、千萬년 누어 앓는 거울이로다
아아 일어나고 싶음이여、
어느 임이 멀리서 부르기나 하는 듯
내 귀는 가 없는 허궁에 차고
無의 가락 아련한 향수의 강물……。
아아 일어났으면 일어났으면
차라리 강물처럼 흘러갔으면……。

薔薇 〈詩三〉

화병에 심어진 나의 장미는
비오는 밤 창턱에서
어둠을 타고 피어 난다。
오직 저 검은 비 소리만이
나의 장미의
그윽한 향기를 돋구어 준다。

여름 한철 숲 속에 핀 꽃들은
孤獨한 사람의 思想과 같이 차라리
비 속에 흠뻑 젖고자 한다。

젖은 꽃 잎 첩첩히 땅에 쌓아
쌓은 향기、다시、
나무에 스미면
가을의
물 들은 열매 속에
맛과 향기로 익어 돌아 오나니。

장미여
창턱에서 시들다 차라리 비에 젖은
너의 경련하는 입술로 어둠을 입 맞추라。

오오、어둠을 흔드는 너의 입김
스미라
고독할수록 오만한 나의 나무。

비여 주룩 주룩 어둠 속을 나리라
나의 장미의
싸늘하고 蒼白한 이마를 적시라。

少女行 (詩四)

黃昏이 될때까지 少女들은
마을 어구에 서 있었다。

꿈과 그리움은
피곤한 나래를 접고

하늘 높이 우는 생명
노을을 쏘는 종소리여

少女들은 알고 있다
어디서나 들리는 저희들의 목소리
한 줄에 우는 갠얄픈 旋律、少女들은
드디어 황혼 속에 뛰어든다。

밤 (詩五)

부엉이、올빼미、두견새들이
나무 가지 가지 깊은 덩굴 속에 싸여앉아
어둠을 우는 것은
황홀하게 달고 향기로운 술을 빚어
우리를 취케 함이라。

밤은 깊어질수록 어둡고
어둠은 짙어질스록 향기로운 술이어라。

오랜 옛날부터 腦髓도 먹은
세월과 별과 꽃들이
이제 울어 비젖어 향기로운 술이어라。

술아 모든 잔에서 넘쳐
목숨 있는 것들을 축복하라。
나무 가지 가지 깊은 덩굴 속에 싸여 앉아
밤을 빚는 새여
無量한 果汁 속에 이제 너도 쉬라。

초파일 밤 (詩六)

절 구경 가신 이는 오지 않는데
보리 이삭 오르는 푸른 밭 들 저편、
검은 강물 위로 버들개지가 내린다。
보리밭 뚝이 있는 검은 강물이 있는、어디에서는
앳된 여자의 목소리가 흐느껴 우는데。
저 앳된 여자의 목소리는
마을에서 보리밭을 지나、강물을 건너、
산으로 가고 싶은 것이다。
먼 먼 산에서 등불이 되어
켜지고 싶은 것이다。
혹은 버들개지와 함께
강물이 되어 흘러 내리고 싶은 것이다。
등불이 꽃송이 같이 피어 있는 절은
저렇게 저승 처럼 멀고。
앳된 여자의 울음 소리와 함께
초롱 꺼진 마을엔
차디찬 銀河가 흘러 내린다。

달 밤 (詩七)

익들가는 보리 냄새
찔레꽃 냄새
달빛에 엉겨
밤 벌이 닝닝거린다。

더위도 밤으로 밀리는지
바람은 훈훈거리고
달빛 젖은 개울가에 늘어져 누운
지렁이는 간이 시리다。

개구리 우는 밤 (詩八)

마을 앞뒤 질펀한 개울 물인데
해지면 개구리는 太古대로 운다。
풀 냄새에 바람은 멍들어 자고
별더미를 헤치며 개구리는 운다。

물에서 남녀가 생겨 나기 옛날
개구리 알은 銀河처럼 하늘에 둥둥 흘러 갔거니

은하가 기울고 개울이 넘쳐
너와 나의 이름이 물살에 갈렸거니

갈리어 서러운가 해마다 나리는 비
별빛 같이 뿜어 내는 너의 넋두리

이따금 뚝、그치고 귀 기울임은
들림인가 아련한 마음의 개 닭 소리

너와 나 하늘 밖의 먼 고향
울자꾸나 太古대로 울어서 예자꾸나。

모기 (詩九)

언제나 방문 닫혀 있는 오막이 한간
잡초 속에 묻혀 있어。
누가 켜는지 밤이면 희미한 종이등 하나
처마 끝에 걸려 있고。
疫疾 치른 그해 여름
유달리 모기가 끓어。
그 오막 속에서도 잡초 속에서도
떼지어 모기는 옛날처럼 울다。

除夜 (詩十)

검은 하늘에 수탉 울기 전
은반의 촛불을 보며
멀리 超人을 기다린다。
水墨 조으는 옛 병풍 속에
신부의 숨결인양 밤은 잦아드는데
祭器는 조촐히 닦아 두고
마음은 멀리 超人을 기다린다。

하늘엔 별들의 기도 소리 들리고
거리엔 古木이 꿈을 모으고……。
이 밤엔 모든 漂泊도 쉬고
카인도 들 끝에서 돌아오거니
경건히 눈물 짓는 촛불과 함께
마음은 멀리 超人을 기다린다。

七十年의 靑春 삐까소

金 鄕 岸

一千九百五十六년 十月 二十五日은 삐까소가 만 七十五세 되는 생일이었다。이 오늘의 세계적인 거장(巨匠)의 탄생을 기념해서 세계 각국의 미술계가 서로 다투어 기념 행사를 거행했는데、그중에서도 특히 불란서와 영국은 각방면으로 자료를 모아 대대적으로 삐까소의 일(業績)을 전시(展示) 또는 출판으로써 소개했다。이것은 빠리에서도 여러 잡지가 특집을 했던、그중의 하나에서 삐까소의 『七十五년의 청춘』이란 대목을 주로 해서 소개한 것이다。예술가가 살아온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빠보로·삐까소』의 전기(傳記)에 관해서는 각가지의 설(說)이 있다。그 이유의 첫째는 그가 아직도 상투적(常套的)인 버릇으로 가끔 새로운 일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낭패시키는 여유를 가졌기 때문이다。지금까지의 그의 활동에 대한 모든 해석을 곧잘 뒤집어놓기 일수이기 때문이다。

삐까소에 의해서 완성되는 창조의 행위는 그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투쟁이다。그는 예술이란 것을 완성시키는 예정된 미학의 실습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이것이 그의 예술행위의 신조(信條)이다。즉 그에게 있어서는 작품과 생명이 무위(無爲)할 수 없도록 내부에서 얼켜져 있는 것이다。오늘날 그에게 五十년이 흘렀다는 것도 사실이다。그의 기억은 생생하게 살아 있고 그의 청춘을 따라 다니던 형상들은 오늘날 아직도 흘러간 밤의 꿈들 속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그 신선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그러기에 수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가 살아온 그 모습들을 오늘날 아무 이해관계 없이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1. 『삐까소와 사진』

十월 二十五일 잔치를 베풀 삐까소의 생일 이전의 七十五년간이 우리들 생활에 중요성을 지닌 대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역사에 전례(前例)없는 일이다。

아무도 이 시대에는 과학의 발명들이 아무 분별없이 열심히 흡수되어 버리는 것을 의심 하지 않았다。그러나 오늘 삐까소가 향락한 세계적인 명성은 예술의 영역 안에서 평행으로 따른 혁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위험을 범했고、같은 열성으로 응하치 않았던 삐까소의 작품들、그중에서도 특히 그가 『레뷰』하던 때의 것들은 세인의 조소가 아니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 위험시 당해 왔다。

삐까소를 흥분시키고、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시각의 능력과、제어할 수 없는 용기의 진정한 가치를 감상하는 일이 어려웠었던 거다。시각예술의 혁명에 참가했던 모든 요소들에서 오직 사진과 그의 파생체(派生體)와 『씨네마』와 『테레비죤』은 마치 존경할만한 형태와 같이 생각되었고、필시 그것들은 과학적인 기술 위에 요소적으로 서로 의지되어 있어 따라서 예술처럼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이와같이 점차로 시각적인 사건들의 비평을 세우는 필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어 마침내 사진은 전기 작가가 되었다。그리고 삐까소에 있어서 이 과업은 더우기 그것을 하기에 대단한 용이성이 발견되어 삐까소 자신이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되었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수한 사진들은 그의 내부의 친구가 되었다。

『캬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항용 선전되었던 가능성들은 존재하지 않았다。사진사들은 귀해졌고 오늘 우리가 다시 보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건들은 아무 시각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삐까소가 세관리 『롯소』에게 베푼 향연의 사진이라든가 『바또·라보와르』 『아프리에』에서 『아뽀리네르』와 『막스·쟈꼬브』가 증인의 자격으로 임석했던 삐까소의 『울가·고끄로봐』와의 결혼 사진 같은 것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질 수는 없는 일이다。

2. 『삐까소와 초상화』

삐까소의 처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다행히도 초상화들로서 그의 전기를 구획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소년 시절부터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빠른 『에스끼스』를 하도록 격려했던 결과가 그에게 주위와 자신의 생각들을 묘사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어렸을 때 그가 가족에게 보내고 또 그후에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은 풍부하게 남아 있다。 삐까소는 그밖에 헤아릴 수 없는 수량의 『유무-르』와 예민한 감성이 가득찬 그로끼를 했고、동시에 또 그의 여행지 『바르세로나』『마드리드』『빠리』의 덧상들을 했다。

『규비스트』 시대까지의 자화상들은 실로 수가 많다。 삐까소는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도 단지 거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뿐이 아닌、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푸로필』이라든가、친구들과 간담하든가 일에 몰두하고 있는 표정까지에도 흥미를 가졌었다。

『제르쁘류드·스망』은 삐까소의 시선의 날카로움이 둥근 구석들까지도 볼 수 있었을 거라고 했다。 마침내 삐까소에게는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의심없는 사실로 되었다。 삐까소는 모든 상태에 실제로 놓여지든가、상상속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좋아했다。

우리는 무거운 외투에 뚤뚤 말린 그가 『세바스띠앙·쥬네이』와 같이 빠리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든가、『바르세로나』의 한 호텔에서 검은 『오림피아』 옆에 앉은 모습을、또는 개를 데리고 산뽀하거나 바닷가에 드러누은 『바렛드』를 손에 쥐고 긴 장의(長衣)를 두른 그의 모습을 본다。

3. 『변모하기 좋아하는 삐까소』

삐까소의 가지각색의 모자들——캡、산고모、베레、챙 넓은 중절모——등은 그가 변장(變裝)을 즐긴다는 증명을 한다。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덧상』이 애급왕의 높은 모자를 쓰고 흐트러진 조그만 코밑 수염을 붙인 그의 『푸로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변장(變裝)은 그 후에 삐까소와 나란히 장래의 가장 위대한 두사람의 화가로서 인정된 『룻소』와 같이 역사적인 표지를 상기시킨다。

「나는 현대의 양식 안에서、그리고 당신은 애급의 양식으로」。라고 그들의 모습은 말하고 있다。

다시 좀더 첨가한다면、그와 그 친구들의 덧상들은 그것을 시작할 때 외부적인 모양에 그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세라나』의 ※『네마리의 고양이』시대라든가、※『재빠른 토끼』시대라든가에서 우리는 좀더 상세하게 그들의 몰루와 정열과 또

는 증오를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예술가들이 모인 집의 이름)

우리에게 준비된 증거적인 형태는 한편으로는 자화상들,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의 『그로끼』를 이였던 한시대밖에는 없고 가장 최근의 사진은 그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

4. 『규비즘 이후』

『쥬—비스트』들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시대는 一九一〇년에서 一九一五년 사이였다。삐까소는 이 때부터 묘사적이며 실제적인 덧상들을 포기했다。마치 이 시대의 사진은 정확하기에 불충분했고 시각적인 기록도 결려되었던 것처럼。그래서 수많은 덧상과 『훼르난드·오리비에』와 『올가·삐까소』의 초상화들이 존재하며, 사람들은 다만 『에봐』(마르셀·윱베르)의 두장의 사진만을 기억하고 있다。『에봐』는 삐까소의 반려로서 그 시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했였다。그의 이름은 『규비스트』들의 수많은 그림에 거입되고 마치 이것은 나무 뿌리에 새겨진 애인들의 선언과도 같았다。삐까소는 이미 초상을 그리지 않았다。

5. 『삐까소와 바다』

다른 면으로 삐까소가 살아온 장소들을 한정짓는 것은 쉬운 일이다。특수한 예(例)를 제외하고는 화가들은 여행을 즐기지 않았다。그들의 예술은 고정되어 있고 생활필수품이 항용 장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삐까소는 한번도 풍경들을 찾아다닌 일이 없다。시야를 자극하는 광선과 상쾌한 기후만으로서 만족했다。절경이 결코 그를 매혹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의 생앳동안에는 우연으로, 또 훨씬 후일에는 임의로서 언제나 바다로 돌아오게 되었다。그가 출생한 『말라가』로 『고로뉴』나 『바르세로나』로, 또 후일에는 『가라께스』 『따아리츠』 『디나르』 『로와이양』 『꼴리우르』 『꼬따쥬—르』(지중해 연안)로, 그의 상상은 언제나 바다로 열린 창으로 탈주할 수 있었다。여름 바닷가의 환희들은 그의 사고를 색채롭게 하였다。바다——우주의 침상은——그의 작품에 유익했고, 그를 고무(鼓舞)시키는 영향을 미쳤다。수욕하는 사람들의 헤엄치며 달리고 또 가다가는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 수평에 달하도록 펼쳐진 그들의 팔 다리들이 그의 무수한 그림속에 나온다。그는 또 『앙띠—브』의 어부들 처럼 밤을 타고 신비스런 바위 사이의 흠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한다。옛날에 『기따—』를 해부하고 『아브상』의 그라쓰를 찾던 그의 『에스프리』는 오늘 물속을 찾는다。그는 새장 안에서 생선이, 금붕어의 어항 안에서 새가 일시적인 균형을 잡는 것을 지지한다。

바다는 여성을 그리기 위한 배경을 구성한다。 동시에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는 그들을 조상하고 그들에게 부조리(不條理)의 포름을 준다。 삐까소는 여자의 몸을 완전히 뿌시고 새로운 포름을 만든다。 이것은 물결 위에 떠오르는 『비너스』는 아니나 삐까소가 좋아하는 여자였다。

6. 『빠리 시대』

진실로 삐까소가 바다에서 방향을 돌릴 줄을 몰랐던,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삐까소를 흡수했던 오직 하나의 도시는 빠리였다。 그도 그럴것이 그들과의 사이에 우정이 생기고, 우정들로서 창조된 조직에서 조곰도 탈주 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친구들과 애인들이 그를 둘러싼 풍경들이나 물상들보다 훨씬 삐까소에게 있어서는 영감(靈感)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때로는 그들의 사적(私的)인 출현이 저기압(低氣壓)과 불안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는 끊힘없이 그의 친구들을 생각했다。 이년전 『모리스·레이냗』의 죽음을 알았을 때도 그는 한 친구에게 그가 매일 아침 친우의 이름을 스스로 불러보는 습관을 고백하고, 이날 그가 『레이냗』을 잊어버렸었던 것에 대해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삐까소는 그의 일의 요구들에 복종하는 우정을 기다렸다。 돌아가든지 기대리든지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나 표현의 필요는 어떠한 희생을 할지라도 만족스러워야 했고 또 즉시로 그래야 했다。 불연(不然)이면 화가는 잔인한 실망을 느끼는 것이었다。

7. 『화가친구와 시인들』

삐까소는 항용 그의 친구를 화가들 사이에서 보다시인들 사이에서 선택했다。 이것은 그가 동료나 그밖의 예술가들이나 쟁이들의 재능에 무감각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창조자들을 사랑했으나 이론가들에겐 흥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가 감상하는 회화(會話)들은 『에스프리』와 역설이 진실의 깊이들을 탐구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조형적으로 설명되기보다, 웅변으로 성공한 말들로서 설명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 풍부한 우정들이 삐까소와 또 다른 화가들과 조각가들과 사이에 맺어졌다。 『제르뜨류르·스땅』은 처음 삐까소와 『마떠스』와 만났을 때에 그들의 성격상의 큰 대조를 말했다。

삐까소는 『마떠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하고, 『레오·스땅』은 삐까소가 막 끝마친 『아븨뇽의 처녀들』을 『마떠스』에게 보이고 있을 때 그의 등뒤에서 웃고 있었다。 그러나 『마떠스』와 삐가소는 그들의 상반되는 작품들에 강렬히 흥미를 느꼈다。 그

들의 우정의 초기부터 그들은 서로의 작품을 교환했고 마떠스가 병석에 누워있을 만년에는 삐까소는 그와 장시간 이야기하기 위해 자주 들렸다。이 회화들은 불행히도 기록되지 못했다。삐까소와 『부락끄』사이가 경쟁을 말하는 것을 종종 들으나 그러나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를 가지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깊이 그리고 굳은 우정으로서 맺어진 두 친구를 보기도 드문 일이다。

8. 『삐까소의 쟁이적인 기질』

삐까소는 제작중에 동료와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별다른 이유도 없이 『드랑』과 같이 『가라께스』에서 『부락끄』와 가치 『쎄레』나 『소르그』나 또 『아비뇽』에서 가치 지낸 날들을 그는 즐거워했다。『꼭로-』가 『디아피에브』를 소개했을 때도 그의 주위는 같은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그가 『바레』『류쓰』(로서아)를 장식 할 때도 장식가들이나 의상가들과 같이 일했고 『바레라나』들이 무대에 오르기 직전 순간에 그들 『고스츔』에다 빛깔을 덧붙이기도 했다。

판화나 석판화의 일을 『무-로』나 『라꾸리에르』 공방에서 할 적에도 또 『봐르리스』에서 『세라믹』(陶器)을 굴 때에도 삐까소는 같은 기분이었다。一九五五년 여름 『그루죠』와 같이 그의 『필림』을 만들 때는 그의 인내(忍耐)와 고갈(枯渴)할 줄 모르는 정열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쟁이의 견고성이 그의 마음에 있는 증거로 그들이 그의 옆에서 일하는 것을 감시하면서 그의 대담한 재주를, 그 많은 다른 것들을 실패한 곳에 성공하는 모든 기본적인 기술로서 부셔버리는 질박성을 감탄했다。

「우리가 서로 싱싱한 공감(共感)으로서 시험했던 첫날부터-」라고 『막스·쟈꼬브』는 一九〇一년, 삐까소와 처음 만난 이야기를 썼다。같은 자연의 공감을 삼년도 더 지나서 소란스런 『몽·마르뜨르』의 분위기 속에서 만났었던 다른 시인들에게서도 다시 느꼈다。『아뽀리네르』, 『살몽』, 『루베르디』, 또 그밖의 십여명의 이 시대에 삐까소를 알았던 시인들이 모두 대번에 이 유명한 『가씨』 열매의 눈을 가진 조그만 서반아인의 강한 개성에 충격을 받았다。삐까소의 영향은 그들에게 각기 보는 방법을 주고 추측의 판단들을 해방시켰다。『꼭도-』는 그에게 「나에게 무용학, 아연(啞然)한 것을 의시하는 시간을 적게 허비시키고 『신(神)』들의 황혼』에 대치되는 이기주의의 천사밑에서 들리는 거리의 『샹송』 하나를 이해하게 한 것을 감사와 함께 생각해 낸다。」고 했다。十五년 후, 『뽈·엘류아르』는 특히 『자유의 스승』 삐까소를 만난 이 세기에 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선언했다。

9. 『삐까소와 고전(古典)』

삐까소와 친밀을 나눈 시인들과 화가들은 모두 우리 시대에만 있지는 않다。삐까소는 고대의 창조자들에게도 그의 우정들의 『써—클』안에 포함하고、마치 그들이 그를 위해 했던 것처럼 그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그들의 작품을 복사하며 또 그들의 결작을 해석했다。이 우의(友誼)는 『공고라』에 퍼졌다。『엘·그레꼬』『류퐁』『크라나슈』『드라끄로와』『앙그르』『세잔느』『렘브란트』『뿌쌍』『마라르메』『쟈리』『발쟈끄』또 그밖에도 그들은 그의 동료들이었고 일에 있어서 동업자들이엇다。그러나 그는 한가지 생각으로서 관례(貫例)를 변형 시키지는 않았다。좋다는 구실로서 삐까소는 결코 우정을 이끌지는 않았다。그는 언제나 그가 잘못 이해되는 것을 받아들였고、그가 이미 좋아하지 않는 것들로서 부시는 의무도 승낙했다。一九〇七년、그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렸을 때 그의 명성과 친구들과 또 그 밖의 다른 것들까지도 잃어버리는 우연성까지도 그는 받아들였다。그 때 삐까소는 한동안 일이 끝난 것처럼 휘영했었다。

그의 본능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끄는데 맡겨두면서、삐까소는 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자신의 작품들을 마치 미(美)의 전통적인 수태(受胎)와도 같이 모셔두는 것이 가능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의 거대한 가능성의 의식、그와같이 그는 또 그의 위치의 위험 속에있었다。그는 『막스·쟈꼬브』처럼 말할 수 있을 것다。「의심이라는 것、이것이 곧 예술」이라고。전통을 좇아서 『빠브로』도 투기장 안에 그의 아버지 옆에 앉아 『안달루지』의 타는 태양 아래 죽음을 연출하는 관습에 그의 유년시절을 참관시켰었다。투우(鬪牛)의 상징주의를 상기하면서 그의 동포들이 그를 희화의 투우사 라고 이름지었다。그러나 삐까소는 한층 더 복잡했다。그를 투우나 투우사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는 홀로 투기장에서 본능의 이중성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또하나의 그는 그의 앞에 똑바로 달려드는 괴물(怪物)이다。동물의 탈을 쓴 변장한 영웅、승리와 죽음의 우리 모두에게 공통한 이중성의 희생이다。그의 결작들의 위대한 다양성(多樣性)에도 불구하고 삐까소는 언제나 『발견』을 잊지 않았다。사람들은 그의 모든 작품들 속에서 『이마—쥬』들이 마치 하나의 정해진 역을 맡은 배우들처럼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본다。말이나 투우나 원숭이나 올빼미 옆에서 『아르깡』(道化役者)과 어머니와 애기와、새끼사슴、미노또—르、(희랍신화의 牛頭人)또、자신의 허영 때문에 희생된 방황하는 노인、광채나는 여인의 나체 등을 본다。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시대에는 등한시(等閑視)되었었다。삐까소는 다른 시각적인 문제들로 골몰해 있었고 또 이 문제들은

항상 생장하는 의머로서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10、『라무ㅡ르』

삐까소의 생애의 사건들、그중에도 특히 『사랑』은 그의 모든 작품속에 반영되고 있다。그가 『데뷰』할 시절에 『훼르난드·오리비에』를 알게 되었을 때、그는 부드러운 모성을 그리기 위해서 맹목(盲目)과 고독속에 감금된 거러지 같은 엄격한 소재를 포기했다。그러나 동시에 『아르르깡』들과、잡종의 거리의 연예사들이 등장했다。그의 예술의 형상들은 그의 사랑과 우정들과 모험들의 반사였다。그가 결혼하던 첫해의 그림과 멧상들은 전쟁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목가적(牧歌的)인 환상을 번역했다。신뢰에 따르는 의심은 인간의 포름을 야생의 변형으로 만든 시대가 이에 따라야만 했다。불란서의 겁령과 발명의 절망이 따랐던 서반아 전쟁의 고뇌의 시기의 『드라·마르』의 나타남은 그의 생애와 작품들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마찬가지로 전쟁 말기의 또하나의 새로운 생의 배경은 『프랑스와즈·지로』에 의해서 한층 더 풍부해지고 오늘 『앙떠브』의 『그리마르디』성(城)을 장식하는 그의 위대한 목가적인 그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삐까소의 그림들은 비교할 수 없는 섬세한 이해와 애기들의 사랑을 표현한다。『크로드』와 『빠로마』의 위험한 모험들과 그들의 작난의 열정(熱情)의 위험성은 감동적인 정밀(精密)로서 번역되고 감시되어 있다。마침내는 그가 소유한 『앙떠ㅡ브』의 넓은 별장을 소유하게 되고 『쟉끄린누록끄』를 얻음으로 해서 한층더 그의 여생은 즐겁게 되었다。

삐까소가 가장 오래 지속한 우정들 중에는 『제임·사바르떼스』、『다니엘·앙리·간누베일너』씨등이 변함없이 그의 물질적인 생활을 도왔었다。그와 반대로 『막수·쟈꼬브』、『아뽀리네르』、『꼭도ㅡ』와 『뽈·엘류와르』들은 언제나 모든 그의 시대들을 좁게 연결시켰을 것이다。『막스·쟈꼬브』는 『바또·라브와르』시대나 또는 호텔의 더러운 방들에서 지냈던 『레뷰』시대의 불우했던 시기에 『아뽀리네르』는 『규바즘』의 영웅적인 시대에 『꼭도ㅡ』는 『바레·류쓰』로서 빛날 때、『엘류와르』는 시에 있어서 『슈르레아리즘』이 『스타ㅡ드』할 때、전후 정치계가 활발하던 시기에、각기 삐까소와의 인연이 맺어졌다。단독으로 그의 예술에 희생된 삐까소의 생애는 그의 조상 『빼드로·드·크리스토·알모게라』와 비교할 수 있다。그러나 그는 그의 예술적인 정열을 인생을 즐기기 위한 강렬한 구미와 불가사의한 호기심과 같은 풍만한 헤아릴 수 없는 그의 걸작들에게 수여된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정신으로 혼합시켰다。삐까소의 천재는 관대하고 정렬적이며 항시 총명한 나무의 열매와도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11、『괄순의 삐까소와 그의 가족』

千九百五十九년의 十월 二十五일도 지났으니 지금 삐까소는 꼭 八十세다。이 고령(高齡)의 화가는 아직도 정정하며 금년 정월 남쪽 불란서 『세잔느』의 고향에다 千五百 『에끄다-르』의 농토가 딸린 十五세기의 고성을 사가지고 자신의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벽화를 구성하고 있다。(지금쯤 완성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각금 잡지 같은데 소개되는 그의 가족을 보면, 장남은 이미 결혼했고, 그 아래 미성년의 어린 딸들이 있고, 끝으로 『푸랑스와즈·지로』에게서 난 어린 남매, 열한살 아홉살짜리의 『크로드』와 『빠로마』가 있다。이 어린 남매는 이미 삐까소와는 갈라져서 재혼한 어머니, 『푸랑스와즈·지로』한테서 자라나며 양육비는 삐까소가 대는 모양으로 애기들의 휴일에는 언제나 아버지한테 와서 놀고 있는 모습이 소개된다。삐까소는 애기들을 무척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의 작품에는 많은 애기들이 등장한다。철 때는 애기들과 더불어 천진난만하게 노는 삐까소는 일단 일을 하러 『아트리에』 안으로 살아질 땐 현재 부인 『쟈끄린느』는 방마다의 문을 잠그고 수화기를 떼어 놓는 등 집안의 일체의 음향을 정지 시켜 삐까소의 제작에 방해가 안되도록 돌보아야 한다고 한다。

남불의 그의 별장 『빌라·가리포니』에서는 풍부한 태양 아래서 아이 어른이 『빤쓰』ㅅ바람으로들 살며, 마당에는 『부론즈』로 구운 염소가 서있는가 하면 실제로 살아있는 염소가 그옆을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다。남방 식물이 우거진 정원에서 실제로 삐까소가 목가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만년의 작품들이 그냥 수긍되기도 한다。

12、『삐까소와 그의 화상들』

『페르스·베일』과 『르·삐-르·술리에』의 두사람의 화상은 가장 그 인간됨이 아름답고 다정했으며 삐까소의 『레뷰』시대에 마치 하나의 『에삐소-드』와도 같이 나타났었다。만일 전자가 순수 화상이었다면 후자는 『몽마르뜨르』에서 이불상을 벌리고 있던 대단히 괴상한 한사람의 상인이었다。

다음으로 『암부르와즈·볼라-르』는 처음으로 삐까소의 작품에 흥미를 가졌던 화상이다。그는 약간 삐까소의 그림에 위구를 느끼기도 했으나 어쨌던 一九一〇년까지의 작품을 거의 그가 샀었다。

『우일헤름·우드』는 평론가이며 『아마츄어』 화상이었다。그는 독일 출신이고 一九〇〇년대 조금 후부터 빠리에 정주했고 가

장 삐까소의 지지자였으며 작가의 중요한 시기의 작품을 수장했다。

삐까소의 화상들 중에 오늘의 거(巨)화상이며 삐까소와 같이 늙어온 『간느베일러』씨가 있다。그는 一九〇七년에 처음으로 『피농』가에 조그만 화랑을 열었었던 것인데 당대의 거상이며 『규비즘』시대에 중요한 미술사를 조장했으며 삐까소와는 가장 가까운 친구 이기도 하다。

(筆者는 藝術院會員 金煥基氏 夫人으로 佛蘭西 빠리에서 四年間 繪畵平論을 專攻하였음)

李箱의 人間과 文學

—無能力者의 形而上學—

鄭 泰 鎔

李箱의 文章과 文學은 唐突하다。심술궂기도 하다。그는 讀者들의 解讀을 위한 親切은 조금도 베풀지 않는다。오히려 그것을 더욱 困難케 하려고 애쓴 印象까지도 준다。이러한 唐突은 事實은 그 人間의 唐突하지 못하고 小心한데서 오는 虛勢인지도 모른다。

單語와 單語 사이를 띄어 쓰지 않고 빨랫줄처럼 늘어 쓴 것이라든지、∧의∨의 토를 連續的으로 써서 실꾸리를 따라 들어가는 것처럼 마침내는 讀者가 어떠한 觀念에까지 왔는지도 알 수 없는 迷宮에 빠지게 한 것들이 그런 것이다。

勿論 이러한 文章은 어떠한 面에서도 이메지 自體의 性格을 그대로 表出한 것이 된다。

가령 『애비의 애비의 애비의 애비』 따위는 無數한 祖上이나 先祖라는 抽象的 表現보다도 훨씬 血統의 連續性과 代代가 갖는 具體的 觀念을 주는 것이 事實이며 切迫한 呼訴力을 가지고 있다。또 『一層 우에 있는 二層 우에 있는 三層 우에 있는 屋上 庭園』도 그냥 高層 建物의 屋上 庭園이란 말보다도 훨씬 視覺的인 具體性을 가지고 있다。

『古城앞풀밭이있고풀밭위에나는내帽子를벗어놓았다。城위에서나는내記憶에꽤무거운돌을매어달아서는내힘과距離껏팔매질쳤다。抛物線을逆行하는歷史의슬픈울음소리。문득城밑내帽子곁에한사람의乞人이장승과같이서있는것을내려다보았다。乞人은城밑에서오히려내위에있다。或은綜合된歷史의亡靈인가。空中을向하여놓인내帽子의깊이는切迫한하늘을부른다。별안간乞人은慓慓한風彩를허리굽혀한개의돌을내帽子속에치뜨려넣는다。나는벌써氣絕하였다。心臟이頭蓋骨속으로옮겨가는地圖가보인다。싸늘한손이내이마에닿는다。내이마에는싸늘한손자욱이烙印되어언제까

지지어지지않았다』(詩·鳥瞰圖·第十四號)

이러한 빨랫줄 文章이 주는 錯雜한 印象은 이 詩가 갖는 思念의 錯雜性 自體를 單語마다 일일히 띄어 썼을 때보다도 훨씬 强烈하게 意味心象으로서도 視覺的으로도 느끼게 한다。그것은 『詩鳥瞰圖·第四號』와 같이 患者의 容態에 關한 診斷을 數字를 뒤엎어서 整然하게 羅列해 뵈어 주는 거와 같이 形態가 주는 이메지다。이 診斷書에는 아무런 說明이 없는 대신 우리들은 거기에서 診斷書가 갖는 整然한 科學的인 假飾과 그에 대한 李箱의 不信感情을 아이로니로서 느낀다。數字를 뒤엎었으면서도 整然하다는 것은 虛僞나 無識까지도 條理를 맞추는 診斷書的 科學精神의 揶揄라 할 수 있다。

『詩鳥瞰圖·第一號』의 『十二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도 十三이라는 兇數가 주는 不吉한 印象과 함께 診斷書의 경우와 같은 씨니칼한 것이 있다。여기에는 虛僞나 不信보다도 絕望的인 虛無意識과 아무렴 무슨 대수냐 하는 팽개친 諦念까지도 엿보인다。

그는 特히 토씨의 使用에 있어서 우리의 慣習的文法을 깨뜨리므로서 言語가 그려내는 이메지의 內奧와 立體性을 深化하고 槪念이 가장 먼 距離에 있는 語彙들의 重疊的 또는 對蹠的인 使用을 通하여 言語는 勿論 이메지의 意味와 色調의 보름을 더욱 豐富하고 多樣하게 했다。

또한 前揭한 詩속에 있는 『乞人은 城 밑에서 오히려 내 위에 있다』라든지 『心臟이 頭蓋骨 속으로 옮겨가는 地圖가 보인다』따위와 같이 影像의 倒置와 觀念의 可觀的 마레고리의 造出等도 혼하게 쓰는 手法이다。

이러한 主知的 메타포어는 『뾰죽한 데는 鍼처럼 月光이 묻었다』와 같은 날카로운 感性과 함께 直接的인 抒情보다도 現代 知性의 씨니칼한 倦怠感에 迎合되는 것은 事實이지만 『내가 完全히 絕望하고 나면 化粧은 있고 人相은 없는 얼굴로 안해는 形容처럼 돌아온다』와 같이 너무나 纖細한 感情의 分析 李箱의 肉體의 疲勞에서 오는 精神의 明哲을 意味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李箱의 많은 詩가 아직도 우리들의 理解와 共感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漠然한 氣分이나 難解의 房속에 갇혀 있는 것은 그가 그의 慾望과 諦念과 虛妄意識이 交織하는 心情의 바리에티를 거이 類推力을 拒絕하는 異質的 言語들을 使用하여 表出했다는 事實에 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칼을 찾는다。칼은 날이 접혀서 펴지지 않으니 날을 怒號하는 焦燥가 絕壁에 꽂지려 든다。억지로 이것을안에 메밀어 놓고 또 戀曲히 참으면 어느 결에 날이 어디를 건드렸나보다。內出血이 빽빽해 온다。그러나 皮膚에 상채기

를 얻을 길이 없으니 惡靈 나갈 門이 없다。가친 自殊로 하여 體重은 점점 무겁다。』(詩·沈疫)

『내가 치든 개(狗)는 튼튼하대서 모조리 實驗動物로 供養되고 그 中에서 비타민 E를 지닌 개(狗)는 學究의 未及과 生物다운 嫉妬로 해서 博士에게 흠씬 얻어맞는다。하고 싶은 말을 개짖듯 배앝아 놓던 歲月은 숨었다。醫科大學 허전한 마당에 우뚝 서서 나는 必死로 禁制를 앓는(患)다。論文에 出席한 억울한 觸髏에는 千古에 氏名이 없는 法이다。』(詩·禁制)

『危篤』이라는 大題의 詩篇中에 들어 있는 前揭한 二篇의 詩는 李箱의 詩篇들 中에는 比較的 理解와 共感이 쉬운 것들이지만 『禁制』 속에 있는 『개』의 寓意가 分明치 않기 때문에 前半部만은 어떠한 類推로도 再體驗하기가 困難한 것 같다。이것을 우리들은 單純히 우리들의 體驗의 貧困이나 無知로만 돌릴 것인가? 또는 李箱이 그의 病의 特殊한 時期에 特殊한 事件속에서 얼핏 느낀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 寓話的 叙述이 妥當性을 잃은 것인가는 事實上 速斷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金字鍾은 多幸히도 李箱의 많은 詩篇들이 性器具와 그 行爲에 關係된 것이라고 分析論證했지만 餘他의 詩篇들이 무엇인가는 아직 누구에 依해서도 究明되지 않았다。

또 그의 小說도 그의 詩와 마찬가지로 그가 體驗한 特殊한 心理와 感情의 分析이요 生活이라는 것은 없다。따라서 거기엔 表面的인 人間關係나 意味의 論理는 거의 없고 心理的인 리어리티만이 있을 뿐이다。그리고 이러한 心理는 李箱만이 갖는 特殊한 精神的 生活的인 體驗이 없이는 共感하기가 어려운 世界다。特히 그의 메타포어의 個性的인 表出은 表面的인 論理의 飛躍이 極甚하기 때문에 그 心理的인 리어리티에까지 이르지 못한 讀者에게는 그의 詩와 小說은 象徵도 比喩도 雰圍氣도 될 수 없는 呪文의 世界일 뿐이다。

이렇게 難解한 李箱의 主知的인 메타포어의 森林을 헤쳐나가는 方法의 第一步로서 우리는 먼저 그의 文學的 世界가 그의 어떠한 個人的인 生活과 그 精神的 肉體的條件 속에서 우러나온 것인가를 밝힐 必要가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그의 個人生活을 追求할 수 있는 資料는 그리 흔하지 않다。우선 그의 作品을 土臺로 해서 進行할밖에 없다。

李箱과 現代

李箱은 '人間과 그 生活의 關係를 다음과 같은 簡單한 말로 規定하였다。

『어느 時代에도 그 現代人은 絶望한다。絶望이 技巧를 낳고 技巧 때문에 또 絶望한다。』

이 一般的인 命題 속에서 우리들은 李箱의 文學의 意味를 演繹할 수 있다。그것은 李箱에게는 文學이 하나의 技巧였다는 事實이다。그것은 人生을 表現하는 技巧가 아니라 오히려 人生을 生活하는 技巧였다。그에게 있어 文學이 表現이라는 것은 그다지 問題가 아니다。重要한 것은 산다는 問題다。生活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지만 李箱에게는 더 더욱 어려운 問題였다。왜냐 하면 李箱은 人生을 肯定的으로 보다도 否定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勿論 이 否定은 否定을 위한 否定은 아니다。자꾸만 現實 속에서 否定되는 自身을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肯定해 보려는 몸부림이다。

現實에서 否定되는 自身을 肯定시키려고 하는 努力과 技巧는 그러나 누구든지 하는 일이다。抵抗이니 抗拒니 하는 것들은 모두 그것을 意味한다。그러나 李箱은 抵抗도 抗拒도 할 수 없는 爲人이다。

李箱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우리들이 普通으로 말하는 生命의 躍動이나 生活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問題가 아니라 오히려 끝없는 忘却을 强要 當하고 있는 無限한 忍耐가 必要한 時間의 흐름이었다。享樂을 잊고 希望을 잊고 기쁨을 잊는 것은 姑捨하고 不安을 잊고 苦惱를 잊고 絶望을 잊어야 하는 生活이다。그러면서도 무엇인가를 즐겨야 하고 무엇인가를 보람처럼 간직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人生이다。게다가 그는 知性人이다。어떠한 熱情도 興奮도 그를 欺瞞하지는 못한다。그의 知性을 흐려버리게 할 수는 없다。

木石이나 動物이 될 수 없는 人間이 그러나 木石이나 動物처럼 살아야 하고、그러면서도 무언가 人間처럼 知性처럼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李箱이었다。

人間이 아니게、그러나 人間처럼 사는 技巧가 李箱의 文學이다。이 生活의 二重의 世界 속에 그의 技巧가 있고 技巧의 苦惱이 있고 샤타이어가 있고 씨니씨즘이 있다。

한편의 李箱은 絶望하라、終生하라고 부르짖는다。너희들의 즐거움이니 希望이니 理想이니 享樂이니 하는 것들은 아무 所用없는 虛妄한 것이라고 부르짖으면서 李箱을 들볶는다。

한편의 李箱은 그러나 이렇게 絶望만 强要하는 李箱에 抗拒하고 싶다。人間으로서、또 어느 祖上의 子孫으로서、남편으로서、그리고 現代를 질머진 인테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設使 享樂이니 希望이니 理想이니 즐거움이니 하는 個人的인 慾望을 다 팽개치더라도 그가 이 세상에 生存하는 義務感만으로서의 李箱으로서도 簡單하게 絶望하고 싶지는 않다。그러나 어찌하랴。그러한 慾望이나 義務感을 짊어지고 遂行해 갈 能力이 없는 것을。

그러면서도 또 한편의 李箱은 아무리 絶望的으로 살지라도 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부르짖는다。아무리 虛妄하기로소니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도 재미 하나 못보고 갈 수야 있느냐?限死코 絶望뿐이라면、그래도 좋다。그렇다면 차라리 絶望의 與件이나 사람들이 希望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들이라도 諷刺하고 揶揄하는 재미를 보든지 그것도 아니면 진정 虛妄바께 없다는 것을 證明이라도 하는 것이 또한 사는 재미요、보람일 수도 잊지 않느냐고 부르짖는다。

絶望의 條件

李箱의 絶望의 條件들을 들추어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 二十世紀의 四半世紀를 넘은 地点에서 그 自身은 十九世紀的이라는 것이다。

『事實 나는 요새 그따위 詩바께 써지지 않는구려。차라리 그래서 徹底히 小說을 쓸 決心이오。암만해도 나는 十九世紀와 二十世紀 틈사구니에 끼워 卒倒하려 드는 無賴漢인 모양이오。完全히 二十世紀 사람이 되기에는 내 血管에는 너무도 많은 十九世紀의 嚴肅한 道德性의 피가 威脅하듯이 흐르고 있오그려。

이곳 三十四年代의 英雄들은 果然 秋毫의 汚点도 없는 二十世紀 精神의 英雄들입니다。「도스또에브스키」는 그들에게는 오직 先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生理를 가지고 生理하면서 完璧하게 사르오。

그들은 李箱도 亦是 二十世紀의 스뽀오쓰·맨이거니 하고 誤解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들에게 落望(아니 幻滅)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과 만날 때 오직 二十世紀를 僅僅히 포오즈를 써 維持해 보일 수 있을 따름이로구려——。아! 이 마음의 아픈 갈등이여。≫(私信 六)

李箱의 二十世紀가 무엇이었는 가는 分明치 않다。또 十九世紀的인 것으로서의 「도스또에프스키」를 어떻게 理解한 것인지도 分明치 않다。그러나 「빅토르、위고」를 프랑스의 빵 한 조각이라고 한 말에 嘆服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二十世紀的인 것을 「위고」的인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그렇다면 李箱에게 있어서 「도스또에브스키」的인 十九世紀는 實存的인 人生의 問題요、「위고」的인 二十世紀는 社會的 正義나 物質의 能力 같은 것을 指稱한 것이라 解釋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二十世紀 精神의 英雄들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一九三四年代에 이땅에 있었던 民族主義나 社會主義運動者 그리고 그 文學者들을 말한 것 같다。

大體로 「도스또에브스키」의 人生의 問題가 個人과 神과 宇宙에 있었다면 「위고」의 人生의 問題는 個人과 社會와 科學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도스또에브스키」의 生活이 神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人間을 만들었는가? 도대체 神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있다면 神은 人間이 어떻게 살기를 希望하며、또 人生이 괴롭다는 것은 神의 어떠한 뜻에 말미암음인가 따위를 質問하는 生活이라고 한다면、「위고」의 生活은、社會란 어떤 것인가? 社會는 어떻게 人間을 管理하고 統率하며 그들의 幸福을 保障할 것인가? 그리고 個人은 그러한 社會에 어떻게 參與할 것인가? 아울러 이러한 것을 解明해 줄 科學이란 것은 어느 程度로 이것을 保證하고 또한 信賴할 수 있는 것인가 等을 質問하고 追求해 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

『十九世紀는 될 수 있거던 封鎖하여 버리어。「도스토에브스키」精神이란 자칫하면 浪費인 것 같소。「위고」를 佛蘭西의 빵 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至言인 듯 싶소。그러나 人生 或은 그 模型에 있어서 「디테일」 때문에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오? 禍를 보지마오。부디 그대게 告하는 것이니』……。(小說·날개)

이것은 貧春生活을 하는 아내를 가진 男子가 그 아내의 生活을 合理化시키는 發言이지만 要컨대 李箱은 「도스또에브스키」的인 人生에 대한 質問이 二十世紀에 있어서는 거의 無意味하다고 생각한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李箱이 「위고」的인 質問과 解決에로 달렸음을 決코 意味하지는 않는다。그는 勿論 二十世紀的인 것에 대하여 굉장한 羨望을 가졌었다。그가 日本으로 건너간 것도 實은 그렇게 살아 보고자 한 것이다。

그는 金起林을 二十世紀的으로 사는 한 人間으로 보았다。편지에도 그러한 金起林을 極口讚揚하고 그렇게 못사는 自身을 여간 뉘우치지 않았다。이땅에서는 僅僅히 포오즈를 取하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지만 金起林과 함께 살면서 金起林의 二十世紀를 본받으려 한 것이 그의 內心이었다。

金起林은 當時에 作品上으로는 民族主義者도 社會主義者도 아니었다。그는 國民的 民族的 階級的 感情이나 思考方式과는 달리 科學이라는 것을 들고 나서서 神話的 形而上學的 世界와는 다른 이른바 科學的 人間像과 世界像을 文學에서 求한 사람이다。그러나 이것은 文學을 通하여 客觀的인 知識을 얻자는 것이 아니고 「T·S·엘리엇트」나 「T·E·흄」等의 이른바 知性의 文學을 實踐하려는 것이었다。여기에 아울러서 그는 恒常 歷史的 位置에 서서 社會의 進步를 믿으려고 애쓴 사람이다

高工을 나온 李箱은 「빅토르、위고」的 二十世紀 속에서 民族主義者나 社會主義者들 보다도 이러한 起林의 文學에 대한 態度나 現實에 대한 思考方式이 그에게 더욱 가까운 것이었다。말하자면 『十九世紀와 二十世紀의 틈사구니에 끼워 卒倒하려 드는 無賴漢』인 自己自身을 二十世紀的으로 救하는 길이 이것이었다。

李箱은 詩文學派와도 가까워 한때는 그 後身인 九人會에도 關係했었지만 거기에 오래 들어 있지 못했다。왜냐하면 詩文學派는 새로운 感覺的 言語들로서 韓國의 詩를 技巧에 있어서 現代的으로 革命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對象을 呼吸하는 根本바탕은 十九世紀的인 浪漫精神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李箱의 主知主義 精神은 起林과도 달랐다。

詩가 科學的命題의 發見者가 아니라든지 感傷에의 沈沒이 詩의 唯一한 方法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共通할 수 있었으나 現實에 對한 歷史的인 認識方法만은 李箱이 堪當할 수 없는 世界였다。그러한 方法으로 現實을 認識하고 處理하기에는 그의 一身上의 問題가 너무나 焦急한 問題였기 때문이다。그는 肺病患者였다。

戰爭이라든지 貧困이라든지 하는 環境的인 不幸은 人間을 社會에 대한 不滿과 그 反抗 속으로 끌어넣지만 肉體的인 不幸은 오히려 神과 宇宙의 意味에 대한 運命的인 것에 대한 咀呪와 反抗意識으로 나가게 한다。不治의 病일수록、神은 어찌하여 나에게만 不公平한 差別待遇를 했는가 하는 質問과 反抗意識이 그의 온갖 生活과 精神을 支配한다。따라서 李箱의 文學世界를 決定的으로 左右한 것은 民族이나 社會의 問題는 決코 아니었다。여기에 그가 「위고」的 二十世紀에서 恒常 隔離 當하고 있는 孤兒처럼 自身을 느끼지 않으면 안되는 原因이 있었다。그리고 이것이 李箱이 不得已 「도스또에브스키」的인 十九世紀에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理由였다。

『墳塚에 계신 白骨까지가 내게 血情의 原價償還을 强調하고 있다。天下에 달이 밝아서 나는 오들오들 떨면서 到處에서 들킨다。당신의 印鑑이 이미 失効된지 오래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으시나요——하고 나는 으젓이 대꾸를 해야겠는데 나는 이렇게 싫은 決算의 函數를 내 몸에 지닌 내 回章처럼 쉽사리 끊어버릴 수가 없다。』(詩・門閥)

이것은 民族意識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李箱에 關한 限 오히려 父祖와 家門에 대한 責任感과 그 苦悶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그는 그의 人生의 決算書인 『終生記』에서도 차수판 商號를 亡쳤다고 뉘우치고 있는 것이다。

『門을 암만 잡아다녀도 안 열리는 것은 안에 生活이 모자라는 까닭이다。밤이 사나운 꾸지람으로 나를 졸른다。나는 우리집 내 門牌 앞에서 여간 성가신게 아니다。나는 밤 속에 들어서서 제웅처럼 자꾸만 滅해간다。食口야 封한 窓戶 어데라도 한구석 터 놓아다고。내가 收入되어 들어가야 하지 않나。지붕에 서리가 내리고 뾰족한 데는 鍼처럼 月光이 묻었다。우리 집의 않나보다。그러고 누가 힘에 겨운 도장을 찍나보다。壽命을 헐어서 典當 잡히나 보다。나는 그냥 門고리에 쇠사슬 늘어지듯 매달렸다。門을 열려고 안 열리는 門을 열려고。』(詩・家庭)

우리들은 이 『門閥』이나 『家庭』의 詩에서 그의 責任感 그의 不幸、그의 苦痛을 그 知性이 얼마나 非感傷的인 아레고리와 메

타포어를 써서 表現하였는가를 새삼스레 말할 必要가 없다。오히려 아레고리 뒤에 숨은 그의 견딜 수 없는 苦悶과 絶望과 아쉬움을 發見함으로서 人間 李箱을 切實하게 느낄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憐憫할 自身을 『毒花』라고 結論지었다。家庭이나 社會에 대한 自身의 存立을 『終生記』에서 다음과 같이 決算하고 있다。

毒花

『足下는 이 꼭두각씨 같은 語彙한마디를 暫時 맡아가지고 제셔보구려?

藝術이라는 虛妄한 아궁지 近處에서 송장 近處에서 보다도 한결더 썰썰 기고 있는 그를 해반주룩한 死都의 血族들 맷국내나는 틈에 가 껑거워서、나는——

내 계집의 치마 단속곳을 갈갈이 찢어 놓았고、버선결레를 결레를 만들어 놓았고 검던 머리에 곰던 양자、獰惡한 곰의 발자죽이 질컥 디디고 지나간 것 처럼 얼굴을 망가뜨려 놓았고、知己 親戚의 돈을 뭉청 떼어 먹었고、좌수터 由來 같은 商號를 쑥밭을 만들어 놓았고、겁쟁이 取和者는 고랑떼를 먹여 놓았고、貸金業者의 收金人을 卒倒시켰고、社長과 取締役과 사돈과 아범과 애비와 妻男과 妻弟와 또 애비와 애비의 딸과 딸、이 許多衆生으로 하여금 서로 서로 이간을 부치고 부치게 하고 열버무려져 싸움질을 하게 해 놓았고、사글貰房 새 다다미에 잉크와 요강과 팥죽을 엎질렀고、누구누구를 임포텐스를 만들어 놓았고——

「毒花」라는 말의 콕 찌르는 맛을 그만하면 어렴풋이나마 어떻게 짐작이 서는가 싶소이까。』(小說·終生記)

이것이 李箱의 唯一한 懺悔錄이다。그가 完全한 에고이스트가 되지 못했다는 獨白이다。强한 者는 決코 이러한 告白을 하지 않는 法이다。그가 많은 作品에서 社會를 輕蔑하고 人間의 온갖 營爲를 嘲笑할지라도 그의 같은 心底에는 무언가 社會나 家庭에 有用한 人間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의 아폴이 決코 가시지 않았다는 證據다。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는 팽개칠 수밖에 없었다。肺病患者인 그는 온갖 社會的 家庭的 希望과 幸福에서 隔離되어 있었고、아니 隔離되어 있다고 스스로 느끼며 絶望하

려했고、때문에 그러한 責任이나 道義나를 생각할 餘裕나 必要가 없었다기보다도 認定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애를 썼다。

自己肯定의 限界

李箱은 허는 수 없이 그의 本質인 「도스또에브스키」的 十九世紀에로 돌아간다。그러나 이 말은 形式的인 面에 限해서 뿐이다。그는 決코 「도스또에브스키」처럼 質問하고 解決하지는 않았다。

李箱은 첫째로 神을 가지지 않았다。그것은 그가 商工을 나온 科學徒인 때문만은 아니다。理由는 오히려 그의 知識에 있기보다도 그의 宿命에 있다。

「도스또에브스키」는 人間의 苦痛과 悲慘을 人間一般의 問題로서 생각했고 그 原因과 治癒를 神의 意志에 맡겨 사람들이 거기에 歸依하도록 說敎했다。그는 人間의 不幸을 社會의 制度나 그 構造에서 생각하지는 않았다。「도스또에브스키」는 歷史를 人間이 動物에서 神에게로 가는 기나긴 試鍊과 努力의 途程으로 보았다。

그러나 李箱은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神의 存在를 인정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神에 대한 우리들의 觀念을 人間이 推理하고 描寫하는 至純한 精神의 아이디어로서도 생각하려하지는 않는다。그는 形而上學的인 것은 一切를 是認하지 않는다。세상에 理想이고 純粹고 善이며 惡이 있을 턱이 없다。다만 있는 것은 形而下的인 것 뿐이다。

이러한 原因이 그의 肺病에 있었건 어디에 있었건간에 이것은 그가 徹頭徹尾 人生을 絕望的인 重壓感情 아래 살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는 人生을 形而下學的인 自己와 그러한 自己가 關係하는 周邊 以外의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終生記』의 自己決算인 「毒花」의 素材들은 徹底하게 形而下學的인 것뿐이다。歷史가 어떻궁。社會가 어떻궁、民族이 어떻궁。道德이 倫理가 어떻궁 人間의 價値가 어떻궁 하는 것들은 李箱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人生이란 『어느』 時代에도 그 現代人은 絕望한다。絕望이 技巧를 낳고 技巧 때문에 또 絕望한다는 永劫의 輪轉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絕望은 李箱에게 있어서는 社會的 問題나 人間一般의 問題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만일에 李箱의 絕望이 社會나 人間一般의 問題에서 오는 것이었다면 그는 民族主義나 社會主義나 아니면 神을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不幸과 그의 絶望은 어떠한 知識이나 宗敎에서도 演繹할 수 없는 個人的인 問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一切 必要치 않았다。그의 生活은 『生命을 헐어서 典當 잡히는』일이요、『힘에 겨운 도장을 찍는』일이었다。

『나의 肋骨은 二ㅅ떠ㅣㅈ(ㄷ)。그하나 하나에 녹크하여 본다。그 속에서는 海綿에 젖은 더운 물이 끓고 있다。하이얀 天使의 펜네임은 聖피타ㅣ라ㅣ고。고무의 電線(똑똑 똑똑 버글버글)。열쇠구멍으로 盜聽。

힌 빵끼로 칠한 十字架에서 내가 漸漸 키가 커진다。聖피ㅣ타ㅣ君이 나에게 세번式이나 아알지 못한다고 그린다。瞬間 닭이 활개를 친다……。

(어익크 더운 물을 엎질러서야 큰일날 노릇——)』(詩・內科)

『네올싸인은 쎅스폰과 같이 痩瘠하여 있다。
파릿한 靜脈을 切斷하니 샛빨간 動脈이었다。
——그것은 파릿한 動脈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샛빨간 動脈이라도 저렇게 皮膚에 埋沒되어 있는限……
보라! 네온사인을 저렇게 가만ㅣ히 있는 것 같어 보여도 其實은 不斷히 네온까스가 흐르고 있는게란다。
——肺病 쟁이가 쎅스폰을 불었드니 危險한 血液이 檢溫計와 같이
——其實은 不斷히 壽命이 흐르고 있는게란다。』(詩・街衢의 추위)

이 生理에 대한 不斷한 恐怖와 抗議와 憐憫이 李箱을 絶望케 한 가장 큰 要因이다。「위고」的인 二十世紀에 同調할 수 없었던 것도、「도스또에프스키」에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그러나 「도스또에프스키」처럼 質問하고 設定하고 解決할 수

없었던 것도 이 間斷 없이 그를 威脅하면서 生命을 典當 잡은 그의 生理 때문이다。어떠한 宗敎的 社會的 意味도 이 生理的인 空虛를 메꿀 道理는 없다。

形而下學的 現實主義者 李箱은 肺病이라는 出口가 없는 限界狀況 속에서 自身이 이 社會와 人間과는 完全히 隔絶된 異邦人이라는 하나의 宿命을 깨닫는다。그러나 이러한 自覺이 곧 實存主義者들 처럼 自由를 意識케 하는 것은 아니다。그는 行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도 人生에 대해 熾烈한 絶望的인 質問을 부르짖었을 것이다。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그러나。어느 곳에서도 대답은 없다。이 絶望的인 沈默 앞에서 그가 무엇에 抵抗할 수 있단 말인가? 다만 不安하고 孤獨하고 분통이 터질 뿐이다。

저 十九世紀的인 조용한 深思熟考가 조금도 人生의 問題를 解決하지 않았다고 實存主義者들은 말한다。李箱에게 있어서도 事情은 마찬가지다。그러나 實存主義者들이 行動이야말로 現代의 意味를 發見하는 唯一한 積極的인 瞑想이라고 부르짖고實踐 할 때에 李箱은 홀로 다음과 같이 지껄일 수밖에 없다。

『被告는 一朝에 人生을 浪費하였느니라。하로 被告의 生命이 延長되는 것은 이 乾坤의 經常費를 구태어 騰貴시키는 것이어늘 被告가 들어가고져 하는 쥐구녕이 거기 있으니 被告는 모름직이 그리 가서 꽁무니 쪽을 돌아도 보지 말지어다。』(小說·終生記)

自己 自身을 이렇게 내던져 버린 李箱에게는 人生이니 宿命이니 宇宙니 하는 그런 것들의 意味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實存主義者들처럼 이 人生이라는 企業의 操縱者가 누구인가를 무를 必要조차 없다。그는 形而上學에는 이미 아무런 意味도 能力도 認定하지 않고 있다。그는 그의 不幸과 絶望이 무엇인가를 지나칠 程度로 알고 있다。그러므로 宿命에 대한 達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그러니까 그는 『健忘이여、永遠한 忘却은 忘却을 모두 救한다』고 부르짖는 것이다。그러나 그렇게 부르짖는다해서 事態가 조금도 分明해진 것은 아니다。

每日 每日 終生을 意識하고 經驗하면서 無耶와 倦怠와 不安과 焦燥를 消日하고 忘却하기 위하여 애쓰는 일에는 조금도 變함이 없다。每日 每日 無數한 自我들이 튀어나와서 그의 內部에서 葛藤을 일으킨다。이 틈바구니에서 그의 精神과 肉體는 瞬

間마다 分裂과 解體를 經驗한다。

『……그저 얼마든지 오늘 오늘 오늘, 헐일없이 눈가린 마차말의 동강난 視野다。눈을 뜬다。이번에는 생시가 보인다。꿈에는 생시를 꿈꾸고 생시에는 꿈을 꿈꾸고、어느 것이나 재미 있다。오후 네시。옮겨 앉은 아침——여기가 아침이냐。날마다다。그러나 물론 그는 한번씩 한번씩이다。(어떤 巨大한 母體가 나를 여기다 갖다 버렸나)——그저 한 없이 게으른 것——사람 노릇을 하는체、대체 어디 얼마나 기껏 게으를 수 있나 좀 해 보자——게으르자——그저 한없이 게으르자——시끄러워도 모른체하고 게으르기만하면 된다。살고 게으르고 죽고——가로대 사는 것이라면 떡 먹기다。오후 네시。다른 시간은 다 어디 갔나。대수냐。하루가 한 시간도 없는 것이라기로서니 무슨 성화가 생기나。

또 거미。안해는 꼭 거미。라고 그는 믿는다。저것이 어서 도루 환퇴를 하여서 거미 형상을 나타내었으면——그러나 거미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일이 없다。보통 발로 밟아 죽이는데 신발 신기커녕 일어나기도 싫다。그러니까 마찬가지다。이 방에 그 외에 또 생각하여 보면——맥이 뻐를 디디는 것이 빤히 보이고、요 밖으로 내어 놓는 팔뚝이 밴댕이 처럼 꼬스르 하다——이 방이 그냥 거민게다。그는 거미 속에 가 넙적하게 들어 누어 있는게다。거미 내음새다。이 후덥지근한 내음새는 아하 거미 내음 새다。이 방안이 거미 노릇을 하느라고 풍기는 흉악한 내음새에 틀림없다。그래도 그는 안해가 거미인 것을 잘 알고 있다。가만 둔다。그리고 기껏 게을러서 안해——스거미——로 하여금 육체의 자리를 주지 않게 한다。

오냐 왜 그려니、나는 거미다。연필 처럼 야외가는 것——피가 지나가지 않는 혈관——생각하지 않고도 없어지지 않는 머리——각맥힌 머리——코 없는 생각——거미 거미 속에서 안 나오는 것——내다보지 않는 것——취하는 것——정신 없는 것——房——버선 처럼 생긴 房이었다。안해였다。거미라는 탓이었다。』(小說·知性朱鼠會豕)

거미의 捕虜 李箱——거미란 놈은 언젠가는 그 鹵獲物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껍질이 하얗도록 그 피를 빨아먹을 것이다。

이 날마다의 終焉意識 속에서 自身을 救하는 길은 아무 것도 없는 빈방처럼 그의 精神을 포즈하는 일이다。그는 그의 거

미를 박차고 나갈 아무런 勇氣가 없다。그리고 산다는 意識이 없다。따라서 時間이 없다。時間이란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生命의 源動力이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自身이 어떻게든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그것은 植物처럼——隱花植物처럼、버슷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어떻게 살았던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이 살고 있다는 것을 最小限度에서라도 肯定해 주는 것은 그의 肉體다。勿論 活氣에 넘치는 肉體는 아니다。무언가 썩은 것 같은 肉體、腐敗한 것을 손으로 으적거리는 것 같은 肉體이지만 그것은 항상 살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唯一한 미천이다。그의 肺 속에 어떤 菌이 棲息하고 있다는 것、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苦痛을 느끼고 絶望을 느낀다。그것은 설사 피가 흐르지 않는 血管의 意味에 不過할지라도 苦痛、不安、焦燥、絶望을 느끼게 하는 分明히 生命의 證據다。

自己의 存在를 이러한 것에서 意識하고 證明하는 것은、그것은 統一되고 組織된 어떤 命題를 끄집어 낼 수 있는 連綿한 生活意識은 아니다。그것은 瞬間 瞬間을 意識하고 忍耐하는 삶이다。有機物이라는 하나의 形而下的 存在意識일 뿐이오、精神이니 理念이니 道德이니 禮節이니 하는 그런 形而上學的 社會的 存在意識은 아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루치씩만、瞬間치씩만 잔뜩 산다는 것이 唯一한 課業이 된다。

『社會는 어떻궁、道德이 어떻궁、內面的 省察、追求、摘發、懲罰은 어떻궁、自意識過剩이 어떻궁、제깜냥에 번즈레한 漆을 해 내어걸은 치사스러운 看板들이 未嘗不 우스광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다。』(小說·終生記)

事實은 하로가 한 時間도 없기로소니 그게 問題될 것은 조금도 없다。李箱에게는 時間은 生命의 根源力이기보다는 苦痛의 自覺過程이다。

따라서 李箱의 삶는 技巧란 것도 그의 存在를 肯定하는 最少限度의 條件인 肉體에 局限되어 있다。意識의 分裂、苦痛이나 絶望의 忘却을 위한 하루나 瞬間치씩만 잔뜩 산다는 것도 勿論 그肉體的 苦痛을 救濟하려는 하나의 生活의 技巧다。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아직도 形而上學的인 것과의 袂別 以前의 技巧다。이 自意識이니 道德이니 內面的省察이니 하는 따위의 形而上學

的인 命題들을 모조리 임포텐스를 만들어 놓고 不安이나 苦痛이 애당초 接近해 오지 않는 世界를、即 享樂하는 技巧를 가질 必要가 있는 것이다。

弱者의 生存技巧

李箱이 그 自身을 形而下學的으로 그리고 肉體으로만 肯定하고 이 肉體的 自我를 凝視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忘却하고 享樂하는 길은 무엇일가? 더구나 肺病이라도 거미에 蠶食되어가는 自身 속에서 最少限度라는 肯定할 部分은 무엇일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性機能이다。性機能은 人間의 生理的 存在의 根源的인 象徵이다。

自身의 存在를 否定的으로만 自覺케 하는 모든 條件 속에서 性機能만은 感覺的으로 自己의 存在를 肯定하는 部分이다。金字鍾은 李箱의 많은 詩들이 性機能에 關係되는 것임을 論證하였거니와 그의 小說 속에 나타난 戀愛 같은 것도 形而上學的인 部分은 조금도 없다。

『다섯 달 동안 저에게는 아무 것도 없읍니다。저의 淸節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저의 最後까지 더럽히지 않은 것을 先生님께 드리겠읍니다。저의 히멀건 살의 魅力이 이렇게 다섯 달 동안이나 놀고 있는 것은 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이 아깝습니다。저의 잔털 나스르한 목、연한 溫度가 先生님을 기다리고 있읍니다。先生님이여! 저를 부르십시요。저더러 영영 오라는 많을 안 하시는 것은 그것 亦是 가신 찍 경우와 똑 같은 理論에서 나온 苟苟한 人生辯護의 치사스러운 手法인가요? 永遠히 先生님 「한분」만을 사랑하지요。어서 어서 저를 全的으로 先生님만의 것을 만들어 주십시요。先生님의 「專用」이 되게 하십시요。』(小說·終生記)

여기에는 觸覺 以上의 愛情은 없다。그리고 그의 小說속에 나오는 男女關係는 모두 이런 것뿐이다。가령 그리움이나 追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조리 이 觸覺을 交換하는 感覺 乃至는 感情의 懷憶이요、그 推理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男女關係——便宜上 愛慾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愛慾은 決코 官能美의 貪慾 또는 陶醉만은

아니다。그는 官能美조차에도 耽溺할 수 없다。오히려 그것은 官能的 感情이라 할가 —愛慾 去來가 갖는 心理의 데리케이트한 흥정 狀態를 分析하면서 享樂하는 것이다。흥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沒我的인 情熱이 있을 수 없다。冷靜한 傍觀과 誘引과 計算만이 있을 뿐이다。十七、八歲의 少女조차도 벌써 一世紀 以上이나 人生을 異性을 經驗한 사람처럼 점잖게 그 感情을 交換한다。情炎이 絕頂에 이르려야 할 瞬間에도 그들은 相對者뿐 아니라 自身의 感情까지를 充分히 計算하고 呼吸한다。

그는 쓸데없이 自己가 愛情의 濾者인 것을 자랑하려 들었고 또 그러지 않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공연히 그는 서먹서먹하게 굴었다。이렇게 함으로서 自己의 不幸에 高貴한 탈을 씌워놓고 늘 人生에 한눈을 팔자는 것이었다。

이런 그가 한 少女와 川邊을 걸어가다가 그만 잘못해서, 그의 少女에게 대한 愛慾을 지껄여 버리고 말았다。

여기에는 분명히 그의 淫亂한 衝動外에 다른 아무런 理由도 없다。그러나 少女는 그의 强烈한 體臭와 惡意의 怠慢에 逆說的인 興味를 느끼느라고 그냥 그저 흐리멍덩하게 그의 愛情을 용납하였다는 姿勢를 취하여 두었다。이것을 본 그는 곧 後悔하였다。그래서 그는 二重의 逆語를 驅使하여 動物的인 愛情의 말을 거침없이 少女 앞에 쏟고 쏟고 하였다。그러면서도 그의 肉體와 그 부속품은 이상스러울만치 게을렀다。

『少女는 조금 있다가 이 드문 愛情의 形式에 그만 갈팡질팡 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는 내심 이 남자를 어디까지든지 賤하게 대접했다。그랬드니 또 그는 옳지 하고 카멜레온 처럼 태도를 바꾸어서 少女에게 하로라도 열른 愛人이 생기기를 희망한다는 둥 하여 가면서 스스롭게 구는 것이었다。』(小說·斷髮)

여기에는 感傷이나 感情的인 느낌이나 表現은 全혀 없다。科學者의 實驗的 心理만이 있을 뿐이다。이 主知的인 觀察과 表現에 대하여 우리들은 새삼스럽게 讚嘆할 必要는 없다。問題는 오히려 李箱의 이러한 主知的 方法도 弱者로서의 그가 지니지 않으면 안되는 또 하나의 生活의 技巧였다는 것만 理解하면 되는 것이다。그것은 李箱이 自己의 最少限度의 肯定을 위하여 官能을 慾求하면서도 實은 그 官能에조차 接近할 수 없는 生理的 條件 때문에 慾求하면서도 서먹서먹하게 구는 自身의 心理的 救護의 아드바룬을 띄워놓고 이러한 方法으로 分析하고 즐김으로써 自身을 肯定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의 諦念과 理解와 寬容의 假裝이 있다。知性人으로서의 그의 心理的 逃避術이 있다。

愛慾(現實)生活에 自信이 없는 그는 어떠한 生活의 內容에 대해서도 서먹서먹하게 군다。이것은 自身의 不幸과 無能力에 대한 僞裝의 虛勢다。모든 것을 悟達한 듯한 表情으로서 캄푸라쥬하자는 것이다。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다。그것은 自己自身에 대해서까지 僞善이라는 것이 分明해진다。더구나 아무도 사랑(生活)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孤獨한 일이요、不安하고 絕望的인 일이다。이를 위해 하로치씩 또는 瞬間씩만 잔득 산다는 技巧도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도 自己의 無能力을 忘却할 재간이 없는 경우、그는 生理的慾望에서가 아니라、순전히 心理的인 均衡運動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 愛慾을 지게 된다。이것은 決코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려움까지를 느끼면서 決斷力을 낸 것이다。少女가 여기에 强烈한 體臭를 느끼고 容納하였다는 姿勢를 取하자 그의 恐怖는 現實化한다。後悔하고 唐慌한 나머지 사나이는 動物的인 愛情의 말을 거침없이 지껄인다。이말은 二重의 意味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이말이 그의 生理的인 愛慾行爲를 代行하는 것이고 하나는 少女에 대해서 그의 無能力을 캄푸라쥬하는 일이다。肉體와 그 附屬品이 極度로 게으른 대신에 心理와 言語만이 가장 부지런히 愛慾行爲를 敢行하고 있는 이 사나이를 결국 少女는 輕蔑의 感情으로 대하게 된다。그때에는 사나일 다시 自身의 無能力으로 돌아가 少女에게 能力 있는 愛人을 갖도록 勸한다。

이러한 慾求와 諦念의 交織運動은 그의 生存을 心理的으로 均衡化시키는 物理的運動이다。이것이 諦念의 心理的 意義다。

이러한 現象은 『逢別記』에도 充分히 나타나 있다。이것은 또한 絕對的인 自由의 精神을 象徵하고 있다。自由란 가장 自我에 徹底해 지는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自我를 脫出하는 運動이기도 하다。自己에 誠實한 것이 他人의 自由를 유린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自我에의 環元과 脫出이 自由 自在할 때에 비로소 사람은 完全한 自由를 가지게 된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누어 잠만 자니까 錦紅이에게 대하여 심심하다。그래서 錦紅이는 밖에 나가 심심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 심심치 않게 놀고 돌아오는——즉 錦紅이의 협착한 生活이 錦紅이의 鄕愁를 向하여 發展하고 飛躍하기 시작하였다는데 지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않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이것은 錦紅이로서 錦紅이 답지 않은 일일 밖에 없다。숨길 것이 있나? 숨기지 않어도 좋지。자랑을 해도 좋지。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나는 錦紅이 娛樂의 便宜를 돕기 위하여 가끔 P君 집에 가 잤다。P君은 나를 불쌍하다고 그랬던가 싶이 지금 記憶된다。

나는 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즉 남의 안해라는 것은 貞操를 지켜야 하느니라고!

錦紅이는 나를 내 懶怠한 生活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姦淫하였다고 나는 好意로 解釋하고 싶다。그러나 世上에 흔히 있는 안해다운 禮儀를 지키는 체 해 본 것은 錦紅이로서 말하자면 千慮의 一失 아닐 수 없다。

이런 實없은 貞操를 看板 삼자니가 自然 나는 外出이 잦았고 錦紅이 事業에 便宜를 돕기 위하여 내 房까지도 開放하여 주었다。그러는 中에도 歲月은 흐르는 法이다。』(小說·逢別記)

그는 嫉妬하지 않는다。어디까지나 理解하고 寬大하다。가고 싶을 때엔 가고 오고 싶을 때엔 온다。아무도 그 感情과 行動을 拘束하지 않는다。이것이 自由의 純眞한 原型이다。純眞하다는 것은 社會的인、自己 以外의 사람에게 負擔을 지지도 않고 지우지도 않는다는 뜻이다。勿論 이러한 自由精神은 弱者의 美德이지 强者의 論理는 아니다。李箱은 弱者이기 때문에 이 虛勢를 自己 生理化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그럴 때에만 그는 心理的으로도 行動上으로도 정말 自由를 獲得한다。그리고 그러한 生理를 스스로 享樂하는 羽化登仙이 있다 이것이 『날개』의 生理요 精神이다。

날개의 生理

小說 『날개』는 먼저 自己와 아내의 辯護로부터 시작되어 있다。

『剝製가 되어버린 天才』를 아시오? 나는 愉快하오。이런때 戀愛까지가 愉快하오。

肉身이 흐느적 흐느적 하도록 疲勞했을 때만 精神이 銀貨처럼 맑소。니코틴이 내 蛔배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리 속에의

례히 白紙가 準備되는 법이오。그 위에다 나는 웟트와 파라독스를 바둑 布石 처럼 늘어놓소。可憎한 常識의 病이오。

나는 또 女人과 生活을 設計하오。戀愛技法에 마저 서먹서먹해진, 知性의 極致를 홀깃 좀 들여다 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一種의 精神奔逸者 말이오。이런 女人의 半——그것은 올갖 것이 半이오——만을 領收하는 生活을 設計한다는 말이오。그런 生活 속에 한발만 들여놓고 恰似 두개의 太陽처럼 마주 쳐다 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오。나는 아마 어지간히 人生의 諸行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쭘 되고 그만 둘 모양이오。꾼바이。

꾼 빠이。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飮食을 貪食하는 아이로니를 實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웟트와 파라독스와……。

그대 自身을 僞造하는 것도 할만한 일이오。』(小說·날개)

序頭에 이미 그 主題를 充分히 設定해 두고 시작된 小說 『날개』는 아내인 娼婦를 女王蜂이나 未亡人으로서 그 半만을 領有하여 받들고 自己自身은 知性의 極致를 홀깃들여다 본일이 있는 精神奔逸者로서 登場한다。

李箱에 依할 것 같으면 『感情은 어떤 포즈、그포즈가 不動姿勢에까지 高度化할 때 感情은 딱 供給을 停止』하는 것이다。그래서 李箱은 道德、自意識、門閥、에티케일、體面 其他 온갖 社會的 慣習的인 良識들을 팽개치고 오직 純粹한 어린아이와 같은 好奇心과 同情으로서 그 아내의 生活을 들여다보고 즐긴다。

밤이나 낮이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잔다。그리고 아내의 事業의 繁盛을 念願하고 妨害를 두려워하고 아내의 羞恥心의 世界를 일깨워 주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아내가 없을 때에는 아내의 事業道具의 빛갈과 냄새를 즐기며 陶醉한다。이것은 常識에 대한 아이로니요、파라독스인 대신 純粹한 人間感情에게는 創造的인 웟트가 선다。이것이 慾求와 絕望이 交錯하는 曲藝師와 같은 不安精神의 物理的 運動에서 自己를 解放하고 純粹遊戲의 創造的快味를 맛보는 「날개」다。이러한 날개가 그로하여금 이 地上의 올갖 因習的生活에서 苦痛에서 不安에서 絕望에서 그리고 自意識에서 自身을 解脫시켜 羽化登仙을 可能케 하는 것이며 剝製가 되어버린 天才의 純粹享樂(遊戲)인 그의 生活의 새로운 技巧다。이 逆說的이고 씨니칼한 純粹遊戲를 通하여 李箱은 그

의 現代와 生活을 救濟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도 생각해내지 못한 生活의 새로운 觀念과 文法을 創造한 셈이 된다。이젠 아무도 그를 더럽힐 수 없고 害칠 수가 없다。그는 이러한 경지에서 처음으로 愛情과 事物에 대한 好奇心을 發見하고 行使한 사람이다。그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精神奔逸者、그리고 神이 없는 神殿의 居住人이다。이미 글로서 表現할 必要가 없는 世界다。事實은 悲慘한 弱者의 逃避處다。大空의 王者이었던 독수리인들 이제 剝製로서 날라야 하는 身勢를 어떻게 하랴。

結　語

以上으로서 나는 李箱의 文學이 그의 어떠한 人間的 生活的 條件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대강 살펴보았다。어려한 그의 人間像과 文學이 그의 肺病 때문이었던 知性의 極致에서 온 것이었던간에 그리고 이 兩者의 混合된 條件이었던간에 그것은 그다지 問題가 되지 않는다。

그가 우리들에게 남길 수 있는 唯一한 것은 그가 얼마나 冷靜하고 透徹한 知性으로서 그의 心理와 生活을 凝視하고 分析하고 表現하여 우리들에게 보여 주었는가 하는 點이다。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重要한 것은 그러한 作業이 그에게 얼마나 苦痛스러운 敗北意識의 피나는 克服術이었던가 하는 点이다。小心하고 誠實한 그가 그의 生活上의 無能力과 虛妄 속에서 諦念과 自由를 僞裝하는 그 虛勢를 끝내 버릴 수 없었다는 이 自意識의 過剩이 마침내 剝製가 되어 버린 天才의 날개를 要求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스멍달」 以上으로 非感傷的인 文體를 써서 細密한 心理의 分析을 보여 주었다는 것은 그의 天才가 剝製가 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잊지 않는다。그가 慾望과 無能 사이에서 心理的 破綻을 回復하는 物理的 運動으로 諦念을 技巧로 삼았으나 항상 重壓되는 虛勢로서의 敗北意識을 克服할 수 없어서 이것을 다시 自覺된 自由意識으로 進展시켰다。그러나 이 自由意識은 孤獨과 虛妄의 相對性을 씻어낼 수는 없었다。그 自由意識을 享樂과 創造에로 끌어올리는 方法으로 그는 다시금 그 自身을 하나의 剝製로서 意識하려 하였고 그러한 剝製의 純粹遊戲를 通하여 不安에서 絕望에서 苦痛에서 自身을 解脫시켰다。이것이 無能하고 小心한 李箱이 是認한 唯一한 形而上學이었다。(筆者=文學評論家)

藝術院의 沿革과 業績 槪況

一、藝術院設置目的

藝術의 自由를 保障하고 藝術家의 地位를 向上시킴으로써 民族文化의 創造發展에 功獻함을 目的으로 藝術院을 設置하다

一、文化保護法公布

藝術院設置의 母法인 文化保護法은 檀紀四二八五年八月七日字 法律第二四八號로公布하다

一、文化人登錄令公布

藝術家의 登錄을 期하여 藝術院會員을 選擧하고저 檀紀四二八六年四月十四日 大統領令 第七七三號로 公布하다

一、文化人의 登錄및 審査

文化人의 登錄을 四二八六年六月부터 八七年一月까지 文敎部藝術課에서 接受하고 審査委員會에 通過選定된 文化人의數文는 다음과 같다

分科別	書類接受	登錄된文化人
文學	一二〇名	一〇五名
美術	一六八名	一四九名
音樂	一〇八名	九二名
演藝	二〇四名	九七名
計	六〇〇名	四四三名

一、藝術院會員選擧

文化人으로 登錄된 四四三名의 有權者는 檀紀四二八七年三月二五日에 全國一圓十四個投票所에서 公正한 投票를 實施한 結果에 當選된 初代藝術員會員 二十五名은 다음과 같다

第一類 文學分科 (七名)

廉尙燮 朴鍾和 金東里 趙演鉉 柳致環 徐廷柱 尹白南

第二類 美術分科 (七名)

高羲東 李象範 張 勃 孫在馨 金煥基 尹孝重 裵 濂

第三類 音樂分科 (六名)

玄濟明 成慶麟 金聖泰 金東振 朴泰俊 李珠煥

第四類 演藝分科 (五名)

柳致眞 李海浪 吳泳鎭 安鍾和 李圭煥

一、任命會員裁可

文化保護法에 依據하여 藝術院에서 提請된 다음의 四名은 檀紀四二八七年六月十六日字로 大統領의 裁可가 남으로써 任命會員(終身制)이되다

高羲東 廉尙燮 玄濟明 吳相淳

一、推薦會員選出및一般會員名單

檀紀四二八七年四月二十四日 臨時總會를 가져 文化保護法에 依據하여 會員에 依하여 推薦된 推薦會員一〇名은 다음과 같다

朴鍾和 金東里 趙演鉉 張 勃 李象範 孫在馨 金聖泰 成慶麟
柳致眞 李圭煥

一般會員名單

柳致環 徐廷柱 金煥基 尹孝重 裵 濂 金東振 朴泰俊 李珠煥

李海浪　吳泳鎭　安鍾和

一、第一回藝術院定期總會開催

藝術院會員이 選定됨에 따라서 檀紀四二八七年六月三十日 齒大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任員을 選出하였던바 會長에 高羲東 副會長에 朴鍾和를 各各決定하고 決議事項으로 開院式을 學·藝術院合同으로 檀紀四二八七年七月十七日(制憲節)서울大學校에서 擧行하기로 決定하다

一、藝術院開院式擧行

檀紀四二八七年七月十七日 서울大學校 大學講堂에서 學·藝術院會員全員과 內外貴賓多數參席한 가운데 歷史的인 開院式이 盛大히 擧行되다

一、藝術院諸規程制定委員選出

文化保護法에 規定된 以外에 藝術院에 必要한 事項을 制定하고저 四二八七年六月三十日開催된 臨時總會에서 다음과 같은 制定委員 八名을 選定하다

高羲東　朴鍾和　玄濟明　趙演鉉　金聖泰　柳致眞　尹孝重　吳泳鎭

一、大韓美術海外展示(宣揚)推薦委員選定

民族文化財를 널리 海外로 紹介하라는 大統領閣下의 吩咐가 있어 이에 文敎部로부터 委員選定을 諮問해온바 있어 藝術院에서 選定하여 答申한 名單은 다음과 같다

高羲東　金煥基　李鍾雨　金景承　都相鳳　李象範　張　勃　金仁承　尹孝重

一、藝術院職制및會員報酬規程案制定提出

文化保護法에 依據하여 藝術院에 事務局을 設置하고저 諸規程制定委員會에서 作成된 事務局職制및 會員報酬規程案을 文敎部를 經由하여 法制處(當時)에 提出하고서 正副會長 制定委員이 數次에 걸쳐 直接訪問 交涉한바이나 母法인 文化保護法에 이에 對한 條文이 明文化되어 있지 못한다는 理由로 如히치 못하였다

一、第三回『國展』에關한協議會開催

文敎部의 要請으로 四二八七年十月十二日 當院의 美術分科會를 開催하고서 同『國展』에 關한 諸事項을 協議하다

一、第三回『國展』에藝術院會長賞授與

第三回『國展』作品 西洋畵『閑日』朴商玉作에 對하여 四二八七年十一月二十六日附로 藝術院會長의 賞狀을 授與하기로 하다

一、藝術院藝術賞授賞規程制定

文化保護法第二十七條에 依據하여 四二八八年四月九日 開催된 臨時總會에서 同規程을制定하여 앞으로 藝術에 關한 優秀한 作品의 作者或은 藝術活動에 있어서 그 功勞가 特別히 顯著하다고 認定된 作者에게 授與하기로하다

一、文化保護法改正案提出

文化保護法의 未備로 因하여 當院에서는 正常的인 活動을 못하고 있으매 이를 文化保護法改正으로 補正하고저 四二八八年四月十一日字로 同改正案을 民議院 文敎分科委員會、院內各交涉團體에 提出하다

一、藝術院報發刊

藝術院의 機關紙인 藝術院報를 四二八八年六月三十日字로 第一號를 發刊하여 藝術家및 各藝術團體 各文化團體에 널리 贈呈하다

一、自由中國學者招待懇談會開催

檀紀四二八八年五月十八日 國際호텔에서 中國學者 朱家驊 董作賓 溥儒

의 三學者氏를 招待하여 學·藝術院合同으로 懇談會를 開催하다

一、第二回定期總會開催

檀紀四二八八年七月十日 文敎部會議室에서 同會議를 開催하고 다음과 같이 任員을 改選하다

會長 朴鍾和
副會長 玄濟明
(各分科會長)
文學分科會長 廉尙燮
美術分科會長 李象範
音樂分科會長 朴泰俊
演藝分科會長 柳致眞

一、藝術院廳舍選定依賴

檀紀四二八八年五月五日附로 國務院事務局에 公翰으로 廳舍를 選定依賴한 바있으나 當時考試委員會建物(現海務廳舍)은 大統領閣下의 吩咐로서 外國人記者의 宿所및會集室로 使用될豫定이라는 五月十三日字 回信을 받다

一、第一回藝術院賞(四二八七年度賞)授賞

檀紀四二八八年七月十七日 서울大學校 大講堂에서 同授賞式을 擧行한바 授賞者는 다음과 같다

文學 功勞賞 朴鍾和
音樂 功勞賞 玄濟明
演藝 功勞賞 柳致眞

一、文化保護法改正案에關하여文敎委員會와連席會開催

檀紀四二八八年十二月十四日 美莊크럽에서 同案을 最終的으로 審議하고저 文敎委員會와 學·藝術院의 任員會의 連席會를 開催하다

一、유네스코韓國委員會信任代表選定

檀紀四二八九年二月八日에 開催된 第五回臨時總會에서 朴鍾和會長을 藝術院의 信任代表로서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이를 유네스코韓國委員會에 通報하다

一、亞細亞人名辭典에會員名單提出

公報室에서 이에對한 依牒이 있어 藝術會員十六名(期日內書類接受分)의 書類를八九年六月二十三日附로 提出하다

一、第二回藝術院賞(四二八八年度賞)授賞

檀紀四二八九年七月十七日 서울大學校 大講堂에서 學·藝術院合同으로 同授與式을 擧行한바 藝術院의 授賞者는 다음과 같다

文學 功勞賞 吳相淳
美術 功勞賞 高義東

一、第三回定期總會開催

檀紀四二八九年七月十四日 서울大學校本部會議室에서 同會議를 開催하여改選된 任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會長 朴鍾和
副會長 玄濟明
(各分科會長)
文學分科會長 吳相淳
美術分科會長 李象範

音樂分科會長　金　聖　泰
演藝分科會長　吳　泳　鎭

一、映畵上映製作에關한倫理的規程

文敎部에서　諮問은바 있어　檀紀四二八九年八月六日　第八次臨時總會를開催하고　吳泳鎭會員이　草案한　同規定案을　愼重討議한 끝에　映畵가　지닌　藝術性과　道德的責任의　重大性을　基礎로 하여　總會에 通過하여 決議된　案을　文敎部에　答申하다

一、第五回『國展』에關한協議會開催

檀紀四二八九年八月三十日字로　文敎部에서　諮問해온　國展에　關한　諸般事項을　協議하고저　美術分科會를　文敎部次官室에서　開催하다

一、第四回全國音樂競演大會에關한諮問

檀紀四二八九年九月五日　文敎部에서　本院音樂分科會를　開催하고 同大會에　關한　諸般事項을　協議하다

一、文化保護法改正案國會에서廢棄

檀紀四二八八年四月十一日字로　同改正案은 民議院各交涉團體에　提出되어 文敎　法司兩委員會에　通過를보고　本會議에 上程되었으나　議員들의 事前認識이　不足하여　廢棄되었다

一、海外紹介現代文學作品選定諮問案

檀紀四二八九年十一月十二日字　文敎部　로 부터 諮問해온 本件에 對하여는 本院文學分科會議에서　五篇의　作品을　選定하여　이에　答申하다

一、國產映畵育成策諮問案

檀紀四二八九年十二月十四日字　文敎部　로 부터 諮問해온 本件에 對하여는 本院　第十次臨時總會에서　條文에 修正을　加하여　審議된 同育成策案을 答申하다

一、藝術院一般會員選擧規程制定

檀紀四二八〇年二月五日　第十一次臨時總會를 開催하고　一般會員을　選擧함에　必要한　規程을　制定하다

一、國產映畵育成策에關한規程再諮問案

本件　文敎部　로 부터　再次諮問이 있어　本院第十一次臨時總會에서　再審議하여　作成된　同規程案을　回報하다

一、第二代一般會員選擧

第二次的으로　登錄된 文化人　二八八名을　합하여　七三一名의　有權者는 檀紀四二九〇年四月十八日을　期하여　全國十六個所의 投票所에서　第二代一般會員을　選擧하여　다음과　같은　新會員二十五名이　當選되다

文學分科(七名)
徐廷柱　柳致環　黃順元　金末峰　李軒求　郭鍾元　毛允淑

美術分科(七名)
盧壽鉉　都相鳳　裵　湳　金煥基　裵吉基　金仁承　尹孝重

音樂分科(六名)
林元植　金元福　李珠煥　鄭勉謨　金永義　李興烈

演藝分科(五名)
李海浪　金東園　卞基鍾　李光來　徐恒錫

一、藝術院第二代一般會員(新任會員)歡迎會開催

檀紀四二九〇年四月十八日에　實施한　選擧에서　當選된　第二代一般會員

二十五名을 祝賀하기 爲하여 五月十七日 서울大學校에서 學·藝術院合同으로 歡迎會를 開催하여 新舊會員間의 親睦을 圖謀하다

一、被拉致作家出版物再版에 關한 文敎部諮問案

本諮問案에 對하여는 本院의 文學分科會議를 開催하여 愼重討議한 結果에 被拉致作家出版物再版은 保留할것에 合議를 보아 答申을 보내다

一、在佛金煥基會員再選祝賀電文發信

第十二次臨時總會에서 決議된바 있어 四二九〇年六月十九日付로 在佛金煥基會員에게 藝術院會員 再選의 祝賀電報를 發信하다

一、第六回『國展』規程諮問案

四二九〇年五月一日字 文敎部로부터 諮問해온 本件에 對하여는 六月二十二日 開催된 第十三次臨時總會에서 美術分科會案을 充分히 檢討한後에 그採擇된 同規程案을 文敎部에 答申하다

一、筆跡鑑定人推薦

檀紀四二九〇年六月十三日字 서울地方法院에서 依賴해온 本件에 對하여는 愼重을 期한 끝에 書藝界의 名士 三人을 推薦回報하다

一、海外留學生(藝術分野)資格認定에 關한 建議

檀紀四二九〇年二月五日에 開催된 第十一次臨時總會에서 決議된 바에 依하여 高等學校卒業者에 있어서도 文學 美術 音樂 演劇 映畵等의 藝術分野 專攻者는 各其部門의 展覽會、競演大會 콩쿨大會等 行事에 參加하여 特選이나 受賞한 者에 對하여는 海外留學에 있어서 特別한 資格을 認定하도록 措處할것을 文敎部에 公翰으로 建議하다

一、第四回定期總會開催

檀紀四二九〇年六月二九日 開催된 第四回定期總會에서 選出된 任員名單은 다음과같다

會長 朴鍾和
副會長 玄濟明
(各分科會長)
文學分科會長 吳相淳
美術分科會長 李象範
音樂分科會長 金聖泰
演藝分科會長 柳致眞

一、第三回藝術院賞(四二八九年度賞)授賞

檀紀四二九〇年七月十七日 서울大學校 大講堂에서 學·藝術院合同으로 同授賞式을 擧行한바 藝術院의 授賞者는 다음과 같다

文學 功勞賞 廉尙燮
美術 功勞賞 李象範

一、美術作品海外展示에 對한 文敎部諮問案

檀紀四二九〇年七月十二日字 文敎部로부터 諮問해온 本件은 美國죠지아大學敎授 「에덴·D·쌔티」女史의 現代韓國美術作品展을 美國에서 開催하겠다는 依牒으로 當院에서는 美術分科會를 七月二十三日 開催하고 出品者의資格 出品數交 接受處等에 關한것을 決議하다

一、韓美學者交歡準備會議

檀紀四二九〇年七月二十四日 『한국의집』에서 開催한 自由友邦諸國과의 友好의 促進을 目的하는 同會議에 藝術院代表朴鍾和會長이 參席하다

一、全國兒童藝術大會賞狀授與

檀紀四二九〇年九月 誠信女子中高校主催로 開催한 同大會에 授賞依賴가 있어 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第八回嶺南藝術祭賞狀授與

檀紀四二九〇年十一月二十四日부터 晋州에서 開催된 同藝術大會에 賞狀 依賴가있어 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第六回『國展』審査委員會構成諮問

檀紀四二九〇年九月六日字로 諮問하여온 本件에 對하여는 美術分科會에서 選定提出된 名單을 審議한 結果에 同審査委員으로 二十七名을 決定하여 回報하다

一、第二回全國國民學校兒童美術實技大會賞狀授與

檀紀四二九〇年九月에 培花女高主催로 開催된 同實技大會에 賞狀授與依賴가 있어 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不當出版物發賣中止에關한文教部諮問案

檀紀四二九〇年十月二十六日字 文教部로부터 諮問하여온 本件에 對하여는 文學分科會를 開催하여 發賣中止함이 妥當함을 決議하고 이를 回報하다

一、日本書籍飜譯出版에關한文教部諮問

檀紀四二九〇年十月三十日字 文教部로부터 諮問해온 本件에 對하여는 當院文學分科會에서 審議하여 同出版을 保留할것에 合議보아 答申하다

一、文化保護法改正案 文教·法司兩委員會審議

檀紀四二九〇年九月十七日字로 提出한 同改正案은 文教·法司 兩委員會에서 審議를 끝마치고 運營委員會에 廻付되다

一、文化保護法改正法律國會本會通過

檀紀四二九〇年十一月十三日 第三六次國會本會에서 同文化保護法改正案이 原案대로 通過되다

一、文化保護法改正法律公布

檀紀四二九〇年十二月二日字 法律第四五九號로 同文化保護法改正法律은 正式公布되다

一、會長朴鍾和氏文學博士學位授受紀念祝賀會開催

檀紀四二九〇年十一月二十三日 서울大學校內 教授會館에서 同祝賀宴會를 開催하고 아울러 會員을 代表하여 尹孝重會員의 『壺』贈呈이 있었다

一、國際書籍展示會出品에關한會議參席

檀紀四二九一年一月十四日부터 東京에서 開催되는 同展示會에 對한 協議會를 文教部에서 開催한다는 要請에 本院에서도 代表二名이 參席하다

一、藝術院事務局職制案提請

藝術院事務局設置를 爲하여 本院의 諸程規制定委員會에서 制定한 同職制案을 檀紀四二九一年一月十五日付로 文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至急措處있기를 要請하다

一、韓國現代文學作品飜譯出版材料選定에關한諮問

檀紀四二九一年一月十三日 文教部로부터 諮問해온 本件에 關하여는 同一月二十日字 文學分科會를 開催하여 出選된二十二篇을 總會를거쳐 回報하다

作品은

選出된 作品은 다음과 같다

(一) 長篇 四篇

임진의 난 — 朴鍾和 作
카인의 후예 — 黃順元 〃
흙 — 李光洙 〃
生命 — 金末峰 〃

(二) 短篇 十八篇

모밀꽃 필무렵 — 李孝石 作
날개 — 李箱 〃
독짓는 늙은이 — 黃順元 〃
黃土記 — 金東里 〃
貧妻 — 玄鎭健 〃
두 破産 — 廉尙燮 〃
감자 — 金東仁 〃
봄 봄 — 金裕貞 〃
白痴아다다 — 桂鎔默 〃
물레방아 — 羅稻香 〃
越南前夜 — 林玉仁 〃
凶家 — 崔貞熙 〃
창포필무렵 — 孫素熙 〃
陷落直前 — 朴容九 〃
그늘진꽃밭中一 — 朴榮濬 〃
갯마을 — 吳永壽 作
天使 — 韓戊淑 〃
農軍 — 李無影 〃

(以上 二十二篇)

一、藝術院事務局職制案再提請

檀紀四二九一年四月十九日 學·藝術院의 諸規程制定委員連席會를 開催하고서 一月十五日字 提出된 職制案과 變動할수 없음을 確認하여 文敎部長官에게 公翰을 再提出하다

一、政府樹立十週年紀念慶祝行事諮問

文敎部로부터 諮問해온 本件에 關하여는 第十五次臨時總會에서 充分히 論議한끝에 藝術院修鑑下에 藝術年鑑을 發刊할것과 各分科別로 藝術行事計劃案을 作成하여 文敎部에 提出하기로 決議하다

一、서울大學校美術大學美術展覽會賞狀授與

檀紀四二九一年六月二十四日부터 美術大學主催로 開催된 同美術展覽會에 要請이 있어 藝術院會長 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海外宣傳用圖書購入에關한會議參席

民族古有의 文化와 復興建設面을 海外에 宣傳하고저 圖書購入에 關한 會議를 六月二十日 文敎部主催로 開催된바 이에 事務局朴琦遠氏가 參席하다

一、世界著作權條約加入에關한諮問

檀紀四二九一年六月十八日字 文敎部로부터 諮問해온 本件에 關하여는 第十六次 藝術院臨時總會에서 加入에 愼重을 期하기 爲하여 좀더 同條約書를

研究檢討한 後에 可否를 決定하여 回報할것에 合議되어 이를 答申하다

一、第四回藝術院賞(四二九〇年度賞)授賞者決定

六月二十一日에 開催된 第十六次藝術院臨時總會에서 美術 功勞賞에 張勃氏를 同授賞者로 決定하고 이를 文敎部長官에게 報告하다

一、第四回藝術院賞(四二九〇年度賞)授賞

檀紀四二九一年七月十七日 서울大學校大講堂에서 同授賞式과 藝術院創立第四週年紀念日을 兼하여 盛大히 擧行하였으며 授賞者는 美術 功勞賞 張勃氏이다

一、第七回『國展』寫眞部新設에關한諮問

六月十六日字로 文敎部에서 諮問해온 本件에 關하여는 第十六次臨時總會에서 保留할것을 決議되여 同月二十三日에 이를 回報하다

一、第五回定期總會開催

六月二十八日 서울大學校內 敎授會館에서 同總會를 開催한바 任員改選에 다음과 같이 決定되다

會　長　朴　鍾　和
副會長　玄　濟　明

(各分科會長)

文學分科會長　吳　相　淳
美術分科會長　李　象　範
音樂分科會長　金　聖　泰
演藝分科會長　柳　致　眞

一、第六回全國音樂競演大會審査委員選出

六月五日字 文敎部로부터 諮問해온 本件에 關하여는 第五回定期總會에서 音樂分科會에서 提出된 四九名을 同審査委員으로 認準하여 同月二十日에 이를 文敎部에 答申하다

一、第二回全國兒童藝術大會賞狀授與

九月二十日부터 誠信女子中高校主催로 開催된 同藝術大會에 要請에 依하여 藝術院會長 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英國出版社發行年鑑에藝術院紹介

七月八日字 文敎部로부터 依牒해온 本件에 藝術院의 機構와 沿革을 紹介하다

一、合同通信社發行年鑑에藝術院의움직임을紹介

合同通信社로부터 年鑑에 對한 材料提出을 依賴해온바 있어 當院의 움직임을 紹介하여 提供하다

一、建國十週年紀念第七回『國展』審査委員選出

六月十六日字 文敎部로부터 諮問해온 本件은 九月九日 開催된 第十七次臨時總會에서 同審査委員二十六名을 選出하여 九月十日字 文敎部에 回報하다

一、英文版유네스코韓國總覽에藝術院紹介

九月十六日字 유네스코韓國委員會로부터 依賴온바 있어 所定様式에 依하여 藝術院의 概觀을 紹介하다

一、『國展』圖案部獨立要請書接受

大韓産業美術家協會로부터 圖案部獨立을 建議해온바 있으나 九月九日에 開催된 第十七次臨時總會에서 保留할것을 決定하여 同協會에 回報하다

一、유네스코韓國委員會第六次總會에參席

九月二十九日 韓國貯畜銀行講堂에서 開催된 同會議에 事務局朴琦遠氏가 會長을 代理하여 參席하다

一、유네스코韓國委員會의藝術院信任代表選出

九月十七日字 同委員會로부터 代表를 報告해달라는 依賴가 있어 本院總會에서 會長朴鍾和氏을 選出報告하다

一、第三回全國國民學校兒童美術實技大會에賞狀授與

九月二十九日부터 培花女子中高校主催로 開催된 同大會에 要請이 있어 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慶南美術展覽會賞狀授與

十月二十二日字로 慶南道知事로부터 本展覽會에 對한 賞狀授與를 依賴해온바 있어 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第八回全國男女大學對抗雄辯大會賞狀授與

十一月二十九日부터 成均館大學主催로 開催된 同大會에 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藝術院報第二號續刊

檀紀四二九一年十一月二十日字로 藝術院報 第二號를 發行하여 各官公署 教育機關 文化團體 藝術家等 널리 贈呈하다

一、『學園』社文藝作品賞狀授與

十二月中에 『學園』社主催로 開催된 文藝作品募集에 入賞된 「내고향의 깃발속에는」에 對하여 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教材映畵『聖雄忠武公』推薦

檀紀四二九二年一月二十六日字 大韓教材映畵研究所로부터 映畵推薦을 依賴해온바 있어 教育的價値가 있는것으로 認定하여 이를 推薦하다

一、유네스코教育代表機構 WCOTP 各種作品出品依賴

一月十三日字 大韓教育聯合會로부터 本件에 對한 作品出品依賴가 있어 이를 院內에 周知시켜 作品을 應募한바이나 條件이 合當치 못한 關係上 應募作品이 없음을 通知하다

一、世界平和音樂懸賞應募作品審査

四月十五日字 文教部로부터 同應募作品 作曲二篇의 審査를 諮問해온바 있어 이를 審議한 結果에 作品으로 出品하여도 可함을 決定 四月二十二日附로 回報하다

一、音樂藝術人名單提出(世界音樂人名辭典)

四月十五日字 文教部로부터 本件諮問해온바 있어 本院에서는 同音樂人 三十二名을 選出하여 이를 五月十六日附로 答申하다

一、유네스코韓國委員會第四次連席分科會參席

五月二十日字 同委員會로부터 本件에 關한 通知를 받어 五月二十三日 教育會館에서 開催되는 同分科會에 委員會文化委員長이며 本院會長인 朴鍾和氏가 參席하여 亞細亞地域 유네스코代表者會議에 關한事項을 協議하다

一、合同通信社發行年鑑收錄材料提供

自四二九一月七月 至四二九二年六月의 藝術院의活動 및 法的規程等을 年鑑材料로 提供하다

一、第二回全國少年美術展覽會賞狀授與

六月十日부터 十五日間에걸쳐 反共會館에서 開催되는 同展覽會의 要請이 있어 藝術院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第六回定期總會開催

六月二十七日 서울大學校內 教授會館에서 開催된 同會議에서 選出된任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會 長 朴 鍾 和
副 會 長 玄 濟 明
(各分科會長)
文學分科會長 吳 相 淳
美術分科會長 張 勉
音樂分科會長 金 聖 泰
演藝分科會長 (未 定)

一、第十回서울大學校美術大學美術展覽會賞狀授與

七月三日부터 六日間 美術大學에서 開催되는 同美術展覽會의 要請에 依하여 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第五回藝術院賞(四二九一年度賞)授賞者選出報告

六月三十日字 文教部長官에게 同授賞者決定을 다음과 같이 報告하다

文學 作品賞 사반에十字架 金 東 里
美術 功勞賞 作家活動三十餘年 盧 壽 鉉

一、『國展』에寫眞部新設에對한諮問

六月二十七日에 開催된 第六回定期總會에서 愼重討議한 結果에 保留하기로 決議되어 이를 文教部에 答申하다

一、『國展』寫眞部新設및文化人登錄에關한建議

本件은 韓國寫眞作家協會 韓國美術家協會 서울特別市文化委員會로부터 建議해온바 있어 六月二十七日 開催된 第六回定期總會에서 決議한 寫眞部는保留한것을 文化人登錄에 있어서는 文化保護法이 改正됨에 따라 自然廢止된바를 各協會에 回報하다

一、第五回藝術院賞(四二九一年度賞)授賞

七月十七日 藝術院授賞과 藝術院創立第五週年紀念을 兼하여 『원각사』에서 學·藝術院合同으로 盛大히 授與된바 藝術院의 授賞者는 다음과 같다

文學 作品賞 사반에十字架 金 東 里
美術 功勞賞 作家生活三十餘年 盧 壽 鉉

一、第三回全國兒童藝術大會賞狀授與

八月中에 誠信女子中學校 主催로 開催된 同藝術大會에 要請이있어 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第四回全國國民學校兒童美術實技大會賞狀授與

九月二十八日부터 培花女子中高等學校 主催로 開催된 同大會에 要請이있어 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獨立紀念第十回開天藝術祭賞狀授與

十一月三日부터 六日間에 걸쳐서 晋州에서 開催되는 同藝術祭의 要請에 依하여 藝術院會長 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第八回『國展』審查委員推薦

文教部로부터 諮問하여온 本件에 關하여는 第二十次및 第二十一次臨時

總會에서 美術分科會로부터 內定提出된 審査委員名單을 愼重審議한 結果 同審査委員二十六名을 選出하여 文敎部에 答申하다

一、第六回全國女子中高等大學國樂競演大會 賞狀授與

十月十七日부터 德成女子大學 主催로 開催되는 同國樂大會에 要請이 있어 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全國第一回時調競演大會賞狀授與

十月九日·十日 兩日間에 걸쳐서 敎育時報社 主催로 國立國樂院講堂에서 開催된 同大會에 要請이있어 會長名義로 賞狀을 授與하다

一、第二回全國國語國文學研究大會에『院報』提出

十一月에『국어국문학회』主催로 開催하는 同大會에 本院의 藝術院報各號를 展示用으로 提供하다

一、藝術院事務局廳舍選定依賴

十一月二十三日字 公翰으로 文敎部長官에게 藝術院事務局 設置에 必要한 最少限度內의 廳舍選定을 依賴하다

一、孫在馨會員民議院文敎分科委員長當選祝賀會開催

十一月二十四日 雅叙園에서 藝術院主催로 全會員參席下에 同祝賀會를 盛大히 開催하고 아울러 紀念品의 贈呈도 있었다

예술원 사무국 직제

(단기四二九二년九월二十二일
대통령령제一五一四호)

제一조 본령은 문화보호법 제二十五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원의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二조 사무국에 국장을두되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사무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국무를 통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국장은 예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제三조 사무국에 국장이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사무관 三인

학예관 二인

주 사 五인

제四조 사무국에 총무과 예술진흥과와 조사과를 둔다

각과의 과장은 사무관으로써 보한다

제五조 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문서의 수발 법령예규 예산 결산 회계 물품의 보관과 출납 재산의 관리 및 예술원의 회의와 회원선거 기타 타과 주관에 속하지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六조 예술진흥과는 예술의 연구와 발전에 관한 진흥조성 포상과 정부의 자문 또는 정부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七조 조사과는 국내외의 예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문헌 또는 작품의 수집과 정리 도서의 번역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八조 제二조제一항과 제三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임면에 있어서는 三급공무원은 문교부장관이 제청하고 四급공무원은 문교부장관이 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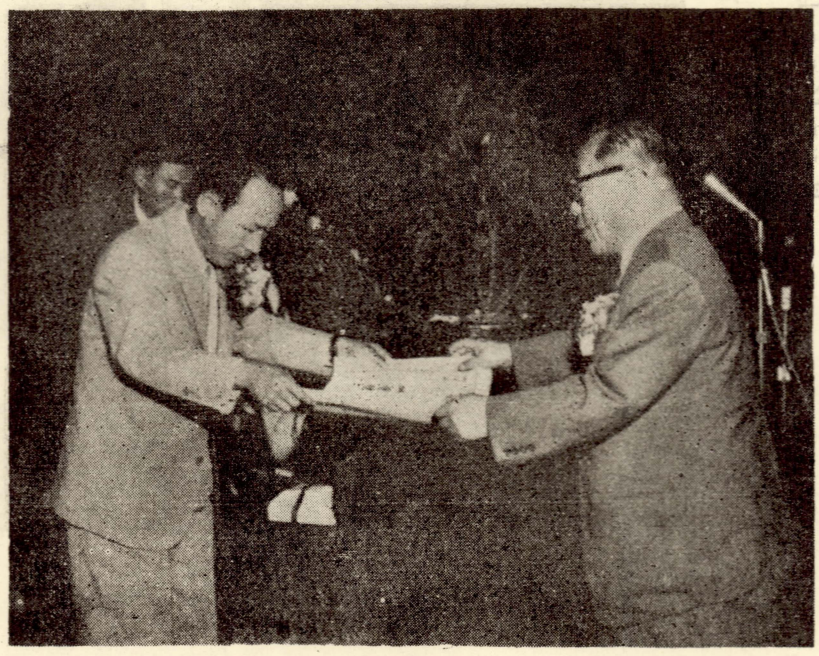
전항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예술원회장의 내신에 의하여 행하여야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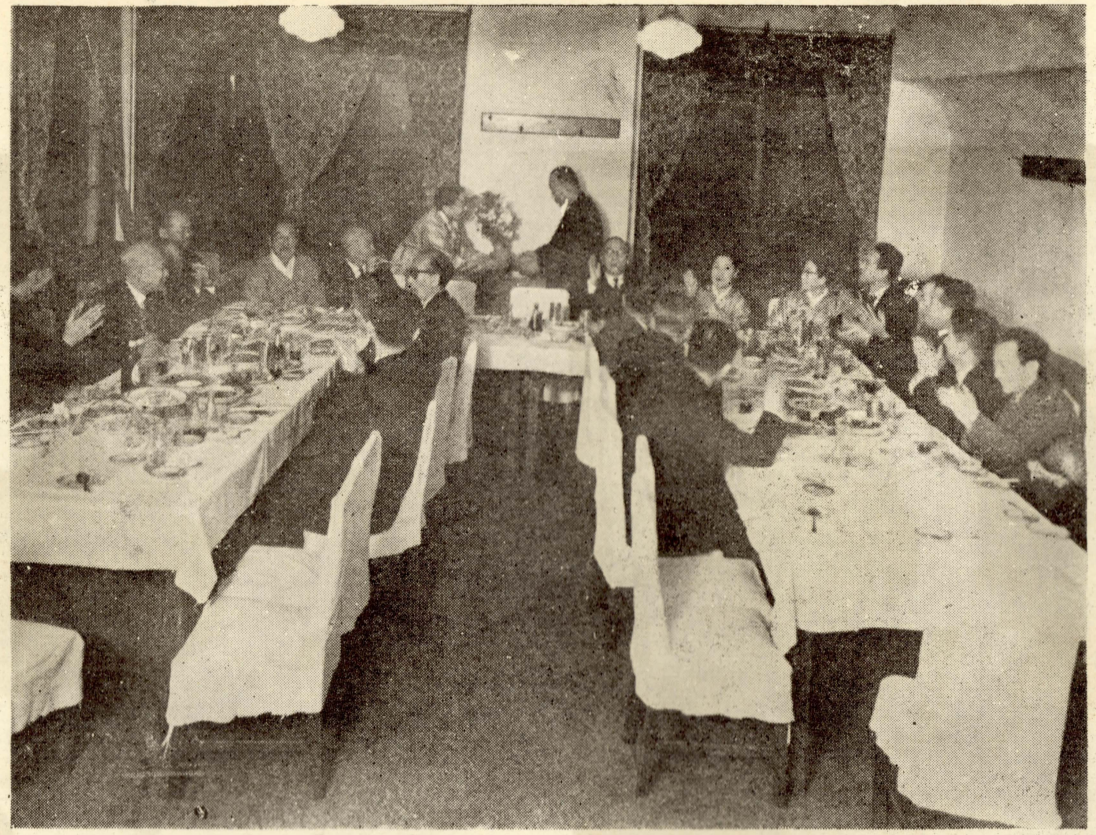
본령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第 5 回　藝術院賞授賞式

美術　功勞賞을　받는　盧壽鉉氏（右）
賞狀을　授與하는　會長　朴鍾和博士（左）



文學　作品賞을　받는　金東里氏（左）
賞狀을　授與하는　會長　朴鍾和博士（右）



藝術院會員　孫在馨氏의　民議院 文敎分科委員長 當選祝賀會에서 朴鍾和會長이　記念品을
贈呈한뒤 金末峰會員으로 부터 孫在馨氏에게　花環을 贈呈하는 光景

日 時　4292年11月24日
곳　雅　叙　園

會　議　錄（第二號에서繼續）

第十八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二年　三月七日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敎授會舘

一、參席會員

李珠煥　成慶麟　張　勃　盧壽鉉　朴鍾和　李象範　金元福　鄭勳謨

李光來　金聖泰　李興烈　李海浪　金末峰

高義東(委任狀)　玄濟明(委任狀)

事務局ㅣ朴琦遠　趙海山

朴鍾和會長의　開會辭가　있은後　朴琦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告가　있었고　職制推進에　關한　經過를　朴鍾和會長이　說明하다

一、決議事項

(1)유네스코敎育機關　WCOTP의　作品出品依賴에　關한件

本件에　關하여는　美術分科會에서　委任處理하기로　하되　敎聯側의　事務擔當者를　參席시킨　가운데　美術分科會를　三月十五日頃에　開催하기로　合議하다。

(2)藝術院會員選擧規程制定에　關한件

金聖泰會員의　動議로　任員會議에서　起草委員은　選出하되　同選擧規程案을　作成하여　總會에　提出審議하자는　것에　李光來會員의　再請과　金元福會員의　二請으로　異議없이　決議하다。

(3)任命會員및推薦會員補闕選出規程制定에　關한件

여러가지　論議한　끝에　學術院에서　制定한　同規程案을　좀더　硏究한　後에　再論議하기로　合議하다。

閉會ㅣ下午四時十分

第十九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二年　六月十三日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敎授會舘

一、參席會員

金東里　吳相淳　李珠煥　成慶麟　裵吉基　朴鍾和　盧壽鉉　鄭勳謨

金元福　張　勃　裵　濂　玄濟明　徐恒錫　李象範　尹孝重　李光來

林元植　金仁承　卞基鍾(委任狀)

事務局ㅣ朴琦遠　趙海山

朴鍾和會長의　開會辭에　이어　朴琦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告가　있은後　朴鍾和會長의　事務局職制案이　國務會議에서　通過를　본것에　對한　說明이　있었다。

玄濟明副會長의　司會로　討議事項으로　들어가　決議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決議事項

(1)藝術院會員選擧規程制定에　關한件

玄濟明副會長이　本件에　關하여　任員會議를　開催한　經過를　報告한　後에　金東里會員의　文化保護法　第七條와　第八條의　關係에　對한　卽　選擧權과　被選擧權에　關한　質疑에　玄副會長의　答辯이　있었고　選擧規

程制定에 關하여서는 任員會議에서 同規程草案을 具體的으로 成案하여 總會에서 審議決定하기로 合議하다。

(2)第五回藝術院賞(四二九一年度)授賞者選定의件

成員末達로서 本授賞對象者를 選出치 못하고 六月二十七日下午二時에 開催될 各分科會에서 內定한 授賞候補者를 同日 三時부터 開催할 定期總會에서 審議選出하기로 合議하다。

(3)「國展」 寫眞部新設建議에 關한件

本件에 對하여는 두가지案 으로 첫째ㅣ지난 二年間에 걸쳐 諸問에 否決되어 寫眞部設置를 保留한것인 만치 會員任期完了時까지 保留하자는 案과 둘째ㅣ每年繼續으로 建議또는 諮問되는 問題이니 좀더 愼重이 硏究와 誠意를 보이는 뜻에서 美術分科會에서 審議된 案을 總會에서 認準받도록 하자는案이 있어 이兩案을 擧手可決하기로 한바 둘째번의 美術分科會에서 審議하여 總會에 認準받도록 하는案이 過半數로 可決된後 寫眞寫門家를 會議에 「어브서버」로 參席시키자는 論議도 있었으나 合議는 못보다。

閉會ㅣ下午四時

第六回定期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二年 六月二十七日 下午三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敎授會館

一、參席會員、

朴鍾和 玄濟明 孫在馨 吳相淳 徐廷柱 金聖泰 郭鍾元 張 勃 盧壽鉉 裵 湘 裵吉基 金仁承 李象範 金東里 趙演鉉 成慶麟 鄭勳謨 李興烈 徐恒錫 卞基鍾(委任狀) 廉尙燮(委任狀)

事務局ㅣ朴琦遠 趙海山

朴鍾和會長의 開會辭가 있은後 朴琦遠의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告를 한 다음 討議事項으로 들어가 決議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決議事項

(1)各分科會에서 內定된 藝術院賞候補者發表

同日下午二時에 開催된 各分科會에서 內定하여 事務局에 提出된 名單은 다음과 같다

文學 作品賞 (사반의十字架) 金東里

美術 功勞賞 盧壽鉉

音樂 該當者無

演藝 棄權 (成員末達)

趙演鉉會員의 演藝分科會는 成員末達로 會議를 開催치 못하였으나 總會의 決議로서 自然的 棄權으로 認定하자는 動議가 있어 金元福會員의 再請에 一同讚成하여 異議없이 合議하다。

(2)第五回藝術院賞(四二九一年度)授賞者選出에 關한件

分科會에서 內定된 文學에 金東里 美術에 盧壽鉉을 놓고 總會에서 認準投票한 結果에 (檢票委員 郭鍾元會員 孫在馨會員) 다음과 같다。

美術 功勞賞 盧壽鉉 當選

文學 作品賞 金東里 當選

以上으로 在籍會員三分之二以上出席에 出席會員三分之二以上의 讚成

으로 檀紀四二九一年度(第五回)藝術院賞授賞者로 盧壽鉉氏와 金東里氏가 當選決定되다

(3)「國展」寫眞部新設建議에 關한件

먼저 張勃會員으로부터 世界各國의 寫眞部를 設置한 團體와 그의 活動狀況을 說明한다음 李象範美術分科會長의 美術分科會의 決議에 對한 報告가 있었고 다음 裵吉基會員의 無記名投票로 可否를 決定하자는 動議에 張勃會員의 再請으로 投票한 結果 可九票 否十四票 棄權一票로 國展寫眞部新設에 對한 諸問의 件은 保留하기로 決定하다。

(4)藝術院會員選擧規程制定에 關한件

玄副會長의 그동안 學術院側과 協議한 結果를 報告한다음 여러가지 論議가 있은 끝에 玄副會長의 提案으로 現制定委員과 卽 正副會長 및 各分科會長과 金東里 趙演鉉 孫在馨의 三會員을 追加하여 學術院과 合同하여 選擧規程을 制定하기로 할것을 一同讚同하여 合議를보다。

(5)藝術院賞授賞式節次에 關하여

本件에 對하여는 例年과 같이 事務局에 一任하기로 決定하다。

(6)藝術院正副會長選出에 關한件

趙演鉉會員의 正副會長을 昨年度그대로 留任시키자는 動議에 金聖泰會員의 再請과 成慶麟會員의 三請으로 異議없이 可決되다。

(7)各分科會長選出의件

總會를 約十分間 休會하고 各分科會를 卽席에서 開催하여 選出報告된 各分科會長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文學分科會長 吳相淳
美術分科會長 張 勃
音樂分科會長 金聖泰
演藝分科會長 (成員未達로選出못함)

閉會ㅣ下午五時十五分

美術分科會議

一、日時 檀紀四二九二年 九月十一日 午下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敎授會舘
一、參席會員

張 勃 盧壽鉉 裵吉基 高義東 李象範 尹孝重 金仁承 裵 濂
孫在馨

朴鍾和會長 玄濟明副會長
文敎部側ㅣ邊時敏文化局長
事 務 局ㅣ朴琦遠 趙海山

張勃美術分科會長의 開會辭가 있은後 朴琦遠의 經過報告가 있었다。

討議事項으로 들어가 決議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決議事項

(1)第八回「國展」審査委員選出의件

本件에 關하여는 裵吉基會員의 諸問事項이 너무 늦은 理由를 質疑하자 文化局長의 特別한 理由없이 事務的으로 바뀌서 늦었으니

未安하다는 答辯과 以外에 여러가지 意見交換이 있은 다음에 尹孝重會員의 動議로 昨年度의 審査委員數交를 그대로 即 東洋畵七名 西洋畵七名 彫刻三名 工藝三名 書藝三名 建築三名 合計二十六名으로 하자는 案에 高羲東會員의 再請이 있었고 金仁承會員의 數交를 늘이자는 改議에 再請은 없었으나 確認하기 爲하여 擧手可否를 무른바 即 昨年數交그대로 하자는 案에 可五名 否一名 棄權三名으로 昨年度數交案이 決議된 後에 無記名連記式으로 投票하기로 決定하고 잠시 休會하다。

休會中에 正副會長은 時間關係上 退場하고 裵吉基會員은 投票를 棄權하고 退場하다。

會議를 續開한後 八名의 會員이 投票한 結果에 (檢票委員 尹孝重會員 李象範會員) 合計二十六名의 審査委員名單을 張勃美術分科會長이 發表하고 다음 總會에 提出하기로 合議하다。

閉會—下午四時二十分

第二十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二年 九月十二日 下午二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敎授會舘

一、參席會員

金元福 玄濟明 裵吉基 吳相淳 李象範 張 勃 盧壽鉉 趙演鉉
林元植 尹孝重 金聖泰 李光來 金東里 金永義 裵 濂 金末峰
李珠煥 成慶麟 金仁承 郭鍾元 李海浪 柳致眞(委任狀)

文敎部側—邊時敏文化局長

事務局—朴琦遠 趙海山

朴鍾和會長의 開會宣言이 있은 다음 金永義會員의 歸國歡迎의 뜻을 表한후 邊時敏文化局長의 新任人事紹介가 있었고 이어 朴琦遠이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告를 하다。

다음討議事項으로 들어가 決議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決議事項

(1)各分科會議開催에 對한 節次에 關한件

本件에 關하여는 여러가지 論議가 있은후 金東里會員의 動議로 『總會에 認准을 거쳐야할 案件을 事務局에서 接受하였을 때는 會長의 權限으로 該當分科에 넘기여 審議內定한 後에 總會에서 認准을 받도록 한다』는 것에 趙演鉉會員의 再請이 있었고 異議없어 可決되다。

(2)美術分科會開催經過報告의件

張勃美術分科會長으로 부터 本件에 對한 經過報告와 分科會에서 決定된 名單二十六名을 報告하여 總會에 提出하다。

(3)第八回「國展」審査委員選出의件

美術分科會에서 提出된 二十六名의 名單을 가지고 充分히 討議하는 中 尹孝重會員 張勃會員 盧壽鉉會員은 退場하고 其後 郭鍾元會員의 動議로 美術分科會에서 提出된 二十六名과 또한 本院美術分科會員으로 「國展」招待作家인 境遇에는 않으로 이를 全員審査委員으로 選定하자는 것에 李海浪會員의 再請이있고 趙演鉉會員의 三請으로 異議없이 可決된바 前記와 같은 美術分科會員二名을 追加하여 合計

二十八名이 同審査委員으로 選定되다。

閉會ㅣ下午五時三十分

第二十一次臨時總會

一、日時 檀紀四二九二年 九月十六日 下午三時

一、場所 서울大學校內 敎授會館

一、參席會員

朴鍾和 玄濟明 張 勃 金仁承 李象範 金末峰 鄭勳謨 金元福
裵吉基 金聖泰 成慶麟 李珠煥 高義東 尹孝重 裵 濂
文敎部ㅣ邊時敏文化局長

事務局ㅣ朴琦遠 趙海山

朴會長의 開會宣言과 아울러 臨時總會召集을 急한 時日關係로 不得히 口頭通知召集 하였음을 說明한후 朴琦遠이 前會議錄朗讀과 經過報告를 하다。

다음 討議事項으로 들어가 朴會長의 甚한 齒痛으로 因하여 玄副會長이 議長이 되어 決定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決議事項

(1)「國展」審査委員選出再諮問의件

尹孝重會員의 지난 第二十次臨時總會 會議途中에 退場하였음을 未安、히 여긴다는 말이 있은後 文敎部側 邊文化局長의 再諮問하게된 參考의 말을 聽取하다。

張勃會員의 文敎部로 부터 온 公翰朗讀要請이 있어 이에 對한 公翰을 玄議長이 朗讀하다。 다음 裵吉基會員의 質疑로서 美術分科會員이 文敎部에 異議를 提出하였다 하니 分科會長의 名義가 못되는 個人의 異議를 받아 드릴수 있는냐 하는 것에 邊文化局長의 答辯으로 一個人이나 多數人이나 勿論하고 要望이 있다면 文敎部로서 이를 받아 드릴수 있어 再次諮問하게 되었다고 하다。

高義東會員의 審査委員委囑狀을 이미 發付한 後에 다시 諮問해온 理由를 알고 싶다는 質疑가 있다 이에 對하여 邊文化局長은 審査委員으로 二十六名은 發付되었으나 都相鳳氏와 裵吉基氏는 이會議에서 決定됨에 따라 施行할 豫定이라는 答辯이 있다。

金聖泰會員의 總會를 約十分間 休會하고 美術分科會를 開催하여 이 問題를 再考할것을 動議하자 金元福會員의 再請으로 異議없이 通過를 보아 即時 美術分科會를 召集하고 約十分後에 總會를 續開하여 分科會議經過를 張勃美術分科會長으로 부터 聽取하니 從前에 美術分科會에서 決定된 二十六名 그대로를 國展審査委員으로 構成하기로 可決되었다 하는 報告가 있다。

그후 金聖泰會員의 美術分科會의 再次決定을 尊重하여 二十六名 그대로를 國展審査委員으로 選定하자는 動議에 高義東會員의 再請으로 異議없이 可決되다。

이 決定으로 第二十次臨時總會時 決議되었던 招待作家로서 本院美術分科會員은 全員을 國展審査委員으로 推薦한다는 것이 自然取消되다。

閉會ㅣ下午五時三十分

老松賦

朴琦遠

어서 커라。어서 커서
내 곁으로 오라。

老松은 빙그레 우슴 지으며 잔 솔포두기를 굽어 보고。
孫子의 재롱을 보는 할아버지의 너그러움 같이 仁慈한 얼굴에 사랑을 퍼뜨리면。
길게 느린 힌 수염이 이리 저리 억개 넘어로 흩날리는 날은。
맑은 바람이 쇄 쇄 등성이를 넘어와 펄 펄 옷자락을 스치여、구김살 없는 모습이 한결 늠늠하다。

내 갖은 風霜을 다 치른 六十平生에 오직 너히들 자라가는 樂으로 살어가는 한가한 晩年의 生涯는。
風雪에 굴하지 않는 高潔한 節介와 萬古에 욕되지 않은 조촐한 이름을 志操하여。
비록 반석위에 설지라도 마음은 항상 九逵에 푸르러、짐짓 깊이 地心에 뿌리하는 壽命을 자니고。
어쩌다 千仞絕壁에 발을 부칠지라도 뜻은 항시 千年樹海에 鬱蒼하여 雲霄에 날으는 白鶴의 춤을 멈추 었거늘。

목 말라 시드러가는 나무에다 물 한목음 준것이 대스롭지 않게 싸이고 싸이여 德이 되는 일과。

길가 추녀 밑에 찬꿈을 도사리는 집없는 아이의 애처로운 눈물을 모른척 눈한번 흘긴것이 겹치고 겹치여 엄청난 罪가 되는 일이랑。

모두 알았노라。알고나니 그런것은 그런 것대로 돌아가는 避할 수 없는 業報로 갚아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바랄건 그저 너히들이 싱싱하게 자라나는 그 기쁨에 내 기쁨이 있고。

내몸 늙어가는 歲月 같은것은 내 등덜미를 만지고 지나가는 冬至달 바람이나、내 머리위에 쉬였다 가는 흰 구름장 같은 그러한 것들 뿐이다。

애송이는 올망 졸망 파란 솔방울을 달고、앳된 눈섭이 서로 맞부디치면 샛별같은 瞳子들이 마구 깔깔대는데。

수수갱이 총을 메고 골목안을 막 내닷는 작난꾸레기들의 양철조각 칼과 칼끝에 불이 일어、白頭山도 치달을듯 맹열한 접전으로 반나절이 기우렀다。

老松은 빙그레 우슴을 풍기며、고것들、고것들은 來日의 햇빛、대견한 내것。

환갑잔치 상을 받은 할아버지의 座標로 老松은 둘러 앉은 손자들을 타이르듯。

어서 커라。어서 커서

내 곁으로 오라。

아람도리 材木이 되라。

松竹같은 이름으로 오라。

創作

남의 집 살이

廉想涉

—

「영자야 어서 올라와 옷 갈아 입어라。」

저녁 설거지가 끝난 뒤인데、주인마님은 화가 와락 나서 부엌에서 올라오며 뒤에다 대고 소리를 쳤다。

「무슨 팥자에 내가 아이를 부리구 살겠니! 데려다 줄께 울지 말어。」

불이 환한 부엌한구석에 돌아서서 훌쩍어리는 꼴이 집안식구 에게는 못마땅하였다。잔심부름이나 시키자고 어린것을 얻어 두면 손버릇이 사납거나 알로 까서 강자스럽거나 하여 오래가기가 어려웠는데、이번에는 자기의 친정붙이가 되는 바루 영자의 고모가 오래비 자식들을 맡아서 주체할 수도 없고 마구 부려먹는 농가에만 맡겨두기가 가엾다고、열한살짜리、열다섯살 짜리의 형제를 데려다가、하나는 친정조카며누리가 맡고、큰것은 이리로 데려오게 되어 이번에는 착실한아이를 얻었다고 오기도전부터 어른 아이가 반색을 하였던것이다。

아이들은 영자가 며칠전부터 오면 갈아 입힐 옷 마련을하고 작은딸이 제 묵은 「세에타」를 내놓으니까、형은 풀어서 목아지께를 고치고하여 놓고서 이 어린 새손님을 맞이하였던것이다。그래서 밤중에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딱 들어서는걸로 노랑 저고리 다홍 치마는 물론이요、속속두리 벗기고 일습을 갈아 입혀서 신식서울 아가씨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언제나 새아이가 들어오면 이(蝨)가 무서워서 그렇게 해 왔지마는、이번에는 오래 붙어 있을것이요 옷을 떠올 염려도 없으니까、마음 놓고 신품이나 다름 없는 옷을 척 척 내어 입혔고、또 농사짓던 아이라 나이보다 덩치가 커서 칫수가 맞고 얼굴은 껌애도 아울리었다。

어제 차에서 내려서 하룻밤을 쉬어 데리고 왔다건마는, 찻멀미가 아직 덜 빠진데다가 근 두시간을 뻐스에 시달려왔으니 정신을 못차리는 모양이라, 일찌감치 재웠다。이튿날아침에도 저멋대로 자게 내버려 두었다가 깨워서 밥을 먹여 놓으니까, 뒷곁으로 스르를 빠져나가드니 웅크리고 앉아서 홀짝어리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고향이 그리워 그러는게지。환경이 돌변하니까 무서워서도 그럴겨요。」

「고향에 에미 애비가 있으니 그리울까?」

늙은이 내외의 주고 받는 말이다。영자의 아버지는 九·二八때 이북으로 들고뛴 부역자(附逆者)이었고, 어머니는 친정에 어린 삼 남매를 내던져 두고 원주로 개가를 하여 가버렸다。

「딸 자식 하나라도 데리고 가서 기를 자국으로 간다든지, 사내자식 공부라도 시킬 생각으로 돈 있는 서방을 해 간다면 몰라두……」

이혼이니 개자니하는것을 반대는 아니나, 자식의 비극을 생각하고 질색을하는 주인영감은, 두 계집아이 사이에 열 세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국민학교 二년밖에 못다녔다는 말을 듣고 혼잣소리를하는 것이었다。

「저건 어쩐구? 학교는 나왔나?」

「낫 놓구 기역자도 모르는 까막눈이라는데요。」

「그것두 좋지。재들더러 집에서 가르키래。」

딸갱이의 자식이라니까, 아직 어린것이지마는 차라리 까막눈이고 아무 물도 들지 않는것이 도리어 좋다는 말이다。

영감도 뜰에 나려간길에 달래 보았으나 영자는 온종일 틈틈이 찔끔거렸다。나중에는 제동생과 바꾸아 달라는 청까지 하였다 동생이 있는집이 촌스러우니만치 이집보다 만만할것 같고 좀 더 제고장 같다는 생각이 드는것이었다。게다가 이번에 함께 올라온 이모(姨母)가 식모살이로 들어가 있는집이 바루 그옆의집이니 합께 몰려 살게 되도록 해 달라고 아직 아니 나려간 고모를 졸라보려고 다시 그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시위로도울어대었다。

데리고 갈 차비를 차리고 밤길을 걷자니 배때 꾼 까지 졸라 매고 나서는 『할머니』를 따라 나서는 영자는, 하룻동안 가쳤다가 풀려 나가는듯이 시원도 하거니와 새 무색 옷을 떨쳐 입은것이 좋아서 신바람이 났다。이집에서 입혀 준 문의가 찬란

한 「스카아트」나 「세에타」같은것은 이때것 몸에 걸쳐 본일도 없지마는, 남의 「대추」라거나 구제물자 같대서 싫은것이 아니라, 때때옷이 역시 옷같았다。이것도 저번 제 고모가 나려가는편에 지어 내려보내서 입혀 온것이다。

「웨 그래? 이밤중에 어디를 데리구 가? 차차 두구 길을 드려야지。갖 잡아온 촌아이가 환경이 달르니까 얼이 빠져서 그러는거 아닐까。」

영감이 마누라의 서두는 눈치에 자기방에서 나와서 말렸다。

「글쎄 아무리 달래두 고집불통이니 그꼴을 하룻밤인들 어떻게 보구 지내요。」

「그래두 좀 두고 길을 들여보지。너무 서툴러서 그러는거겠지。」

영감은 당장 아쉰 술 심부름꾼을 놓지기가 아까워서도 붙들려 하였지마는, 어린아이 심리를 생각하면 덮어놓고 어린애만 나무 랠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그러나 기위 차리고 나섰으니 훌쩍 가버리고들 말았다。

『할머니』는 친정붙이가 아주 맡아 길러달라는 부탁도 있으려니와, 찾아갈 부모가 없다는것도 유리한조건이었고, 딸들을 시집보내고 난 뒤의일을 생각하면 정을 들여서 의지해 데리고 살겠다는 타산과 기대가 컸더니만큼, 실망도 커서 더 화를 내는것이다。친정조카집에 다니러갔다가 곧 온다기에 이틀 사흘씩 묵으며 기다려서 데려온 공이 아까워서도 분해하였다。뻐스 길에서는 또 찻멀미가 나는 영자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대로 『할머니』의 어깨고 배때곤이고 함부로 붙잡고 늘어지는것을 참아 뿌리칠 수는 없어도 정이 떠러져 모른척 해버렸다。뻐쓰로 한시간 반 넘어나 달려서 나려가지고도 사십분은 캄캄한길을 걸어야할 노정이었다。그러나 영자는 혼자라도 몇십리 밤길을 걷는것쯤 약과이지만 뻐스만은 질색이다。지금도 차에서 나려서 걷는데 어지러워서 『할머니』의손에 매달려야 하겠고 아까 저녁 먹은것을 토할것만 같다。까닭없이 『할머니』집이 싫다해서 역정을 내고 끌고 나와준 형편인데, 열치 없이 이렇게 귀찮게 매어 달려 가는것을 『할머니』가 가만히 손을 잡고 걸어 주는것이, 영자는 어린 생각에도 고맙고 미안하였다。

어질증이 좀 진정이 되니까, 영자는 별이 총총한 캉캄한 하늘을 치어다보면서 역시 고향생각이 났다。문득 머리에 떠 오르는 것은 열 두살때이던가? 이런 암흑 칠야에 별만 치어다 보며 사십리 길을 뜀박질을하다 싶히 혼자서 걷던때의일이다。그때는 큰이모집에 붙여 있었는데, 읍내의 중학교에서 내일이 운동회라고 빤드가 뿡빵거리고 오늘 마지막 대연습을 한대서 온동

리의 아이들이 구경에 미쳐 날뛰어가고 한참 웅성거리는판에, 영자는 그만 이모에게 붙들렸다。해산 기미가 있으니 당장으로 외가에 가서 거기에 지어달라고 맡겨둔 애기 포대기를 가져오라는 것이었다。외갓집까지는 사십리길 왕복 팔십리다。기가 찬 노릇이었다。오정이 훨씬 넘은뒤인데 거기를 갔다가 늦어 자고 오게 되면, 내일 운동회 구경은 못할것 같다。그러나 뉘 앞이라구! 밥을 먹여 주는 이모의 심부름이니 쓰다 달다 말한마디 없이 나섰다。학교편에서 울려오는 뽕빵거리는 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까워서 느럭 느럭 타박 타박 걸었다。그러나 그 나팔소리, 북소리가 아주 안들리게 되니까 영자는 그대로 줄 다름질을 하다싶히하여 가을해에 어둑어둑해서 외가 에를 득도하였다。

외할머니는 점을녁에 손주딸이 먼데서 달겨들었으니 의례 저녁밥을 먹여 재워 보내자하였는데, 요 조고만년은 울러 오지도 않고 곧 되돌아간다고 어서 포대기만 내라고 성화다。당장 아이를 비릇는것을 보고나 온듯이 서둘러대니 외삼촌댁은 밥한그릇이라도 굳히는 것이 도리어 잘 되었다는듯이 포대기며 무어며 뭉뚱그려 주었다。어린것이 어두어가는데 되돌아서는 것을보고 선듯 포대기를 싸 준 며누리가 못마땅해서 혀를 끌끌차니까

「열두살이나 된게 아무리 밤길이락해도 사십리쯤 못갈까뵈。」

하고 며누리는 핀잘을 주었다。

남편이 시어머니 환갑에 해 준 놋동치마와 갑사저고리를, 늙은이가 그것을 입어 해뜨리면 나는 무엇을 입으라느냐고 한번도 몸에 걸치지못하게하고, 덜에 나갔다가 돌어오면 이늙은이가 인제는 숨이 졌나?하며 방을 들여다보는 그런 동리에서도 소문난 며누리다。그러니 에미 애비 없는 올캐의자식쯤 눈에 있을리 없다。하여간에 귀에 뽕빵소리가 그저 남아 있는 영자는 내일 운동회 구경을 못할까 봐서 밤길을 그저 줄다름질을 쳤다。밤중에 어런계집아이가 혼자 길을 가니 눈에 띄는 사람마다 붙들었다。어느 주막에서는 붙들어놓고 밥을 먹고 가라하고, 밤을 도아 철도 공사를하던 인부들은 화톳불을 지르고 둘러앉아 쉬다가 불이라도 쥐고가라고 붙들었다。그래도 영자는 돌이질만하며 내달았다。길을 잘못들어서 갈팡 질팡 하면서도 무서운줄을 모르고, 허기가 져도 배고픈줄을 몰랐다。아무리 다름질을 쳤다해도 아이거름이라 자정가까이나 되어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다。그러나 이 모한테 이밤중에 웨 왔느냐는 야단만 맞낮다。그래도 영자는 고단하고 배고픈생각도 없이, 인제는 내일 아침에 운동회에 구경 가게 내버려둘는지가 걱정이다。그러한 계집애니 제고향생각을 웨 아니 하겠고 제붙이를 끔찍이 생각하고 떠러지기가 싫어하기도

할것이었다。

二

영자는 차츰 차츰 동생이나 고모와 이모가 있는 마을이 가까와오는것을 캉캄한 속에도 알아보고 마음이 놓였다。무슨 무인고도에나 혼자 떠러져가 있었던듯이 겁에 질리고 외롭던것이、인제는 마음이 턱 놓였다。이렇게 암심이 되고 나니、밤중에 이 먼데를 데려다 주고 이렇게 손목까지 붙들고 가 주는 이『할머니』도 교감부인같지는 않은 마음 좋은 늙은이 같다는 생각이든다。교감부인이란 서울 오기 한달전까지 있던집 주인여편네 말이다。남편이 국민학교 교감이라는데 체면없이 시아버지하고 싸우면 이틀을 들어누었고、시어머니하고 싸우고는 사흘、남편과 싸우는때는 나흘씩 뒤집어쓰고 누었는것이 동리의 조명거리가 된 아주 암상꾸러기 불아귀같은 여자다。한달에 몇차례씩 싸우고 누었으면 물 걸어대는 시중이 줄어서 좋았으나、그대신 일어나 나오는 날은 빨래를 산메미같이 몰아 내놓는것이 질색이었다。일군까지 열세식구의 밥치닥거리를 하는 틈틈이로 부지런히 물동이를 이고 나서건마는、주인여편네가 물을 어찌나 헤피 쓰는지 및여 길어댈새가 없었다。빨래가 있는날은 삼동에도 온종일 한데로 돌아야하고 부뚜막 앞에서 밥먹을때밖에 앉아보지를 못하였다。어린것이 그렇게 드센 드난살이에서 벗어난것만 시원할텐데 영자는 지금 생각해도 역시 그시절이 그립다。같이 놀던 동무들도 보고싶다。

「아 웬일이세요? 이밤중에。」

조카며누리는 놀라는소리를하며 컹컴한 마루끝으로 뛰어나왔다。

「이게 너의집에 와서 살겠다구 웬종일 찔끔거리며 졸라대니 성이가세서 데려구 나섰단다。」

「온 별소리두 다 듣겠군! 너 언제 나하구 그렇게 정이들었니?」

등 불이 훤한 방으로 들어와서 조카며누리는 어이가 없다는듯이 헷웃음을치며、우두머니 섰는 영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너 다시 시굴구석으루 쫓겨가구 싶어 그러는구나。그래 여기가 할머닛집보다 좋단말야? 물 안 길어 먹으니 좋구、전등 불 환하니 좋구、방 넓으니 좋구……그래 이 좁아터진데 와서 아이들 발치께 끼워자구 싶어서 할머니를 못살게 굴구…。너무 호강에 겨워 그러는거야。너 여기 하루만 있어 물 좀 길어 봐라。」

김장때는 되어 오고、물이 귀해서 동리가 자고 새면 물난리다。물은 좋지만 바위틈에서 졸졸 나오는 샘물이다。영자는 물

길어먹는다는 말에 또 전에 살던 교감집 생각이 났다。그집 할머니가 서울 가지못하게 붙드느라고 달래며 가진 소리를 다한 끝에

「서울은 사람 못살데라니까。첫째 물인데 물이 귀해서 겨울에는 어름을 깨구 빨래를해야 하구……」

하며 물과 빨래에 뼛골이 빠져하는 영자를 겁이 더럭 나게하였던 것이다。영자는 『할머니』집 부엌에서 수돗물이 촬촬 나오는 것을 보고 서울에는 어디를 가나 그런줄 알았더니 이동리만은 교감집 할머니말이 맞았구나 생각하였다。

영자동생이 어느틈에 옆집에 쪼르를 가서 이모를 불러왔다。그길에 그집 주인댁도 따라왔다。

「이것 좀 보우。이 덜돼 떠러진것이、새옷을 해 내려보내구、찻삭을 물어 겉어 옮려다가 망내딸처럼 알구 데려가신다는 그 좋은데루 보내주니까、평생소원이 놀은밥이라구、이리 기어들겠다구 할머니만 고생을 시켜 드리는구려……。」

조카며누리는 들어와 창밑에 앉는 옆집여인게 하소연을 하였다。

「팔자 고친줄 모르구! 아무리 어린거라두、서울이 어떤덴줄 알구 처음부터 그골루 이리 굴구 저리 굴구할 작정이냐?」

옆집 젊은네도 이모와 나란히 섰는 영자를 눈을 흠뜨고 치어다 보았다。이말은 당장 자기가 하룻동안 데리고 지낸 영자의 이모더러도 들어보라는 말이다。이모란、스믈 한살 먹은 과부인지 쫓겨왔는지 제가 바람이 나서 서울에를 올생각이 났는지 어쨌든 그저께 밤에 영자와 함께 들어온것을 그길로 옆집에서 와서 데려갔던 것이다。

「동생두 보구 싶구、이모 곁을 떠나기 싫다구 종일을 울어댔다는 구먼。」

주인댁이 아주머니한테 들은대로 들려주고는 냉소를하였다。

「애、어림 없는 소리 마라。남 인제야 차차 맘 붙이구 있으려는 사람까지 들쑤셔 내려구? 곁에 와 있으면 아무려두 모여서 숙설거리구、일 미찌구……여긴 오지 말어。다른데루 가는건 네맘대루지만……。」

옆집 젊은네가 앞질러 야단이다。

「거기들 앉어라。」

아랫목에 앉은 『할머니』가 건너다 보고 말을 걸어주니까、하두 모라대는통에 기가 질려서、다리가 아파도 앉지도 못하던 영자부터 냉큼 앉는다。이모도 그제서야따라 앉으며 입을벌였다。

「귀찮게 웨 나를 따라 다니려? 너같은 동생이나 딸이 있어도 떼어 놓고 다닐판이다。」

남의집을 살자면 그렇기도 하겠지마는, 서울와서 다시 시집 갈 생각인 나 어린 이모의말로서는 그렇기도하였다。

「내일 어서 할머니 따라 가。고모가 알았다간 야단 난다。」

전에도 서울 와서 식모살이라도 하여 본 일이 있었는지 심한사투리는 벗겨진 말씨다。이모는 그말 끝에 「너 안갈라면 내가겠다」고 한마디 나올번한것을 곁에 주인댁이 있으니 절절하고 참아버렸다。

밤가는 줄을 모르고 세 여자가 돌려가며, 타 이르고, 나무래고, 달래고 하는것을 『할머니』와 영자는, 무슨 싸움이나 말려 주는것처럼 가만히 듣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다, 너 잘 되라구 하는거야。고모만 와 봐라, 분김에 뒤들겨 팰거니。」

조카며누리의 결론이었다。육촌 동세의 친정 조카딸이니 아무것도 안되지마는 그야말로 저 잘되라고 잔소리를 하는것이요, 또 영자의동생은 한달전에 먼저 와 있어서 길이 들었으니 바꾸거나 내놓기가 싫어서다。말이 열 한살이지 밥을 못짓나 반찬을 못하나 물 깃고 빨래하고 아주 어른 한목한다。

「이건 동생만두 못해。너를 그 감옥 살이 같은 교감집에서 빼내어 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나 생각을 해 봐。」

뒤달아 이모가 핀둥이를 주었다。고모가 교감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니까, 일 잘하고 부려먹기에 알맞은 아이를 내어 놓기가 싫으니까, 소식이 있거나 없거나 어엿한 부모가 있는 아이인데, 고모가 무슨 아랑곳이냐, 부모가 와서 데려가라고 버티며 내 놓지를 않았다。번연히 부모가 나서지를 못할것을 알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었다。그래서 처음 그 집에 지시를 해준 사람이 나서고 오락 가락 말썽이 많던 끝에, 영자의 큰외삼촌이 학교로 교감을 찾아가 보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학교안에 소문이 날것이 무서워서 마누라를 달래고하여 그 불아퀴 같은 교감부인도 마지못해 내놓아주어서 이렇게 서울 구경도하게 된 영자이니 말이다。

실상은 벌써 한달전에 동생과 가치 올라왔을것인데, 교감집에서 빠져 나오기 어려운것을 빼어내 준 값을 빼려는지, 추수에바쁜 때이기는 했지마는, 또 여기에 붙들리어 시어머니를 새웃도 못입게하고 어서 죽기만 바라는 그 외삼촌댁 밑에서 한달이나 죽도록 일을하고 간신히 놓여온 이아이인데, 지금 와서 예가 좋으니 제가 싫으니할 처지냐고 이모는 기가 막혀하는것이고 고모

는 이날 들어오지 않았다。시골서 가지고 온 기름이며 고초가루며를 팔러 아는집을 찾아 나갔는데 아마 거기서 자는 모양이다。살기가 어려워지니、대학에 다니는 아들의 학비를 벌어 대느라구 한달에 몇차례씩 오르나리며 그런장사를 시작한것이다。

이튿날 신새벽에、이쪽 종점에서 나가는 버스의 첫차를 타려 나가려고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 버스럭거리니까、영자도 깜짝 놀라서 발딱일어나 앉으며

「할머니、나도 가요。」

하고 무엇보다도 머릿맡에 걸어 놓은 노랑저고리와 당호 치마를 떼어 입으려 하였다。

「안돼。어서 더 자라。있다 네고모 오거던 물어봐。어디 좋은데 갈데가 있는지。」

『할머니』의 대답이 너무나 쌀쌀해서 영자는 찔끔하였다。어쩌녁 그 야단들에 기가 질리기도 하였지마는 언제든지 동생과 이모가 있는데를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줄것이요、저도 길을 배우면 혼자 찾아 다닐 수 있다는 안도감(安堵感)과 자신이 생겨서도 그렇고、따는 고모가 무서워서도 다시 『할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은 벌써 어제밤에 잠이 들기전부터 들었던 것이다。

그기척에 옆에서 자던 조카며누리도 일어나서

「어서 자리에 들어가 자。가긴 어딜 가。」

하고 나무랬다。

「있다라두 제 고모가 오면 말을 들어 보구、제가 데리구 가죠。」

배웅을 나온 조카며누리의 속셈 있는 말이었다。

「어차피 다시 데려오려거던 혼을 좀 단단히 내어 가지구 데려오너라。」

하고 아주머니는 웃어보였다。그러나 영자가 마음을 돌려서 다시 쫓아 나서려는것만 다행하였다。시골서 갓 나온 아이가 낯이 설어 그런거요、제붙이 떠러지기 싫어하기가 예사지 나무랄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三

그날도 그이튿날도 조카집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할머니』집에서는 단념을 한것도 아니요。무어 그리 급한일은 아니지마는、차차 궁금쭝이 나는 판인데、이튿 이튿날 아침결에 조카며누리가 영자를 데리고 왔다。이틀 사흘만에、하룻밤 자고 간 이

집이 반가운지, 영자는 생글 방글 웃는낯이다。

「어제두 제 고모는 들어 오지 않구 이애는 자꾸 할머니 집에 가겠다구 졸라대구하니 졸리다 못해 데리구 왔죠。」

조카며누리의말에 온집안식구가 깔깔대었다。아즘마 들도 영자를 나무랠 생각은 없이 좋아하였다。일군이 하나 들어와서 저의가 편하게 되었다는 생각보다도、사정이 그러할것이요 손아래 동생이 없느니만치 어쩐지 좋고 다시 온것만이 반가웠다。아무도 나무래는 사람은 없이 명랑하니、영자도 기분이 좋아서 웃을 갈아 입는 길로 부엌에 내려가서 몸이 잽싸게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조년、내 술심부름이 싫여서 달아 났던게로구나?헛허허。」

하며 『할아버지』가 내다보고 말을 걸어주는것도 고맙고 기뻤다。

영자는 마음이 돌리니까 몸이 가벼워졌지마는、아즘마들과 온집안이 저를 위해주는 눈치에 더 신바람이 났다。

「너、일이 고되니?」

가끔 『할아버지』가 술상을 받으면서 물으면

「노는거나 한가집니더。」

하고 해죽 웃었다。

이 울안에는 세 가구가 사는데、영자가 오니까 세집이 다 아이가 있게된 셈이다。세 아이가 금시로 어울려서 한나절 한가한때면 조용한 마당에서 신방 치기를하며 노는것도 한재미있고、인제는 동생 걱정이나 이모 생각도 안하게 되었다。서울 물이 그렇게도 좋은지 열흘도 못가서 까맣던 영자의 얼굴이 하애지고 포동 포동 살이 올랐다고 앞 뒷집 애기어머니들이 다시 쳐다 보게 되었다고 칭찬을 하여 주었지마는、낮이나 밤이나 아즘마들 앞에 앉아서 재꺼리며 깔깔대도록 딴아이같이 금시로 돌변하였다。앞집의 필순이나 옆집의 선아나 한또래이니만치 아즘마들과 말동무가 되고 한방에서 자는 영자가 부러웠다。더구나 할머니 밥상에 같이 둘러앉아서 같은 반찬을 먹는것이 샘이 났다。다른 집에서들은 아이 버릇 사나워진다고 맨 나중 상이물려나와야 부엌에서 먹게하기 때문이지마는、실상 어떤때는 그편이 편하기도 하였다。

하루는 여기에서 한 이십분 걸어가야하는 넘엇동리의 미장원에 미용사로 있는 영자의 내종사촌、즉 서울에 데려다 준 고모의 큰딸을 만나보게 보내느라고 역시 작은 아즘마가 입다가 둔 치마저고리를 꺼내 입혀 보니 똑 맞는다。

「너 입어라。잘 됐다。그대신 난 다시 한벌 해 주세야 해요。」

작은 아즘마는 헌옷 내놓고 새옷 한벌 생기는 맛에 좋아하였지마는、그것은 고사하고 마츰 영자가 옷을 입는데 와서 보고 섰던 선아는

「나두 새옷 있다우。」

하고 샘이 나서 하는 소리에 모두들 웃었으나、옆에 섰던 필순이는 눈찌가 실룩하여졌다。아마 조선옷은 아직 제차례에 가지 않은 모양이었다。영자는 옷입은 것을 들여다 보는 동무들은 본체 만체요、아즘마의 대추나마 서울식 새옷을 떨뜨린것만 좋아서 싱글벙글 제옷맵씨를 내려다 보는것이었다。노랑저고리 분홍치마는 인제는 까맣게 잊어 버렸다。

그런데 그이튿날인지 아침에 설거지를 끝 내고 필순이네 부엌으로 놀러갔던 영자가 금시로 울상으로 돌아 왔다。

「웨 그러니? 누가 뭐라던?……필순이하구 싸웠니?」

차차 정이 들어가고 귀여워하는 『할머니』는 깜짝 놀래서 물었다。

「필순이가……。내가 사투리를 쓴다고 입을 삐쭉삐쭉하면서 임내를 내고 놀립디다。」

하고 또 눈물이 글썽하여진다。

「온 저런! 제가 뭐라구?…가서 필순이 불러 오너라。」

『할머니』는 얼굴이 변하여졌다。인제 마악 마음을 붙여서 저의끼리 잘 노는것만 다행히 여겼던 『할머니』는 화가 났다。그러나、영자가 머뭇거리는것을 보자、큰딸이 흥녕게 앞 질러 가서 필순이를 불러내었다。

「너、웨 우리 영자를 가지구 놀리는거냐? 너두 한고향 아니냐? 넌 점촌(店村)서 왔다지? 영자네와 이웃 사촌이지? 넌 오년전에 서울 왔드라만、영자는 석달 안에 너만큼 서울말을하게 해 놀테니 두구 봐! 아마 그때쯤이면 영자는 제손으루 편지두 쓸게다!」

급한성미에 아주 홰홰히 나무랬다。필순이는 그럴줄은 몰랐지마는 고개를 떠러뜨리고 서서、이렇게 역성을 들어 주는 영자가 역시 샘이 났다。

그러나 저녁나절이 되니까、영자와 필순이는 뒤뜰에서 『오랴 이랴』에 정신이 팔렸고、선아는 아이를 업고 서서 구경을 하고있었다。

創作

어머니

金末峰

지금부터 십삼년 전 그러니까 해방 이듬해에 시작한 이야기다。

×

저녁을 먹고나니 빗발이 점점 거세어진다。유리창이 덜거덩 거리는 것은 바람이 섞이는 때문일까?

×

길로난 영창의 종이가 함초롬히 젖어든다。

『우르르릉』

뇌성이 운다 생각 하는데 전등이 탁 꺼졌다。

『불이 가네。』

상머리에서 과일을 깎든 연실은 칼을 놓고

『어떻거나 모처럼 귀빈이 오신날 이렇게 불이 꺼져서。』

하고 연실은 식탁 설합에서 초 동갱이를 꺼내 불을 붙인다。

마악 불이 초심지에 먹어드는데 홀적 드리치는 바람에 탁 꺼져버렸다。

두번채 불을 켜댔다。바람은 작난하듯 두번채 불도 꺼쳐버렸다。

『문이 열렸나?』

인식은 중얼거리고 일어나 창문께로 갔다。

두치쯤 문이 열려 있다。인식은 문을 꼭 닫아 놓고 자리로 오니까

『오늘 밤 같은 때 인식씨가 찾아와 주지 않았드라면 나혼자 어땠을까?』

하고 연실은 한팔로 인식의 두 다리를 살짝 에우고 그 다리에 재긋이 얼굴을 대여、

『나 혼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꺼야!』

백연실은 올해 스물 다섯、작년에 「워싱톤」대학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돌아왔다。

뛰어나게 머리가 좋은 연실은 인재가 한창 부족한때 대학 강사의 한 사람으로 깁게 채택이 됐다。

연실은 실력이 있고 용모가 단정한 때문인지 학생들에게 인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실을 좋아하는 학생 가운데 인식이도 그 한사람 이다。

시일이 가는대로、호감은 존경으로、존경은 어느듯 사랑과 비슷한 감정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누님 같기도 하고 애인 같기도 한 연실을 위해、학생들은 교단에 꽃항아리를 갖다 놓는가 하면 강의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 연실의 뒤에서

『선생님 이꽃、저희들이 산에 가서 꺾어온 겁니다。』

하고 보라빛 야국을 은종이에 싸서 너붓이 밭히는 학생도 있다。

그러한 학생들 가운데서도 인식은 좀더 열렬 했다。

어떤 날 연실이가 감기로 결석 했을 때、인식은 교실을 뛰어 나왔든 것이다。

서무실로 가서 연실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그길로 연실을 찾아갈 맘을 먹었었다。

그러나 인식은 어째 부끄럽고 또 무섭기 조차 해서、연실의 집을 찾는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인식에게 있어 운명의 날은 왔다。

하학을 하고 학생들이 흐터져 갈 무렵。인식도 뻐쓰 정유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학생 좀 와요。』

하고 부르는 여자의 소리가 있어, 힐끗 돌아 보니 반갑디 반가운 영문학 강사 연실이가 무언지 한아름을 안고 쩔쩔 매고 있지 않는가?

인식는 팽이처럼 연실에게로 달려 갔다。

술한 장거리를 안고 택시를 기다리는 연실은

『미안 하지만 저쪽 큰길로 나가서 택시 하나 붙들어 갔구 와요。』

『택시를 기다리시자면 한참 걸릴껀데요。제가 늦게 오더래도 인내 하셔야 합니다。』

하고 인식은 뛰어 갔다。

두사람이 택시에 올라탈 때는 하늘은 무겁게 드리워,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듯 싶다。

『아현동으로』

인식이가 운전대에 명령을 한다。

『학생 우리 집을 어떻게 알우?』

『……』

인식은 대답지 않는다。「백밀라」 속에서 인식의 두눈이 서러움과 비슷한 미소를 담고 있었다。

연실은 한팔을 인식의 뒤로 올려 눌으며

『아주 초라한 셋방 살이지만, 오늘 저녁 내가 초대할테니 같이 저녁을 먹기루……』

하고 연실은 인식의 귀뿌리에 대고 소근거린다。

『땡큐 베리 베리 마취, 매엘』

『오우, 모스트 유어 웰캄』

아현동 고갯 마루 적산 가옥의 이층을 빌어 있는 연실이다。

이층의 방 세개를 연실이가 모조리 사용 한다。

삼조는 주방으로、사조방은 응접실겸 식당으로 그리고 육조는 서재겸 침실로 사용 하고 있다。

지금 연실과 인식은 사조방 식당에 앉아 있는것이다。

연실이가 세번째 촛동갱이에 불을 켜댈 때 환히 전등이 켜졌다。

『아이 다행해라』

혼자말 같이 하고 방긋이 웃으며 인식을 건너다 보는 연실의 동공은 숱한 속눈섭에 절반이 가리워진다。

인식은 이렇게 자기를 건너다 보는 연실의 눈이 무서워졌다。

연실의 시선 하나 하나가 거미줄 처럼 자기의 영혼으로 와서 감기는 것을 또렷이 의식하기 때문이다。

『죽을 수도 있어……』

인식은 맘속으로 이런 말이 지꺼려졌다。

『연실씨의 소원이라면 나는 즐거히 죽을수 있어』

무엇때문에 불길한 어휘를 지꺼리고 있는것일가?

인식은 그토록 연실을 사랑 하고 있는 자신이 불상해졌다。

올해 스물 한살 아직도 이성의 애모에 접해 보지 못한 인식의 정서는 처녀설(處女雪) 처럼 깨끗하다。

이렇게 깨끗한 인식의 정서우에 첫 사랑이 수를 놓은 것이다。

누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성모 「마리아」 와도 같이、영겁에서 영겁으로 의지하고 싶은、그러한 성스러운 애정이기도 하다。

과일을 갂아 담은 접시를 인식 앞에 내밀고 연실은

『과일 먹고 나서、노동을 좀 해야겠는데 인식씨 나좀 도와줘요。』

하고 연실은 방글 방글 웃는다。

『무슨 일인데요? 제 힘대로 하겠읍니다。』

『고마워요! 나 치마 하나 태릴께 있는데 좀 부뚤어 줄수 있수?』

『네 해 보겠읍니다。』

인식은 이 세상에 나서 이십년 동안 대림질을 부뜰어 본일은 한번도 없다。

일제 시절 부터 인식의 집은 부유했다。

해방이 되자 인식의 아버지는 일인이 경영 하든 조선소(造船所)를 불하 받아 관리 하게 되고 또 그 조선소는 성적이 양호 했다。

길일우씨라면 국내에서 열손까락 안에 드는 재벌의 하나이고, 그러한 아버지의 외아들인 인식이가 꿈엔들 대림질을 거들어 줄 필요는 없는것이다。

연실은 이글 이글 숯불이 댕긴 대림이를 들고

『자아 여기를 이렇게, 식지와 엄지손까락으로 꼭 부뜰어요。오옳지 그렇게。』

연실은 지긋이 대림이를 누른다。

뜨끈 뜨끈한 김이 솟구치는것과 함께, 자칫 하면 치마 끝이 미끌어져 나갈껏만 같애 인식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쥐고 있는 손까락에 좀더 힘을 준다。

『대름질을 곧잘 잡는데 전에도 많이 해본 모양이군 그래。』

하고 연실은 대림질을 해서 상기된 두볼에 우슴을 띤다。

『저 이런 일 첨이야요。』

인식은 이러케 대꾸를 하고, 소녀 처럼 수집게 고개를 숙인다。

도저히 연실의 웃는 얼굴을 마주 응시할 용기가 없는 인식은

『무엇때문일까?』

스스로를 꾸짖는다。그럭저럭 대림질은 끝났다。

『난 오늘 영광야! 우리 도련님의 첫번되는 「레이버」를 내가 배당 받았으니』

하고 연실은 다 대린 치마를 못에 건다。

『우리 저방으로 갑시다。이방 숯내 나서 안돼。』

하고 연실은 육조방 문을 드르렁 연다。 얌전하게 건사한 『싱글·배드』가 첫눈에 띈다。

이 방은 유리 창에 『커어틴』이 걸렸고 침대맡에는 책장과 교의가 있어 간소한 양실로 꾸며져 있다。

유리 창 넘어로 비에 젖은 『포푸라』 잎새들이 한참씩 맴을 돌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유리창에서 새어나는 불빛에 어렴풋이 보인다。

덜거덩 덜거덩 유리 창이 우는 것은 아직도 바람이 세게 부는 모양이다。

인식은 책상 앞 교의로 가서 엉거주춤 걸터 앉았다。

연실은 침대로 가서 주저 앉으며

『이리로 와요。 여기가 푹석해서 기분이 좋아。』

하고 연실은 손을 내밀어 인식의 팔을 잡아 댕긴다。

인식은 실로 낙엽 처럼 가볍게 연실의 곁에 와서 앉았다。

『어디?』

연실은 인식의 한 손을 쥐고

『이 손으로 대림질을 부뚤었으니』

연실은 대견스러운듯 인식의 길게 뽑은 손까락을 만져 보기도 하고 손등을 쓸어 보기도 하다가

『어머님은 올해 춘추가?……』

하고 물어 본다。

『마흔 일곱이시야요。』

『아버님은?』

『마흔 아홉이시구요。』

소학생 처럼 댓구를 하고 인식은 피식이 웃으며

『선생님 부모님은?』

하고 물어 본다。

『우리 어머니 아버진 모두 이북에 계시니까。』

하고 연실은 포옥 한숨을 쉰다。

『선생님은 언제 / 미국 가셨죠?』

『지금 부터 오년 전、그러니까 내가 스므살 때던가 봐。평양 선교사 부인이 날 양녀로 삼아 자기 고향인 「와싱톤」으로 데리고 갔지 뭐요。』

『선생님은 행운이십니다。』

인식은 진정 부러운 표정이다。

『행운은 무슨 행운、날 데리고 간 우리 수양 어머니가 내가 간지 석달만에 돌아 가시지 않아요? 그때 부터 난 고아 신세로 내 식비며 학비를 벌지 않으면 않됐다우 지금은 해방이 돼서 「한국」이란 나라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그때 내가 가 있을 땐 「코리아」라는 이름 조차 모르든 시절이었으니 알만 하지 않아요? 풍속 다른 곳에서 언어 조차 부자유한 몸으로 노동을 해서 학비를 얻는다는거、여간 고난이 아니었다우。』

하고 연실은 푸욱 한숨을 쉬고

『졸업 하고 나니 부모님이 계신 고향은 빨갱이 나라가 돼고、그래서 난 조국으로 왔지만、또 부모와는 멀어진 고아가 됐으니……』

『선생님의 사정 동정 합니다。』

하고 인식이도 따라 커다랗게 한숨을 쉰다。

『나는 양친을 모신 인식군이 한없이 부러워』

하고 연실은 한손을 인식의 어깨 우에 올려 놓는다。

인식은 처녀 처럼 수집게

『저의 집에 가시죠。저의 어머님이 퍽 반가워 하실꺼에요。제 어머님을 선생님 어머님으로 삼으면 되지 않아요?』

『아이감사해라, 인식군은 형제가 몇분이죠?』

『저 독신이야요.』

『난 이북에 남동생이 꼭 하나 있는데 인식군 보다 댓살 아랠꺼야!』

하고 연실은 검은 호수 같은 눈을 들어, 인식의 미간을 응시 하고

『인식군의 어머님이 아시면 날 꾸중하실꺼야! 귀중한 아드님에게 대림질 같은 천한 일 시켰다구……』

하고 연실은 한 쪽 눈을 쨍끗 한다.

『온 천만에…… 가세요 네, 저의집』

하고 인식은 두손으로 연실의 손목을 왈칵 쥔다.

『오늘 밤은 안돼. 첫째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갈수 없지않우?』

하고 연실은 두 손으로 인식의 어깨를 쥐고 살그머니 한 쪽 뺨을 인식의 뺨에 댄다.

후끈 후끈 따가운 촉감을 지닌 연실의 뺨이다.

반대로 인식의 뺨에는 가느다란 소름이 돋아 났다. 오소소 추움을 느끼는 모양이다.

실지로 추워서가 아니다. 지극한 충격에서 오는 신경적 전률이다.

연실의 뺨은 인식의 뺨에서 점점 미끄러지기 시작을 한다.

미끄러지면서, 이동 하는 연실의 참 숯불 같이 달은 입술이, 쪽빛으로 파랗게 질린 인식의 입술에 와서 댔다.

입술과 입술은 조용히 움직이지 않은채 한참 동안 시간이 흘러 갔다.

마침내 인식의 두 팔이 왈칵 연실의 어깨를 안는것과 함께 인식은 연실의 입술을 꿀 처럼 빨았다.

숨막힌 「키쓰」가 마침내 끝났다.

연실은 절반 감겨진 눈으로

『인식군 용서 해요. 내가 아마 인식군을 사랑하나 봐』

하고 연실은 어엿한 누나 처럼 인식의 얼굴에 볼을 댄다.

『저、두요。저두 선생님을 사랑 합니다。제 생명 처럽』

하고 인식은 또 연실의 가슴을 끌어 안았다。

올해 스물 한살의 인식은 이것이 첫사랑이다。어쩌면 마지막 사랑인지도 모른다。

연실은 인식의 팔을 천천히 풀며

『내、차 끓여 올께 여기 이루구 있어요。』

하고 책상에서 알범을 꺼내 인식에게 안겨주고 나갔다。

한장 한장 「알범」을 들쳐 가는 동안 인식의 눈이 한군데로 가서 못박혀버렸다。

군복을 입고 늠늠히 섰는 젊은 남자、미간이 넓고 악골이 잘 발달되어 장부 다운 기상이다。

인식은 이 사진을 보자 갑짜기 자기자신의 계집애 처럽 생겨난 것을 의식하고 일말의 패배감을 어금니로 씹는다。

그뿐만 아니다。이 사진에는 무엇인지 「혼령」이랄까? 「정신」이랄까 그런것이 깃들이고 있는 것만 같다。

원한 같기도 하고 정염(情炎)같기도 한 영원히 풀수 없는 원이 맺혀 있는 것만 같다。

어쩌면 이 사진은 지극히 사랑 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을 품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른다。

『차。』

하고 연실이가 찻젼반을 「테불」 위에 올려 놓고

『뭘 그렇게 디려다 보는거유?』

하고 기웃이 사진을 디려다 본다。

『아 그 사진 말요? 그건 내 사촌 오빠야! 학병 나가면서 「워싱톤」으로 부쳐 준거 내가 갖고 온거지。』

하고 연실은 연하게 끓여진 홍차를 컾에 따룬다。

『사촌야요?』

인식은 수수꺼끼가 풀린듯 환히 미간을 펴고 찻잔을 들었다。

인식의 차가 절반이 비여졌다。연실의 찻간도절반이 비어졌다。

연실은 고개를 기우린다。인식도 고개를 기우렸다。

바람결에 따라 말소리가 들려 오는것이다。

『연실씨!』

분명코 목소리는 길까 창념어 서다。

인식이가 벌떡 일어 섰다。

부우옇게 흘러 나가는 불빛을 받고 있는 사나이가 꺼멓게 젖었으나 군복을 입은데는 틀림 없다。

『웬 군복 입은 남자가 찾는가 봅니다。』

하고 인식은 히뜩 연실을 돌아 보았으나、연실은 벌써 층계로 굴러 내려 가고 있다。

한참만에 연실이가 앞을 서고 사나이가 뒤따라 이층으로 올라 온다。

모자며 옷이 왼통 비에 젖어 물에서 올라온 귀신 같다。

인식의 눈에는 귀신 처럼 불길한 소식을 갖고 온 사나이로 직각이 가기때문이다。

『인식씨 이분 학병 갔든인데 이제 돌아 오는 길이야요。장석구씨라구、「씽가폴」서 싸우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인제 석방 돼서 오는 길이야요。』

연실은 인식을 눈으로 가르키며

『이 젊은이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야요。』

하고 소개를 한다。

입이 붙은듯 잠잠고 있는 인식을 대신 해서 연실이가 방긋이 웃음을 띠고

『김인식이라구 영문과에서두 수재랍니다。』

하고 소개를 한다

연실의 혓바닥이 날름 날름 두갈래로 찢어진 배암의 혓바닥 같이만 생각되어 인식은 연실에게서 싸악 눈을 돌려버렸다。이유를 따진다면

학병이라는 이 사나이가 오분 전에 보든 「알범」의 사진과 추호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낸 인식은

『사촌 동생이라 했다。……그런대두 이 사람들은 친척다운 인사는 없다。내게 소개할 때두 사촌이란 말은 안했다。그러구 보면 이 사나이는 연실의 애인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이 소용돌이 처럼 인식의 머릿 속을 돌고 있기때문이다。

『그새 편지를 다섯번이나 했는데두 통 소식이 없어、난 절망 하고 있었답니다。』

하고 연실은 감개무량한 얼굴이다。

『난 그새 일곱번이나 했는데 못받았나요? 거 이상하다。』

그제야 모자를 벗는 사나이는 검붉게 탄 얼굴에 쓰디쓴 웃음을 싣고

『연실씨 처럼 화려한 환경 속에 계신분이、수용소에 참상을 알 까닭이 있나요。』

하고 젖은 군복을 더듬어 담배를 꺼집어 낸다。

사나이는 조금 전에 인식이가 앉아서 저녁 밥을 먹든 탁자 앞으로 가서 평발을 치고 앉아、연기를 뿍 뿍 뿜어내며 스르르 눈을 감는다。

『보고 싶었어……몹씨도 보고싶었어。』

사나이는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독백처럼 지꺼린다。

인식은 이 이상 더 견데 있을 순 없다。홱 몸을 돌이키자、도망 하듯 층계를 뛰어 내려 밖으로 나와버렸다。

바람과 비는 좀더 거세어진듯 인식의 머리며 얼굴을 사정 없이 휘갈긴다。

인식은 비로소 연실의 방에 스프링을 벗어 두고 나온것이 생각 났으나、돌아설 마음은 없다。

비바람 속을 어떻게 걸었던지 인식의 앞에 차가 우뚝 선다。안에서 문이 열리고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너 어데서 오는 길이냐? 왜 「택시」를 타지 않았어?』

인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 찻속으로 들어 가버렸다。

이튿날 인식은 일어나지 못했다。

어제밤 폭풍우 속을 노다지로 걸었기때문에 독감이 걸린것이다。

열이 떠어 인식은 헛소리를 했다。

『이놈! 이놈!』

하고 학병의 목아지를 밟고 일어설라치면, 어머니가 인식의 어깨를 흔들며

『얘 너 가위에 눌렸구나。』

의사가 오고 주사를 놓고 사흘이 지나서야 인식은 몸이 식었다。

저녁때 인식은 구두를 신었다。

『얘 어딜 가니? 조릴 해야지。』

하고 어머니가 말리는 것을

『잠깐 다녀올데가 있어요。』

하고 인식은 휘잉 밖으로 뛰어 나가버렸다。「택시」를 달려 아현동 연실의 집으로 가는것이다。

『그날 밤은 내가 너무나 경솔했는지도 몰라? 이 쪽에서 일방적으로 독단해버렸다는거, 아무래도 경솔해』

인식은 미칠뜻 연실이가 그리워지는 마음을 이러한 구실로서 정상화 시키는것이다。

인식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 휫바람을 날리고 싶은 기분은 또 어덴가 자기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불행에 대한 도전인지도 모른다。

연실의 이층으로 올라 가는 층계 아래는 육중한 군화가 벗어져 있고, 이층에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려 온다。

인식은 정중 정중 층계를 뛰어 올랐다。

『어마! 난 또 누구라구? 인식군 아뇨?』

하고 빙그레 웃는 연실은 오늘도 대림이를 쥐고 있다。

한 끝을 학도병에서 돌아왔다는 장석구라는 사나이가 부뚤고 앉은 몰골이 사흘 전날 밤, 인식 자신의 몰골을 연상시켜 인식의 입에서 서글픈 웃음이 흘러났다。

사나이는 군복 대신에 찻빛 「샤쓰」를 입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곱게 갈라 붙였다。
잘 발달된 턱위에 사나이의 입은 삐뚜림히 한 옆으로 돌아가다가 꾹 다물리는가 하면, 한다는 소리가
『당신 학생이 왔으니 부탁 하면 돼지 않우?』
『무슨 부탁입니까?』
인식은 웃지않고 물어본다。
『연실씨가 말을 하구려…… 들러리 건에 대해서。』
『들러리?』
인식은 고함을 치고 사나이를 노려 보며
『누가 결혼식을 하나요?』
『이 장석구씨가 장가를 간다는데……』
『신부는?』
하고 묻는 인식의 등골에서 으시시 오한이 지나 간다。
오래 약혼한 사이로 있는 이들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을 짐작한 인식은
『신랑은 알겠지만 신부가 누구죠?』
하고 다시 한번 묻는다。
사나이는 대리미를 내려다보며
『연실씨는 분명히 말을 합디다。나와 결혼식을 하겠다구 그러면 됐죠?』
하고 피식이 웃는 얼굴이 별로 행복스럽게도 보이지 않는다。
방안은 한참동안 잠잠히 말이 없다。
잠잠고 입을 다므리고 대리미를 끝낸 연실이가
『인식씨 용서해요。난 어제 밤 까지도 이 분이 살아서 돌아올 줄은 생각지 못했으니까。』

연실의 말 한마디로 모든것을 알았다。다만 한가지

『약혼 하고 있는 사내를 왜 사촌이라 했을까?』

인식은 참아 이말 한마디는 물어보지 못하고 벌떡 일어 섰다。

『솔직 해도 좋았을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자 인식은 왈칵 옆에 있는 태리미를 부여잡았다。

실로 인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의 일이었다。

인식은 집어든 태리미로 왈칵 연실의 골통을 내리치는 환상과 함께 파악 영창 문을 쳤다。

문이 와당탕 부셔지고 숯붙이 다다미 위에 흩어졌다。

『이새끼 어디서 행패야! 행패가』

하고 사나이가 벌떡 일어서는 것을 연실이가 왈칵 앞을 가로 막으며

『건드리지 말아요。건드리면 용서 안할테야。인식이는 저렇게 성을낸 이유가 있어요。』

하고 교함치는 소리를 뒤통수로 들으며, 인식은 천천히 층계를 내려 왔다。인식은 학교를 결석한채 한달이 지나갔다。한달이 지난뒤 인식은 학교를 옮겼다。전공과목인 영문학을 상과로 바꿨다。

내년이면 사학년이 되는 인식을 위해 어머니는 여기저기 색씨 선을 보려 다니시는 모양이다。

몇군데서 사진이 오고 어머니는 인식이더러 맞선을 보려 가자고 서둘렀으나 인식은 그럴때마다

『천천히 하죠。』

한마디로 거절해 버리군 했다。태연히 거절을 해버리는것이나, 그럴때 마다 인식의 가슴 속 묵은 상처는 아픔을 더하는 것이었다。

『연실은 내게 아무런 협의도 없으면서 왜 나를 농락했을가?』

인식의 눈에 여인이란 모두가 거짓말쟁이로만 생각이 되었다。

어머니마자, 이따금 멸시 하는 눈초리로 흘겨보는 순간이 있는 자신을 인식은 잘 알고 있다。

어느때 아버지가 소첩을 얻었다고 머리를 싸매고 누은 어머니를 향해
『밤에게서 거짓을 유산 받은 원죄(原罪)에 대한 값을 치르는거야요. 어머니.』
인식은 자기 방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것이었다.
인식의 집 정원 나무들이 단풍이 들어 꽃처럼 화려해지는 어느 일요일 아버지는 귀빈들을 모시고 칵텔·파아티를 열기로 했다.
백명분의 마실 술과 안주를 작만하기에 집안은 법석이 났다.
인식은 이러한 난리가 도시 마음에 맞지 않아, 상노 아이녀석에게만 일러놓고 가만히 진관사로 가버렸다.
진관사에도 단풍은 타고 있다. 주지이하 모든 중들은 왕자를 마지하듯 인식을 확대 했다.
가을만 되면 슬픔은 채권자처럼 인식을 찾아온다. 복잡한 시가지를 떠나 아득한 절깐으로 찾아 들때, 슬픔은 한결음 먼저 인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 늦도록 독서를 하다가 새벽녘에야 깊은 잠이 들어버린 인식은, 펀뜻 눈을 떴다.
『선상님 잠을 깨셨는지요.』
늙은 주지의 목소리다.
『서울 본댁에서 기별이 있읍니다.』
나직하나 덜덜 떨리는 소리로 미루어 불길한 소식인 것을 직각하고 왈칵 영창을 열어 제쳤다.
밖에는 상노 아이가 서있다.
『웬일이냐?』
『저어 마님이 갑짜기……』
『돌아 가셨니?』
『병환이 나셨어요.』
인식은 불야 불야 집으로 돌아 왔다.

인식의 기우는 너무도 적중 했다。

집 대문에는 상중(喪中)이라는 글자가 먹으로 쓰여져 있다。인식은 하늘과 땅이 일순간 흑암으로 덮인것을 의식 하면서 집으로 들어 왔다。

어머니는 세수를 하시다가 갑자기 쓸어졌는데, 의사가 들어서자 숨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의사는 심장마비라는 지극히 간단한 진단을 내렸다 한다。

해가 바뀌고 봄이 왔으나 인식의 얼굴에는 우슴이 찾어오지 않았다。

『연실의 「동족」이라구 「여인」이라구 어머니 까지 무시 했든 이놈의 죄를 어머니 창천에서 내려다 보십시요。』

인식은 가끔 어머니의 무덤에 찾아갔다。폿솜 같은 눈이 쌓인 어머니의 무덤을 안고 통곡 하는 인식이다。

날이 갔다。어머니의 무덤에 새풀이 돋아 났다。봄이 온것이다。할미꽃이 피어난 그 다음 일요일에는 오랑캐가 고개를 들었다。

신문에는 항도 부산과 진해의 벚꽃 소식이 한창이다。이러한 아침 아버지는 인식을 불렀다。

『얘 네 어머니가 떠난지 벌써 칠개월이 아니냐? 아니 팔개월로 접어드는구나。』

인식은 아버지의 다음 말은 듣지 않아도 알만 하다。아버지는 크다랗게 한숨을 뿜고

『내가 뭐 호래비 생활이 싫어서 그런게 아니다。이 크나큰 살림을 이냥 내버려 둘수가 없어 그렇다。』

아버지는 또 크다랗게 한숨을 품고 나서

『그래서 말야。』마침 그럴듯한 혼처가 있어서 후취로 맞기로 했다。』

『……』

『……』

『앞으로 일주일 후면 우리 집 정원에 벚 꽃이 만발 할게 아니냔말야。해질 무렵 「가아든·파아티」를 열기로 하고 그때 네 후모가 올테니까 그 쯤 알아라。』

『……』

인식은 이때 처럼 아버지가 천하게 보인 때는 없다。

『어머니의 살이 썩기나 하거던 후처를 데려올 일이지。』,

인식은 이날 하루 어머니의 무덤을 안고 몸부림치며 울었다。

인식의 우는 것은 내 몰라하는듯、인식의 집 정원의 벚꽃은 활짝 피어 났다。

드디어 아버지의 후처가 온다는 날이 왔다。

구름 같이 피어난 나무가지에는 오색「테에푸」가 얼기설기 얽히는가 하면、분홍빛 초롱들이 적당한 거리에 매달렸다。

꽃과 등과 오색「테에푸」아래는 수십개의「테에불」이 나 앉고、양주와 글라스 그리고 풍성한 안주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인식은 이날도 절깐으로 도망을 쳐버릴것을 결심했으나、아버지가 애걸 하다 싶이

『얘야 귀빈들을 니가 안내를 해서 좌석에 앉혀야겠다。』

하는 말씀에、거역 할수는 없었다。

어머니에게 불효했든 죄를 오늘 같은날 아버지를 위로함으로서 용서 받고 싶다。

인식은 아버지의 후처를 모시는「가아든 파아티」에 나가기로 결심 하고 자기반 친구들 열명을 동원 해서 안내역을 맡기로 했다。

해가 지자、별들은 총총히 보석을 뿌린듯、구름 같은 벚꽃 위에 화려한 장막을 펼쳤다。

정문에서 자동차를 내린 손님들이 인식의 친구들에게 안내를 받아 정원으로 깊숙히 들어 섰다。

인식은 마침 어머니의 친구였든 어떤 부인과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는데、갑자기 박수 소리가 요란 하다。

신랑과 신부가 손님 앞에 나오는것이다。은백색「나이론」한복을 길게 끌고 머리에 새깃을 하르르 나붓기며 방긋이 우슴을 띄고 신랑의 곁에 칙 들어 서서 걸음을 옮긴다。

인식은 아버지의 후모라는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싫어서 땅바닥으로 눈을 떨어뜨렸다。

『미인이지?』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인식의 귀에 율시년스럽게만 들린다。

『저인 참、유식한 여자래 결혼해서 반년만에 혼자됐다는데 간호 학교 학감이래』

신부에 대한 쑥덕 공론을 인식은 귓등으로 듣고 있는데、준비 했든「뻰드」가「왜딩 마아취」를 울린다。

인식은 오늘 수고한 친구들과 얼려 자기네 정원에서도 제일 으슥한 노송(老松) 아래로 가서 「위스키」를 드리켰다。

『자네 미인 어머니 모셔온 턱을 단단히 해야겠네。』

하고 놀리는 친구들을 향해 인식은

『이놈아! 듣기 싫다。』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데 아버지의 지배인이 헐레벌떡이고 쫓아 온다。

『가족 사진을 찍는답니다。속히 나가시요。』

인식은 도무지 내키지 않는 걸음을 친구들이 등을 밀어 바깥 마당으로 나갔다。

아버지는 새로 지은 검은 양복에 미색 「넥타이」를 메고 뚱뚱한 배를 내밀고 섰는데, 새 어머니라는 젊은 여인은 한손으로 치마를 쥐고 눈우슴을 치며 「포오즈」를 잡는다。

신부의 얼굴을 잠깐동안 바라보는 인식의 귀에서 이잉 하는 소리가 지나갔다。

그와 함께 앞으로 탁 꼬꾸러지려는 현기증을 간신히 참고 손바닥으로 눈을 씻었다。

아무리 보아도 신부는 연실이다。몇번을 보고 보았으나 틀림이 없다。

인식은

『망쪼가 들었구나』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땅바닥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옆에 있던 오촌 아저씨가

『얘 어서 새어머니께 인사 드리고 사진 찍을 차부를 해』

하고 인식의 등을 민다。아버지가 빙그레 우슴을 띄고 신부를 향해,

『이게 우리 맏아들인데 이름이 인식이요。얘 새 어머니다。인사 드려라。』

간편 하다면 간편한 초대면의 장면이다。인식은 눈을 질끈 감고 허리를 굽신 했다。

분명 아버지를 향해 허리를 굽혔는데 연실이가 납신 답례를 한다。사진사가 손짓을 하고 인식은 아버지 곁에 서는데 아버지는 기어히 연실의 쪽으로 밀어 세운다。

이 밤, 인식은 친구들끼리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저녁 답에야 어슬렁 어슬렁 돌아 오니, 아버지는 신부를 데리고 부산 해운대로 신혼 여행을 떠났다 한다。

인식은 자기 침실로 들어 갔으나, 이밤 부터 오래 잊었던 헛소리가 다시 시작 되었다。

몇번이나 소리를 치고 제풀에 깨어 났을때, 영창에는 꽃무늬가 가득 하다。

화르르 밀어 제친 영창 밖엔 달이 지붕 꼭대기에 공처럼 떠있다。

아버지가 신혼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전보를 받은 날, 인식은 또 츄렁크에 책을 집어넣고 진관사로 갔다。

『하필이면 연실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다니』

백번을 끱씹어도 해결 할수 없는 문제다。

인식은 내년에 졸업을 맞자면 학교로 가야 한다。졸업장만 쥐면 연실이가 살고 있는 이집에서 영원히 도망쳐 나올수도 있다。

인식은 부지런히 학교로 갔다。

벚꽃이 지고 오월의 신록이 천지를 푸름으로 물들이는 아침이다。학교로 나가려고 신발을 신는 인식 앞에 하얀 손이 나타났다。연실이다。

인식은 돌아 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엣우。아버님이 인천 가시면서 그리시든걸 봄 양복 마추라구』

하고 연실은 수표 한장을 내밀어 준다。인식은 귀머거리나 된듯 눈도 떠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리고 또 한달이 지나 갔다。

『육 이오』의 아침이 왔다。인식의 가족은 한 사람도 피난을 가지 못했다。

젊은 사람들이 마구 길에서 의용군으로 끌려 간다는 소문이 높아지자 아버지는 인식을 안방 다락에다 숨겼다。

다락에 요를 펴고 누어 있는 인식의 귀에 아버지의 말소리와 연실의 우슴소리가 너무도 가까히 들렸다。

인식은 누운 자세를 고쳤으나 두 사람의 도란거리는 소리는 켓전을 파고 든다。

인식은 몇번이나 후회를 했다。그때 불이 벌언 대리미로 영창을 부수는 대신

『저 여인의 얼굴을 망가치지 못했든고』

낮이 되어 아버지가 외출을 하고 나면 다락 문이 열리고 참외가 한두개 쟁반에 받혀드려 온다。

심심도 하고 사실상 배도 곺아 인식은 참외를 어적 어적 깨물어 먹었으나 연실에게 감사할 맘은 조금도 없다。

인식은 소스라쳐 놀랐다。안방만 들어서면 다락이 보이는데。

『여기가 내 은신처가 될수 있을까?』

인민군이나 민청원이 잡으려 올때 연실이가 다락 쪽으로 눈만 한번 꿈적 하면 만사휴어다。

인식은 참외를 깎든 창칼을 꺼꾸로 쥐었다。안방 천정으로 들어갈 구멍을 뚫기로 한것이다。

뚜두둑 댓가지가 떨어지고 흙도 쏟아지는 소리를 연실이가 듣는지도 모른다。어쨌든 인식은 자기가 들어 가서 엎으릴만한 구멍을 마련 하고야 말았다。

흙이며 댓가지 같은것을 마당으로 난 창으로 쓸어 내고 인식은 또 번드시 누어 버렸다。

아슬 아슬하게도、

그날 저녁답 마당에서 찾는 소리가 난다。민청원 두사람과 따발총을 지닌 인민군 한사람이 인식을 찾는것이다。

인식은 재빨리 지붕 아래로 파놓은 구멍으로 들어 갔다。

없어요。』

딱 잡아떼는 연실의 말소리가 들린다。

『있다는걸 알고 왔는데요。』

『시골 갔어요。벌써 열흘이나 됐는걸』

『그럼 우리가 찾어 봐도 괜찮죠?』

하고 민청원이 방으로 들어 온다。

『어마! 남의 내실에 왜 함부로 들오세요?』

하는 연실의 발악 쯤 민청원의 뒤에는 어데 개가 짖는냐는듯、그는 대뜸 다락 문을 열어 재쳤다。

『안돼요。 거긴 아무도 없어요。』

『안돼긴 이리 비켜나요。』

연실이가 젊은 자의 팔에 밀치우는지 꿍 하고 벽이 울린다。 휘휘 사방을 둘러본 민청원은 실망 한듯

『어데로 샜을까?』

중얼거리고 돌아가 버렸다。 민청원이 돌아 간뒤 십분이나 됐을까 아버지가 들어 오셨다。

마루로 올라서든 아버지는 당황한 소리로

『아니 제 사람이 왜 저렇게구 있어!』

하고 방으로 뛰어 들며

『여보! 여보! 정신 차류』

하고 연실의 몸을 흔든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절을 했을까? 여보 식모 어서 가서 의사 좀 데려오우。』

인식의 아버지는 손수 부엌에 가서 물을 떠 왔다。 인식이가 다락에서 뛰어 내려와 연실의 입에 수깔로 찬물을 퍼넣었다。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고 서야 정신이 돌아온 연실은 첫번에 하는 말이

『인식은 부뚤려 갔으니 어떻거문 좋아요?』

하고 몸부림을 치는것이다。

『안부뚤려 갔어요。 여기 있어요。』

인식은 코등이 씨큰해서 두손으로 실연의 어깨며 팔을 주무르며

『정신 차리세요。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를 쳤다。 이듯날 낮, 또 참외가 두개 다락으로 올라 왔다。 인식은 참외를 드려놓는 연실의 손목을 부여 잡고

『어제는 고마웠읍니다。』

하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연실의 손등에 볼을 댔다。

『인식이 날 용서하겠소? 난 인식의 순정을 농락 하려는 맘은 꿈에도 없었소。죽은 줄만 알고 있었든 남자가……』

『그 얘긴 그만 둡시다。단지 약혼한 남자를 가지고 왜 사촌이라 했는지 오늘 까지 풀지못할 수수께끼랍니다。』

『그걸 몰라요? 인식이! 죽어버렸다고 생각 하는 남자、사촌이라면 어떻고 오빠라면 어때요。내가 약혼한 남자라고 지적함으로서 인식의 맘을 상해 주기 싫어서 그랬어。……』

연실은 고개를 흔들고

『난 그뒤 축복이 없었어。결혼한지 석달만에 그이가 발병 하고 병원에 입원 해서 석달 앓다가 죽어버렸다우。숱한 입원비 물 길이 없어、그 병원 부속 간호 학교에 선생으로 취직해서 여지껏 병비를 물었으니。』

『……』

『여기저기 후처로 오라는 데가 많았어 그렇지만 난 김일우씨를 택한건 까닭이 있었어。』

여기까지 말을 한 연실은 목이 메인다。

『사십미만의 실업가도 있고 사십대의 부호도 있었지만 오십을 넘은 김일우씨를 택한건 난 인식이와 한 집에서 살고 싶었기때문이야。』

『……』

『인식이가 토라진 몰골을 볼때 마다 난 가슴이 메여졌어…… 그렇지만 토라졌다는건 결국 내게 대한 사랑이 남아 있는 증거니까 난 오히려 맘이 든든 하다구。』

『……』

인식은 잠잠고 듣고 있는 동안 가슴에서 무언지 스르르 풀려 나가는 것이 있다。

가지에 걸렸든 연이 훨렁 벗어져 대공으로 날으는것 같기도 하고、어찌면 바위틈에 얼어 붙었든 어름이 봄기운에 녹아 흘러 가는듯 그렇게 풀려 나가는 기분이다。

『그래도 난……。』

인식은 고개를 흔들고

『당신 에게대한 미련 이랄까 분노랄까, 그러한 내 애욕을 어떻게 처리할지, 난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인식이, 우린 새로운 윤리도 사랑해야 해。난 인식이 어머니란걸 기억해줘』

『어쩌서 당신이 내어머니죠? 당신은 내아버지의 아내는 될지언정 내 어머니는 될수 없어요。』

『……』

이번에는 연실이가 잠잠해 버렸다。그리고 또 몇날이 흘러갔다。아들의 안위만 걱정 하고 정작 자기의 위험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던 김일우씨는 어느 날 외출 한채 돌아 오지 않았다。

내무서로 몇번이나 가서 남편의 안부를 물었으나 연실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왔다。

어느 날 민청원이 또 왔다。다짜고짜 다락 문을 여는 민청원 앞에 연실은 두팔을 벌렸다。

민청원은 연실을 뿌리치고 기어히 다락문을 열어 젖혔다。연실은 참외를 깎든 과도를 접어 들자 번개 처럼 민청원의 뒷통수를 향해 내리 꽂았다。

민청원은 비명을 친다。

『동무! 동무! 여기 굉장한 반동분자가 있어。스파인지도 몰라。』

민청원은 피를 철철 흘리며 마당으로 내려서자 탁 꼬꾸라졌다。

대문에서 파수 하고 섰든 인민군이 마루로 뛰어 오른다。아직도 피가 묻은 과도를 쥐고 있는 연실은 이번에는 또 인민군에게로 달려 들었다。

『한 걸음만 들어 서면 찌를테야!』

『뭐! 찔러? 찔러 봐』

하고 스므살이나 되어 보이는 인민군은 총대를 거꾸로 울러메자 연실의 골통을 내리쳤다。

비쌀거리는 연실의 정수리에 두번째의 개머리판이 내리치는 순간 연실은 벌덕 뒤로 자빠졌다。

인민군은 요새 새로 얻어 신은 미군 군화 발을 꺼뜩 치켜 들자 연실의 얼굴을 지근지근 밟아버렸다。

호수 처럼 서늘 하던 연실의 눈이며 그 호수를 잔잔히 미치는 초생달 같은 연실의 눈섭이며 코며 입이며, 모두 함께 으

깨어졌다。

인민군은 그래도 맘이 안줄이는지 총뿌리를 연실의 목에 대고、탕 한방을 쏘고 마당으로 뛰어 내려

『동무 동무 정신 차려요。』

하고 쓸어져 있는 민청원의 한팔을 어깨에 메고 짓쓱 짓쓱 대문으로 나가버렸다。

한참만에 식모가 대문을 달아거는 소리가 난다。

인식은 지붕 아래 뚫어 놓은 구멍에서 기여나와 다락을 내려 왔다。

인식은 뒤로 자빠져 있는 연실의 시체를 얼싸 안았다。

눈 인지 코 인지 분간할수 없는 연실의 얼굴을 드려다 보고 인식은 소리를 내어 울었다。

시시로、대리미로 쳐서 뭉게 버리지 못한 것을 후회 하든 연실의 얼굴이 였다。

지금 원한이 살아진、아니 마땅히 감사를 해야할 이순간 연실의 얼굴을 인민군이 어깨어놓고 가다니。

사방이 어두어 오는것은 해가지는 까닭이리라。

인식은 피흐르는 연실의 얼굴을 언제까지나 드려다보고 앉었다。

『실연이가 이렇게 까지나 나를 위해서!』

인식은 뼈가 으스러 지는듯한 회한에 잠기고 말었다。

밤이 점점 깊어갈수록 연실의 어깨어진 얼굴은 본래의 얼굴로 돌아가는것만 같다。

연실은 입을 열어 말을 하는것도 같다。

『내가 김일우씨를 택한것은 인식이와 한집에서 살고싶어서 그랜거야。』

『오오、당신의 사랑——』

이제야 인식의 폐부속으로 아니 골수속으로 스며드는 연실의 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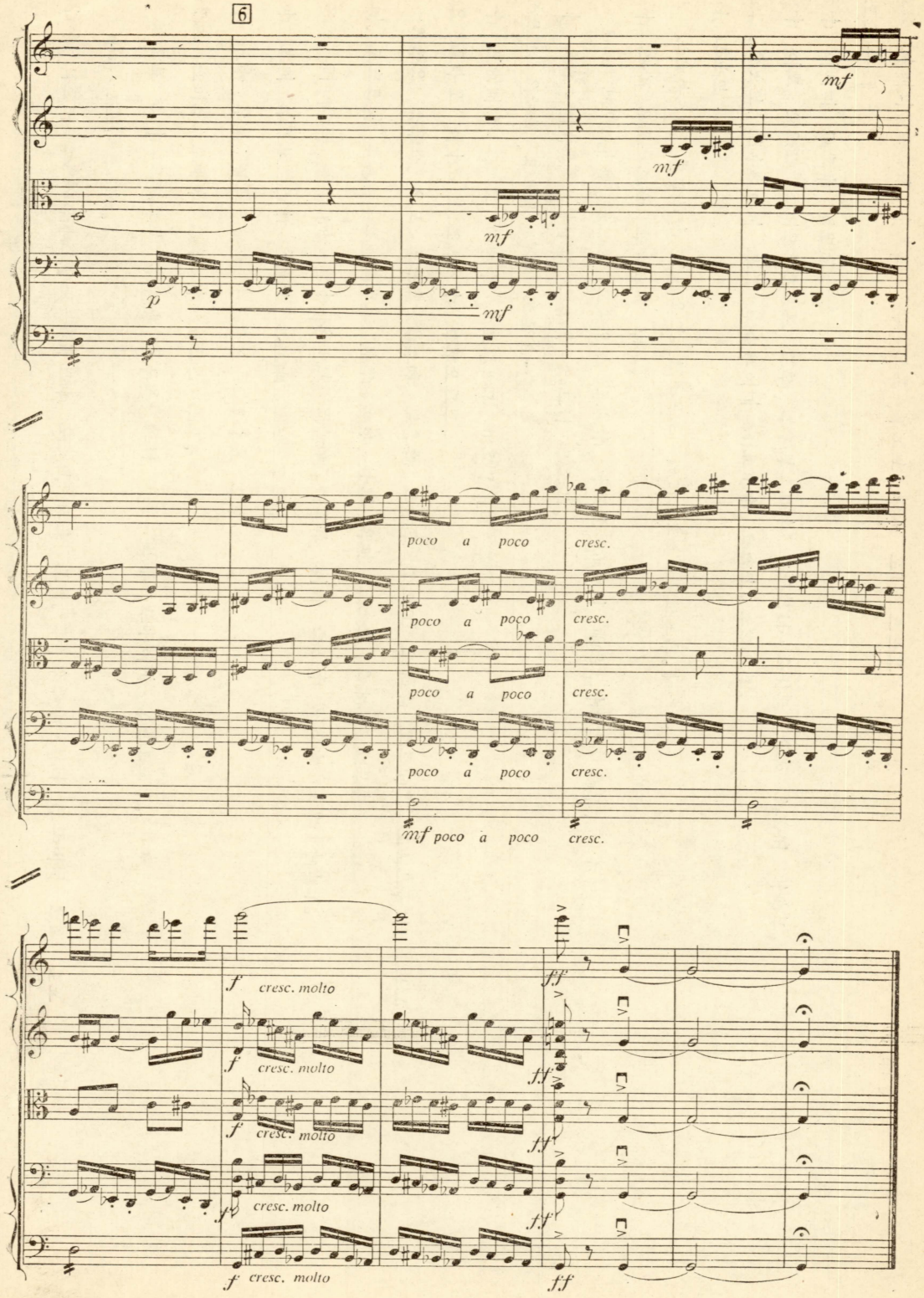
이것은 오래 잊었던 성모마리아에게 대한 사랑과 같은 경건하고 성스런 사랑 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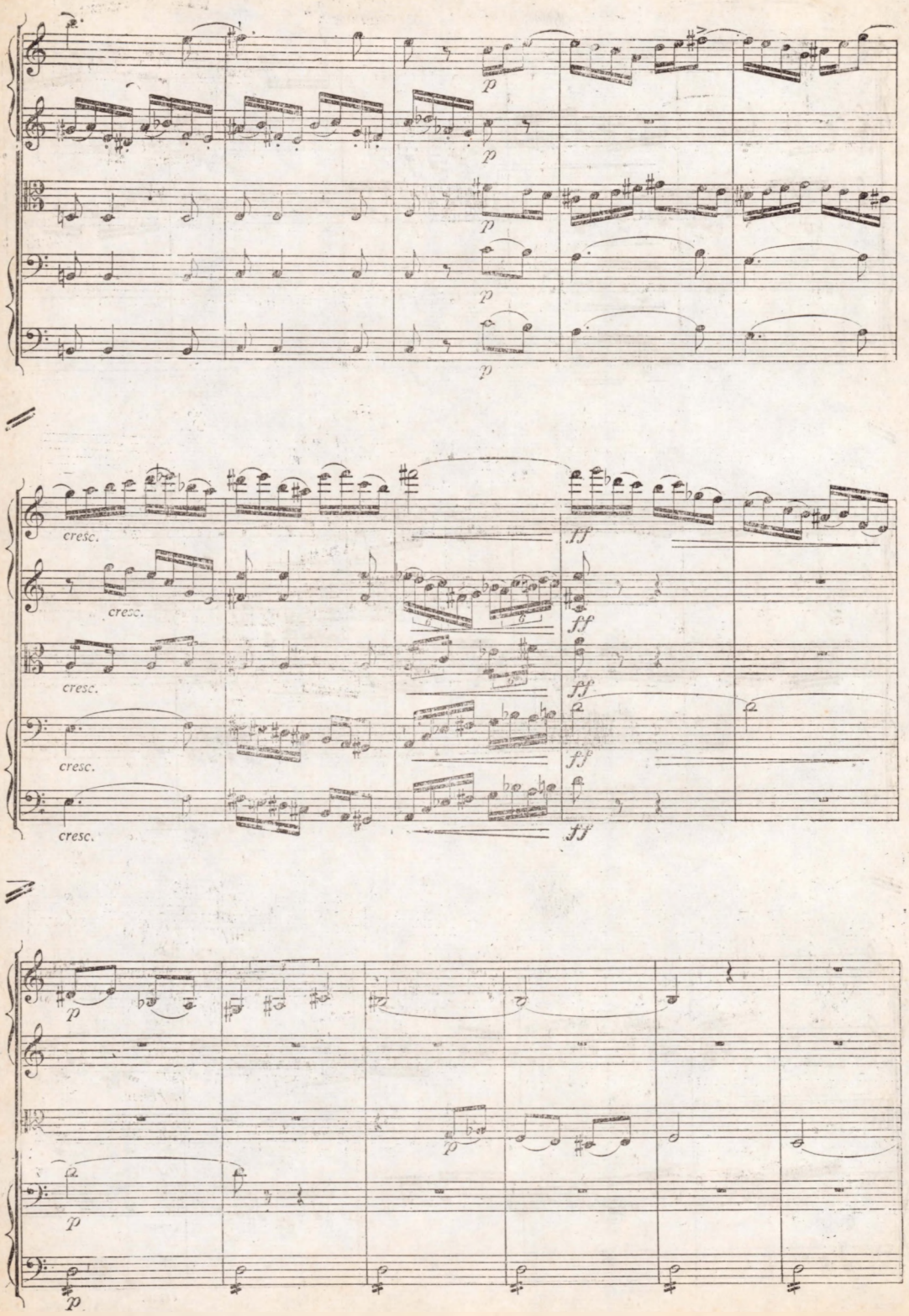
인식은 으르르 떨리는 소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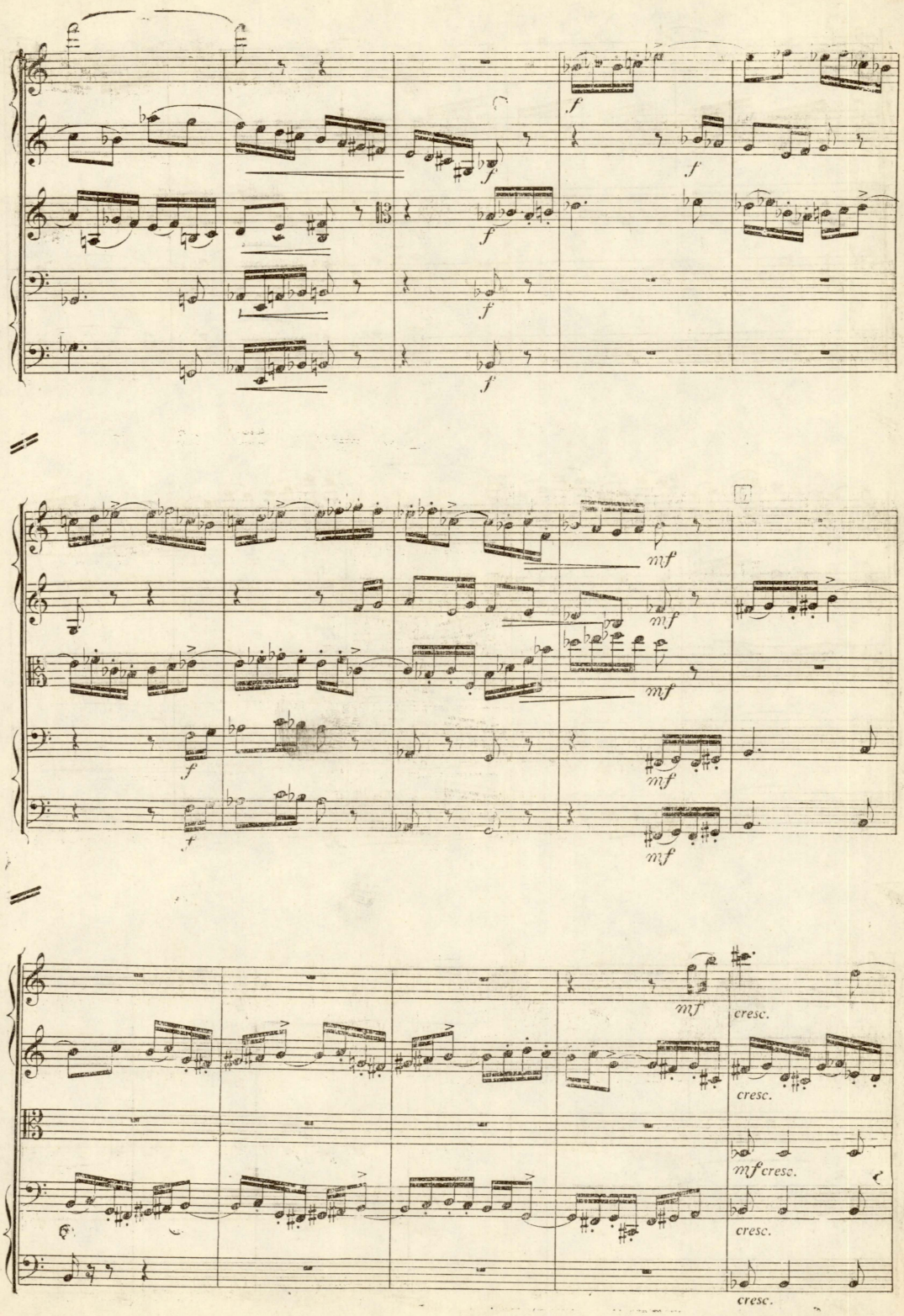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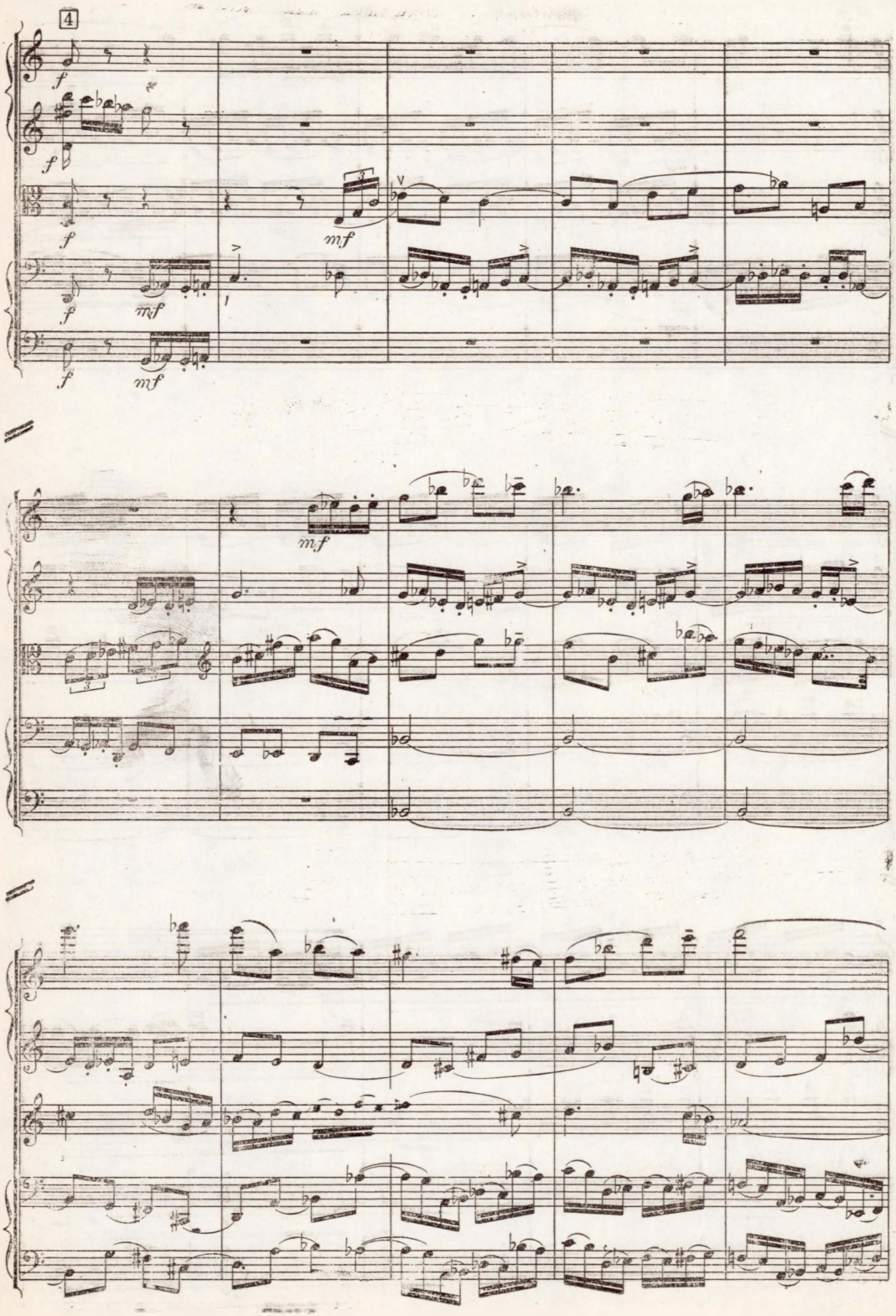
소리쳐 부르고 연실의 뭉게진 얼굴 위에 자기의 볼을 대고 비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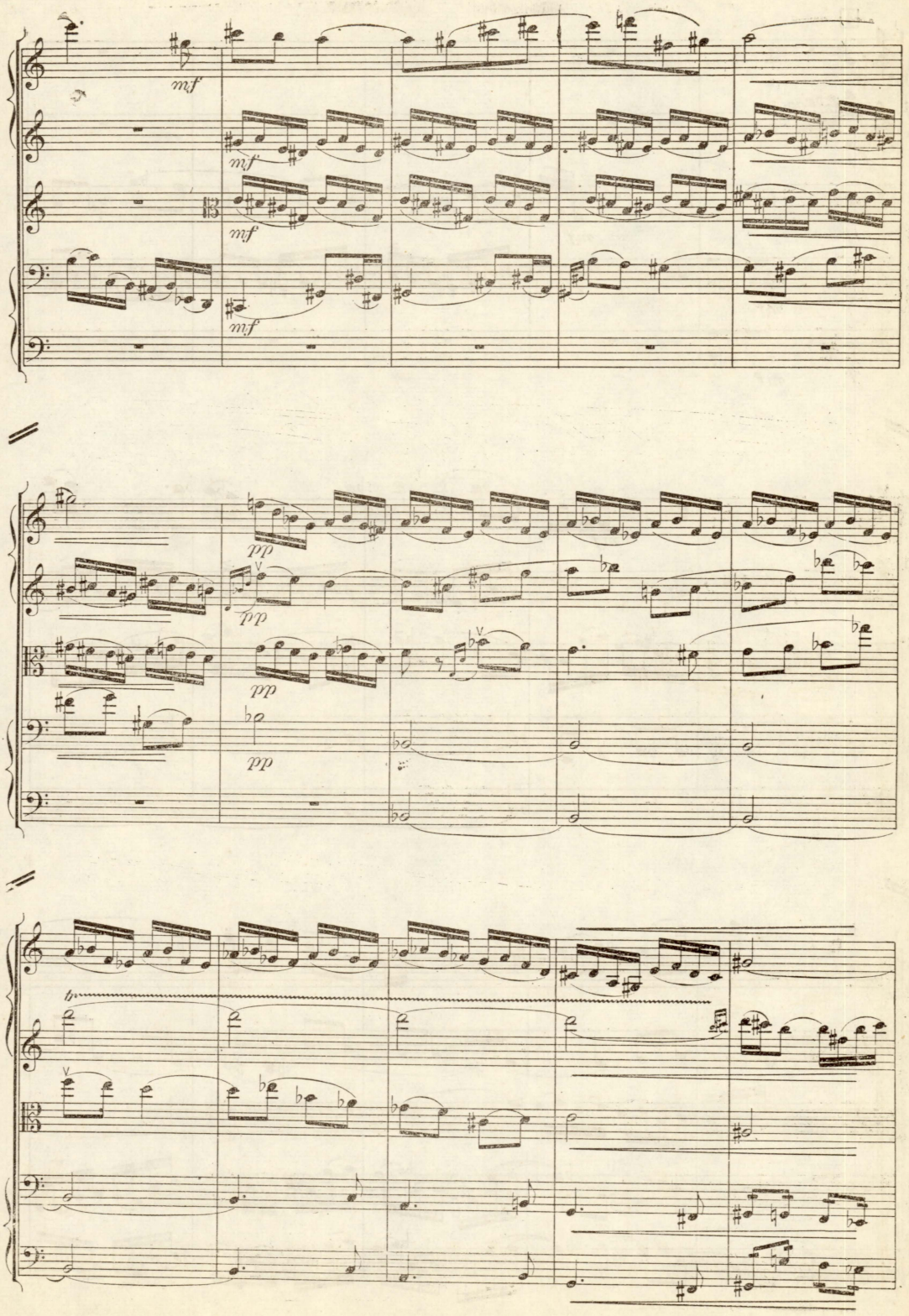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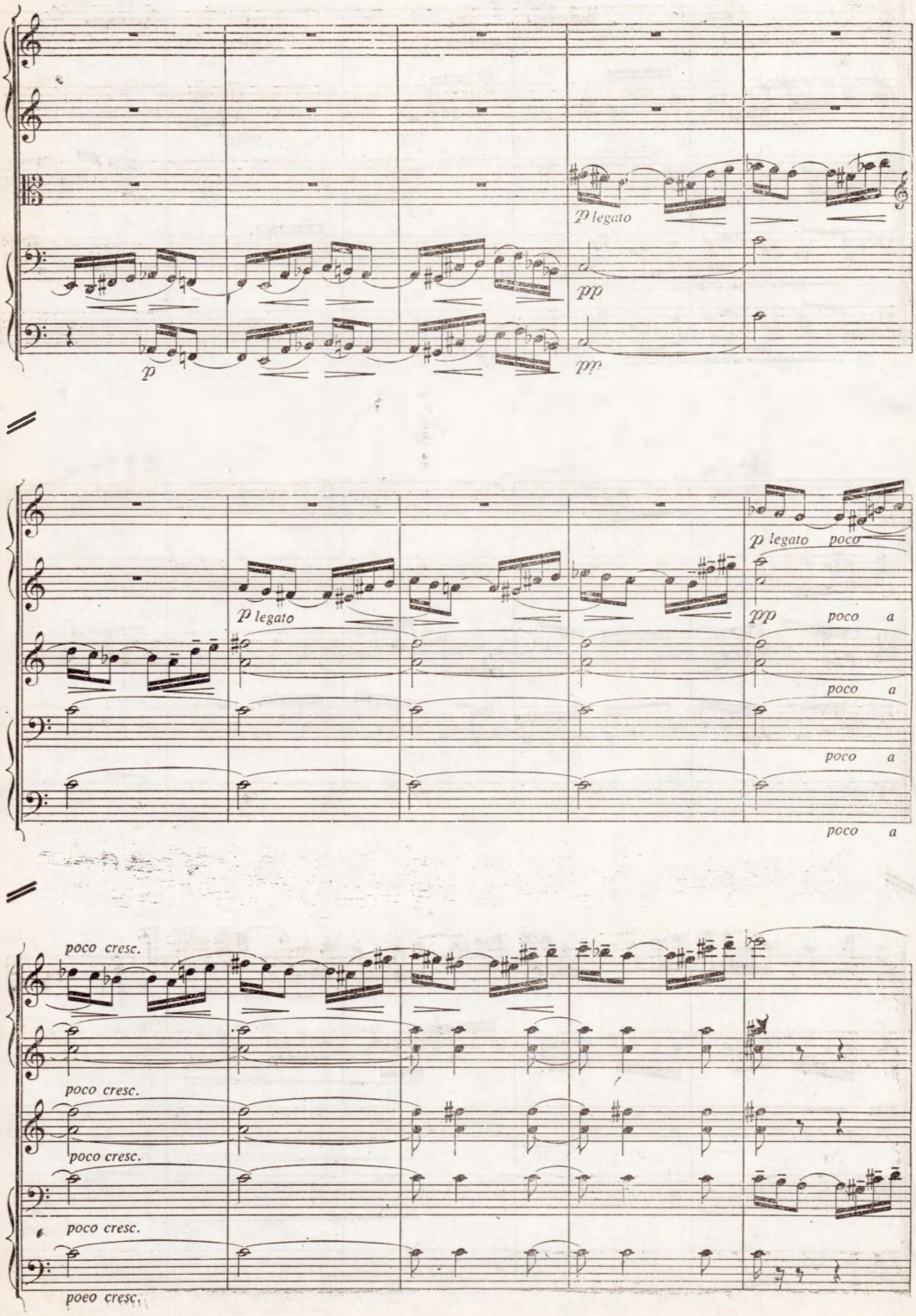

6
mf
mf
mf
p
mf
poco a poco
cresc.
poco a poco
cresc.
poco a poco
cresc.
poco a poco
cresc.
mf poco a poco
cresc.
f cresc. molto
f cresc. molto
f cresc. molto
ff
ff
ff
ff
f cresc. molto
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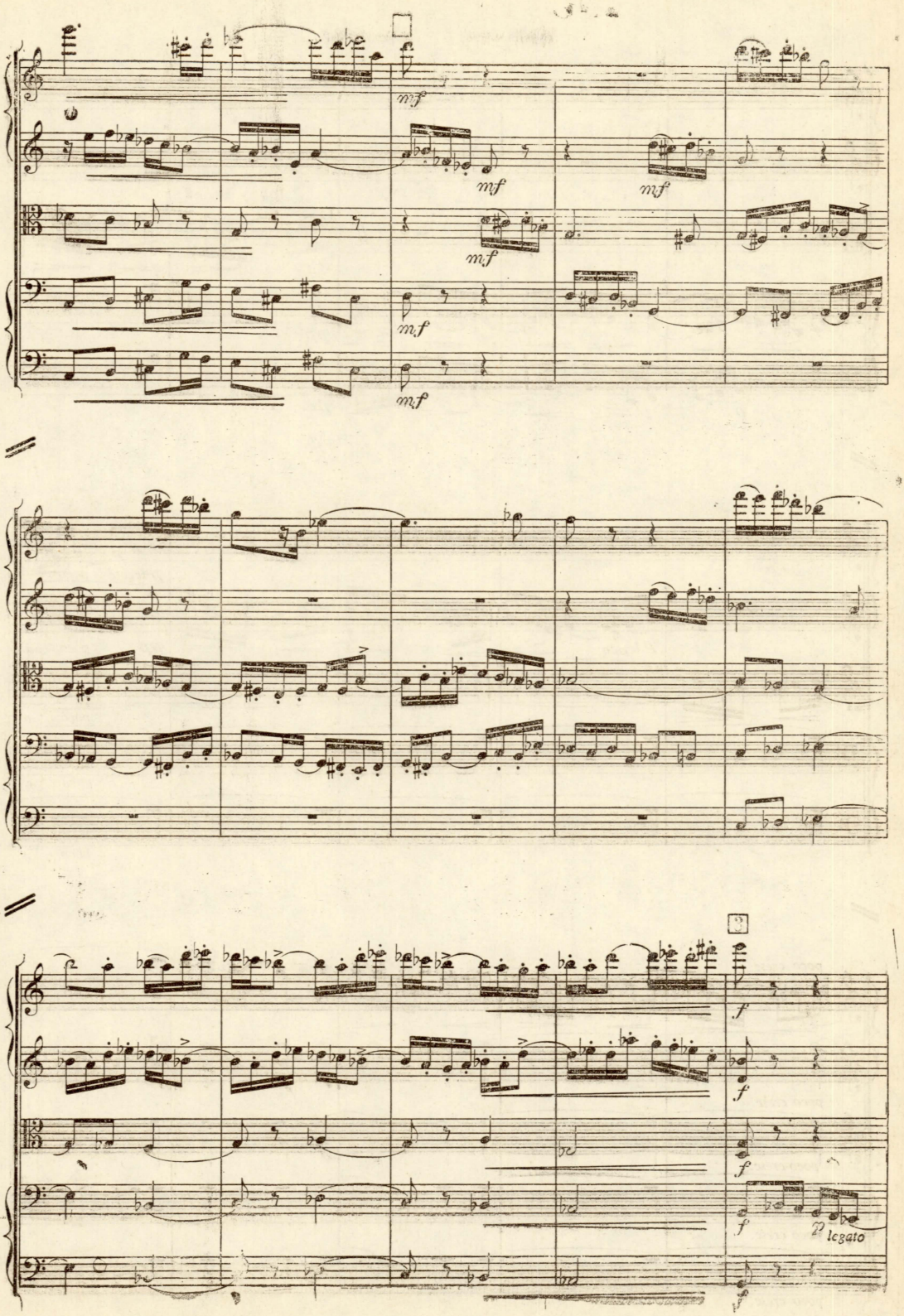

p
cresc.
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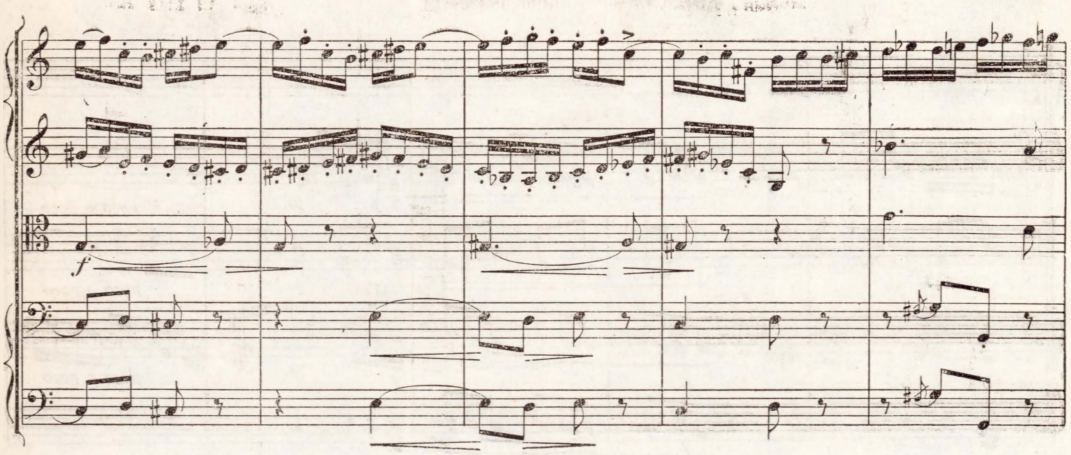

f
mf
cresc.
mf cre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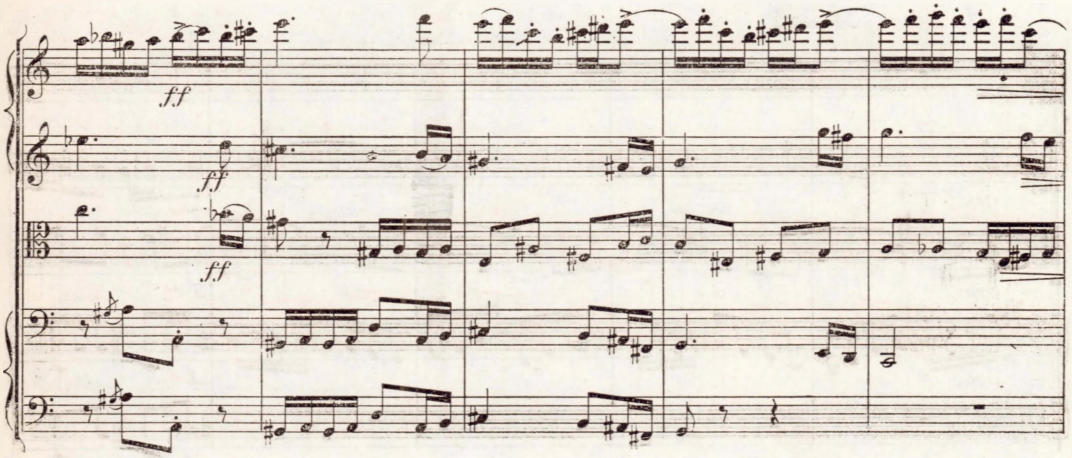

4
f
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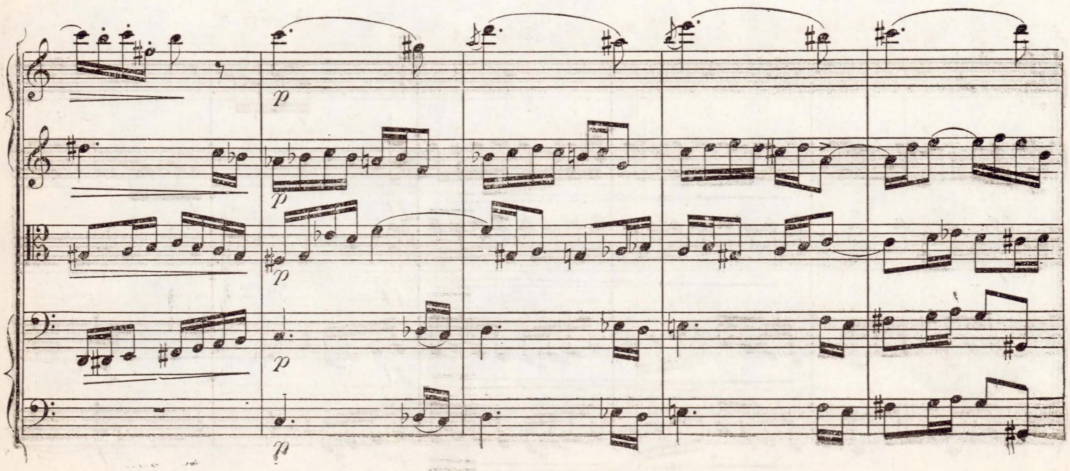

mf
mf
mf
mf
pp
pp
pp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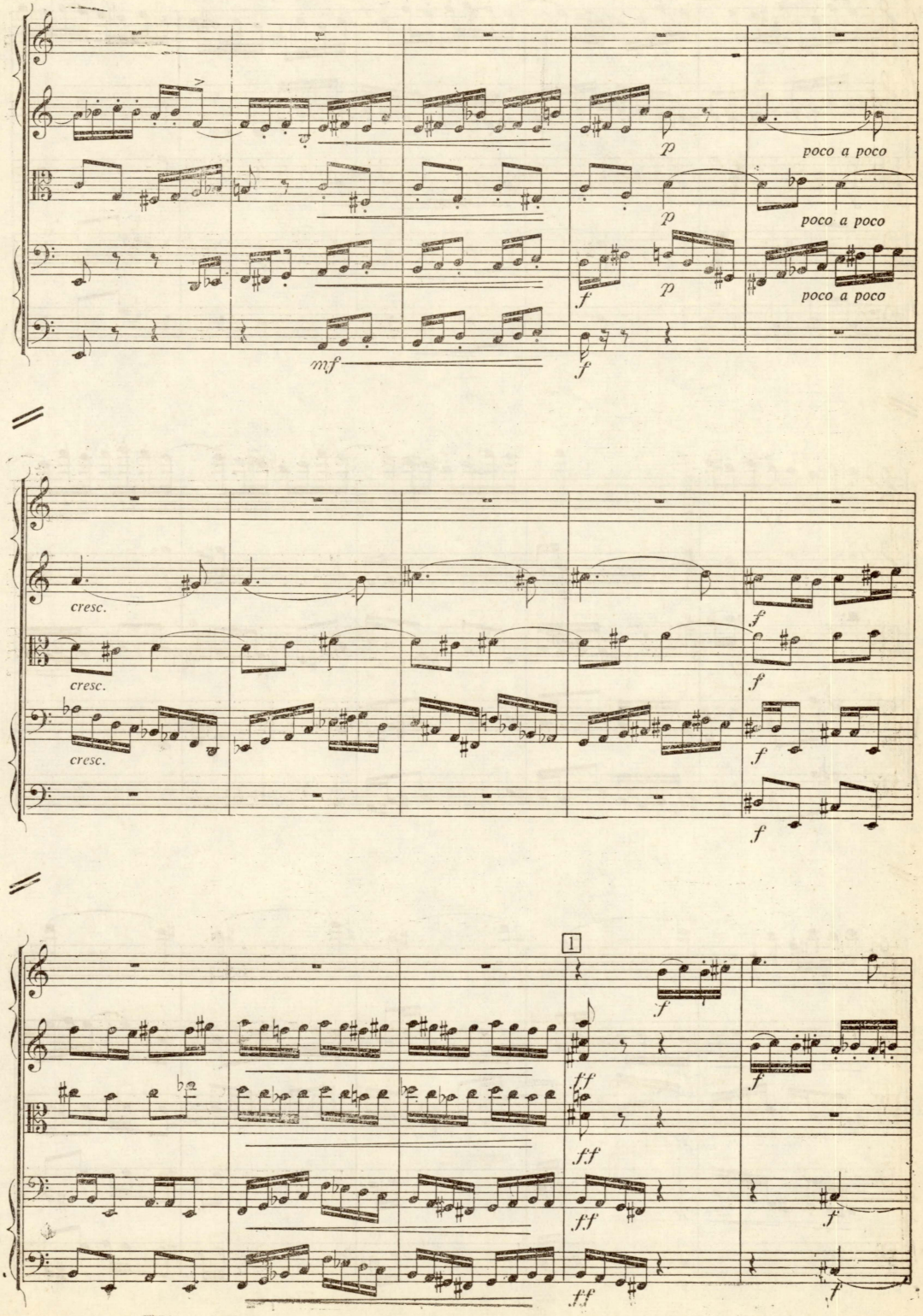

p legato
pp
p
p legato
pp
p legato poco
pp poco a
poco a
poco a
poco a
poco cresc.
poco cresc.
poco cresc.
poco cresc.
poco cre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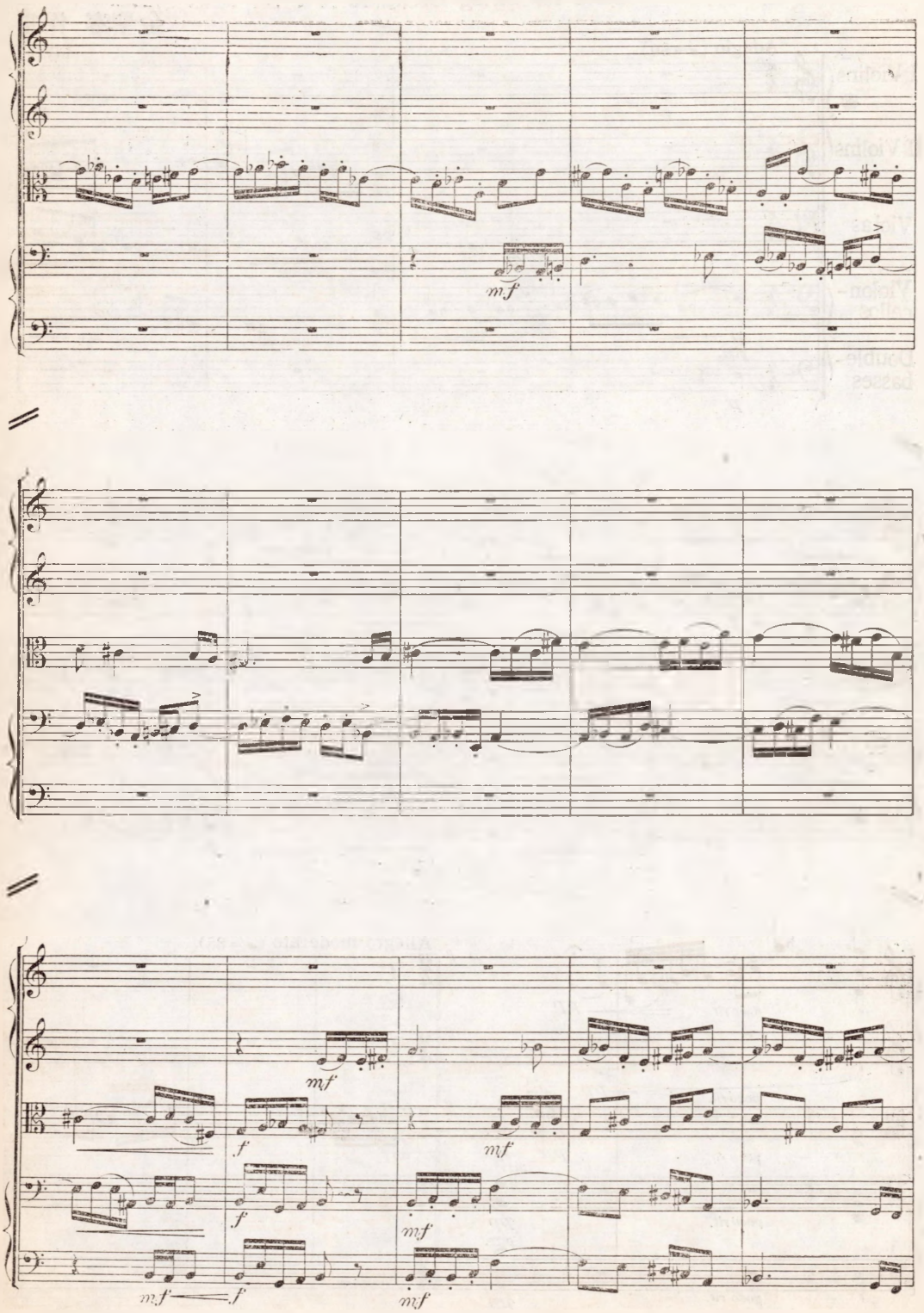

mf
mf
mf
mf
mf
f
f
f
f
p legato


f


ff
ff
ff


p
p
p
p


mf
p
poco a poco
p
poco a poco
f
p
poco a poco
f
cresc.
cresc.
cresc.
f
f
f
f
1
f
ff
ff
ff
f
f
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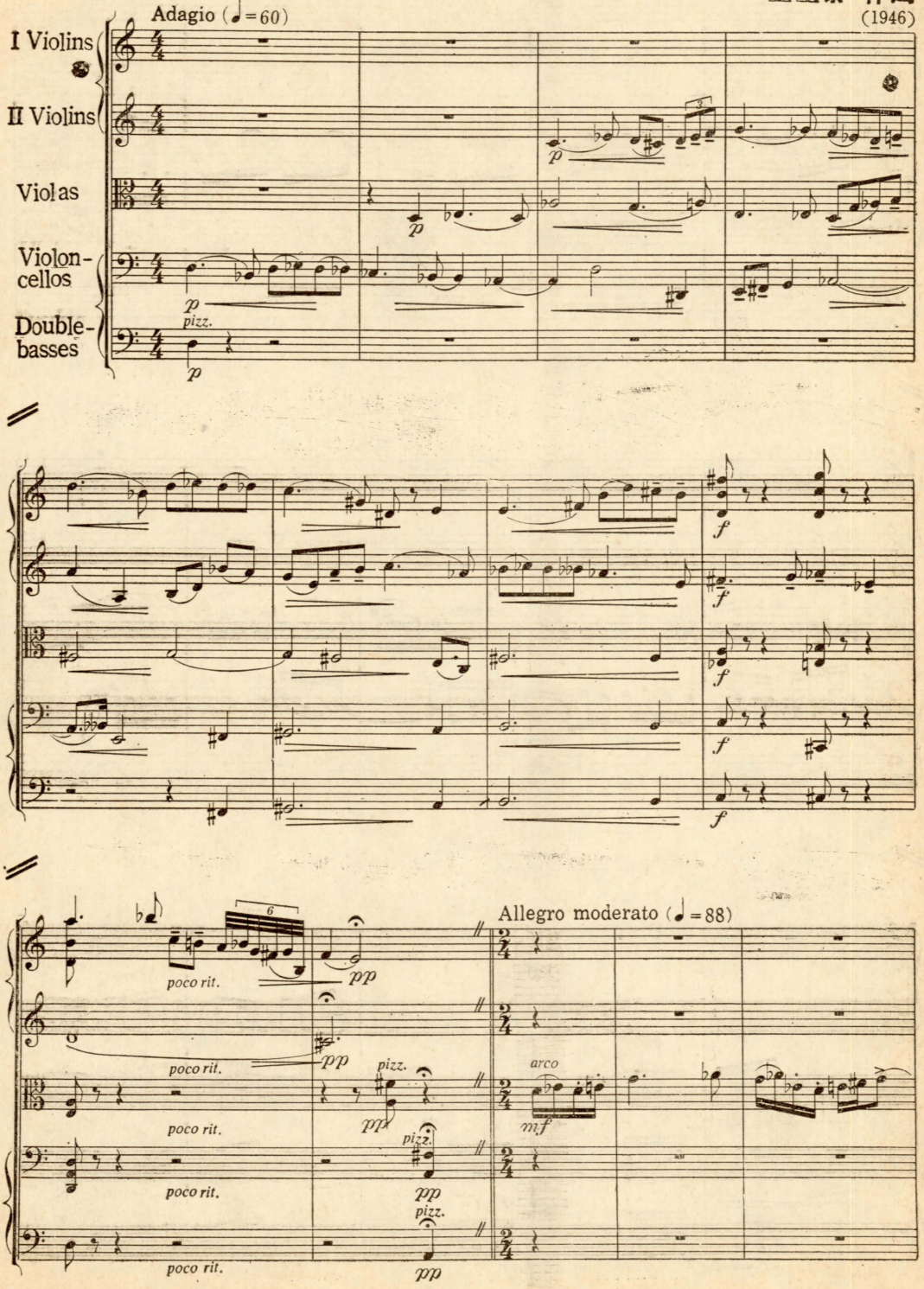

mf
mf
f
f
mf
mf
mf
mf
f

IV Finale (Fugue)

—Suite for String Orchestra 중에서—

金聖泰 作曲

(1946)



編輯後記

藝術院報를 編輯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原稿難이였다。이번 第三號도 原稿를 請託해 놓고 걱정한것은 期日까지 磨勘되지 못하거나、短時日內에 入札에 부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焦燥했던 心境을 禁할수 없었다。

文學、美術、音樂、演藝、四分科에 걸쳐 多彩롭게 세워진 푸랭이 뜻대로 않된것은 執筆해 주실 분들이 그만큼 바쁘시다는 證左인데도 不拘하고 이만한 豪華로운 內容으로 만들수 있은것은 會員諸氏의 執意라고 생각할때 感謝의 뜻을 숨길수 없는 同時에 編輯子의 勞苦도 헛되지 않았음을 自慰하고 싶다。

또하나 院內의 喜事가 있다。職制가 公布됨에 따라 事務局長에 崔台鎬氏가 就任하였으니 院務에 圓滑을 期할것이요、한자리에서 五六年間이나 苦樂을 가치하던 趙海山氏가 學藝官으로 發令되었으니 이는 忍苦之榮이 아닐수 없다。

朴琦遠

檀紀四二九二年十二月一日 印刷
檀紀四二九二年十二月二十日 發行 (非賣品)

藝術院報第三號

編輯兼發行人 朴鍾和
印刷人 玄濟明
發行處 大韓民國 藝術院

빈 면

빈 면